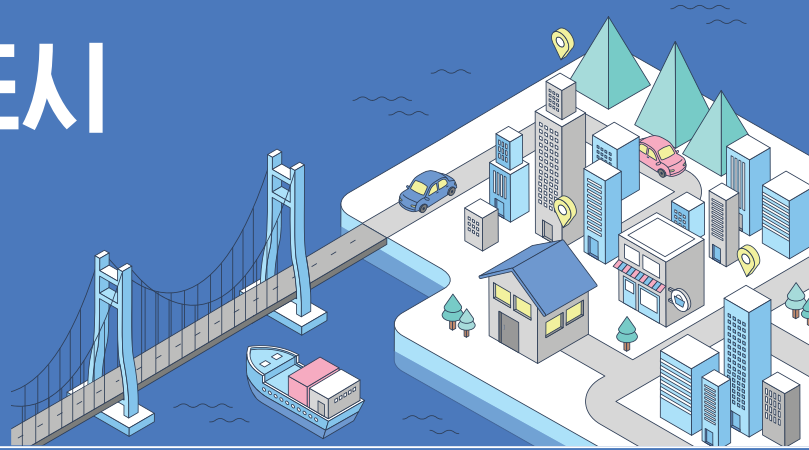


# 태안군 신해양도시 미래비전 연구

최종보고서



2021. 04.





# 태안군 신해양도시 미래비전 연구

최종보고서

2021. 04.





---

# Contents

##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배경 및 목적 .....	3
1. 배경 및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	4
제2절 범위와 절차 .....	5
1. 연구의 범위 .....	5
2. 추진절차 .....	6

## 제2장 新해양도시 개념 및 여건

제1절 신해양도시의 개념 .....	9
1. 문제의식 .....	9
2. 신해양도시 정의 및 구성요소 .....	9
3. 충남연안 해양도시 동향 .....	10
제2절 해양수산 현황 및 여건 .....	13
1. 해양수산업 정의 및 특성 .....	13
2. 해양수산의 여건 및 전망 .....	16
제3절 해양수산 상위계획 검토 .....	32
1. 국가 해양수산 관련계획 .....	32
2. 충청남도 해양수산 관련계획 .....	42
3. 태안군 해양수산 관련계획 .....	50
제4절 신해양도시 선진사례 검토 .....	55
1. 신해양도시 선진사례 소개 .....	55
2. 선진사례를 통한 태안모델 제시 .....	61

## 제3장 新해양도시 현황 및 여건분석

제1절 태안군 기본현황 .....	65
1. 태안군 일반현황 .....	65

2. 태안군 해양수산 현황 .....	72
제2절 신해양도시 주민인식 조사 .....	88
1. 조사개요 .....	88
2. 분석결과 .....	89
3. 결론 및 시사점 .....	104
제3절 신해양도시 SWOT 분석 .....	106
1. 태안군 해양수산의 대내적 특성 .....	106
2. 태안군 해양수산의 대외적 여건 .....	110
3. 태안군 해양수산 SWOT 분석 .....	113

## 제4장 비전 및 추진계획

제1절 비전 및 목표 .....	119
1. Key word 분석 .....	119
2. 기본방향 및 접근방법 .....	121
3. 기본구상 및 비전·전략 .....	126
4. 세부사업 .....	130
제2절 세부 실천사업 .....	131
1. 최첨단 과학도시 .....	131
2. 건강한 치유도시 .....	164
3. 친환경 생태도시 .....	203
4. 스마트 수산도시 .....	235
5. 포용적 교류도시 .....	268
제3절 공간 중점 프로젝트 .....	298
1. 공간계획 .....	298
2. 중점 프로젝트 .....	301

## 제5장 관리 및 투융자 계획

제1절 신해양도시 관리계획 .....	317
1. 신해양 도시브랜드 구축 .....	317
2. 주민참여 및 공감대 형성 .....	321
3. 신해양도시 조직체계 .....	322

제2절 사업의 우선순위 .....	325
1. 우선순위 원칙과 방법 .....	325
2. 우선순위 분석결과 .....	326
3. 사업별 우선순위 평가 .....	332
4. 사업별 추진일정 .....	334
제3절 투·융자 계획 .....	336
1. 해양수산 예산현황 .....	336
2. 투·융자 계획 .....	338

## 표 목 차

〈표 2-1〉 충남연안 시·군의 해양수산 동향 .....	11
〈표 2-2〉 수산분야 공익형직불제 .....	21
〈표 3-1〉 태안군 인구변화 추이 .....	67
〈표 3-2〉 태안군 고령 인구비율 현황 .....	67
〈표 3-3〉 태안군 GRDP 추이 .....	68
〈표 3-4〉 충청남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2017) .....	68
〈표 3-5〉 충남 연안 시·군의 주요 산업별 사업체 수(2017) .....	69
〈표 3-6〉 충청남도 내 발전소 현황(2017) .....	70
〈표 3-7〉 충남연안 산업단지 현황(2018) .....	70
〈표 3-8〉 태안군 수출·입 현황 .....	71
〈표 3-9〉 태안군 수산물 수출·입 현황 .....	71
〈표 3-10〉 태안군 어업인구 현황(2019) .....	73
〈표 3-11〉 충남 어촌계 현황(2019) .....	74
〈표 3-12〉 태안군 어촌계 현황(2019) .....	74
〈표 3-13〉 충청남도 어업권(2018) .....	75
〈표 3-14〉 충청남도 양식어업권(2018) .....	75
〈표 3-15〉 태안군 수산물 어획고(2018) .....	76
〈표 3-16〉 충청남도 어선현황(2018) .....	77
〈표 3-17〉 태안군 어항 현황 .....	77
〈표 3-18〉 충청남도 어항 현황 .....	78
〈표 3-19〉 충남 해수욕장 이용관광객(2018) .....	79
〈표 3-20〉 태안군 해수욕장 현황 .....	79
〈표 3-21〉 태안군 도서(섬) 현황 .....	80
〈표 3-22〉 태안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현황 .....	81
〈표 3-23〉 우리나라 해안선 길이 (상위 10위) .....	84
〈표 3-24〉 충청남도 해안선 길이 .....	84
〈표 3-25〉 전국 갯벌면적 .....	85
〈표 3-26〉 충청남도 항만시설 현황 .....	87
〈표 3-27〉 응답자 일반특성 .....	88
〈표 4-1〉 태안 해삼산업 일반현황 .....	238
〈표 4-2〉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개념 .....	243
〈표 5-1〉 사업별 중요도 평가 .....	333
〈표 5-2〉 사업별 추진일정(1) .....	334
〈표 5-2〉 사업별 추진일정(2) .....	334
〈표 5-3〉 태안군 신해양도시 연차별 예산규모 .....	340

〈표 5-4〉 태안군 신해양도시 자원별 예산규모 .....	340
〈표 5-5〉 태안군 신해양도시 시기별 예산계획 .....	342
〈표 5-6〉 태안군 신해양도시 자원별 예산계획 .....	343

##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	5
〈그림 1-2〉 연구의 내용적 범위 .....	6
〈그림 2-1〉 3대 해양자원과 도시의 조건 .....	10
〈그림 2-2〉 해양산업의 중요도 및 시급도 매트릭스 .....	12
〈그림 2-3〉 해양수산업의 분류 .....	15
〈그림 2-4〉 해양산업 분야별 부가가치 비중(2010 vs 2030) .....	17
〈그림 2-5〉 광역지자체 해양수산 주력사업 분포 .....	18
〈그림 2-6〉 해양수산 R&D 전체예산 추이 .....	19
〈그림 2-7〉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 .....	19
〈그림 2-8〉 연근해어업 생산량 .....	22
〈그림 2-9〉 어촌인구의 동향 .....	24
〈그림 2-10〉 어촌 지역소멸지수 전망(2045) .....	24
〈그림 2-11〉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전략 .....	25
〈그림 2-12〉 해양관광정책 추진방향 .....	26
〈그림 2-13〉 공유수면의 대규모 이용수요 .....	28
〈그림 2-14〉 해양공간관리계획 추진현황 .....	29
〈그림 2-15〉 한국갯벌 세계자연유산 현장실사 모습 .....	31
〈그림 2-16〉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비전도 .....	33
〈그림 2-17〉 해안권역별 구상도 .....	35
〈그림 2-18〉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비전도 .....	36
〈그림 2-19〉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위치도 .....	37
〈그림 2-20〉 수산업의 사람중심 혁신 .....	38
〈그림 2-21〉 수산업의 2030 미래상 .....	40
〈그림 2-22〉 어촌어항의 미래상 .....	42
〈그림 2-23〉 서해안비전 추진계획 비전도 .....	44
〈그림 2-24〉 충청남도 해양수산업발전계획 비전도 .....	46
〈그림 2-25〉 충청남도 어업·어촌 발전전략 비전도 .....	47
〈그림 2-26〉 충청남도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비전도 .....	48
〈그림 2-27〉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비전도 .....	50
〈그림 2-28〉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	51
〈그림 2-29〉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의 미래상 .....	51
〈그림 2-30〉 태안군 기본계획의 핵심가치 및 미래상 .....	54
〈그림 2-31〉 싱가포르항 전경 .....	57
〈그림 2-32〉 스웨덴 말뫼 전경 .....	58
〈그림 2-33〉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전경 .....	60

〈그림 2-34〉 태안 신해양도시 모습 .....	62
〈그림 3-1〉 태안군 지리적 위치 .....	65
〈그림 3-2〉 태안군 지리적 접근성 .....	66
〈그림 3-3〉 충청남도 연안지역 .....	72
〈그림 3-4〉 원산안면대교(솔빛대교) 모습 .....	73
〈그림 3-5〉 충남 어촌계 현황(2019) .....	74
〈그림 3-6〉 충청남도 무역항, 연안항, 어항 현황 .....	78
〈그림 3-7〉 태안군 체험마을 현황 .....	81
〈그림 3-8〉 태안군 축제현황 .....	82
〈그림 3-9〉 태안군 관광객 현황 .....	83
〈그림 3-10〉 서해안지역 보호지역 및 해안사구 분포현황 .....	85
〈그림 3-11〉 충청남도 소재 지정항만의 위치 .....	86
〈그림 3-12〉 태안군 해양수산 SWOT 분석 .....	114
〈그림 3-13〉 태안군 해양수산 SWOT 전략 .....	115
〈그림 4-1〉 태안군 Word Cloud 분석 .....	119
〈그림 4-2〉 태안 및 해양 Word Cloud 분석 .....	120
〈그림 4-3〉 태안 및 해양 의미연결망 분석 .....	120
〈그림 4-4〉 신해양도시 기본방향 .....	122
〈그림 4-5〉 태안의 해양·연안 자원 .....	127
〈그림 4-6〉 신해양도시 기본구상(안) .....	127
〈그림 4-7〉 태안군 인공지능 연구센터 조직(안) .....	135
〈그림 4-8〉 건강인과 질환자 모두를 위한 고부가 해양치유모델 .....	136
〈그림 4-9〉 UAM을 통한 항공운송 서비스의 활용범위 .....	138
〈그림 4-10〉 시기별 UAM 시장 변화 패턴 .....	139
〈그림 4-11〉 충남권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위치도 .....	143
〈그림 4-12〉 안흥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위치도 .....	145
〈그림 4-13〉 태안 해상풍력단지 위치도 .....	150
〈그림 4-14〉 수소에너지의 위치 .....	152
〈그림 4-15〉 수소의 에너지전환 과정 .....	154
〈그림 4-16〉 그린수소 생산-공급 개발단지 위치 .....	155
〈그림 4-17〉 블루카본의 탄소 흡수·배출 체계 .....	159
〈그림 4-18〉 KIOST 태안군 후보지 .....	161
〈그림 4-19〉 태안군 해양치유단지 기본구상 .....	167
〈그림 4-20〉 태안군 해양치유산업 방향 .....	168
〈그림 4-21〉 태안군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감도 .....	169
〈그림 4-22〉 태안군 해양치유센터의 역할 .....	170
〈그림 4-23〉 전국 해양레저 현황 .....	172
〈그림 4-24〉 해양레포츠 체험시설 및 안전교육센터 조감도 .....	175

〈그림 4-25〉 태안군 주요 해수욕장별 차별화 특화 구상도 예시	178
〈그림 4-26〉 해양레저 기구	183
〈그림 4-27〉 양양 서피비치	195
〈그림 4-28〉 해운대 스마트비치 시설	196
〈그림 4-29〉 태안해변길 및 태안해양역사체험길의 구성	200
〈그림 4-30〉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구상도	209
〈그림 4-31〉 부남호 역간척 조감도	213
〈그림 4-32〉 태안 기업도시 상업무단지(좌) 및 국제비즈니스단지(우)	216
〈그림 4-33〉 지속가능한 관광의 4요소 및 원칙	217
〈그림 4-34〉 생태관광(좌)과 생태관광의 틀(우)	217
〈그림 4-35〉 격렬비열도 챌린지 일주코스	221
〈그림 4-36〉 충남 어업유산 후보군	230
〈그림 4-37〉 어업유산 지정지구 어촌체험마을	232
〈그림 4-38〉 해양쓰레기 사냥대회	234
〈그림 4-39〉 태안 해삼산업 가치사슬별 실태 및 문제점	238
〈그림 4-40〉 스마트 양식장 통합운영 시스템	243
〈그림 4-41〉 태안군 외해 양식 테스트베드 후보지(안)	248
〈그림 4-42〉 전국 新수산물 유통망 확산 모델	249
〈그림 4-43〉 여수 낭만포차 전경	254
〈그림 4-44〉 강릉 강문해변 포토존	255
〈그림 4-45〉 일본 시모노세키 카라토 수산시장	256
〈그림 4-46〉 꽃게(좌)와 격렬비열도(우)	258
〈그림 4-47〉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추진체계	264
〈그림 4-48〉 한계마을정책 기본 틀 예시	265
〈그림 4-49〉 금산군 문화배달부 활동 사례	265
〈그림 4-50〉 (가칭) 태안군 신해양 주민총회 조직도	277
〈그림 4-51〉 전국 자원봉사자 연수원 위치	283
〈그림 4-52〉 사회적경제로 활용 가능한 태안 해양수산자원	289
〈그림 4-53〉 국도 38호(이원 ~ 대산) 노선도	293
〈그림 4-54〉 충북 증평군 죽리마을 귀농인의 집 사례	296
〈그림 4-55〉 전북 완주군 청년키움식당 사례	296
〈그림 4-56〉 태안군 공간별 특화계획	300
〈그림 4-57〉 해양치유 시범센터의 중심적 역할	303
〈그림 4-58〉 광개토 신해양관광 위치도	308
〈그림 4-59〉 태안군 ‘물의 도시’ 구상도	313
〈그림 5-1〉 세계 브랜드 도시 TOP 10	318
〈그림 5-2〉 파리, 시드니, 로마의 도시브랜드	319
〈그림 5-3〉 국내 관광도시 브랜드 및 관광 경쟁력 비교	320



〈그림 5-4〉 (가칭)태안군 신해양도시위원회 조직도 .....	324
〈그림 5-5〉 해양수산 및 지역정책 전문가 중요도 및 시급성 평가 .....	326
〈그림 5-6〉 태안군 공무원 중요도 및 시급성 평가 .....	327
〈그림 5-7〉 태안주민 중요도 평가 .....	328
〈그림 5-8〉 최첨단 과학도시 중요도 평가 .....	329
〈그림 5-9〉 건강한 치유도시 중요도 평가 .....	330
〈그림 5-10〉 친환경 생태도시 중요도 평가 .....	330
〈그림 5-11〉 스마트 수산도시 중요도 평가 .....	331
〈그림 5-12〉 포용적 교류도시 중요도 평가 .....	331
〈그림 5-13〉 태안군 예산규모(본예산) .....	336
〈그림 5-14〉 태안군 기능별 예산규모(본예산) .....	337
〈그림 5-15〉 부문별 소요예산(안) .....	339



#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배경 및 목적

제2절 범위 및 절차

제3절 연구의 체계



## 제1절 배경 및 목적

### 1. 배경 및 필요성

≫ 바다는 우리에게 경제적 가치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혜택 제공

- 바다의 가치를 깨닫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합리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정부 차원의 해양수산 정책 다수 추진
- 국가뿐만 아니라 연안에 위치한 지자체도 각자 자체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바다에서 찾고자 노력

≫ 우리나라 연안지역은 국가 경제·산업의 중요한 성장의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정주여건 불편 및 정책적 소외

- 우리나라 전체 GRDP의 약 32%, 전체 산업단지의 39.1%가 연안에 위치해 있고, 수출입 화물의 약 99.7%가 항만을 통하여 처리
- 충남 연안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는 34%, 주거여건 및 환경 만족도는 33% 불과

≫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부산이 해양수산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관련 행정, 연구, 산업 등 남동해안권으로 집중되어 서해안권 연안지역의 상대적 소외감 발생

- 바다가 삼면인 우리나라 해역의 차별성 및 지리적·경제적 입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오히려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지역 불균형 초래

≫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남 서해안 연안도시(태안)를 지역거점 신해양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통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 신해양도시는 ‘해양 및 연안지역에서 경제·산업, 국제교류, 역사·문화, 주거·생활 등 활동이 어우러지는 사람이 사는 친수도시’라고 정의 가능하고, 태안은 신해양도시로서의 충분한 여건 및 조건 구비

≫ 민선 7기 태안군은 ‘광개토 대사업’을 통하여 수도권, 충청권 등 인접 지역과 지리적 연계를 통한 발전을 도모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부남호 해수유통, 해양치유시범단지 조성 등 굵직한 지역 해양수산정책 선도

- 태안군은 해양수산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전략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해양산업과와 수산과를 분리·운영하여 환황해권 해양경제 거점도시로서 위상 구축

- 또한 국도 77호선 연결을 통한 보령 대천, 원산도와의 교통망 구축이 예정되어 있고, 태안 고속도로, 이원~태산 간 연륙교 건설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인프라 구축 추진

## 2. 연구의 목적

≫ 우리나라 서해안권의 대표 연안도시이자 충남 해양수산업의 중심지인 태안군을 신해양도시로 조성하여 지역발전 견인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 태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해양산업의 메카로서 육성
- 국민들의 휴식처이자 세계인들이 찾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관광 및 휴양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창출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이자, 국내·외 해양도시와의 교류를 선도하는 환황해권 거점 도시 위상 구축
- 해양생태자원의 보고로서 후속세대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세계적인 해양생태공간으로서 보전 및 활용
- 태안 연안에서 다양한 해양 (전통)문화와 예술을 꽃 피우는 서해안권 해양문화의 중심도시로서 위상 구축

≫ 태안의 신해양都市는 크게 과학도시, 치유도시, 생태도시, 수산도시, 교류도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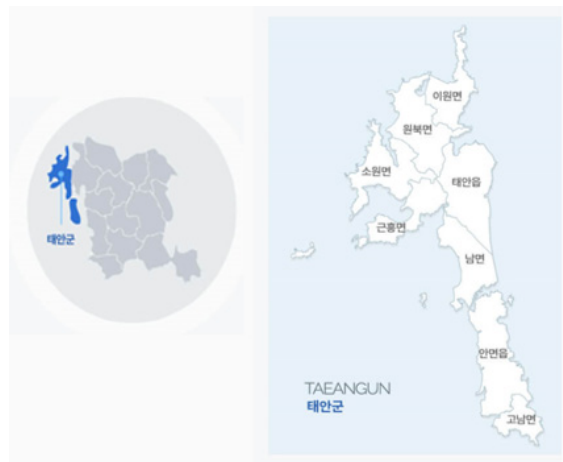
- 최첨단 과학도시 : 4차 산업혁명 대응하는 서해안 대표 해양과학기술 도시 조성
- 건강한 치유도시 :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친환경 생태도시 : 해양환경 및 연안생태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스마트 수산도시 : 수산업·어촌의 가치를 보전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 포용적 교류도시 : 충남 서해안을 넘어 환황해권 대표도시로서 위상 강화

## 제2절 범위와 절차

### 1. 연구의 범위

#### ≫ 공간적 범위

- 태안군 해양수산 자원을 활용한 파급효과가 있는 郡 전역을 비롯한 환황해권에 미칠 수 있는 범위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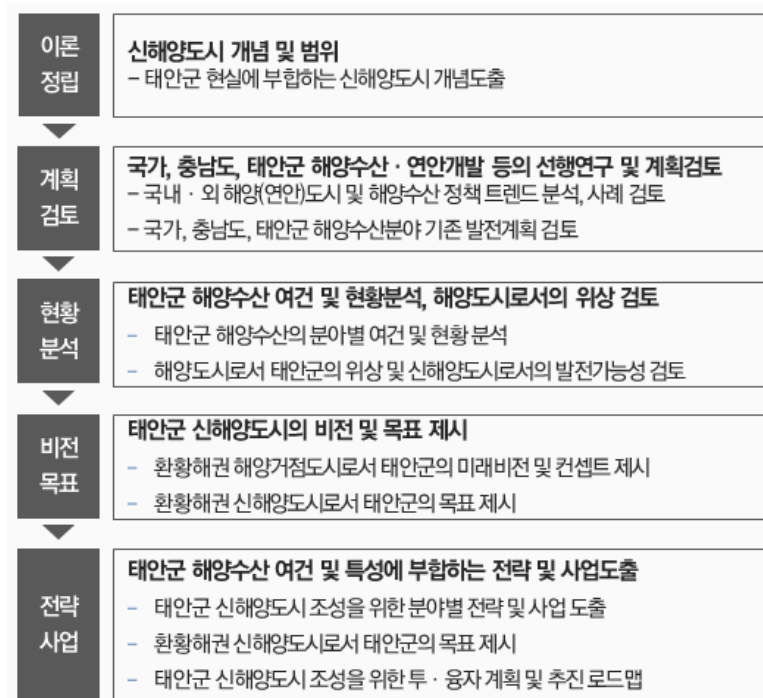
#### ≫ 시간적 범위

- 계획년도 : 2021년 ~ 2040년 (20년간)
- 기준년도 : 2019년 (자료활용 기준년도)
- 목표연도
  - 단기계획 : 2021년 ~ 2025년
  - 중장기계획 : 2025년 ~ 2040년

#### ≫ 내용적 범위

- 이론정립 : 태안군 여건 및 현실에 부합하는 신해양도시 개념 정립
- 계획검토 : 국가, 충청도, 태안군 해양수산 연안개발 등 선행연구 및 계획 검토
- 현황분석 : 태안군 해양수산 여건 및 현황분석, 해양도시로서 위상 검토

- 비전·목표 : 태안군 신해양도시의 비전 및 목표 제시
- 전략사업 : 태안군 해양수산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전략 및 사업도출



〈그림 1-2〉 연구의 내용적 범위

### 3. 추진절차

2020. 04. 14	연구진 회의 (연구방향 도출)
2020. 04. 22.	착수보고회
2020. 06. 16 ~ 17.	사업발굴을 위한 타지역 사례조사(강원도)
2020. 07. 13	연구진 회의 (사업도출)
2020. 07. 30.	현장탐방 및 기획단 자문회의
2020. 08. 31 ~ 09. 21.	태안군 주민인식조사
2020. 09. 30.	태안군 해양관련 키워드 분석
2020. 10. ~	분야별 사업구상 및 전문가 자문
2020. 12. 21. ~	전문가 자문회의 (화상회의)
2021. 02. 16. ~	중간보고회
2021. 03. 09. ~ 04. 05.	핵심사업 선정 설문조사(전문가, 공무원, 군민)
2021. 04. 30.	최종보고회



## 제2장 新해양도시 개념 및 여건

제1절 신해양도시 개념

제2절 해양수산 현황 및 여건

제3절 해양수산 상위계획 검토

제4절 신해양수산 선진사례 검토

| 태안군 新해양도시 미래비전 |

## 제1절 新해양도시 개념

### 1. 문제의식

≫ 바다는 우리에게 경제적 가치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혜택 제공

- 바다의 가치를 깨닫고, 환경을 보전하며 합리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해양수산 정책 속속 추진
- 국가뿐만 아니라 연안에 위치한 지자체도 각자 자체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바다에서 찾고자 노력

≫ 지방균형발전사업으로 해양수산 혁신도시를 부산으로 지정하면서 관련 행정, 연구, 산업 등이 남동해안권으로 집중

- 바다가 삼면인 우리나라의 해역적 특성에 따른 차별성 및 지리적 입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오히려 해양수산 분야에서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인

≫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남 서해안 연안도시(태안)를 지역거점 해양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통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필요

- 지역이 갖고 있는 해양수산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태안군 해양수산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 2. 신해양도시 정의 및 구성요소

#### 1) 신해양도시 정의

≫ 신해양도시 : 해양 및 연안지역에서 경제·산업, 국제교류, 역사·문화, 주거·생활 등 활동이 어우러지는 사람이 사는 친수도시

- 해양도시(Ocean City) : 바다 위 또는 바다 속에서 인간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이나 공항, 바다공원 등을 만들어 해양공간을 육지처럼 활용하는 계획도시<sup>1)</sup>
- 해항도시(sea-port city) : 항구도시라고도 하며, 임해도시 중 항만 기능에 크게 의존하는 교역 도시

1) NAVER,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 2) 신해양도시 구성요소

≫ ‘도시’라는 공간은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복합적인 공간

- ‘해양수산’과 ‘도시’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해양도시가 갖고 있는 자원은 크게 공간·환경, 역사·문화, 경제·산업으로 구분 가능



〈그림 2-1〉 3대 해양자원과 도시의 조건

자료 : 김종화(2017), 충남 신해양도시 개념 및 육성방안.

## 3. 충남연안 해양도시 동향

### 1) 충남연안 해양도시의 정책동향

≫ 충남연안 6개 시·군은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해양치유, 해양생태복원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해양수산업 적극 육성

- 태안군 : 해양치유시범센터, 만리포 해양거점단지조성, 가로림만 해양정원, 부남호 해수유통 등 추진
- 보령시 : 2022년 보령해양머드엑스포, 마리나산업, 원산도 개발, 해상풍력단지, 해양치유산업 등 추진
- 서산시 : 중국과의 여객선 운행, 조미감태 육성, 가로림만 해양정원, 부남호 해수유통 등 추진
- 당진시 : 당진항 개발, 에너지산업 육성, 해양수산 기관 유치 등 추진
- 홍성군 : 남당항·죽도 관광개발, 새조개 등 지역수산물 육성 등 추진
- 서천군 :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육성, 장항항 재개발, 해양치유산업 육성 등 추진

〈표 2-1〉 충남연안 시·군의 해양수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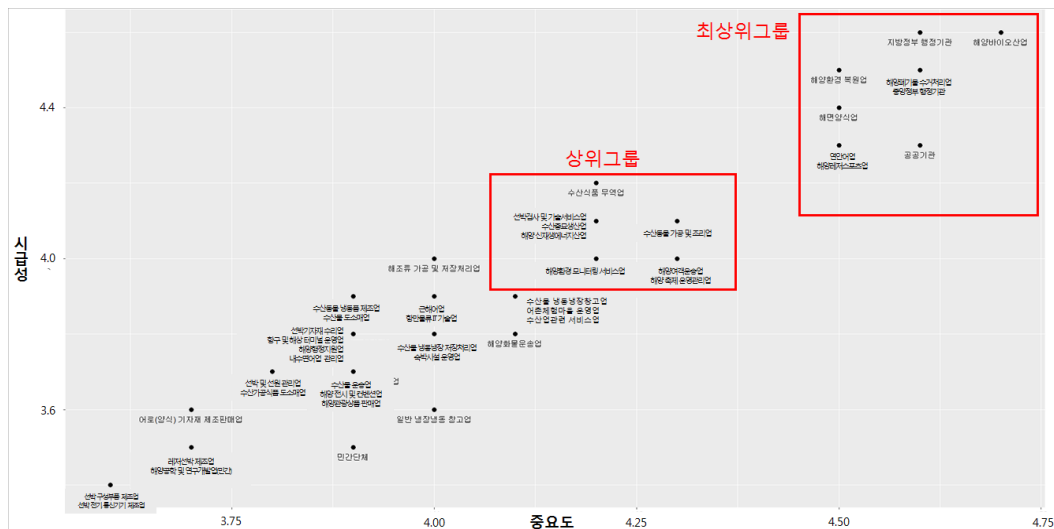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태안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 수산업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는 전통적인 수산도시로서 수산업의 산업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며, 충남도내 가장 많은 어촌체험·휴양마을 위치</li> <li>최근 해양치유산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해양치유시범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만리포 서핑을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li> <li>해양수산업의 미래성장동력으로 보고 광개토 대사업을 통한 인프라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li> </ul>
보령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천, 무창포 등 해수욕장 중심의 해양관광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보령신항 개발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투입할 계획</li> <li>국도 77호선 개통(대천~원산도)에 따른 원산도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머드를 테마로 하는 해양치유산업, 원산대~고대도 케이블카,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에 높은 관심 보임</li> <li>최근 해양수산업관광국 신설을 통하여 해양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 중이고, 2022년 보령해양머드엑스포 유치 성공</li> </ul>
서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산읍을 중심으로 석유화학이 발달해 있고, 중국 용안항, 위해항와 대산항 간의 여객항로 개설, 해미읍 비행장의 민항기 취항 등 해양과 항만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 중이며, 향후 크루즈 산업 육성에 높은 관심 보임</li> <li>충남을 대표하는 어촌체험마을(중왕어촌체험마을)이 위치해 있고, 조미감태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li> <li>부남호 역간척, 가로림만 해양정원 등 해양수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li> </ul>
당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 및 제철산업이 발달해 있고, 평택·당진항이라는 국가 무역항이 위치해 있으나, 수산세력은 점차 약화되는 추세</li> <li>주로 당진항 개발에 관심이 많으며, KIOST 서해분원 유치에도 높은 관심 보임</li> </ul>
홍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도청 이전으로 내포신도시가 건설되어 홍북면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서면(남당항)을 중심으로 하는 수산세력은 점차 약화</li> <li>기존 수산정책팀을 해양수산과로 확대·개편하여 해양수산 분야에 적극적인 정책발굴 추진</li> </ul>
서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생태 중심의 발전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김) 등을 유치에 성공하면서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li> <li>특히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를 유치하여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함께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를 서해안 해양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추진</li> </ul>

자료 : 김종화(2017), 충남 신해양도시 개념 및 육성방안. 참고하여 작성

## 2) 충남의 미래유망 해양수산산업

≫ 향후 충남도 유망한 해양수산산업은 해양바이오, 해양신관광, 양식어업 등 해양신산업 분야

- 최상위 그룹 : 해양바이오산업, 지방정부 행정기관,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업, 중앙정부 행정기관, 해양수산관련 공공기관, 해양환경 복원업, 해면양식업, 연안어업, 해양 레저·스포츠업
- 상위 그룹 : 수산식품 무역업, 선박검사 및 기술 서비스업, 수산종묘생산업, 해양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산동물 가공 및 조리업, 해양환경 모니터링 서비스업, 해양여객운송업, 해양관련 축제 운영·관리업



〈그림 2-2〉 해양산업의 중요도 및 시급도 매트릭스

자료 : 김종화(2018), 충남 해양산업의 혁신성장 방향.

## 제2절 해양수산 현황 및 여건

### 1. 해양수산산업 정의 및 특성

#### 1) 해양수산산업 정의<sup>2)</sup>

##### ≫ 법령상 정의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 3조)

- 해양수산산업은 해운·항만·수산·해양과학기술개발·해양환경 및 해양정보 관련 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
  - ‘해양에서 작업과 활동을 하는 산업’, ‘해양에서 사용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 ‘해양에서 생산·채취된 해양자원의 이용을 통해 작업·활동하는 산업’등 포괄

##### ≫ 표준산업분류상 정의

-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또는 해양기반의 활동으로부터 나온 생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과 그와 연관된 산업
  - 해양자원을 활용·채취하거나, 해양공간의 이용, 해양환경 보호 관련 활동(해양기반 활동) 및 해양활동 투입요소 제공, 해양에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의 주요 요소로 활용하는 활동 또는 해양이용 활동, 해양자원이나 해양공간의 보호활동에 필요한 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해양연관형 활동)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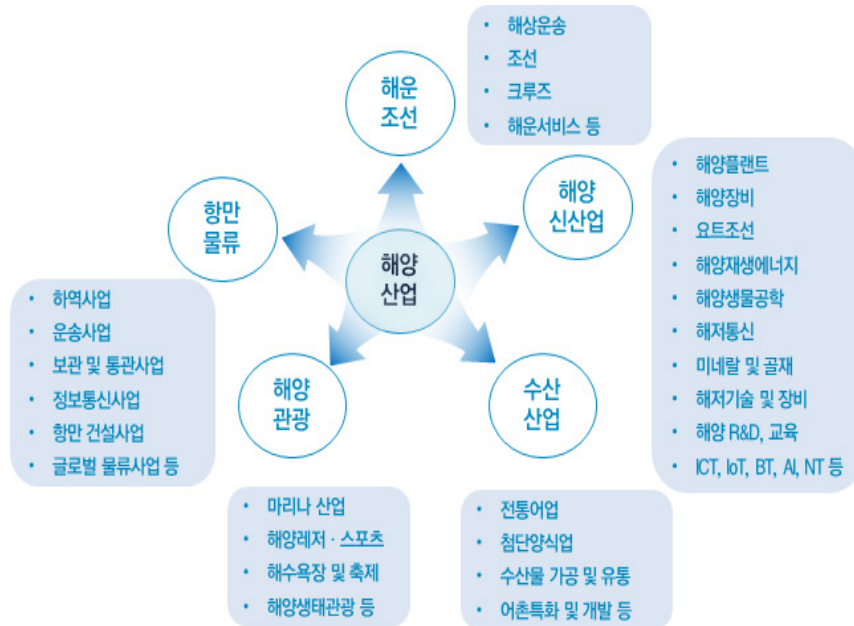
##### ≫ 해양수산산업은 수산, 해양관광, 해양바이오, 해양환경, 해운·물류 등 다양하나, 태안군은 연안특성 상 수산, 해양관광, 해양환경 등의 산업에 집중 필요

- 수산업 : 어업 및 어획물운반업과 수산물가공업 등을 수산업의 확장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1차, 2차, 3차 산업간 융·복합화를 통한 수산업의 가치 증대 도모
  - 수산업은 어업(수산동식물 포획·채취업과 양식업) 보다 광의적 개념으로 사용
- 해양레저·관광산업 : 해양을 매개로 형성된 연안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관광 활동과 관련된 영리활동을 포괄하는 산업으로서 해양생태관광, 해변관광(어촌·도서관광, 해수욕) 해양 레저·스포츠(마리나 포함), 유람선 및 크루즈 관광 등 포함
- 해양바이오산업 : 해양생물체에서 구조 및 기능, 해양물질에서 일어나는 현상 등을 이해하여 얻은 정보와 물질을 활용하여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기능성 식품,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대체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

2) 박세현 외(2013), '해양수산 신산업 창출 및 활성화 정책지원 방안 수립 기획연구' 참고 작성

- 해양환경산업 : 육상 및 해상의 쓰레기로 인한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을 파괴하는 해양오염요인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산업이며, 최근에는 해수유통 등 해양환경 복원업도 주목을 받고 있음
- 해양에너지산업 : 조력, 조류, 파력, 해상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보급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경제성 확보 및 에너지 효율의 확보를 위해 해상풍력과 파력을 연계한 복합발전 기술개발도 추진 중
- 해운산업 : 해상운송서비스업은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여객 및 화물의 지리적 이동을 목적으로, 해상화물운송사업과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 등 포함(해운법 제2조)
- 항만산업 : 항만을 경유하는 재화가 공급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물리적인 경제활동으로서 항만운송사업과 항만운송 관련사업으로 구분
- 조선산업 : 다양한 선박의 설계, 건조, 부품소재 연구·개발 등의 복합산업으로서 해양자원개발 및 생산산업 수요확대, 기술진보 등에 따른 해양플랜트 분야의 성장으로 조선산업의 정의·범위가 점차 확장
- 물류산업 : 공급자로부터 수요자까지 재화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하역 등과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관련 사업
- 해양광물산업 : 해양으로부터 전략금속자원, 심해저 광물, 해저석유·가스 등을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
- 해사안전산업 : 선박의 안전과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에 필요한 시설, 설비의 생산과 선박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한 산업으로 선박항해·안전설비, 선박환경설비, 해양교통시설, 선박검사 등 포함
- 해양플랜트산업 : 해양자원의 개발·이용을 위해 관련시설 및 장비를 제작·운용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의 산업 활동





〈그림 2-3〉 해양수산업의 분류

자료 : 해양수산부(2016),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 2) 해양수산업 특성

### ≫ 미래인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새로운 삶의 터전이자, 경제적 영역

- 토지 등 육상의 부존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인류의 지속가능성 유지 및 영토 확장
- 4차 산업혁명과 결합한 친환경적인 기술적 진보를 통하여 육상 부존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류의 생존과 새로운 영토(경제적 영역) 확장 등 지속가능성 제고

### ≫ 해양수산 자원을 활용한 높은 산업연관효과 창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 증대

-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해양관광, 해양자원, 수산자원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높은 산업적 연관효과 발생 및 소득향상,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가치 창출
- 2015년 해양수산업의 산출로 인한 국민경제 직·간접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생산유발효과는 274조 원(직접 148조 원, 간접 126조 원), 총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87.8조 원(직접 38.4조 원, 간접 49.4조 원), 총 취업유발효과는 137만 명(직접 59.6만 명, 간접 77.7만 명)으로, 부가가치와 취업부문에서 간접효과가 큰 경향을 보임<sup>3)</sup>
  - 농림축산부문(88조원)의 3.1배에 해당하며, 전기 및 전자기기부문(504조원)의 54.4% 해당

3) 장정인 외(2019), 해양수산업 총산출액, 전 산업 9위, KMI 동향분석 13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을 적용한 해양신관광으로 국민의 후생증대

-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및 경제발전으로 국민들의 관광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삶의 질 향상 및 휴양·치유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의 전망 밝음

≫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높은 잠재력 보유

- 해양바이오, 해양신관광(크루즈, 마리나 등), 해양치유, 스마트 항만·물류기술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과 접목한 해양신산업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미래성장동력으로 성장 가능
- 해양수산물 관련 신산업은 현재 태동기 혹은 도입기 단계로서 미래 R&D 투자 및 거시 경제적 환경에 따라 성과도출이 유동적이며, 해양환경 보호, 해양영토 분쟁 등 환경, 정치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

## 2. 해양수산의 여건 및 전망<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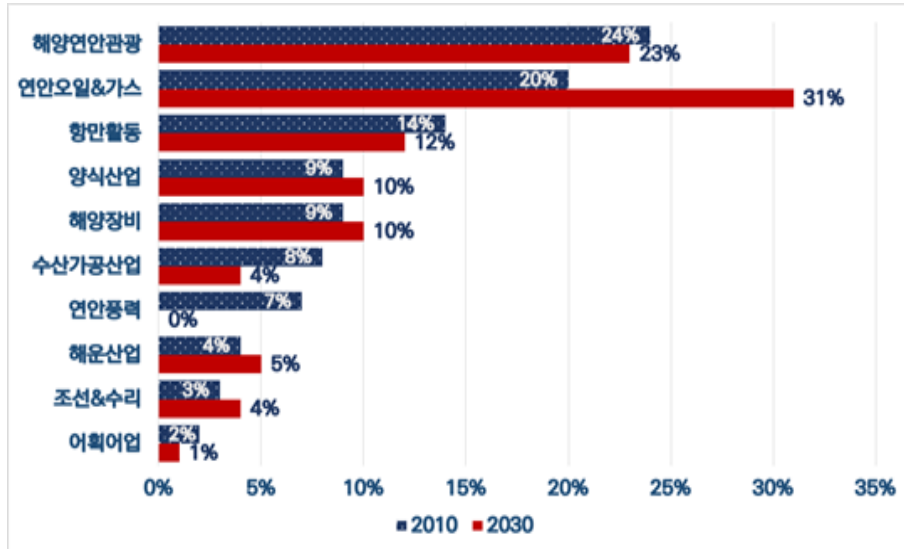
### 1) 해양경제 및 과학기술

≫ OECD에 따르면 해양산업은 2030년 글로벌 부가가치 약 3조 달러 달성<sup>5)</sup>

- OECD(2016)는 해양경제를 조선, 해운, 해양신소재 등 일반적인 산업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흡수, 해양생명자원 같이 해양생태계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가치도 포함
- OECD의 ‘해양경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30년 해양산업의 규모는 약 3조 달러 (약 3,553조 원)에 달하고 고용인원은 3천6백만 명에서 4천만 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
  - 2010년 기준 해양산업의 규모는 약 1.5조 달러(1,777조 원)으로 글로벌 부가가치의 약 2.5%에 해당되고, 고용인원은 약 3천1백만 명 수준
- 미래에는 해운, 조선 및 선박수리, 항만활동, 수산양식, 해양에너지, 해양관광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해양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첨단소재, 해저공학기술, 센서 및 영상, 빅데이터, 자동화 시스템, 생명나노기술 등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
  - 반면 어획어업, 해양 석유·가스 시추 분야는 성장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

4) 태안군 현황 및 여건과 관련성이 높은 ‘해양경제 및 과학기술’, ‘수산업 및 어촌’, ‘해양관광 및 레저·스포츠’, ‘해양공간 및 해양환경’에 대해서만 기술

5) OECD(2016), ‘The Ocean Economy in 2030’을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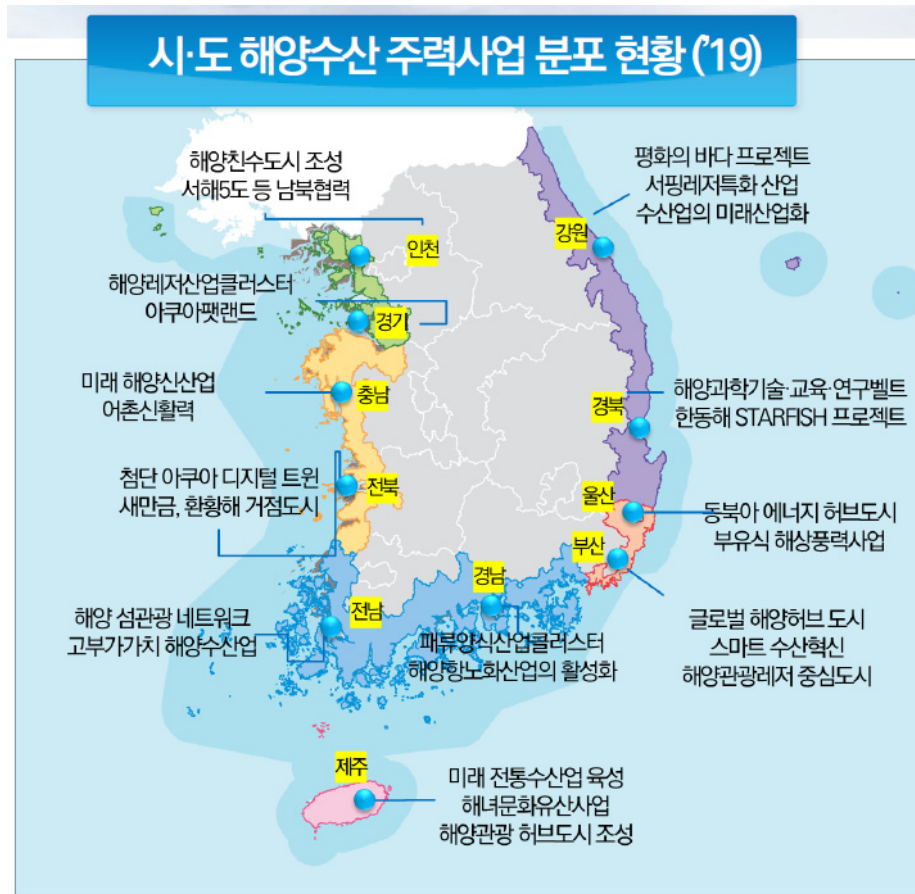
〈그림 2-4〉 해양산업 분야별 부가가치 비중(2010 vs 2030)

자료 : OECD(2016), The Ocean Economy in 2030.

≫ 해양경제는 해양비즈니스와 해양생태계의 상생을 의미하며, 기후변화, 식·의약품, 청정에너지, 일자리 창출, 포용성장,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혁신 등 포함<sup>6)</sup>

- 해양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과학, 기술, 혁신의 핵심역할이 강조되면서 해양·해운 분야의 과학기술혁신, 해양경제혁신 네트워크 구축, 해양과학공동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과학 및 사회·경제가 결합된 해양경제의 측정 필요
- 우리나라 연안지역은 해양수산의 신산업의 지역 전문화를 통하여 정책영역을 확대하고, 다부처·초광역 해양수산 산업 추진

6) 최지연(2020), '2020 해양수산 지역혁신성장 동향과 전망 (2020 해양수산 전망대회 종합정책)'을 인용하여 작성



〈그림 2-5〉 광역지자체 해양수산 주력사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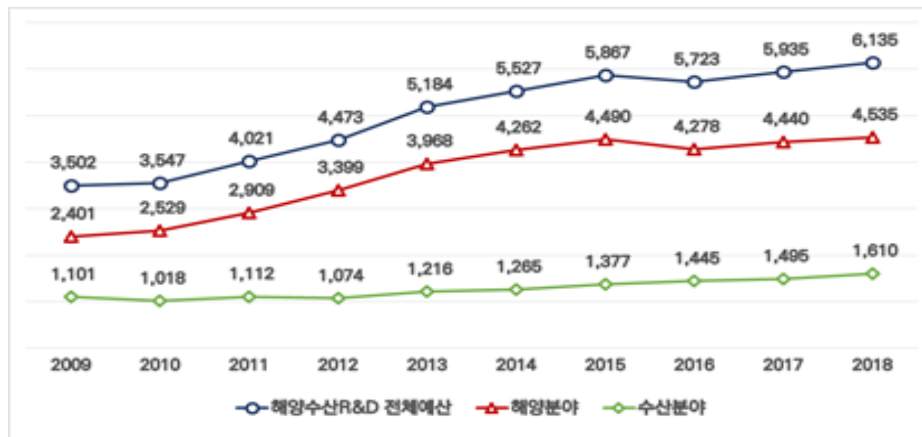
자료 : 최지연(2020), 2020 해양수산 지역혁신성장 동향과 전망(2020 해양수산 전망대회 종합정책).

## 》 해양수산 분야 R&D 투자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6,362억 원 수준으로 성장<sup>7)</sup>

- 해양수산 R&D 예산은 2009년 3,502억원에서 2018년 6,135억 원으로 75.2%증가하였고, 2019년 6,362억 원과 비교했을 때 81.6% 증가
- 2019년 해양수산부 R&D 전체예산은 과기부, 방위사업청, 산자부 등에 이어 7위에 위치
- 2020년 해양수산 분야 R&D 주요과제는 자율운항선박, 스마트항만, 아쿠아팜 4.0, 수소기술
  - 자율운항선박 : IMO 레벨 3 수준의 자율운항선박 개발
  - 스마트항만 : 차세대 자동화 터미널 기술 실증 및 보안으로 스마트 자동화 항만 상용화 기술 개발
  - 아쿠아팜 4.0 : DASH 전략기반 스마트 양식시스템 개발<sup>8)</sup>
  - 수소기술 : 수소기반 탄소제로 해양공간 조성

7) 전형모 외(2020), '2020 해양수산 과학기술 동향과 전망 (2020 해양수산 전망대회 종합정책)'을 인용하여 작성

8) D: 디지털로 연결, A: AI 토퍼닝을 활용한 전방위 기술혁신, S: 양식현장과 연계한 기술확산, H: 국내외 시장창출 (네이버,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koreamof/221661036297>」)



〈그림 2-6〉 해양수산물 R&D 전체예산 추이

자료 : 서경석(2018), 해양수산물 R&D 동향 및 대응과제 (2018 해양수산물 전망대회 해양정책).

- 2020년 ‘해양수산물 스마트화 전략’ 과제에 총 1,151.5억 원 투자 예정<sup>9)</sup>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광양항) 구축, e-Nav 선박장비 보급, 스마트 어업관리 모델 도입 시범사업, 스마트양식장 클러스터 구축, 산지 위판장 캠프마켓 3개소 설치, IoT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그림 2-7〉 해양수산물 스마트화 전략

자료 : 전형모 외(2020), 2020 해양수산물 과학기술 동향과 전망(2020 해양수산물 전망대회 종합정책).

9) 전형모 외(2020), ‘2020 해양수산물 과학기술 동향과 전망(2020 해양수산물 전망대회 종합정책)’을 인용하여 작성

## 2) 수산업 및 어촌<sup>10)</sup>

### 》 수산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필요

- 미래 수산업의 환경 및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이 혜택을 공유하는 수산업의 체질개선 및 패러다임 변화 필요
  - 수산자원 감소, 기후변화, 어촌 고령화·과소화, 수산물 소비증가 등 수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가치 중심의 수산업·어촌으로의 변화 모색

구분	정책 패러다임 전환	정책 추진방향
연근해어업	생산자원 중심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의 전환	TAC 확대, 불법어업 근절 등 자원 관리형 어업구조로 전면 개편
양식어업	소규모·재래식·사후 대응방식에서 규모화 스마트화 예방양식으로의 전환	기업화, 스마트화를 통한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어업으로의 혁신
어촌지역	생산자원 공간 중심에서 정주·여가 공간 중심으로의 전환	어촌뉴딜 300사업, 어촌관광 등 혁신사업으로 어촌활력 제고
수산기업	단순 기업 비영리에서 기업 창업·성장 중심의 지원으로의 전환	수산기업 창업·투자 확대로 자생력을 갖춘 산업으로의 전환
유통·소비	공급자 편의 중심에서 소비자 권리 중심으로의 전환	유통시설 현대화,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안심 소비문화 정착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 수산혁신 2030 계획.

### 》 수산부문 공익형 직불제 도입 및 수산 예산사업의 지방이양 가속

- 공익형 직불제란 공익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여 어업의 공익가치 제고 및 어업인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지원제도이며 2021년 도입될 예정
  -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수산업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수산정책화로 연결시켜 수산업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 필요
  - 대규모 민간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 혁신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투자 유입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

10) KMI(2020), 2020 해양수산전망대회 수산섹션(전망 및 이슈(마창모 외), 연근해어업(이정삼 외), 양식산업(이남수), 수출입 동향과 전망(임병호), 어촌사회(박상우 외))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



〈표 2-2〉 수산분야 공익형직불제

공익가치	공익적 의무 이행	공익형직불제
바다환경 보전	배합사료 사용, 친환경 양식	이행 수준에 따른 직불금 지급
수산자원 보호	휴어기·금어기, 자원관리 인증	
해양영토 수호	조건불리지역 정주	

자료 : 마창모 외(2020), 2020 수산업 전망 및 정책 이슈(2020 해양수산 전망대회 수산세션).

## 》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지자체 수산정책의 개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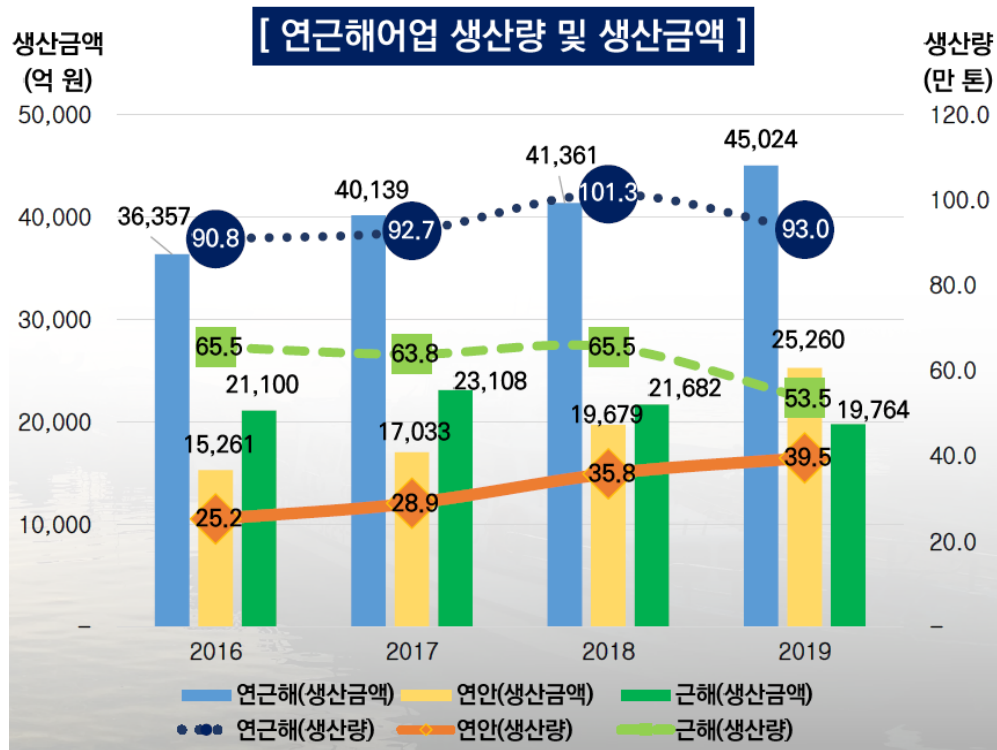
- 정부의 재정분권 방침으로 균특회계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자체 사업으로 전환 불가피
  - 유예기간(3년간) 거친 후 자체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나, 새로운 예산사업 준비 필요
  - 수산물 가공산업, 친환경양식어업,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등이 대상
- 수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정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의 역할 분담, 수행체계 등의 점검 필요
  - 일반회계, 농특회계 등으로 새로운 예산사업 발굴 필요

## 》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수산업 구조개편 불가피

- 최근 4년 중 3년(2016, 2017, 2019년) 어획량이 100만 톤을 하회함으로써,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업 구조의 전환 요구
  - 충남의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지난 10년 동안 크게 변동이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연근해 자원감소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음
  -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른 TAC 중심의 수산자원관리 본격 추진
    - 2019년 6월 「TAC 제도 내실화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2020년부터 본격적인 TAC 제도의 내실화가 추진됨.
- ※ TAC 제도 : 선정된 대상 품종별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에 대하여 할당되는 배분량을 초과하는 어획을 금지하는 제도

## 》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의 생태계 변화 및 어황 부진

-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여름에서 초가을까지 태풍의 영향으로 조업 활동이 위축되어 생산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어떤 해에는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폐사에 직접적인 영향 미침



〈그림 2-8〉 연근해어업 생산량

자료 : 이정삼 외(2020), 연근해어업 동향과 전망 (원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 어선의 노후화와 어촌사고 증가로 인한 국민적 우려 확산

- 연근해어업의 위축, 어선감척사업 등으로 인하여 어선의 척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촌의 노후화도 촉진
  - 전국 어선은 2018년 41,199척에서 2019년 40,691척(추정)으로 508척 감소
  - 어선 연령은 2019년 연안어선 21년 이상이 25.9%, 근해어선 21년 이상이 37.3%로 노후화 진행<sup>11)</sup>
- 어선 화재 및 사망·실종 등 어선사고로 국민적 우려 확대
  - 어선사고 : 2014년 896건(67.4%) → 2018년 1,846건(69.4%)
  - 인명피해 : 2014년 309건(43.5%) → 2018년 303건(66.6%)
- 어선사고 예방 및 절감대책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
  - 2020년부터 근해어선 2,700척에 대한 화재경보기 시범 보급추진
  - 차세대 표준어선 개발사업 추진, 2020년 8월부터 예비특보 발효 시 어선의 조업·항행 중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추진

11)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국내 수산물 생산량의 약 62%는 양식어업으로 생산되며, 점차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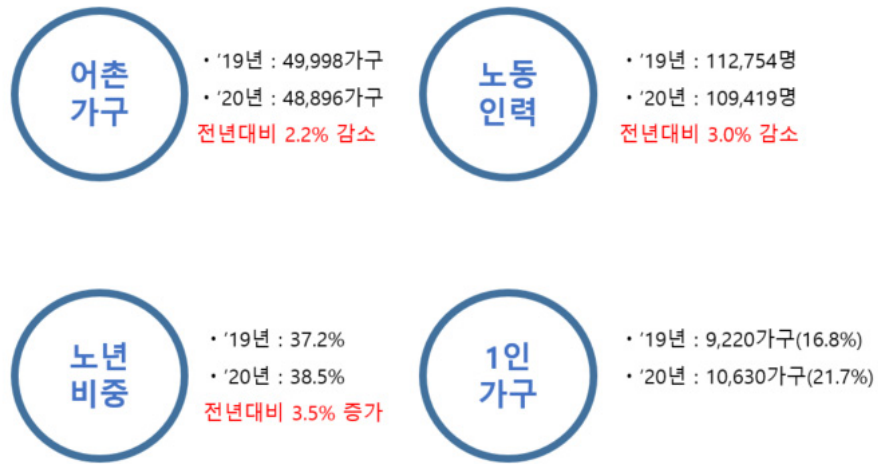
- 세계 양식수산물 생산량은 80만 톤으로 수산물 생산량의 46.4% 차지
  - 양식수산물 생산량은 연평균 4.7%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이 47백만 톤으로 1위이고, 한국은 14위 차지
- 국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383만 톤)의 61.9% 수준인 237만 톤으로 양식으로 생산
  - 양식생산량 : ('09년) 131만 톤 → ('14년) 155만 톤 → ('17년) 237만 톤
- 양식산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고수온, 저수온, 적조, 태풍 등)에 상시노출 되어 있으며 재해에 취약<sup>12)</sup>
  - 양식분야 어업재해 피해현황 : ('15년) 63억 원 → ('16년) 227억 원 → ('17년) 98억 원 → ('18년) 712억 원
- 양식산업은 폐쇄형 연안에서의 밀집·밀식으로 어장의 수용력을 초과하고 있으며, 폐기자재와 생사료의 퇴적 등으로 인한 오염부하 심화와 어장의 노후화로 양식생물의 폐사와 질병발생 등 생산성 저하 초래<sup>13)</sup>
-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및 스마트양식 대규모 사업 추진
  - '양식산업발전법' 제정('20.8)을 통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의 마련과 외해양식 특정 수산물에도 대규모 투자자본의 진입 허용
  - 스마트양식 대규모 사업 추진을 통하여 관련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패러다임 전환 추진
  - 스마트양식클러스터 (테스트베드 및 배후부지 조성), 스마트양식 인력양성, 아쿠아팜 4.0(데이터 기반, 기술가치 극대화, 현안 해결 등)
  -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등 안전하고 생태적이며 친환경적인 국제적인 양식인증 지속 추진

≫ 어가 수는 5만호가 붕괴되면서 어촌사회 위축현상 심화

- 어가 수 4만호 시대에 돌입하고, 2022년 어가인구 10만 명 붕괴 예상
  - 어촌고령화, 완고한 어촌계 진입장벽, 양식면허 포화 등으로 신규인력 유입이 어려울 경우 어촌의 공동화 현상 및 어촌사회의 붕괴위험 상존
  - 어촌의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노동자가 채우고 있으며, 2020년 증가하여 13,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 현재 외국인 종사자는 베트남, 인니, 중국 순
  - 현재와 같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 2045년 지역소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역(0.2 미만)이 전체 어촌의 81.2%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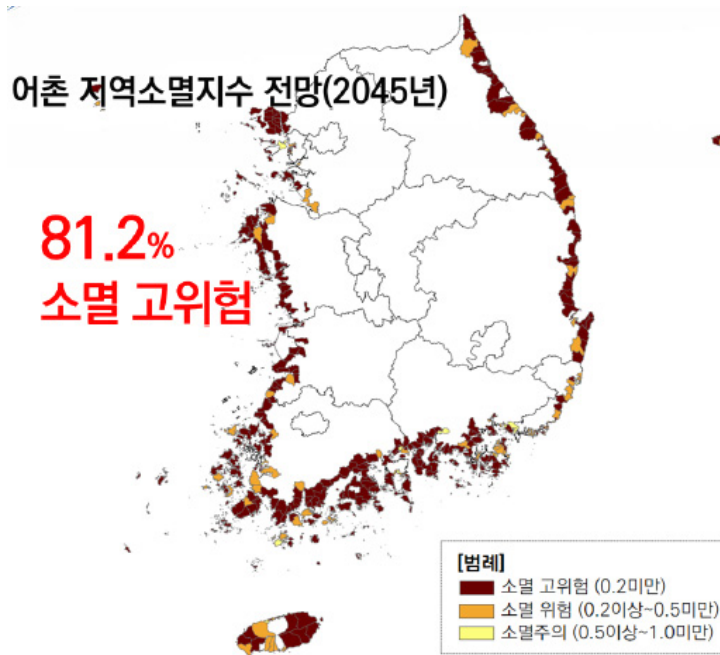
12) 관계부처 합동(2019), 수산혁신 2030 계획.

13) 관계부처 합동(2019), 수산혁신 2030 계획.



〈그림 2-9〉 어촌인구의 동향

자료 : 박상우 외(2020), 어촌사회 동향과 전망 (2020 해양수산 전망대회 수산세션)



〈그림 2-10〉 어촌 지역소멸지수 전망(2045)

자료 : 박상우 외(2020), 어촌사회 동향과 전망(원자료 : 박상우 외(2018),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연구)

- 2기 인구정책 TF를 통하여 어촌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정책방안 마련 예정
  - 정부는 2019년 '1기 인구정책 TF'를 운영하였으며, 해양수산부도 올해 2기 TF에 참여할 예정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어촌소멸 대책, 외국인 인력 문제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어촌이 직면한 인구 절벽(Demographic Cliff)문제를 보다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스마트 어촌정책 도입으로 어촌 지역소멸에 능동적으로 대응 필요

- 축적된 어촌 사회문제를 기술·규제·사회혁신을 통하여 리빙랩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미래형 지속가능한 어촌 구현
- 스마트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 스마트어업 + 스마트환경 + 스마트 생활환경 + 스마트 어촌관광
- 어촌뉴딜 사업 등의 추진을 통한 어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
  -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어촌뉴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낙후된 어촌을 여항중심으로 현대화하는 생활 SOC 사업 추진
  - 5대강 수계를 기반으로 내륙어촌(강마을) 및 어업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수계기반형 지역네트워크 강화 추진
  - 해양수산부와 각 지자체들은 어촌사회의 지역공동체를 사회적 경제로 인식하여 가치실현을 위한 지원방안 다각화 모색
- 4차 삶의 질 기본계획(2020~2024년)을 통한 어촌·어업인 삶의 질 향상
  - 취약한 어촌지역의 삶의 질 여건의 개선을 위한 현장체감형 과제를 발굴하여 어업인 및 어촌인의 삶의 질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발굴

<b>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b>	❶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❷ 농어촌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❸ 보육, 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❹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b>차별 없는 교육·문화 기회 보장</b>	❶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❷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❸ 농어촌지역 문화·여가 인프라 및 인적기반 구축 ❹ 주민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b>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b>	❶ 농어촌 지역 교통 여건 확충 ❷ 노후주택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❸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❹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b>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b>	❶ 농어촌 공간자원을 활용한 소득 기반 다각화 ❷ 농어촌주민 창업촉진 ❸ 농어촌 주민 구성을 고려한 일자리 다변화 ❹ 사회적 경제 기반 일자리 확대

〈그림 2-11〉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전략

원자료 : 관계부처 합동·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2020),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자료 : 박상우 외(2020), 어촌사회 동향과 전망(2020 해양수산 전망대회 수산세션)

### 3) 해양관광 및 레저·스포츠<sup>14)</sup>

≫ 금년 코로나 19로 인하여 세계적인 관광산업이 침체를 겪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세계 관광시장은 연평균 4%씩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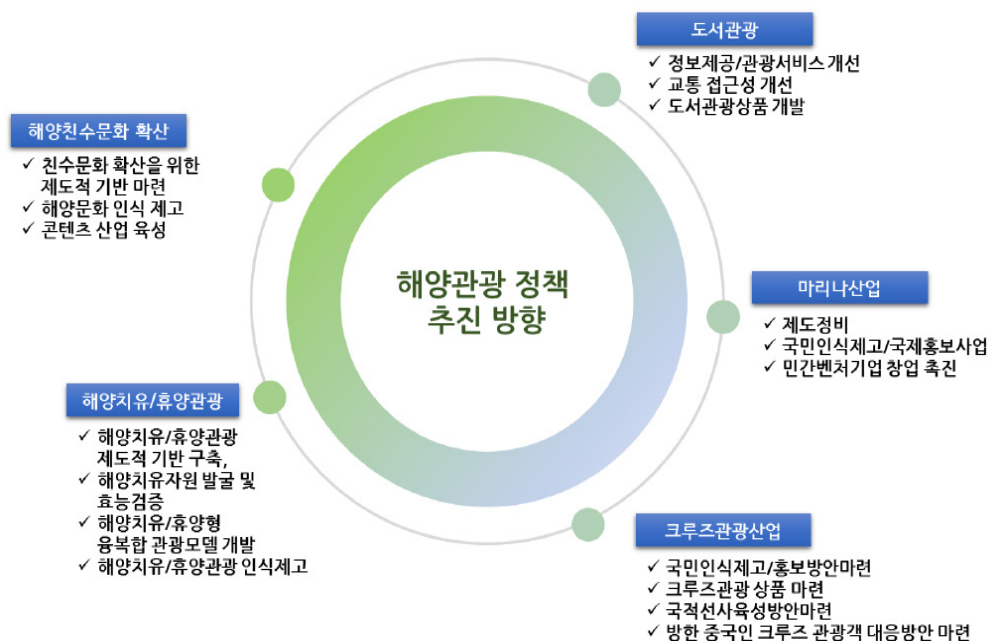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5.6%씩 확대하여, 향후 아시아·태평양, 중동 점유율 증가 전망

≫ 국내 관광정책은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을 변화

- 최근 국내관광은 가족여행, 체험형 관광, 관광경험 공유, 음식관광, 여행의 일상화 등으로 증가
- 지역관광의 전략거점 조성, 매력적인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확충, 지역관광역량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지역관광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국내 해양관광정책은 해양관광 활성화 정책추진 기반 마련 및 해양 레저관광 활성화 추진

- 고품격·고부가가치 해양관광산업 육성, 해양레저관광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축, 해양 레저관광 저변확대 및 해양관광 법안정비 등



〈그림 2-12〉 해양관광정책 추진방향

자료 : 홍장원(2019), 2019년 해양관광 및 문화 정책 방향(2019 해양수산전망대회 해양세션)

14) 홍장원(2019), '2019년 해양관광 및 문화 정책방향(2019 해양수산전망대회 해양세션)'을 인용하여 작성

≫ 최근 해양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해양관광산업은 해양치유·휴양, 도서관광, 마리나산업, 크루즈산업 등

- 해양치유산업은 중앙정부 주도로 태안, 완도, 고성, 울진 등에 해양치유시범센터 설립을 추진하면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로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
- 도서관광은 도서자원을 이용한 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최근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실효성 제고 필요
- 마리나산업은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요트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마리나항만 건설 및 요트 제작·수리 등에 대한 민간투자가 필요한 상황
- 크루즈관광은 외국선사의 크루즈선의 기항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당분간은 침체 불가피

#### 4) 해양공간 및 해양환경<sup>15)</sup>

≫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공간 조성 및 연안관리의 인식 증진

- 연안의 환경·생태적, 사회적 가치의 이해가 확대되어 자발적인 보전 노력 강화
  -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교육 및 연안포럼, 워크숍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사업 추진
- 연안정비사업을 통한 연안재취약지역의 피해복구 및 안전강화
  -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10~2019)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친수공간 조성
  - 연안보전사업 준공률 64.8%(195개소), 친수공간사업 준공률 62.2%(46개소)

≫ 연안관리체계의 재정립 및 새로운 연안정비체계의 시행

- 공간관리(계획) 기능의 해양공간계획(MSP) 이전에 따라 연안관리체계의 변화 필요
  - 자연재해 위험성 증가 및 국민 안전대책 수요증대, 연안의 공공적 가치보전 수요증대
- 연안자연재해대응을 위한 근본적·장기적 대책 수립
  -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 수립 및 고시(2020년 5월)
  - 연안관리정책의 일부로서 연안정비사업체계 유지
  - 연안재해 복구에서 회피, 원인제거 등으로 전략 변경
  - '연안토지매수'와 같은 비구조적, 공간적 관리기법 강화
- 해양수산 스마트전략에 따른 해양재해 예측능력 강화 추진

15) KMI(2020), 2020 해양수산전망대회 해양섹션[해양정책(윤성순), 해양공간(최희정), 해양환경(육근형)]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

- 인공위성을 활용한 모니터링, 사전예측 및 조기경보 체계 강화
-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법을 활용한 예측능력 증대와 사업 효율화
- 침식대응기술 R&D 사업의 현실화 및 침식관리구역 관리강화를 통한 성공모델 개발

##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의 수시변경을 통한 지속적인 검토

- 10년 단위 매립기본계획의 현실성 확보를 위한 수시변경제도 시행
  - 기본계획의 잦은 수정으로 인하여 이행성 강화수단 필요
  - 매립지 소유권 관리 및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계획·평가·관리 필요
- 새로운 형태의 공유수면 대규모 이용수요 발생
  - 어업활동 등 공유수면에 대한 기존 이용유형과 이해상충 발생
  - 해양재생에너지, 골재채취 등 이용수요 다변화 및 이용자 요구에 능동적인 대응 필요



〈그림 2-13〉 공유수면의 대규모 이용수요

자료 : 윤성순(2020), 2020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해양정책(2020 해양수산전망대회 해양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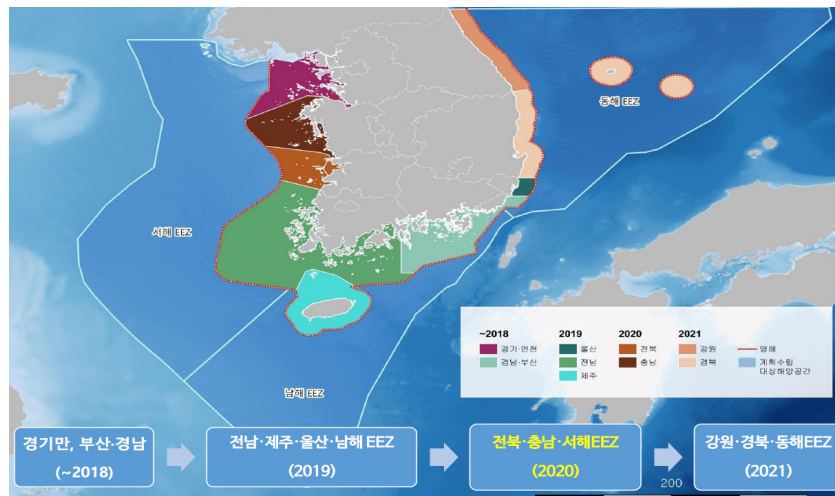
## >>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안), 실태조사 등 무인도서 관리정책 추진

-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2020~2029) 수립 및 고시(2020년7월)
  - 무인도서법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 및 시행
  - 무인도서 이용활성화 기반 마련, 과학적 관리를 통한 보전 내실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전략 제시
- 제2차 무인도서 실태조사 실시를 통한 남해안 무인도서 현황 파악 및 가치 발굴
  - 경남 통영시, 전남 신안군 비금면, 안좌면, 하의면, 신의면, 진도군 조도면 조사실시
- 무인도서에 대한 국민인식 확대 및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한 정책기반 마련
  - ‘이달의 무인도서’ 발표로 국민의 무인도서에 대한 인식확산(제주 숲섬, 충남보령 석대도, 강원고성 금구도, 경북경주 대왕암 선정)
  - 제1회 ‘섬의 날(8월8일)’ 기념행사 개최,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을 통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 발의
  -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형도면 제작, 실태조사 DB 구축 등 추진



## >> 해양공간계획법 시행('18)에 따른 해양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방안 모색

- 해양공간에서 인간활동의 시·공간적 배치를 위한 해양생태계 기반의 공간 할당 및 분석의 공공정책과정(Ehler&Douvere, 2009)
  - 해양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재와 미래 활동의 상호작용과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 해양이용자에게 적당한 공간을 제시하고, 해양이용이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전 해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지속적인 추진 및 지역내 제도 정착
  - 경기만·부산·경기('18), 전남·제주·울산·남해EEZ('19), 전북·충북·서해EEZ('20), 강원·경북·동해 EEZ(2021년) 해양공간관리계획(안) 추진 중



〈그림 2-14〉 해양공간관리계획 추진현황

자료 : 최희정(2020), 해양공간 이슈와 전망 (2020 해양수산전망대회 해양세션)

## >> 해역별 관리계획 수립 및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확대 시행

- 제3차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19) 및 9개 해역별 관리계획 수립, 5개 특별관리해역 및 4개 환경보전해역 관리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 특별관리해역(부산연안, 울산연안, 마산만, 시화호 및 인천연안), 환경보전해역(함평만, 완도도암만, 득량만, 가막만)
- 울산, 인천, 부산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확대 시행
  - (울산) 제1차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시범평가('18), 주요 소유역 대상 중금속 오염원 파악을 위한 조사 수행('19)
  - (인천) 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 민·관 산학협의회 발족('19)
  - (부산) 제2차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내 관리구역 확대방안 연구 등('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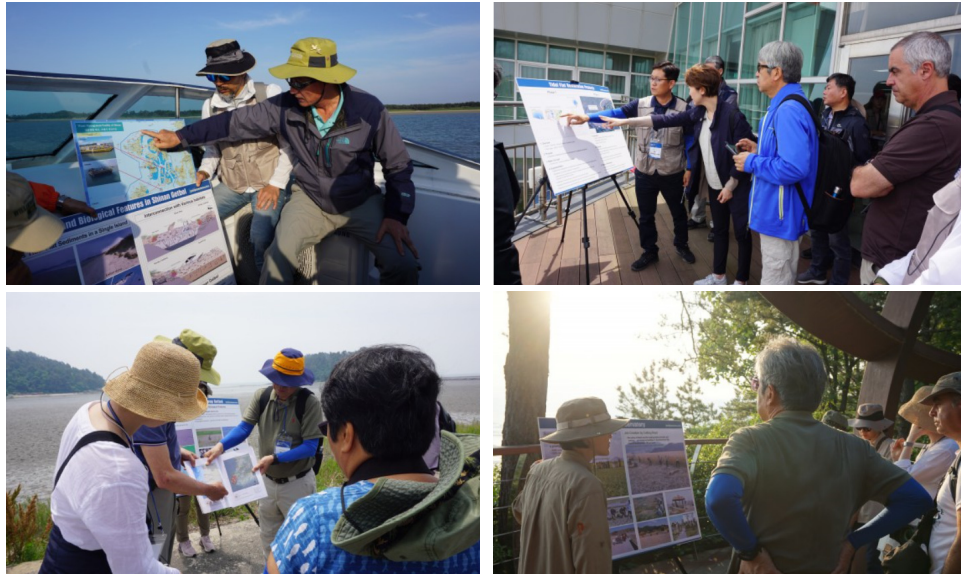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19)을 통한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투기·방치된 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관리체계 정립,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전문기관 지정, 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등
- 발생원 관리, 수거 사각지대 축소, 처리인프라 확충, 관리기반 강화
  - 발생원 관리 : (해상) 폐어구 자율회수 지원, 어구보증금제도, (육상) 강·하천 유역쓰레기 총량 관리제
  - 수거 사각지대 축소 : 도시 쓰레기 운반선, 취약해역(EEZ, 레저활동해역, 서해평화수역 등) 수거 강화
  - 처리 인프라 확충 : 여항·항만 수집·보관시설, 전처리시설, 자원화(폐각, 폐사, 해양플라스틱) 기술 개발
  - 관리기반 강화 : 해양폐기물법 제정, 해양쓰레기 관리표준 조례안, 미세플라스틱 관리기반 구축

## >> 갯벌면적 변화에 따른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본격 추진

- 전국 갯벌면적은 2018년 2,482km<sup>2</sup>, 2013년보다 5.2km<sup>2</sup> 감소(0.2% 감소)
-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 시행(2019~2023)으로 대상 후보지 총 28개소 추진
  - 인천 3개, 경기 1개, 충남 6개, 전북 1개, 전남 17개
- 습지인증도시 후보 선정 및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 등 갯벌 브랜드화 추진
  - 습지인증도시 최종 후보지로 고창군, 서천군을 선정하였고, 한국의 갯벌(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 중 (※ IUCN 현지실시 완료)
- 갯벌법 제정('19)을 통한 관리제도의 구체화 및 정책화 추진
  -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갯벌 보전·관리, 복원사항을 규정하여 생산적·건강한 갯벌 유지
  - 과거 연안습지 개념에서 보전적 관리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중시하는 갯벌 개념의 법·제도 반영 추진





〈그림 2-15〉 한국갯벌 세계자연유산 현장실사 모습

자료 :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http://www.ktidalfats-heritage.com>」

## 제3절 해양수산 상위계획 검토

### 1. 국가 해양수산 관련계획

#### 1)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해양신산업 육성

#####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해양수산 관련 3개 과제

-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깨끗하고 풍요로운 어장
- 그 외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비, 해양안전, 관광복지 확대, 균형발전, 살고 싶은 어촌, 남북교류, 경제외교 등에서 타 부처와의 협력과제로 선정

##### >> 문재인 대통령 충남 방문 시 해양신산업 육성 발표 (2019.10.10.)

-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친환경선박, 첨단해양장비, 해양에너지 등 5대 핵심 해양 신산업 적극 육성
  - 현재 3조원 수준인 국내 해양 신산업 시장을 2030년 11조원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매출액 1,000억 원이 넘는 해양스타트업도 2030년까지 20개 발굴
  - 해양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유망한 기업과 인재들이 모이게 하고 연안 중심의 해역 조사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확대하여 해양자원 확보
  - 보령의 해양 머드, 태안·서천의 해송휴양림과 같은 해양관광도 활성화하여 지역발전을 이끌고 국가 R&D의 3% 수준인 해양수산 R&D를 2022년까지 5% 수준인 1조원까지 대폭 확대

#### 2)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2021~2025)

##### >> 계획의 비전 :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 실현을 지향
  - 모두를 위한 국토 :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균형 있는 포용국가 기반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 안전한 국토 조성
  - 함께 누리는 삶터 : 삶의 질, 건강 등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를 주거·생활·도시·국토 공간에서 구현, 깨끗하고 품격있는 국토환경 조성

## >> 계획의 목표 :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

-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시대 관성에서 벗어나 지역과 함께 성숙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발전 목표(3대)와 전략(6개) 제시



〈그림 2-16〉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비전도

자료 : 국토교통부(2020),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 >> 해양수산 분야는 전략 3을 제외한 모든 전략에서 18개 과제 도출

- 〈전략 1〉 농산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위기지역 대응
  - 정주여건 개선과 해양관광 활성화로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 어촌뉴딜300을 통한 어촌활력 제고,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접경지역·도서지역·특수상황지역 발전 지원
- 〈전략 2〉 매력적인 문화공간 조성 and 협력적 관광 활성화
  - 지역맞춤형 해양 레저관광 거점 구축
- 〈전략 4〉 국토자원의 미래가치 창출과 활용도 제고
  - 연안 및 해양환경 관광자원 활용, 연안정비사업 추진,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 구축
- 〈전략 4〉 품격있고 아름다운 국토경관 창출
  -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전주기 관리 강화
- 〈전략 5〉 인프라의 전략적 운영과 포용적 교통정책 추진
  - 도서민 여객선 운임 및 해상운송비 지원,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
- 〈전략 5〉 미래형 혁신 교통체계 구축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 〈전략 5〉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항만의 물류서비스 혁신, 동북아 항만물류정보서비스 네트워크 연계, 해운금융 및 선박관리산업 전문인력 양성
- 〈전략 6〉 한반도 평화·번영의 기반 조성
  - 북한 주요 항만 현대화
- 〈전략 6〉 글로벌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
  -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참여 및 해양환경 협력 강화, 한·중·일 유해 해파리 공동대응 및 황해갯벌 보전 협력

#### 태안 시사점

- 국토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어촌, 도서(섬)가 부각되어 있으므로,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SOC 확충을 통한 살기좋은 태안어촌 조성
- 지역맞춤형 관광산업 육성을 주요하게 담고 있으므로 태안의 특성을 살린 해양관광, 해양치유 산업 육성 및 추진
-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연안 및 해양 공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향후 연안관리계획 및 해양공간계획의 중요성 부각 예상

### 3)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2014~2023)

≫ 계획의 비전 : 품격과 매력이 넘치는 동북아 해양관광허브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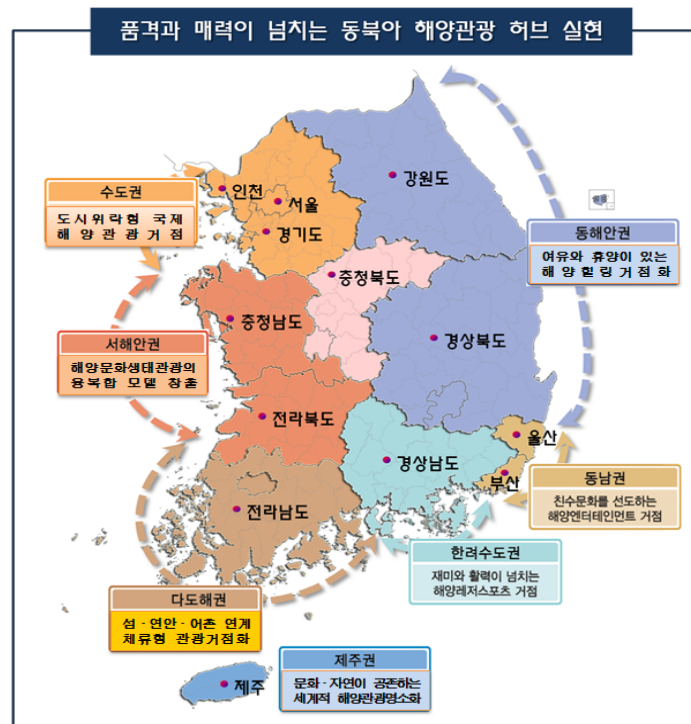
≫ 정책목표 : 국민행복 실현 및 창조경제 발전

- 해양 레저·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 2023년까지 해양여행이동총량 5억 일 달성
-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발전
  - 2023년까지 해양관광분야 신규일자리 3만5천개 창출

≫ 5대 전략과제

- 휴식과 회복이 있는 행복한 바다관광
  -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촉진, 해양치유관광 육성, 해양휴양공간 조성·정비, 노후항만의 해양친수공간화
- 체험과 학습이 있는 즐거운 바다관광
  - 생태관광 활성화,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마리나산업 고도화

- 문화와 예술이 있는 아름다운 바다관광
  - 해양문화자원 발굴 및 산업화, 해양문화시설 확충, 해양문화도시 브랜드 개발
- 생활 속 이야기가 있는 정겨운 바다관광
  - 어촌의 관광자원화, 테마가 있는 연안 조성, 섬 관광 활성화
- 세계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바다관광
  - 동북아 크루즈 허브 실현,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여수박람회장의 국제 해양관광 허브화, 국제대회 및 행사 참여·유치



〈그림 2-17〉 해안권역별 구상도

자료 : 해양수산부(2014),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 태안 시사점

- 지역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해양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해양생태관광, 해양레저스포츠, 해양치유 등 새로운 관광형태에 주목
- 해양 및 연안 공간을 자원화하고, 스토리가 있는 해양문화도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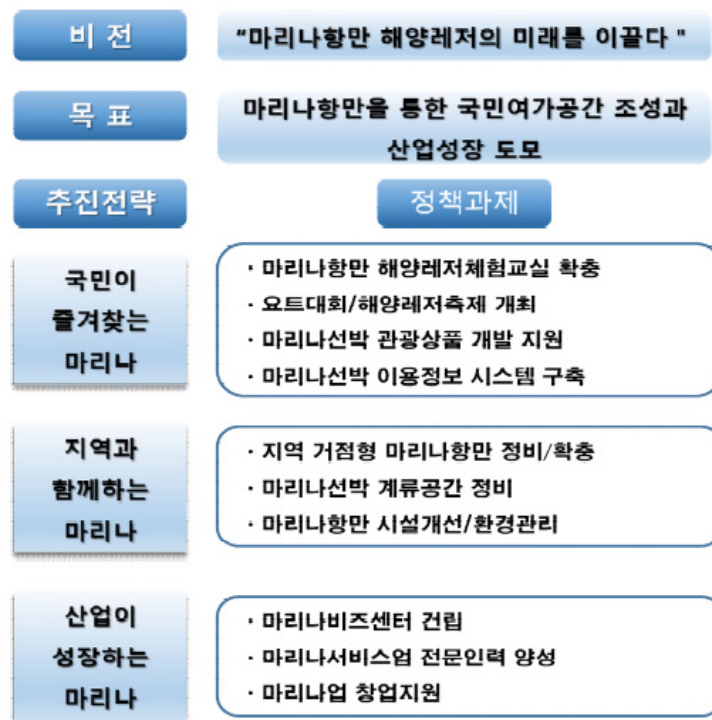
#### 4)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

≫ 계획의 비전 : 마리나항만 해양레저의 미래를 이끈다

≫ 계획의 목표 : 마리나항만을 통한 국민여가공간 조성 and 산업성장 도모

≫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 국민이 즐겨찾는 마리나
  - 마리나항만 해양레저체험교실 확충, 요트대회 및 해양레저축제 개최, 마리나선박 관광상품 개발 지원, 마리나선박 이용정보 시스템 구축
- 지역과 함께하는 마리나
  - 지역 거점형 마리나항만 정비 및 확충, 마리나선박 계류공간 정비, 마리나항만 시설개선 및 환경관리
- 산업이 성장하는 마리나
  -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마리나서비스업 전문인력 양성, 마리나업 창업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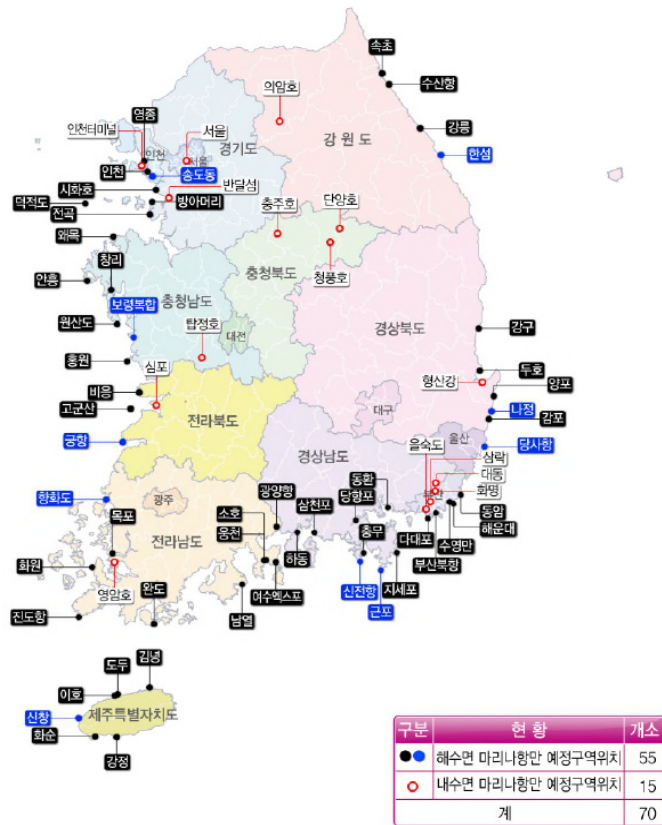


〈그림 2-18〉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비전도

자료 : 해양수산부(2020),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 》 충남도의 마리나항만구역 및 예정구역은 총 7개소

-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 왜목, 안흥, 창리, 원산도, 보령복합, 홍원, 탑정호
- 태안 안흥항이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선정<sup>16)</sup>
  - 서해안 서단에 위치하고 있어 외해로부터 접근이 용이하여 위치적인 장점 보유
  - 만(灣) 형태의 지형으로 인해 외곽시설 설치 시 정온도 확보에 유리
  - 서해안 최고의 청정바다와 인근의 태안해안국립공원 등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여 경관성이 뛰어나며 안흥항 꽃게축제, 안흥성, 해양유물박물관, 만리포 해수욕장 등의 다양한 관광자원이 분포하여 관광객 집객효과 우수



〈그림 2-19〉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위치도

자료 : 해양수산부(2020),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 태안 시사점

- 태안 안흥항이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선정되어 있으나, 조성 여건 및 민자투자 부진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향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마리나산업 육성 추진 필요

16) 해양수산부(2020),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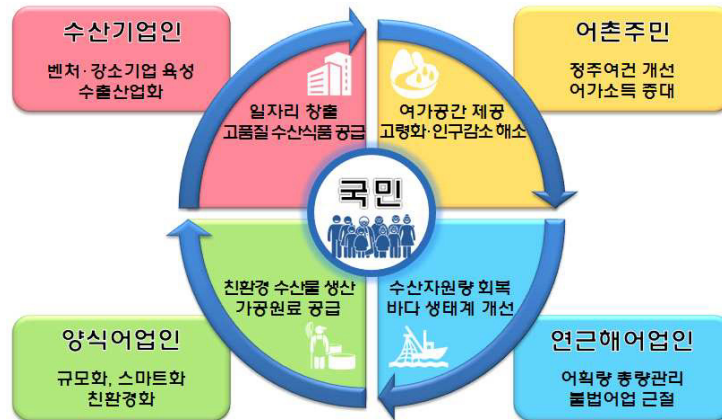
#### 4) 수산혁신 2030 계획

≫ 계획의 비전 :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 사는 어촌 실현

- 수산업 분야는 그동안 상당한 재정지원과 업계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 감소, 어촌사회 노령화 등 위기 직면
- 수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체제 구축 필요

≫ 계획의 목표

- 수산업 전체 매출액 100조 원 달성
  - ('16년) 67조 2,031억 원 → ('30년) 100조원 (연 2.9% 성장)
- 어촌 융복합 산업화로 어가소득 80백만 원 달성
  - ('17년) 49백만 원 → ('30년) 80백만 원 (연 3.8% 성장)
- 양질의 수산분야 신규 일자리 40,000개 창출
  - '19년부터 매년 3,300개 창출



〈그림 2-20〉 수산업의 사람중심 혁신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 수산혁신 2030 계획

≫ 부문별 수산혁신 비전

- 연근해어업 혁신 비전 2030
  - 어업기반구조 개편, 불법어업 근절, 자원관리형 낚시 정착, 어업환경 개선으로 자원량에 기초한 어획량 총량관리로 전환
- 양식어업 혁신 비전 2030
  - 스마트양식 확산, 양식업 규모화·기업화, 친환경 양식 정착 추진



- 어촌 혁신 비전 2030
  - 주민 정주여건 개선, 어촌소득 증대, 신규인력 유입·정착 추진
- 수산기업 혁신 비전 2030
  -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기업 성장인프라 확대, 수산기업 해외진출 지원 단계적 추진
- 유통·소비 혁신 비전 2030
  - 부가가치 창출형 유통구조 구축, 안심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생산자·소비자 상생 유통체계 확산

#### >> 수산혁신 4개년 실행계획

- 목표 : 2022년까지 수산업 매출액 80조원 달성, 어가소득 60백만원 달성, 신규 일자리 13,000개 창출
- 5대 전략 및 16개 추진과제
  - 〈연근해어업인 :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
    - TAC 중심 자원관리시스템 혁신
    -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및 지원체제로 전환
    -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및 어린 물고기 보호
    - 바다 생태계 회복 및 어선 안전망 확충
  - 〈양식어업인 :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 체계 구축〉
    - 양식어업의 규모화 기업화 지원
    - 첨단 스마트양식 확산
    - 친환경·재해 대응 예방양식 강화
  - 〈어촌주민 : 어촌뉴딜 300 사업 등을 통한 어촌재생 본격화〉
    - 어촌·어항의 혁신적 현대화
    - 어촌경제 혁신을 통한 새 소득원 창출
    - 청년 귀어·정착 기반 확충
  - 〈수산기업 : 창업·투자 확대로 우수 강소기업 육성〉
    - 수산기업 스타트업 성공모델 100개 창출
    - 수산기업 성장 플랫폼 구축
    - 수산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 〈일반국민 : 수산유통 혁신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 부가가치 창출형 수산물 유통구조 구축
    -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 생산자·소비자가 생산하는 유통체계 확산



〈그림 2-21〉 수산업의 2030 미래상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 수산혁신 2030 계획

#### 태안 시사점

- 태안은 서해안권 거점 수산도시로서 수산혁신 2030 계획의 대부분이 해당되므로, 향후 정책변화에 지속적인 관심 필요
- 특히, 양식어업, 어촌개발, 수산물 유통체계 등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투자 필요

## 5) 제3차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2020~2024)

≫ 기본방향 : 균형발전에 맞게 함께 고르게 잘사는 어촌·어항 조성 방향

- 어촌·어항 분리가 아닌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하여 정책 추진
- 마을간 항종 간 고른 포용적 개발 및 네트워크화
- 해역 및 지역 특색을 고려하고 국민 모두가 이용 가능하도록 개발
- 여건변화에 따른 재난·재해에 대응하고 운영관리를 위한 첨단기술 도입

≫ 비전 : 어촌을 신명나는 삶터로, 어항을 활력있는 경제거점으로

≫ 성과목표 : 통합재생과 균형발전, 특화개발과 지역혁신

- 2024년 까지 도시·어촌 소득비율 85%, 어촌지역 관광객 수 2억 명, 어촌·어항 종합만족도 77점으로 향상

≫ 4대 정책방향 및 12대 추진전략

- 통합재생 : 가고싶고 살고싶은 어촌·어항 재생
  - 어촌·어항 통합 재생 인프라 확충
  - 어촌·어항 유휴자원 재생
  - 모두가 살기좋은 어촌·어항 조성
- 균형발전 : 고르게 발전하는 어촌·어항 개발
  - 균형있게 발전하는 어촌·어항 조성
  - 더불어 잘사는 어촌 기반 구축
  - 지역성장을 주도하는 어항의 기능 강화
- 특화개발 : 특색있고 활력있는 어촌·어항 조성
  - 특색있는 어촌경제 활성화
  -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어항개발
  - 매력있는 어촌·어항을 위한 경쟁력 강화
- 지역혁신 : 안전하고 스마트한 어촌·어항 혁신
  - 안전한 어촌·어항 기반 구축
  - 깨끗한 어촌·어항 만들기
  - 편리한 어촌·어항 개발



〈그림 2-22〉 어촌어항의 미래상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 수산혁신 2030 계획

### 태안 시사점

- 태안군에는 총 89개의 어촌계가 있으며 이는 충남도의 52.7%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내 마을 대부분이 어촌마을의 성격 보유
- 어촌재생과 균형발전, 특화개발 및 지역혁신으로 태안 촌을 더욱 잘 사는 마을, 활력있는 마을로 육성 필요
- 태안군에 위치한 어항을 수산업의 거점이자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필요
- 어촌뉴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태안 어촌의 생활 SOC 확충 및 어촌경제 기반 조성

## 2. 충청남도 해양수산 관련계획

### 1) 서해안비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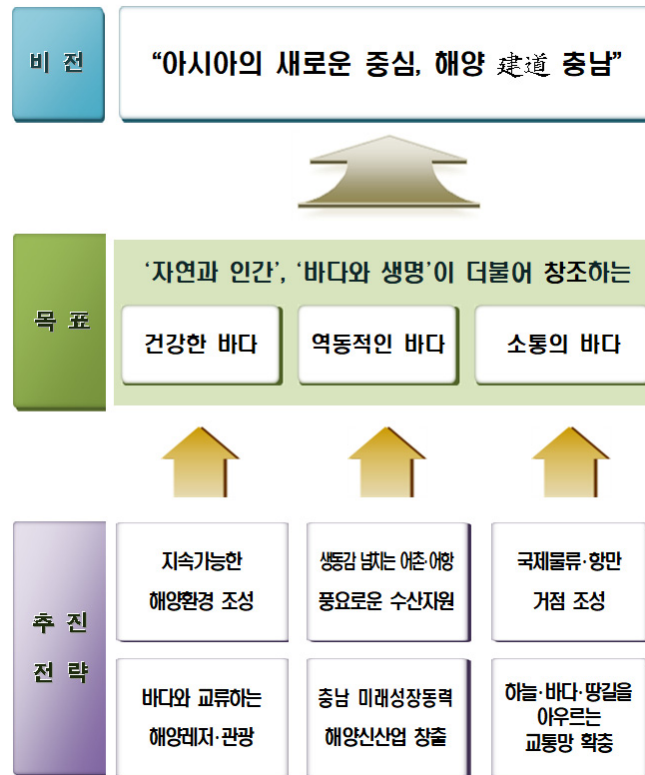
≫ 비전 :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建道 충남

≫ 목표 : ‘자원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더불어 창조하는 건강한 바다, 역동적인 바다

≫ 6대 추진전략

- 추진전략 1 :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
  - 해양환경 복원·보전을 통한 지속가능성 회복
  - 수질 개선 및 생태계 관리

- 연안 침식 대응 및 관리
- 도서지역 이용·접근성 제고
- 추진전략 2 : 바다와 교류하는 해양레저·관광
  - 크루즈·마리나 항만 조성 등 해양레저·관광의 거점화
  - 지역 해양자원 활용 인프라 확충으로 해양관광 발전 기반 조성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해양관광자원의 지역브랜드화
  - 천수만 해양관광벨트 조성
  - 유류오염관련 이미지 개선으로 관광수요 창출
- 추진전략 3 : 생동감 넘치는 어촌·어항, 풍요로운 수산자원
  - 전통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
  - 지역 특성화 품목 집중 육성
  - 시장 경쟁력 확보 및 신시장 개척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수산전문인력 양성
- 추진전략 4 : 충남 미래성장동력 해양신산업 창출
  -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 해양치유 헬스산업 육성
  - 해양에너지 개발산업 육성
  -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철강, 화학, 자동차 등 기간산업과 접목
- 추진전략 5 : 국제물류·항만 거점 조성
  - 충남도 내 핵심항만 기반 구축
  - 항만 배후단지 조성
  - 장항항 그린포트 조성
  - 항만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 추진전략 6 : 하늘·바다·땅길을 아우르는 교통망 확충
  - 서해 광역 교통망 확충
  -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 지역상생발전 연육교·연도교 건설
  - 관광·산업 교통망 구축



〈그림 2-23〉 서해안비전 추진계획 비전도

자료 : 충청남도(2015), 서해안비전 추진계획

### 태안 시사점

- 태안군은 충남의 대표적인 연안지역으로서 물류·항만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과 연관성 높음
- 그 중에서도 해양쓰레기 관리, 담수유역 해수유통, 유·무인도 관리·보전, 해양쓰레기 관리, 해양레저산업 육성, 명품 해수욕장 개발, 수산업·어촌 육성, 해양헬스케어 산업 육성 등이 현재 태안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성 높음

## 2) 충청남도 해양수산업발전계획

### 》 계획의 목적

- 충청남도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이용·개발하여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확한 정책적 방향 설정
- 충청남도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해양, 수산, 해양관광레저, 항만물류, 관련 인프라 구축 분야에 대한 비전과 중장기 발전계획 및 국가정책 반영의 기초 마련

>> 비전 :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 道 충남

-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풍요와 역동의 바다’, ‘세계를 향한 교류의 바다’를 목표 설정하여 충남도가 그리는 서해안 발전의 미래상 반영

>> 6대 추진전략

- 추진전략 1 : 지속가능한 해양안전·환경 조성
  - 자연친화적인 연안환경 복원
  - 연안 환경관리체계 확립 및 추진
  -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및 관리
  - 해양재해·재난 안전관리체계 구축
- 추진전략 2: 바다와 교류하는 해양레저·관광
  - 충청남도 관광 랜드마크 확보
  - 사계절 관광 포트폴리오 구축
  - 서해안권 해양레저 거점 조성
  -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
  - 충청남도 고유의 해양문화 창달
  - 도서지역 관광자원화
- 전략 3: 살기 좋고 풍요로운 어촌·아름다운 어항
  -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공간으로 육성
  - 살기좋은 어촌·어항 조성
  - 수산자원 회복·증대
  - 수산 경쟁력 강화
  - 연근해 수산양식 고도화 및 활성화
  - 내수면 양식 경쟁력 강화
  - 수산물 유통 및 수출 확대
- 전략 4 : 충남 미래 성장동력 해양신산업 창출
  - 지역자원 연계형 해양신산업 창출
  - 해양자원을 통한 에너지 혁신
  - 해양수산 중소기업 육성
- 전략 5 : 국제 물류·항만 거점 조성

- 항만능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
- 항만 활성화를 위한 체제 정비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항만 개발
- 항만 리모델링 및 신규 연안항 개발
- 전략 6 :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해양과 연결되는 교통망 정비
  - 해양관광 유치 촉진 및 시설 확충
  - 해양수산 연구기반 조성



〈그림 2-24〉 충청남도 해양수산업발전계획 비전도

자료 :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업발전계획

### 태안 시사점

- 태안군은 대부분의 사업과 연관성이 매우 높으며,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해양신산업 분야에서의 해양헬스케어, 해양바이오수소 산업은 선도적임
- 해양안전·환경 분야에서는 해양쓰레기 관리, 태안해안 국립공원 해양생태계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
- 해양레저·관광 분야에서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 신두사구 관광패키지 개발, 영목항 나들목 해양관광 거점 조성, 안흥 스토리텔링형 중국 역사자원 발굴 사업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수산업·어촌 분야에서는 양식 복합단지, 스마트 양식장, 수산물 브랜드 가치화, 수출 인프라 조성 등에서는 향후 좀 더 적극적인 투자 필요
- 항만 분야에서는 마리나 항만 개발, 복격렬비도 연안항 개발 등에 대한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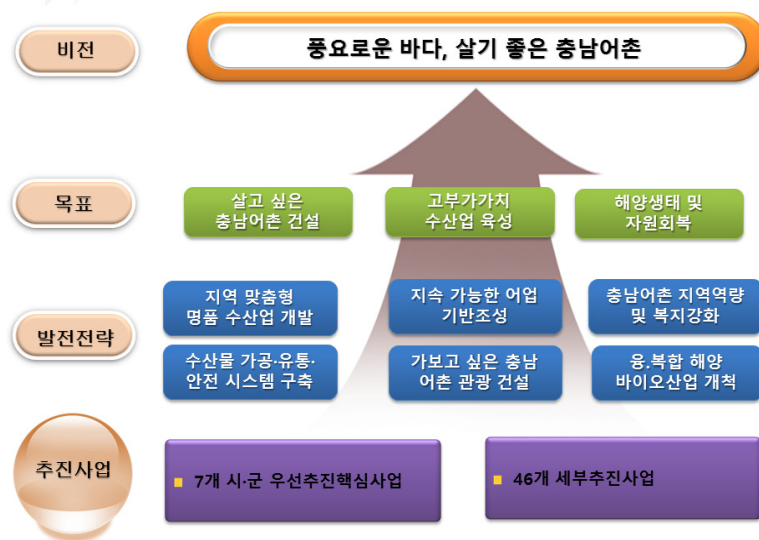


### 3) 충청남도 어업·어촌 중장기 발전전략

≫ 비전 : 하고 싶은 어업, 살고 싶은 어촌, 충남 명품 어업·어촌

≫ 3대 목표와 6대 발전전략

- 목표 1 : 살고 싶은 충남어촌 건설
  - 발전전략 1 : 지역 맞춤형 명품 수산업 개발
  - 발전전략 2 : 수산물 가공·가공·유통·안전 시스템 구축
- 목표 2 : 고부가가치 수산업 육성
  - 발전전략 3 :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도모
  - 발전전략 4 : 가보고 싶은 충남어촌 관광 건설
- 목표 3 : 해양생태 및 자원회복
  - 발전전략 5 : 충남어촌 지역역량강화
  - 발전전략 6 : 융·복합 해양바이오산업 개척



〈그림 2-25〉 충청남도 어업·어촌 발전전략 비전도

자료 : 충청남도(2016), 충청남도 어업·어촌 중장기 발전전략

#### 태안 시사점

- 충남 수산업의 약 50%를 점하고 있는 태안군으로서 수산업 육성 및 어촌사회 발전을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지속가능한 어업, 어촌 지역역량강화, 수산물 가공·유통 시스템 구축, 바이오산업 육성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전략적 투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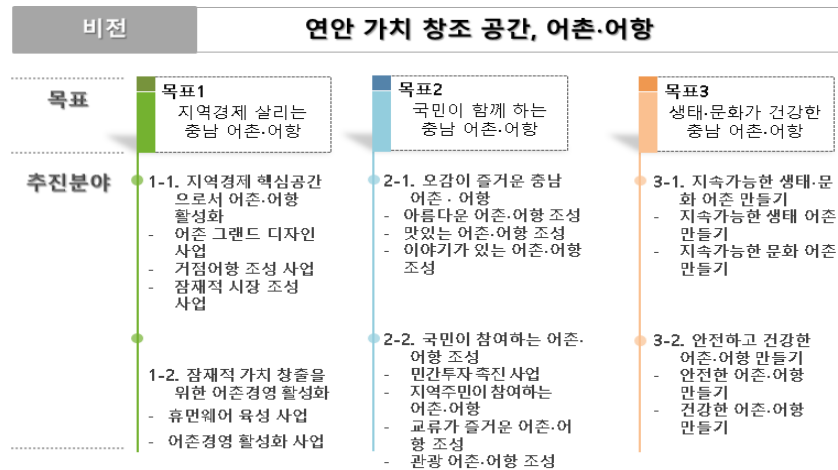
#### 4) 충청남도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 비전 : 연안 가치 창조 공간, 어촌·어항

- 충청남도 미래발전의 원동력, 연안의 가치 창조
- 연안의 잠재적 가치 창출로 선도적인 해양건도, 충남 실현에 기여

≫ 3대 목표 및 6대 추진분야

- 지역경제 살리는 충남 어촌·어항
  - 지역경제 핵심공간으로서 어촌·어항 활성화
  - 잠재적 가치 창출을 위한 어촌경영 활성화
- 국민이 함께하는 충남 어촌·어항
  - 오감이 즐거운 충남 어촌·어항
  - 국민이 참여하는 어촌·어항 조성
- 생태·문화가 건강한 충남 어촌·어항
  - 지속가능한 생태·문화 어촌 만들기
  - 안전하고 건강한 어촌·어항 만들기



〈그림 2-26〉 충청남도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비전도

자료 : 충청남도(2018), 충청남도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 태안 시사점

- 충남 어촌계의 약 50%가 입지해 있는 태안군이 어촌을 지역경제의 핵심공간으로 육성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어촌공간으로 조성하며, 생태와 문화가 어울리는 건강한 어촌 공동체 조성

## 5)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2021~2040)

≫ 계획의 목적 : 미래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충청남도 비전과 공간전략을 제시하는 도종합계획 수립

- 국토종합계획의 계획방향을 구현하는 지역계획, 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시·군종합계획 수립의 기본이 되는 지침계획, 미래공간 및 부문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종합계획

≫ 비전 : 삶의 질이 높은 더 행복한 충남

- 도민과 함께 설정한 비전으로서 미래비전 선호도 1순위로 충남의 미래가 청정한 환경과 복지가 충만한 삶의 질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것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가능해야 함

≫ 목표 : 경제중심, 환경중심, 사람중심, 복지중심, 문화중심 충남

≫ 공간구상 : 새로운 연대와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도시권 구현

- 광역적 관점 : 충남혁신도시 강소도시권 ~ 천안·아산 스마트 도시권 ~ 국가행정도시권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도시권을 구축하여 충청권 메가시티로 발전
- 초광역적 관점 : 충남~경기 상생협력권, 충남~전북 상생협력권

≫ 추진전략

- 추진전략1 : 경제일자리 및 농업경쟁력 강화
- 추진전략2 : 청정한 환경 및 자원관리
- 추진전략3 : 안전한 정주환경 인프라 조성
- 추진전략4 : 포용적 지역발전기반 강화
- 추진전략5 : 품격 있는 문화관광지역 조성

### 태안 시사점

- 충청남도 종합계획에서는 해양수산 분야를 별도로 다루고 있으며, 태안군과 관련하여 가로림만 해양정원, 부남호 해수유통(역간척), 해양치유산업 등 역점사업과 함께 수산업·어촌 육성,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환경복원 등 지역 이슈를 담고 있음

■ 목표 및 추진전략



〈그림 2-27〉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비전도

자료 : 양영석, '충남 4차 종합계획발표, 미래 20년 발전방향 밑그림 나왔다', 연합뉴스, 2020.10.30.일자.

### 3. 태안군 해양수산 관련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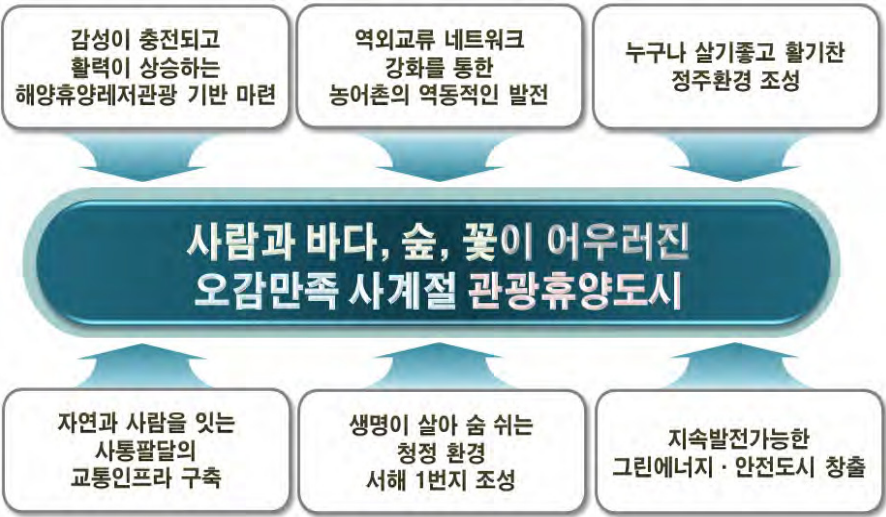
#### 1)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2014~2023)

≫ 비전 : 사람과 바다, 숲, 꽃이 어우러진 오감만족 사계절 관광휴양도시

- 회복(Resilience), 환경(Environment), 사람(People)이 어우러지는 도시

≫ 6대 발전목표

- 관광·문화 : 감성이 충전되고 활력이 상승하는 해양 휴양레저관광 기반 마련
- 농어업 및 농어촌 개발 : 역외교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농어촌의 역동적인 발전
- 정주환경 : 누구나 살기 좋고 활기찬 정주환경 조성
- 교통인프라 : 자연과 사람을 잇는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 구축
- 생태·환경 :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청정 환경 서해 1번지 조성
- 방재·에너지 : 지속발전가능한 그린에너지·안전도시 창출



〈그림 2-28〉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자료 : 태안군(2014),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

》 미래 지표 : 인구, 경제, 관광, 농어촌 삶의 질

- 인구 : 2023년 목표 인구를 10만 명으로 설정
- 경제 : 2023년 태안군 1인당 GRDP를 5,241만 원으로 제고
- 관광 : 2023년 목표 관광객 수를 약 2,000만 명으로 설정
- 농어촌 삶의 질 : 2023년 전국 50위권 이내의 상위권 진입



〈그림 2-29〉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의 미래상

자료 : 태안군(2014),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

## 2) 신해양 광개토사업(2020~2022)

≫ 비전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신해양도시 태안 건설

≫ 3대 목표

- 서해안의 중심으로 '신해양도시 태안' 건설 기반 마련
- 3대 전략과제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개발전략 수립
- 미래산업의 선도적 대응으로 신해양도시 태안 건설

≫ 3대 전략 및 27개 추진과제

- 신해양도시 특화산업 육성
  - 신해양도시 발전계획 수립, 해양항공 레저 클러스터 조성, 해양안전 복합센터 구축, 풍요의 날개, 해상풍력단지 조성, 태안 해안케이블카 설치,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 신해양 레저 모빌리티 복합단지 조성, 레저 보트 접안시설 구축,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 개최, 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구축
  - 태안의 후예(청년창업 지원), 갈등분석 및 관리, 육상 낚시 테마파크, CITTASLOW 커피산업 복합단지, 꽃지 해안 공원 주변환경 정비, 지역 관광경영조직 구성·운영, 태안군 문화재단 설립,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산림 레포츠 테마파크 조성, 우수기업 유치
- 스마트 태안 조성
  - 6차산업 농공단지 조성,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 조성, 친환경 유기농 급식센터 운영, 스마트 시티(에너지 혁신마을)만들기, 스마트 환경공원 조성, 태안 문화콘텐츠 강화, 인공지능연구센터 거점단지 조성

## 3) 태안군 기본계획(2020~2022)

≫ 핵심가치 : 군민행복, 청정환경, 녹색성장, 여가지대

- 군민행복 :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효과적인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계획의 대상인 태안군의 체감형 정책 실현
- 청정환경 : 태안군의 해안은 일찍이(1978년)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관리되어 국가차원의 생태적 보고(寶庫), 先보전·後개발의 원칙적 적용
- 녹색성장 : 국가적 성장기조와 그 뜻을 같이하고 先보전·後개발의 개발원칙을 설정함으로써 미래태안의 성장방향성의 제시

- 여가지대 : 자연생태자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관광컨텐츠를 발굴하고 수도권·충청권 등 3천만 배후인구의 여가지대로서 활용과 서해안 대표 관광지로서 위상 회복

≫ 미래상 : 사람과 자연을 잇는 황금해안, 창조적 도약을 꿈꾸는 신해양도시 태안

#### ≫ 8대 목표 및 추진전략

- [주민행복] 내실있는 사회·문화 인프라 구축
  -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한 정주여건 개선
  - 삶의 질을 높이는 태안형 복지 시스템 마련
- [주민행복] 활력 넘치는 공동체 형성
  - 자연과 상생하는 마을 만들기
  - 지역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소통체계 확보
- [청정환경] 청정태안의 미래가치 보전
  - 해양과 산림을 연결하는 생태축 설정
  - 생태축을 고려한 도시성장축 설정
- [청정환경] 환경과 경관의 지속가능한 성장관리
  - 생태환경의 경관적 질 제고
  - 훼손지역의 복구 및 관리방안 마련
- [녹색성장] 신해양도시 특화산업 기반 마련
  - 신해양도시 발전계획을 통한 전략적 성장동력 확보
  - 미래형 농어촌 6차산업 선제적 대응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 [녹색성장] 주변과 상생되는 미래형 공간구조 형성
  - 내륙과의 교류·협력 위한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 지역간 연계강화 위한 순환형 및 남북관통형 교통체계 구축
- [여가지대] 서해안 중심의 신해양도시 기반 마련
  - 4계절 체류형 관광을 통한 관광수요의 지속성 확보 및 파급효과 유도
  - 연안·섬 지역 연계 발전 및 해양자원가치 부각
- [여가지대] 관광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신해양·레저·관광 모빌리티 조성
  - 국내 주요 관광거점과의 연계상품 개발





〈그림 2-30〉 태안군 기본계획의 핵심가치 및 미래상

자료 : 태안군(2020), 2035년 태안군 기본계획



## 제4절 신해양도시 선진사례 검토

### ≫ 세계적인 해양도시로서 싱가포르, 스웨덴 말뫼, 독일 하펜시티 사례제시

- 싱가포르는 항만중심, 스웨덴 말뫼는 신산업 중심, 독일 하펜시티는 지역재생 중심
- 태안군은 스웨덴 말뫼와 독일 하펜시티의 사례를 접목한 방향이 바람직함

### 1. 신해양도시 선진사례 소개<sup>17)</sup>

#### 1) 싱가포르

### ≫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 작지만 강한 동남아 부유국이자 강소국

- 싱가포르는 과거 말레이시아와 함께 영국의 식민지였으나, 1959년 민족주의 성장에 힘입어 자치정부가 수립되고,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독립된 동남아 말레이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국가<sup>18)</sup>
  - 인구는 535만 명 수준이고, 1인당 GDP는 약 5만 달러로 부유한 국가
- 싱가포르는 은행, 상업 협회 및 상공회의소가 위치한 동남아 무역 중심지<sup>19)</sup>
  - 19세기 토마스 스탠포트 래플즈 경이 1819년 처음으로 섬에 상륙하였고, 이후 지역 군주들과의 조약을 통하여 싱가포르를 국제적인 교역소로 지정
  - 이 후 중개무역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국, 인도, 말레이제도 등 이민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이후 잭슨 플랜(Jackson Plan)이라고 알려진 래플즈 타운 플랜(Raffles Town Plan)을 통하여 이민자들 간의 거주지역을 정해 질서 있는 국제도시로 변모

### ≫ 싱가포르는 동남아를 대표하는 국제 중개무역항으로서 위상 확보

-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이후 국제 중개무역항으로서 싱가포르항의 역할 및 기능이 성장하여 국가경제가 크게 성장<sup>20)</sup>
  - 1964년 싱가포르항은 교통부 산하에 설립된 싱가포르 항만청(Port of Singapore Authority)에 의하여 운영

17) 김종화(2018), 충남 신해양도시 개념 및 육성방안. 인용·참고하여 작성

18) 싱가포르 관광 HP, 「<http://www.visitsingapore.com>」, 이하 동일.

19) 싱가포르 관광 HP, 「<http://www.visitsingapore.com>」, 이하 동일.

20) 정유선, '싱가포르 국내외 항만개발·물류정보서비스 제공', 국제신문, 2017.11.12.일자. 이하동일.

되다가, 1997년 10월 싱가포르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현재의 해운항만청(MPA: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과 PSA Corporation으로 분리 운영되었으며 2002년 PSA Corporation가 'PSA International'으로 이름 변경

- MPA는 항만을 개발하거나 개발계획 수립, 규제기관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총괄적으로 싱가포르 항만의 관리·운영 담당
- PSA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항만개발,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운영, 입출항 수로시설 개발, 항만 내 교통, 해외항만 개발사업 투자, 효율적인 항만시설과 서비스 제공
- 싱가포르항은 다른 목적지로 화물을 수송하는 중간 기착지 항구로서 개발
  - 싱가포르항은 파시르판장 터미널(23선석), 케펠 터미널(14선석), 브라니 터미널(9선석), 탄종파가 터미널(8선석), 주룽 터미널(5선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터미널의 총 면적은 339만㎡, 총 길이는 12,014m, 수심은 최대 16m로 대형선박들이 정박가능하게 건설<sup>21)</sup>
- 싱가포르항은 동남아 지역 내에서는 화물 확보가 어려워 태평양항로나 유럽항로 상 국가들의 화물을 연계시켜주는 환적허브로서 기능 설정<sup>22)</sup>
  - 전 세계 120여개 국가, 600개의 항만과 연계된 동남아 최대의 거점항만으로 성장하였고, 12시간 이내에 환적화물을 반출할 경우 약 35%의 하역비를 감면받을 수 있고, 정박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한 컨테이너선은 입항 비용을 10% 감면받을 수 있는 할인 및 인센티브 정책 추진
-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적화물 처리를 위하여 선진 IT 기술 포트넷(PORTNET)과 씨토스(CITOS) 도입<sup>23)</sup>
  - 포트넷은 싱가포르항과 선사·화주·운송업자 등 약 9,500여명이 하나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고, 씨토스는 다섯 개 터미널을 통합·운영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화 시스템
  - 항만 내에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대 내에는 200만㎡, 밖에는 42만㎡의 보관시설을 갖추어 세계적인 환적센터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환적 및 재수출화물에 대해서는 무료장치 허용기간이나 항만이용에 있어서 특별 우대조치 제공

## 》》 싱가포르의 동남아의 금융허브이자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성장<sup>24)</sup>

- 싱가포르는 항만뿐만 아니라 아시아 금융의 허브로서 세계 유수의 금융기업 진출
- 마리나베이샌즈, 센토사섬, 클락 키 등 친수공간이 조성되어 전 세계 관광객이 즐겨 찾는 해양관광도시로 성장
- 대대적인 주택보급사업을 통하여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하였으며, 현재는 전 국민의 90% 이상이 자기 소유의 집에서 거주

21) EDUNET T-CLEAR, 「<http://www.edunet.net>」

22) 박채운, 세계적인 환적허브 '싱가포르항', KORAB, 2016.02.11.일자, 이하 동일.

23) 박채운, 세계적인 환적허브 '싱가포르항', KORAB, 2016.02.11.일자, 이하 동일.

24) 네이버 지식백과, 싱가포르역사 다이제스트 100, 「<https://terms.naver.com>」, 이하 동일.



〈그림 2-31〉 싱가포르항 전경

원자료 : 네이버 블로그, 싱가포르 탐색 「<https://blog.naver.com/ki0456/110024389660>」.  
자 료 : 김종화(2018), 충남 신해양도시 개념 및 육성방안.

## 2) 스웨덴 말뫼

### ≫ 말뫼는 스웨덴 남부의 항구도시로서 과거 중요한 무역항으로서 역할 수행

- 말뫼는 스웨덴 남부에 위치한 항구도시이고, 스코네 주의 주도<sup>25)</sup>
  - 인구는 23만7천 명으로 외레순드 해협을 사이에 두고 덴마크 코펜하겐과 접경
  - 한자동맹시대(12~13세기)에는 북해 청어어업의 근거지였고, 1658년까지 덴마크 영토였으나, 이후 스웨덴에 편입
  - 스웨덴의 중요한 무역항으로 석탄·석유·금속·화학제품이 수입되고, 곡물·사료·설탕·시멘트 등 수출

### ≫ ‘말뫼의 눈물’로 유명한 스웨덴 조선업의 상징<sup>26)</sup>

- 2000년대에 들어서 스웨덴 조선업이 파탄나자, 말뫼의 코쿰소 조선소가 2002년 경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골리앗 크레인을 당시 1달러라는 가격에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면서 ‘말뫼의 눈물’이라는 별칭 생김
  - 말뫼는 과거 청어잡이 기지로서 1775년 근대적인 여항시설을 갖추었고, 이후 조선업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

### ≫ 도시개혁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 적극 육성<sup>27)</sup>

- 태양열·풍력·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정보기술·생명공학·컨벤션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적극 육성

25) 네이버 지식백과, 말뫼, 「<https://terms.naver.com>」, 이하 동일.

26) 장서형 ‘조선업 몰락하자 고부가가치 산업 발달한 친환경도시로 대전신’, chosun.com, 2017.10.20.일자, 이하 동일

27) 장서형 ‘조선업 몰락하자 고부가가치 산업 발달한 친환경도시로 대전신’, chosun.com, 2017.10.20.일자, 이하 동일

- 현재 신재생에너지 100% 자급자족하는 친환경도시로 관광객 및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
- 친환경·하이테크 등 신산업을 도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 내 기업인·노조·시정부의 합의를 도출하여 추진
- 주변지역과 연계, 인재육성, 일자리 창출로 스웨덴에서 가장 젊은 도시
  - 인재 육성 및 유입을 위하여 1998년 말뚝대학을 설립하였고, 2000년에는 말뚝과 덴마크 코펜하겐을 연결하는 외레순대교 개통
  - 유럽연합(EU)이 말뚝의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자금을 투자했으며, 스웨덴 정부도 2억5000만 크로나(약 355억 원)를 친환경 뉴타운사업 지원
  - 2002년 옛 조선업 근로자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창업 인큐베이터 '밍크'를 개소하였고 말뚝의 실업률은 6~7%대까지 하락하여, 현재 말뚝인구 절반이 35세 미만인 스웨덴에서 가장 젊은 '최연소 도시' 발돋움



〈그림 2-32〉 스웨덴 말뚝 전경

원자료 : NAVER 포스트, [북유럽이야기-스웨덴], 친환경도시, 말뚝 「<http://post.naver.com>」.  
자 료 : 김종화(2018), 충남 신해양도시 개념 및 육성방안.

### 3)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sup>28)</sup>

#### ≫ 함부르크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도시이고, 하펜시티는 항구지역

- 함부르크는 유럽에서 로테르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항구도시이자, 독일에서도 두 번째로 큰 도시
  - 한자동맹 중심 지역이었으며 19세기까지 최첨단을 걷는 항구도시이자 관세자유지역으로 번성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항만 및 부대시설이 파괴되었고, 1960년대 현대화 항구로 재건되어 1990년까지 그 명맥 유지
- 함부르크 내 하펜시티는 항구로 조성되었으나, 주민들 거주는 열악
  - 하펜시티는 1868년 현대식 항구로 조성된 곳이었으나, 주민들이 거주하기에는 지리적으로 열악하여 주로 선박용 창고나 물류저장창고 중심으로 이용
  -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교통 및 물류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1980년대 최초로 하펜시티에 대한 재개발 논의

#### ≫ 하펜시티는 지역 연계성을 갖춘 지역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개발

- 함부르크는 하펜시티 재생사업을 시행함에 앞서 개발사업에 치중하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연계성을 갖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설정
  - 역사적 가치가 있는 대상 및 건축물 등을 조사하고 재구성하여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상부지가 시 중심가에서 2km 떨어진 또 하나의 도심지로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 1997년 함부르크 시의회가 하펜시티 재개발에 대한 허가를 내리고 2000년 최종 마스터 플랜이 완성되어 2001년부터 착공
- 하펜시티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내용은 수자원 환경을 적극 활용한 문화와 교육으로 지식기반 산업과 함께하는 친환경도시로서 이미지 구축
  - 市정부와 계획가들은 사업구역 내 문화·관광시설물로 엘베 필하모닉과 국제 유람선 선착장, 국제 해양 박물관 및 하펜시티 함부르크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와 교육시설 조성
  - 역사적 가치가 높은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한 가치 보전 및 새롭게 조성되는 건축물의 평균 높이를 6~7층으로 고도 제한함으로써 오늘날의 두바이나 맨해튼, 싱가포르와 같은 마천루형 도시계획 지양
- 하펜시티 사업면적은 총면적 157ha에 이르며, 약 6,000개의 주거와 45,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목표
  - 총 사업비는 약 10.4억 유로(약 1조5천6백억 원)로 민간자금 8억 유로(약 1조2천억 원), 공공자금 2.4억 유로(약 3천6백억 원)가 투자
  - 이 중 토지매각에 따른 자금 확보는 1.5억 유로(약 2천2백5십억 원)에 달함

28) 심우배(2012),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도시재생 사업', 지역과 발전 Vol. 8, 지역발전위원회, 인용·요약하여 작성



≫ 하펜시티 프로젝트로 인구분산 효과가 발생하고, 친수공간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 하펜시티 프로젝트의 효과로 함부르크시의 경우 중심가 인구의 약 40%가 분산되었고, 약 10.5km의 친수공간, 약 26ha의 공원, 광장, 보행자도로 등이 확보되어 시민들의 여가 및 문화 공간 조성
- 현재 하펜시티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단계적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사는 총 18개 구역으로 구획하여 각 구역별로 5~7년의 공기를 두고 진행
- 하펜시티 지역은 99%의 토지가 분양된 상태이며, 현재 49개의 프로젝트가 완공되었고, 35개의 프로젝트가 건설 및 계획 중



〈그림 2-33〉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전경

원자료 : 이현준, '[세계 항만도시 성공사례](1)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경향신문, 2009.09.01.일자.

자 료 : 김종화(2018), 충남 신해양도시 개념 및 육성방안.

## 2. 선진사례를 통한 태안모델 제시

### 1) 선진사례를 통한 시사점<sup>29)</sup>

≫ 싱가포르, 말뫼, 하펜시티는 모두 항만을 중심으로 발달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 후 해양도시로서 성장과정이 다르게 나타남

-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 태평양항로와 유럽항로 상 국가들의 화물을 이어주는 국제 중개 무역항으로 성장하면서 도시국가의 모습을 갖추어나간 사례
  -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하였고, 마리나샌즈베이, 센토사섬과 같은 해양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성장
  - 이는 도시국가의 성격상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과 함께 중개무역의 최적지로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한 결과
- 스웨덴 말뫼는 조선업이 파탄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었으나, 친환경·하이테크·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한 해양도시
  - 덴마크 코펜하겐과 외레순 대교를 개통하면서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말뫼대학을 설립하여 지역인재 육성
  - 창업 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옛 조선업 실업자들에게 새로운 창업의 기회 제공
  - 이러한 체계적인 도시개혁정책을 통하여 실업률은 감소하고, 청·장년층 인구는 증가하는 스웨덴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발돋움
- 독일 함부르크는 하펜시티 프로젝트를 통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
  - 지역 연계성을 갖춘 지속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식기반산업과 함께 친환경도시 이미지 구축
  - 다양한 문화 및 교육 시설을 조성하였고,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보전하기 위한 건축물 고도 제한 등 시행
  - 수자원을 활용하여 친수공간을 확보하면서 주민들의 정주여건 및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고, 문화·여가 시설을 확충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

### 2) 태안군에 주는 시사점

≫ 신재생에너지 및 하이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스웨덴 말뫼의 사례를 통하여 현재 태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해상풍력 등) 및 하이테크(인공지능, 해양치유, 그린수소 등)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
- 주변지역과의 연계 및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상생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신산업 육성에 협력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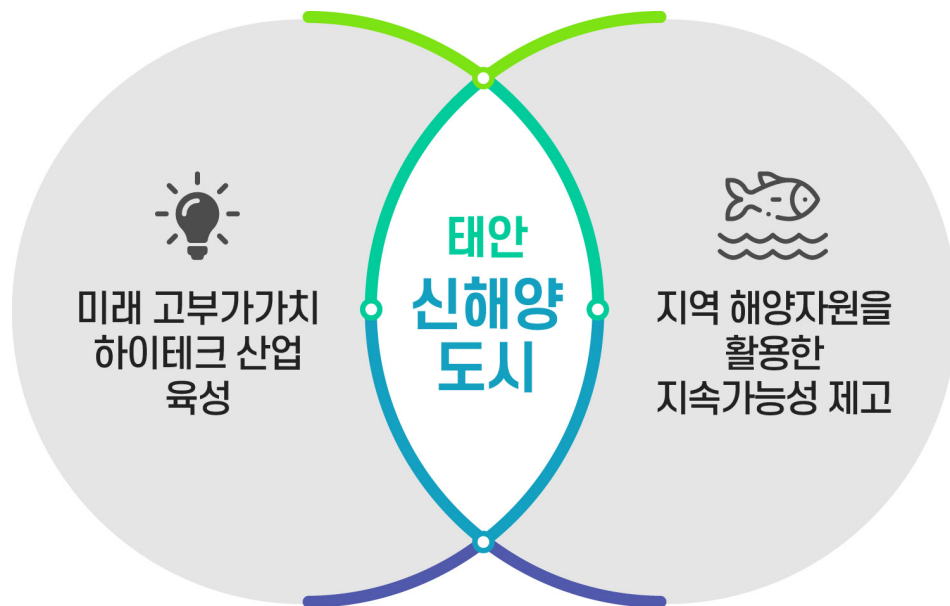
29) 김종화(2018), 충남 신해양도시 개념 및 육성방안. 인용·참고하여 작성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인재 육성을 통하여 신성장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젊고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 창출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설정

- 최근 국가정책(도시재생, 어촌뉴딜 등)에 부합하여 지역자원과의 연계성을 갖춘 지속가능한 발전에 방점
- 친환경 및 지식기반 산업을 통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도시이미지 구축
-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 해양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고, 적절한 개발과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친수공간 확보 및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좋은 연안도시 이미지 창출

》 미래의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산업육성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한 신해양도시 모습 도출 가능



〈그림 2-34〉 태안 신해양도시 모습



## 제3장 新해양도시 현황 및 여건분석

제1절 태안군 기본현황

제2절 신해양도시 주민인식 조사

제3절 태안군 해양수산 SWOT 분석

| 태안군 新해양도시 미래비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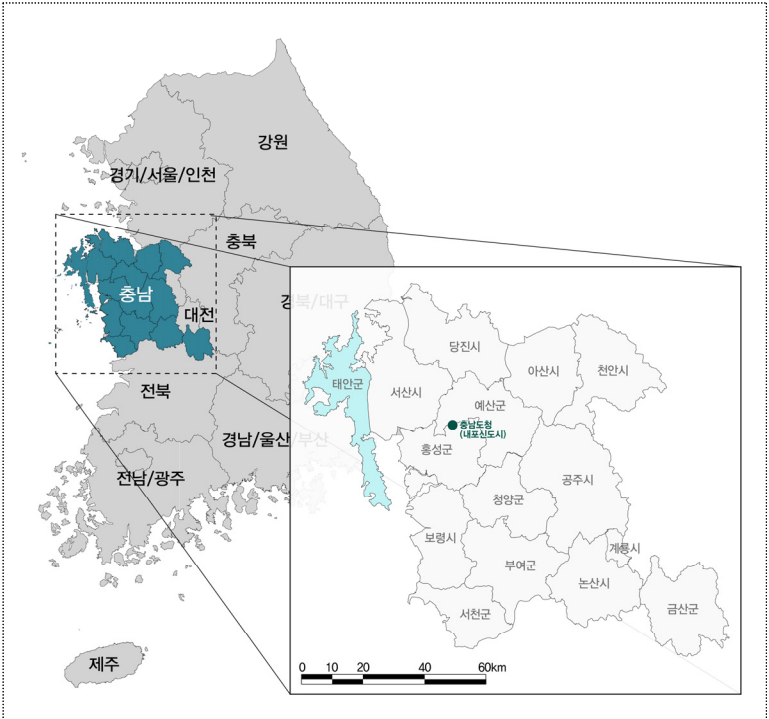
# 제1절 태안군 기본현황

## 1. 태안군 일반현황

### 1) 태안군 지리적 위치

≫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의 최서단에 위치한 반도형태의 농어촌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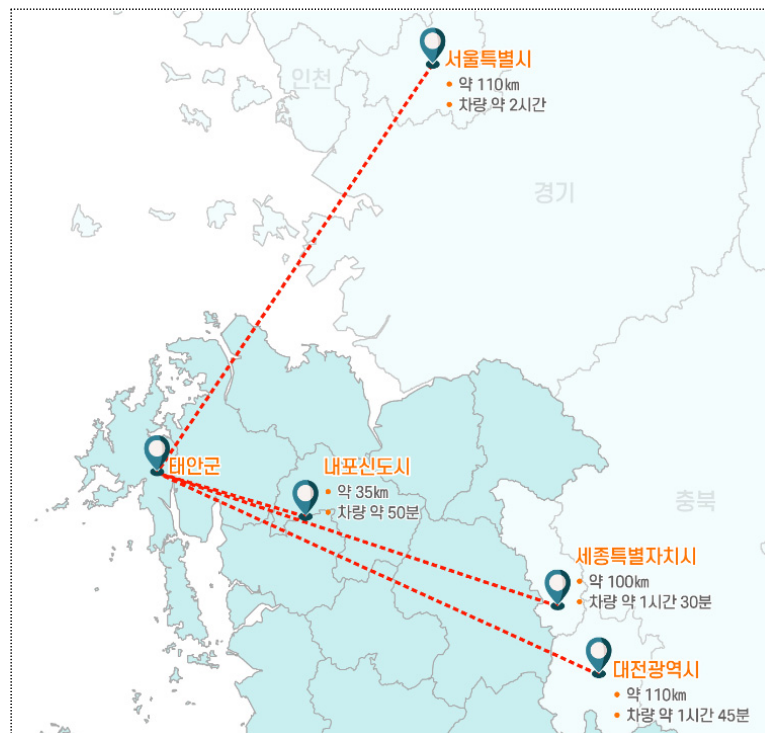
- 태안군은 동쪽을 제외하고는 3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지역
  - 해안선 길이는 559.3km로 전국 8번째로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갯벌면적은 338.9km<sup>2</sup>로 전국 7번째로 넓은 갯벌 보유
  - 태안군 도서(유·무인도)는 118개이고, 국토 최서단 격렬비열도 위치
- 태안군의 내륙은 저산성 구릉지로서 많은 산지가 개간지로서 개발되어 논·밭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서해안의 리아스식 해안으로서 과거 간척지로 개발



〈그림 3-1〉 태안군 지리적 위치

≫ 수도권 및 광역도시와 지리적으로 가까우나 교통접근성 미흡

- 서울특별시 약110km(2시간), 대전광역시 약110km(1시간 45분), 세종시 약100km(1시간 30분), 내포신도시 약35km(50분) 이격
- 직선거리 기준으로는 광역권도시와 근접해 있으나, 고속도로IC 및 철도 부재로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편
  - 서산IC는 태안군청으로부터 직선거리 22km 이격되어 약 30분 소요



〈그림 3-2〉 태안군 지리적 접근성

## 2) 인구현황

≫ 태안군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 비율 높음

- 1995년 72,168명이었던 태안군 인구는 2019년 62,743명으로 연평균 0.58%씩 감소
  - 같은 기간 충남도 및 전국은 각각 연평균 0.57%, 0.51%씩 증가

〈표 3-1〉 태안군 인구변화 추이

(단위 : 명, %)

연도	1995	2000	2005	2010	2019	연평균 증감률
태안군	72,168	68,746	63,794	63,247	62,743	-0.58
충청남도	1,852,361	1,921,604	1,962,646	2,075,514	2,123,709	0.57
전국	45,858,029	47,732,558	48,782,274	50,515,666	51,849,861	0.51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고령인구 비율은 2019년 기준 29.6%로 충남도(18.2%) 및 전국(15.5%)에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
  -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장래에 생산연령에 유입되는 인구에 비하여 부양해야 할 노년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
  - 태안군의 고령인구 비율증가 속도가 연평균 4.47%씩 증가함에 따라 전국(4.27%) 및 충남(2.59%) 평균에 비교하여 고령화율 진행속도가 빠른 편

〈표 3-2〉 태안군 고령 인구비율 현황

(단위 : %)

연도	2000	2005	2010	2015	2019	연평균 증감률
태안군	12.9	17.2	21.6	25.8	29.6	4.47
충청남도	11.2	13.3	14.9	16.4	18.2	2.59
전국	7.0	8.9	10.9	13.1	15.5	4.27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 : 고령화인구비율 :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 3) 지역 경제·산업 현황

#### ≫ 충남도에서 태안군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 충남 경제에서 태안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역내총생산(GRDP) 기준으로 2010년 2.05%에서 2016년 1.75%로 꾸준히 감소
  - 태안군 GRDP는 2010년 1조 7,089억 원에서 2016년 1조 9,466억 원으로 연평균 2.19%씩 증가했으며, 충남도는 동기간 4.97%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태안군은 충남도에서 부(-)의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표 3-3〉 태안군 GRDP 추이

(단위: 백만 원)

연도	2010	2013	2016	연평균 증감률
태안군(A)	1,708,929	1,855,255	1,946,656	2.19%
충청남도(B)	83,166,818	98,002,393	111,287,442	4.97%
태안군 비중(A/B)	2.05%	1.89%	1.75%	-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 태안군 사업체 수는 6,052개로 충남도내 3.6% 수준 불과

- 충남도내 사업체는 2017년 기준으로 약 16만6천2백여 개가 있으며, 이 중 태안군에는 6,052개가 소재하여 도내에서 중·하위권(10위)
- 충남도 종사자 수는 약 89만7천8백여 명이고, 이 중 태안군에 21,843명이 종사하여 2.4% 수준
- 충남연안 북부지역(서산, 당진)의 석유·화학 및 제조 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태안군의 제조산업 기반 취약

〈표 3-4〉 충청남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2017)

(단위 : 개, 명)

시·군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계	166,247	897,794
태안군	6,052	21,843
천안시	49,666	275,994
공주시	8,983	45,952
보령시	8,739	36,807
아산시	21,385	166,035
서산시	12,499	70,038
논산시	10,569	45,337
계룡시	2,271	10,391
당진시	12,584	79,109
금산군	5,803	25,540
부여군	4,940	20,316
서천군	4,722	20,426
청양군	3,118	12,221
홍성군	7,998	37,011
예산군	6,918	30,774

자료 : 충청남도(2019), 제59회 통계연보.

≫ 태안군은 충남연안 시·군간 주요 산업별 사업체 수를 비교하면 대부분 하위권 수준이며, 특히 제조업 및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약

- 농림어업은 당진, 홍성, 보령에 이어 4위
- 제조업은 당진, 서산, 보령, 홍성, 서천에 이어 6위
- 건설업은 당진, 서산, 홍성, 보령에 이어 5위
- 도매·소매업은 서산, 당진, 보령, 홍성에 이어 5위
- 숙박·음식점업은 서산, 당진, 보령에 이어 4위
- 교육 서비스업은 서산, 당진, 보령, 홍성에 이어 5위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당진, 서산, 홍성, 보령, 서천에 이어 6위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당진, 서산, 보령, 홍성에 이어 5위

〈표 3-5〉 충남 연안 시·군의 주요 산업별 사업체 수(2017)

(단위 : 개)

구 분	농림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 업	숙박· 음식업	교육서비 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보령시	24	677	334	2,402	2,367	339	289	271
서산시	20	886	537	3,218	2,934	551	442	353
당진시	32	1,379	540	2,983	2,762	459	460	420
서천군	19	529	202	1,337	968	141	190	104
홍성군	30	640	357	2,261	1,677	325	296	212
태안군	20	300	212	1,562	2,256	156	156	155

자료 : 충청남도(2018), 2017 제57회 통계연보.

≫ 태안 원북면에 태안화력이 위치해 있으며 5,052MW 시설용량 보유

- 태안화력은 139만 명의 부지에 석탄화력 5,050MW와 신재생에너지 2.3MW 생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태안화력발전(주)이 협업하여 해양바이오수소 실증 플랜트가 2019년 완공되어 연간 약 330톤의 수소 생산 예정

〈표 3-6〉 충청남도 내 발전소 현황(2017)

구 분	발전소명	위치	면적 (만 평)	시설용량(MW)			
				계	석탄화력	복합화력	신재생
계				19,465.6	16,110	3,231.8	123.8
석탄	보령화력	보령시 (오천)	147	5,358.3	4,000/(8기)	1,350	8.3
	서천화력	서천군 (서면)		1.2			1.2
	당진화력	당진시 (석문)	112	5,872	5,860/(10기)		12
	태안화력	태안군 (원북)	139	5,052.3	5,050/(9기)		2.3
복합 (LNG)	GS EPS(주)	당진시	13	1,516	-	1,416	100
	MPC 대산	서산시	5.2	465.8	-	465.8	-
부생가스	현대그린파워	당진시	3.8	800	부생가스 (100×8기)		

자료 : 김종화(2018), 서천군 해양산업 발전 기본계획; 원자료 : 충청남도(2019), 제59회 통계연보

## 》 충남연안에는 총 79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태안에는 2개만 위치

- 태안군에는 산업단지가 2개소(태안도시첨단, 태안농공단지) 있어, 타 지역에 비하여 산업기반 취약

〈표 3-7〉 충남연안 산업단지 현황(2018)

(단위 : 개)

구 분	산업단지				
	계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충남연안	79	6	30	2	41
아산시	19		10		9
보령시	11	1	3		7
서산시	16	1	11		4
당진시	15	3	5		7
홍성군	10		1	1	8
서천군	6	1			5
태안군	2			1	1

주 : 하나의 산업단지가 여러 시·도에 입지해 있는 경우, 해당 연안지역의 개별단지로 보고 카운터함

자료 : 김종화(2018). 충남 신해양도시 개념 및 육성방안(원자료 : 산업입지정보센터 「<https://www.industryland.or.kr>」)

## 》 지역경제 수출동력은 미미한 편이며, 무역수지 적자 지역

- 태안군은 2019년 기준 수출(약 500억 원)보다 수입(약14조원)이 훨씬 큰 지역으로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부(-)의 성장추세



- 충남도는 경기도 다음으로 수출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체이나, 태안군의 경우 충남 수출의 0.001%, 수입의 0.03% 수준으로 무역활동이 거의 전무한 지역

〈표 3-8〉 태안군 수출·입 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수출	1,878	4,693	4,740	48,663	48,638
수입	186,510	483,692	1,142,901	300,971	1,191,638
수지	-184,632	-478,999	-1,138,161	-252,308	-1,143,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

- 2019년 품목기준으로 살펴보면, 수입품목의 경우 유연탄이 전체 수입의 9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품목의 경우 화장품이 39.2% 차지
  - 기타 수입품목의 경우 원동기부품, 어망 등이 차지하며, 수출품목의 경우 가구, 농산가공품 등, 수산물의 경우 태안군 수출의 2.22% 차지
  - 태안군 주요 수출국가는 중국이며, 수입 국가는 호주, 러시아,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등
- 수산물을 중심으로 수출입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0억 수준이었던 수출은 2016년 144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2019년 29억 원으로 다시 급감
  - 반면, 수산물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2019년 기준 무역수지는 적자

〈표 3-9〉 태안군 수산물 수출·입 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2000	2005	2010	2013	2015	2016	2017	2019
수출	153	204	143	1,849	4,214	12,132	5,305	2,447
수입	0	78	978	165	336	443	1,259	2,597
수지	153	126	-835	1,684	3,878	11,689	4,045	-150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

## 2. 태안군 해양수산 현황

### 1) 해양수산의 지리적 여건

≫ 충남에서 바다를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3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태안반도

- 북으로는 가로림만, 동으로는 천수만과 인접해 있는 대표적인 서해안 해양도시
  - 우리나라 최서단으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격렬비열도가 태안군에 위치
- 태안군은 동쪽만 서산시와 연륙되어 있으며, 나머지 3면이 모두 바다와 접해 있는 반도로서 해양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
  - 리아스식 해안으로 만곡이 심하여 간척지가 잘 개발되어 있어, 풍부한 해양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 위치



〈그림 3-3〉 충청남도 연안지역

주: 빨간 색 부분이 태안과 인접한 연안지역

≫ 국도 77호선 원산안면대교(안면도~원산도)가 개통되었고, 2021년 보령 해저터널(대천~원산)도가 개통되면 태안의 지리적 여건 크게 변화

- ‘안면도~원산도’ 해상교량(솔빛대교) 건설에 따라 6.1km 구간 2019년 개통
- ‘대천~원산도’ 간 해저터널 공사 중이며 8.0km 구간이 2021년 완공 예정



〈그림 3-4〉 원산안면대교(솔빛대교) 모습

자료 : 윤기창, 금강일보, 2019.1.13.일자.

2) 수산업·어항 현황

≫ 총인구 대비 어업인구 비중은 11.8%로 전국평균의 약 50배

- 태안군 총인구는 꾸준히 감소하여 왔으나, 2019년 기준 어업인구 비중은 11.8%로 어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큰 지역
  - 우리나라 평균 어업인구 비중은 0.23%로 상당히 작은 편이나, 태안군의 경우 11.8% 차지
  - 어업인구 수는 전국 116,883명, 충남 17,999명, 태안군 7,404명으로 어업인구 비중은 각각 0.23%, 0.85%, 11.8% 수준

〈표 3-10〉 태안군 어업인구 현황(2019)

구분	총인구(A)	어업인구(B)	어가 수	어업인구 비중(B/A)
태안군	62,743	7,404	3,511	11.8%
충청남도	2,123,709	17,999	8,473	0.85%
전국	51,849,861	116,883	51,494	0.23%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태안군 통계연보

≫ 태안군은 충남 어촌계의 52.7%를 차지하는 수산郡

- 충남도 어촌계는 총 169개이고, 이 중 태안군 어촌계는 89개로 충남도내에서 52.7% 차지
- 태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안면도 30개, 고남면 14개, 근흥면, 남면 각 12개로 구성

〈표 3-11〉 충남 어촌계 현황(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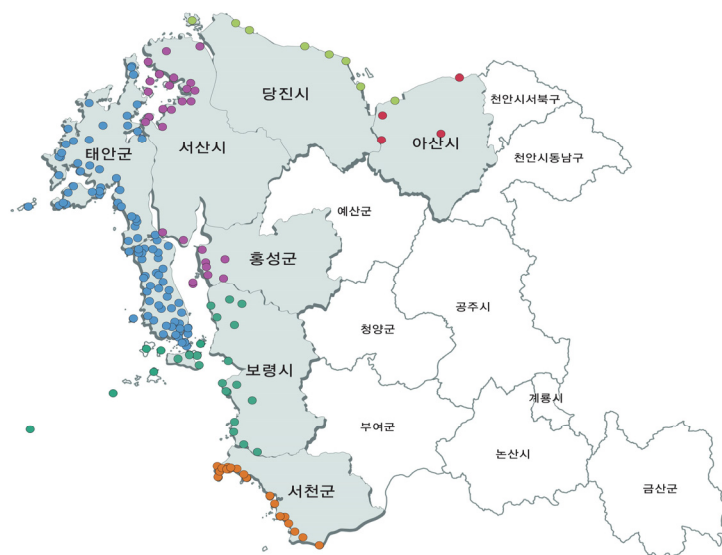
구 분	계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아산
어촌계	169개 (100%)	26 (15.4%)	20 (11.8%)	7 (4.1%)	19 (11.2%)	7 (4.1%)	89 (52.7%)	1 (0.1%)

자료 : 충청남도 업무자료

〈표 3-12〉 태안군 어촌계 현황(2019)

구 분	계	근흥면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태안읍	남면	안면도	고남면
어촌계	89	12	11	3	6	1	12	30	14

자료 : 충청남도 업무자료



〈그림 3-5〉 충남 어촌계 현황(2019)

자료 :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 업무자료

>> 태안군은 충청도내에서 가장 많은 어업권 보유지역

- 태안군 어업권은 7,334ha로 충남 전체 18,931ha 중 38.7%를 차지하며, 건수 기준으로 700건으로 전체의 53.2% 보유
  - 어업권 중 양식어업 면적은 4,596ha로 태안군 전체의 62.7%를 차지하며, 건수 기준으로는 37.3% 보유

〈표 3-13〉 충청남도 어업권(2018)

(단위: 건, ha)

구 분	계		마을·정치어업		양식어업		내수면어업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충청남도	1,316	18,931	461	7,863	834	11,068	21	787
보령시	206	3,202	115	2,373	91	829	-	-
서산시	163	1,893	32	406	131	1,487	3	-
당진시	59	832	36	664	23	168	17	-
서천군	126	4,856	75	1,317	51	3,540	-	-
홍성군	41	814	17	366	24	448	-	-
예산군	-	-	-	-	-	-	1	-
태안군	700	7,334	186	2,737	514	4,596	-	-

자료 : 충청남도(2019), 제59회 통계연보

- 양식어업권 기준으로는 태안군이 차지하는 면적이 6,639ha로 충남도의 48.3%를 차지하며, 건수 기준으로는 618건으로 64.3% 차지
  - 태안군 양식어업권은 여촌계 관할 면적이 6,062ha로 91.3%를 차지하며, 협업 5.3%, 개인 2.6%, 수협 0.7%순

〈표 3-14〉 충청남도 양식어업권(2018)

(단위: 건, ha)

구 분	계		개인		협업		여촌계		수협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충청남도	961	13,752	62	364	67	671	819	11,170	13	1,445
보령시	90	838	10	47	-	-	78	771	2	20
서산시	138	1,546	8	66	11	174	119	1,306	-	-
당진시	23	168	2	2	8	70	11	88	2	8
서천군	51	3,539	4	60	10	72	30	2,037	7	1,370
홍성군	41	921	5	15	-	-	36	906	-	-
태안군	618	6,639	33	174	38	355	545	6,062	2	47

자료 : 충청남도(2019), 제59회 통계연보

≫ 수산물 어획량은 연평균 9.8%씩 지속적으로 감소 중

- 태안군 수산물은 2018년 기준 5,890M/T, 706억원 수준으로 2014년 이후 금액기준 연평균 9.8%씩 감소
  - 어획종류별 비중을 보면, 2014년 어류의 비중은 49.1%로 가장 많았으나, 2018년 19.2%로 감소하였고, 갑각류는 30.3%에서 39.1%로 증가, 연체동물은 15.2%에서 33.8%로 증가

〈표 3-15〉 태안군 수산물 어획고(2018)

(단위: M/T, 백만 원)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감률
계	수량	10,745	12,193	10,046	7,494	5,930	-13.8
	금액	106,884	70,217	100,132	79,217	70,690	-9.8
어류	수량	4,672	6,421	3,864	2,189	1,813	-21.1
	금액	52,532	10,798	34,924	16,840	13,580	-28.7
갑각류	수량	2,655	2,414	2,185	1,828	1,490	-13.4
	금액	32,405	36,540	32,462	31,388	27,670	-3.9
연체동물	수량	2,083	2,101	2,665	2,219	1,612	-6.2
	금액	16,335	18,001	26,802	25,456	23,946	10.0
패류	수량	1,285	1,211	1,293	1,222	966	-6.9
	금액	4,938	4,314	5,381	5,477	4,456	-2.5
기타 수산물	수량	50	46	39	36	49	-0.5
	금액	673	564	562	55	1,036	11.4

자료 : 태안군(2019), 30회 통계연보

≫ 태안군 어선은 총 1,650척으로 충남에서 가장 많은 어선 보유

- 태안의 어선은 동력선 1,625척, 무동력선 25척으로 충남 전체 어선의 28.7% 차지
  - 충남도에는 총 5,735척의 어선이 있으며, 태안 1,650척 다음으로 보령 1,358척, 서천 1,343척, 당진 533척 순

〈표 3-16〉 충청남도 어선현황(2018)

(단위 : 척)

구 분	어선구성		
	계	동력	무동력
계	5,735	5,657	60
공주	-	-	-
보령	1,358	1,339	19
아산	102	102	-
서산	484	481	3
논산	23	14	9
당진	533	533	-
금산	-	-	-
부여	14	13	1
서천	1,343	1,340	3
청양	-	-	-
홍성	160	160	-
예산	50	50	-
태안	1,650	1,625	25

자료 : 충청남도(2019), 제59회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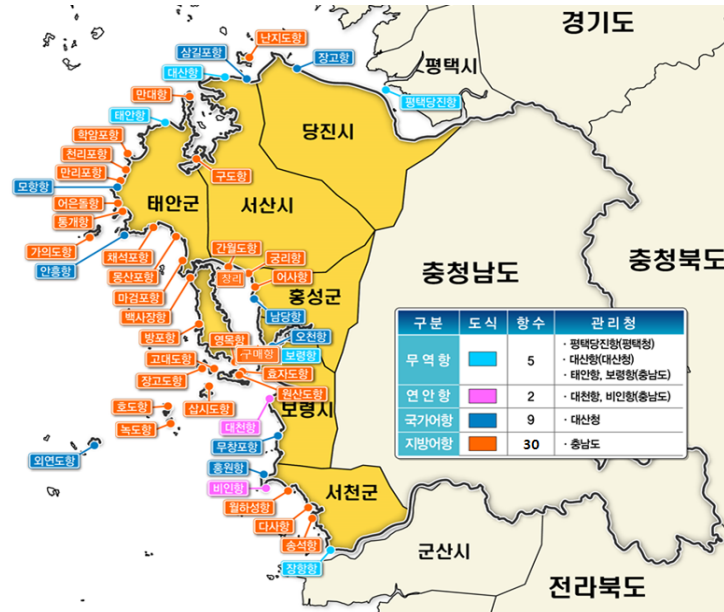
>> 태안의 어항은 국가어항 2개, 지방어항 14개로서 충남도의 각 22.2%, 46.6% 점유

- 국가어항 (2개) : 모항, 안흥항,
- 지방어항 (14개) : 가의도, 구매, 마검포, 만대, 만리포, 몽산포, 방포, 백사장, 여은돌, 영목, 채석포, 천리포, 통개, 학암포
- 어촌정주어항 (12개) : 가경주, 개목, 당암, 대야도, 연포, 의점포, 정산포, 청산항, 탄개포, 황골, 황도, 황포
- 소규모어항 (14개) : 곰섬, 내리, 당산, 독개, 뒷장별, 만수동, 미개, 장곰, 장돌포, 정당, 죽도지, 진상, 내파수도, 외도

〈표 3-17〉 태안군 어항 현황

구 분		어 항
국가어항(2)		모항, 안흥
지방어항(14)		가의도, 구매, 마검포, 만대, 만리포, 몽산포, 방포, 백사장, 여은돌, 영목, 채석포, 천리포, 통개, 학암포
어촌정주어항(12)		가경주, 개목, 당암, 대야도, 연포, 의점포, 정산포, 청산, 탄개포, 황골, 황도, 황포
소규모 어항	육지(12)	곰섬, 내리, 당산, 독개, 뒷장별, 만수동, 미개, 장곰, 장돌포, 정당, 죽고지, 진상
	도서(2)	내파수도, 외도

자료 : KMI(2019), 2019 수산해양환경통계



〈그림 3-6〉 충청남도 무역항, 연안항, 어항 현황

자료 : 충청남도(2018), '충청남도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을 인용·수정

## >> 태안의 어항 중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사업 대상지는 총 9개 선정

- 충청남도는 2019~2021년에 총 26개의 어촌뉴딜 사업지 선정
  - 2019년 선정현황(6개) : 보령 1, 서산 1, 당진 1, 태안 2, 서천 1
  - 2020년 선정현황(15개) : 보령 3, 서산 2, 당진 2, 서천 1, 태안 5, 홍성 1, 아산 1
  - 2021년 선정현황(6개) : 보령 1, 서산 1, 당진 1, 홍성 1, 태안 2
- 태안군 대상지는 가의도북항, 대야도항을 포함하여 총 9개
  - 2019년 사업지 : 가의도북항, 가경주항
  - 2020년 사업지 : 대야도항, 만대항, 만리포항, 백사장항, 개목항
  - 2021년 사업지 : 마검포항, 황도항

〈표 3-18〉 충청남도 어항 현황

(단위 : 개)

지 역	국가어항			지방어항
	연안	도서	계	
보령시	2	1	3	7
서산시	1	-	1	3
당진군	1	-	1	1
서천군	1	-	1	3
홍성군	1	-	1	2
태안군	2	-	2	14
계	8	1	9	30

자료 : KMI(2019), 2019 수산해양환경통계



### 3) 해양관광 현황

≫ 충청남도의 해수욕장은 33개로 강원 93개, 전남 57개 다음으로 많음

- 강원 93개 > 전남 57개 > 충남 33개 > 경남 27개 > 경북 25개 순

≫ 태안군 해수욕장은 28개로 충남도내 대천, 무창포, 춘장대를 제외하고 모두 태안군에 위치

- 태안에 위치해 있는 만리포, 꽃지해수욕장 이용관광객은 충남도내에서 4~5번째로 많은 이용객 방문 (점유율 84.8%)
  - 태안군 해수욕장은 백사장과 완만한 수면, 울창한 송림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해안선을 따라 조성되어 있고, 더불어 항구, 소규모 포구와 섬이 밀집되어 있어 해양관광의 최적지로 평가

〈표 3-19〉 충남 해수욕장 이용관광객

해수욕장명	지역	이용관광객 수
대천	보령	9,027,505
춘장대	서천	1,201,975
무창포	보령	598,000
만리포	태안	409,157
꽃지	태안	212,880

주 : 2015~2020년 평균

자료 : 충청남도(2019), 제59회 충남 통계연보

〈표 3-20〉 태안군 해수욕장 현황

위치	해수욕장 명
안면읍(8)	백사장, 삼봉, 기지포, 안면, 밧개, 방포, 꽃지, 셋별 해수욕장
고남면(2)	바람아래, 장삼포 해수욕장
남면(5)	몽산포, 달산포, 청포대, 마검포, 곰섬 해수욕장
근흥면(2)	연포, 갈음이 해수욕장
소원면(7)	파도리, 어은돌, 만리포, 천리포, 백리포, 의항, 구름포 해수욕장
원북면(3)	신두리, 구례포, 학암포 해수욕장
이원면(1)	꾸지나무골 해수욕장

자료 : 태안군 홈페이지 「<https://www.taeon.go.kr>」

## >> 태안에는 총 118개의 도서(섬)가 위치해 있으며, 이 중 8개가 유인도

- 충남도내에서 유인도가 가장 많은 지역은 보령으로 총 15개가 있으며, 태안 8개, 서산 4개, 당진 3개, 서천 1개, 홍성 1개 위치<sup>30)</sup>
  - 태안군 도서(섬) 세대 수는 6,684호, 인구는 12,369명, 면적은 128.6km<sup>2</sup>
- 태안 안면도는 연륙된 유인도서이고, 전국에서 5번째로 큰 면적 보유<sup>31)</sup>
  - 전국 면적기준 상위 5위 (연륙)도서는 거제도, 진도, 강화도, 남해도, 안면도

〈표 3-21〉 태안군 도서(섬) 현황

구분		주요 특징
안면읍	외도	· 육지와 직선거리 2.5km(안면도에 속함) · '섬 밖의 외딴 섬'이라는 의미 (11가구, 25명 거주) · 여객선 및 유람선이 운행되지 않는 무인도, 낚시명소
	내파수도	· 태안 반도의 서남단(안면읍 승언리에서 1시간) · 유일한 구석(球石)자연 방파제가 있음
남면	삼도	· 남면몽산포 해수욕장에서 17km · 국방용지로 편입되어 있으며, 3개의 섬을 통틀어 삼섬이라 하며 가장 큰 섬을 삼도라 함(삼성, 지치, 울미도)
근흥면	가외도	· 안흥에서 서쪽으로 5.5km(안흥항에서 40분) · 온 섬이 동백나무와 떡갈나무 등 원시 천연림
	병풍도	· 신진도리 신항에서 2시간 · 한폭의 동양화처럼 병풍모양이라 칭함
	궁시도	· 안흥항에서 1시간 30분 · 서해의 공해에 외롭게 떠있는 모습이 활과 시위에 걸린 화살과 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
	웅도	· 충남 유일의 유인등대섬
	란도	· 꿩이갈매기 2만여 마리의 서식지(4월~6월)
	정족도	· 철새들의 낙원으로 '새섬'이라고도 하며, 해당화, 몽돌해안, 기암괴석의 풍경
	안흥 앞섬	· 안흥항 앞에 위치한 섬의 수는 대략 20여개로 점같은 작은 섬들이 위치

자료 : 태안군 홈페이지 「<https://www.taean.go.kr>」

## >> 태안군에는 농어촌체험이 가능한 체험·휴양마을 운영

- 태안군은 농촌과 어촌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기에 농촌체험과 어촌 체험을 동시에 진행
  - 어촌체험은 갯벌에 서식하고 있는 패류 및 갑각류, 연체동물류 등을 채집할 수 있는 체험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전통적인 고기잡이 방식인 독살체험도 진행하면서 농촌체험으로는 수확체험 운영 중
  - 총 11개의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중 병술만, 대야도, 용신, 만대 마을이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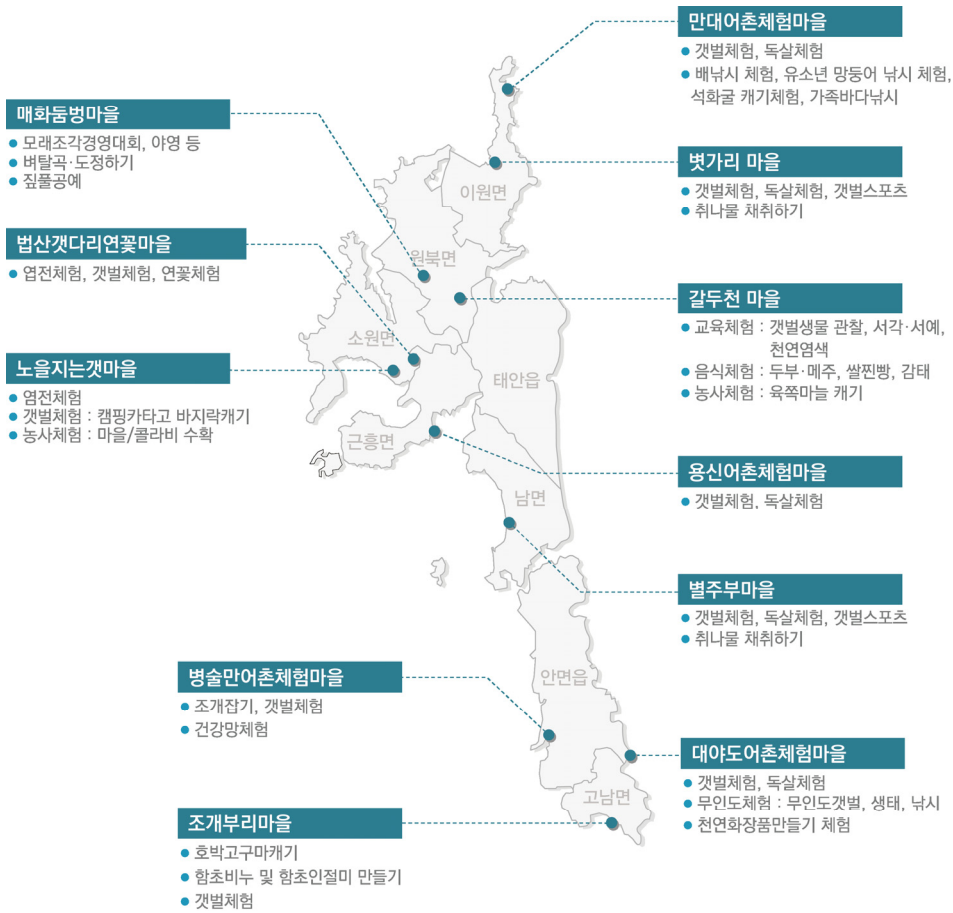
30) 김종화(2019), '충남 해양산업의 혁신성장 방향'

31) 김종화(2019), '충남 해양산업의 혁신성장 방향'

〈표 3-22〉 태안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현황

위치	체험·휴양마을
안면읍	병술만어촌체험마을, 대야도어촌체험마을
고남면	조개부리마을
남면	별주부마을
근흥면	용신어촌체험마을
소원면	법산갯다리연꽃마을, 노을지는갯마을
원북면	매화동방마을, 갈두천마을
이원면	벚가리마을, 만대어촌체험마을

자료 : 윤정미 외(2020), 태안 안흥외항 경관개선 및 활성화 전략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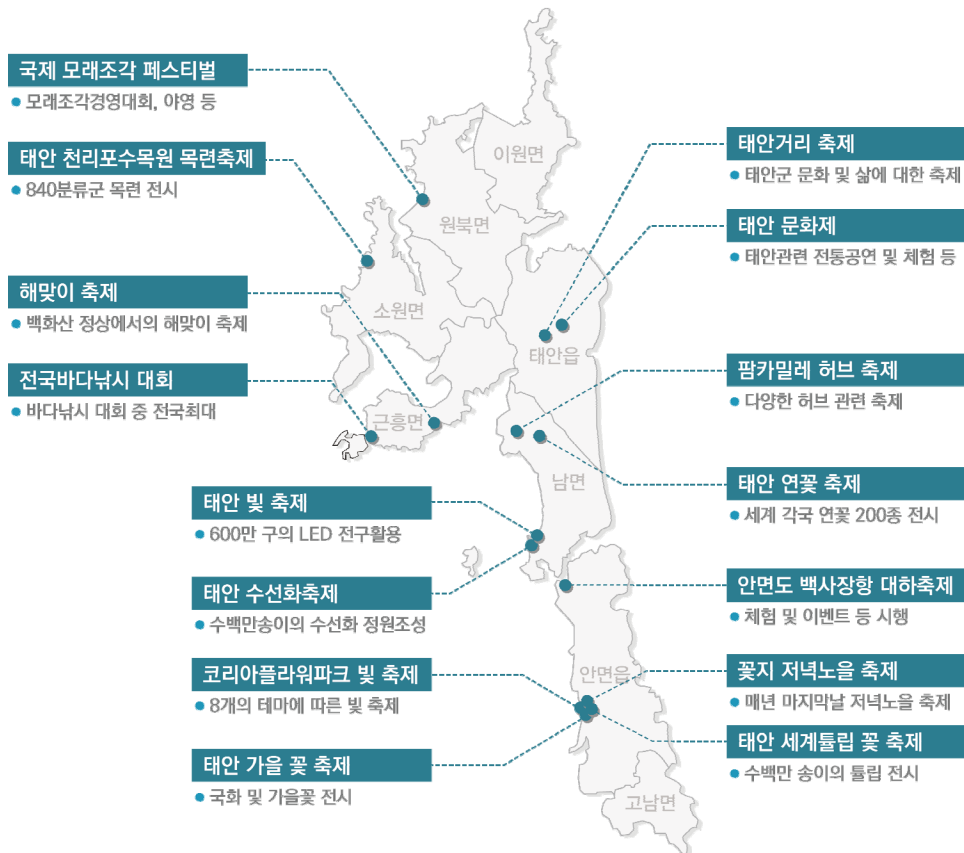


〈그림 3-7〉 태안군 체험마을 현황

자료 : 윤정미 외(2020), 태안 안흥외항 경관개선 및 활성화 전략수립, 충남연구원

## 》 해양성 기후와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한 지역축제 개최

- 허브, 수선화, 튼リップ, 국화 등 각 계절에 절정을 이루는 꽃과 식물류를 전시하여 관람객을 집객하고 있으며, 바다낚시축제, 대하축제 등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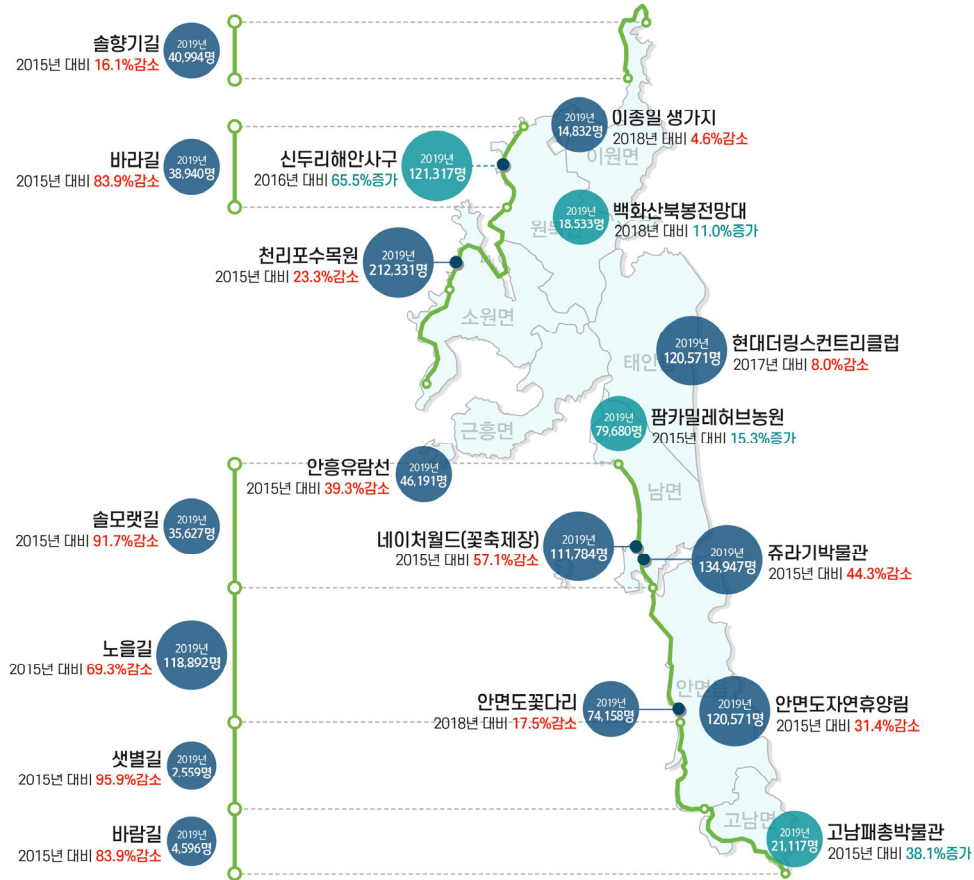


〈그림 3-8〉 태안군 축제현황

자료 : 윤정미(2020), 태안 안흥외항 경관개선 및 활성화 전략수립, 충남연구원

## 》 태안군 관광객은 2017년까지 증가하다가 2018년부터 감소 추세

- 2015년에 비해 2019년 관광객이 938,057명이 감소하였으며,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감소세가 뚜렷해 질 것으로 예상
- 꽃 축제장 입장객수가 많이 감소하였으며 가장 많이 방문한 관광지는 안면도자연휴양림, 천리포 수목원, 신두리해안사구, 주라기 박물관, 골프장, 꽃 축제장



〈그림 3-9〉 태안군 관광객 현황

자료 : 윤정미(2020), 태안 안흥외항 경관개선 및 활성화 전략수립, 충남연구원

#### 4) 해양환경 현황

≫ 태안군의 해안선 길이는 559.34km로 전국 8번째 규모이고, 충남지역 해안선의 45% 차지

- 우리나라 전체 해안선 길이는 14,962.81km이며, 태안군은 전체 해안선 길이의 3.74%를 차지하는 전국 8번째 규모의 기초지자체지역
- 가장 긴 해안선을 보유한 연안지역은 신안군(12.8%)이며, 다음으로 인천광역시(7.2%), 완도군, 여수시, 통영시, 고흥군, 진도군 순으로 대부분 전라도 지역

〈표 3-23〉 우리나라 해안선 길이 (상위 10위)

(단위 : km)

구분	지역	해안선길이	비중
전 체		14962.81	100.0%
1	신안군	1927.70	12.9%
2	인천광역시	1078.82	7.2%
3	완도군	1037.87	6.9%
4	여주시	1005.82	6.7%
5	통영시	760.77	5.1%
6	고흥군	744.66	5.0%
7	진도군	709.07	4.7%
8	태안군	559.34	3.7%
9	거제시	544.07	3.6%
10	부산광역시	379.82	2.5%

자료 : KMI(2019), 2019 수산해양환경통계

- 충남도에서 태안군이 가장 긴 해안선을 보유한 지역이며, 다음으로 보령(21.9%), 서산(12%), 당진(9.2%), 서천(8.9%), 홍성(2.1%), 아산(0.62%) 순
- 육지부는 태안군 해안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도서부는 보령시 비중이 큼

〈표 3-24〉 충청남도 해안선 길이

(단위 : km)

지역	해안선길이	육지부		도서부	
		자연해안선	인공해안선	자연해안선	인공해안선
보령시	272.99	31.47	45.81	162.14	33.57
아산시	7.71	-	7.71	-	-
서산시	148.99	50.34	70.60	24.94	3.11
당진시	115.09	7.45	77.49	26.48	3.67
서천군	111.48	37.97	40.57	17.11	15.83
홍성군	26.43	2.20	17.36	4.50	2.37
태안군	559.34	266.24	152.87	138.14	2.09
계	1,242.03	395.67	412.41	373.31	60.64

자료 : KMI(2019), 2019 수산해양환경통계

## >> 태안 갯벌면적은 128.8km<sup>2</sup>로 전국에서 7번째로 넓은 면적 보유

- 충남도의 갯벌면적은 338.9km<sup>2</sup>이고, 이 중 태안의 갯벌면적은 128.8km<sup>2</sup>로서 충남도의 38.0% 차지
- 충남도내 연안 지자체의 갯벌면적은 서천 72.3km<sup>2</sup> > 서산 66.0km<sup>2</sup> > 보령 30.5km<sup>2</sup> > 당진 20.2km<sup>2</sup> > 홍성 13.4km<sup>2</sup> > 아산 7.7km<sup>2</sup> 순

〈표 3-25〉 전국 갯벌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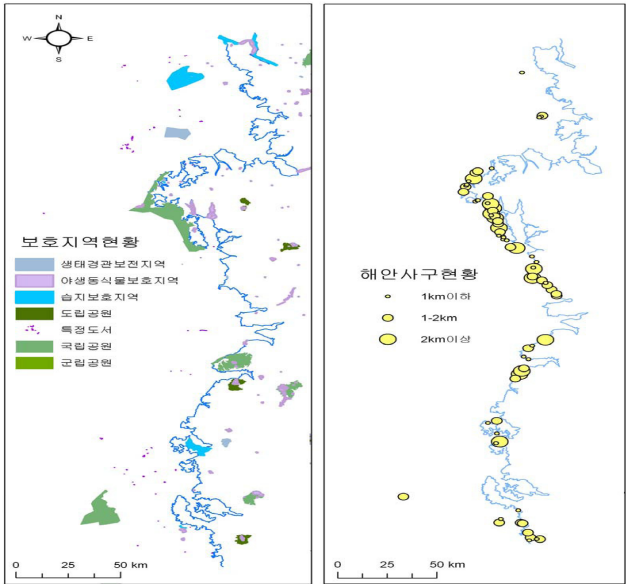
(단위 : km<sup>2</sup>)

지역		갯벌 면적
인천광역시		728.3
경기도		167.7
전라북도		110.5
전라남도		1053.7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82.9
충청남도	소계	338.9
	보령시	30.5
	아산시	7.7
	서산시	66.0
	당진시	20.2
	서천군	72.3
	홍성군	13.4
	태안군	128.8
계		2,482.0

자료 : KMI(2019), 2019 수산해양환경통계

》 태안군 전체는 해양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지역자원 보유

- 태안군 전체는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으로서 습지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해양생물보호구역, 수산자원보전지역 등 지정
  - 태안해안국립공원(자연공원), 두웅습지(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 신두리사구해역(해양생태계보호구역), 신두사구(생태경관보전지역), 가로림만해역(해양생물보호구역), 천수만(수산자원보전지역) 등 다수의 해양생태 자원 보유



〈그림 3-10〉 서해안지역 보호지역 및 해안사구 분포현황

자료 : 충청남도(2015), 서해안비전 추진계획

## 5) 항만시설 현황

### ≫ 태안에는 지방관리 무역항인 태안항 위치

- 충청남도 소재 항만은 총 7개이고, 이 중 무역항은 총 5개이며, 태안항은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분류
  - 국가관리 무역항 : 평택·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 지방관리 무역항 : 보령항, 태안항
  - 지방관리 연안항 : 대천항, 비인항



〈그림 3-11〉 충청남도 소재 지정항만의 위치

자료 : 충청남도(201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유치 타당성 개발 및 설립방안

### ≫ 태안군은 풍부한 해양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항만시설은 취약

- 태안 항만시설은 안벽 1,234m, 물양장 287m, 접안능력 4개로 구성



〈표 3-26〉 충청남도 항만시설 현황

항만(Port)		단위	전국합계	평택·당진	대산	태안	보령	장항
시설현황								
안벽(Quay Length)		m	184,537	14,109	7,567	1,234	869	330
방파제(Breakwater)		m	83,343	1,006	870	-	-	-
잔교(Pier)		No.	175	10	3	-	-	2
물양장(Wharf)		m	72,056	616	288	287	90	850
접안능력(Berthing Capacity)		No.	961	63	31	4	4	2
상 옥 (Shed)	동수(Number)	No.	32	7	-	-	-	-
	면적(Area)	1,000㎡	166	-	-	-	-	-
	수용능력 (Capacity)	1,000ton	739	-	-	-	-	-
일반창고 (Warehouse)	동수(Number)	No.	119	9	1	-	-	1
	면적(Area)	1,000㎡	3,035	74	0	-	-	2
	수용능력	1,000ton	10,281	253	0	-	-	5
야적장 (Open Storage)	면적(Area)	1,000㎡	18,328	2,217	199	-	9	42
	수용능력	1,000ton	77,136	6,931	579	-	-	125

주1: 안벽은 선박을 대기 위하여 항만의 수제선에 설치하는 계선안  
주2: 물양장은 수심이 4.5m 미만이고, 500G/T 급 소형선박이 접안 하역하는 계선안  
주3: 접안능력은 당해 부두에 접안할 수 있는 선박의 최대 척수  
자료 : KMI(2018), 수산해양환경통계.

## 제2절 신해양도시 주민인식 조사

### 1. 조사개요

#### 》 태안군 신해양도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 태안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신해양도시에 대한 개념 인지 및 관련사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정책방향 설정의 근거로 활용
  - 조사대상 : 태안군 거주 주민 550명
  - 조사기간 : 2020년 8월 31일 ~ 9월 21일
- 조사내용은 주민생활 만족도, 해양도시발전에 대한 인식도, 해양정책 선호도 순으로 구성
  - 주민생활 만족도 : 교통, 생활환경, 경제, 문화, 의료, 교육, 자연환경
  - 해양도시 인식도 : 타지자체와 비교한 태안군의 경쟁력
  - 해양정책 선호도 : 해양공간, 해양산업, 수산·어촌, 해양관광, 해양교류

〈표 3-27〉 응답자 일반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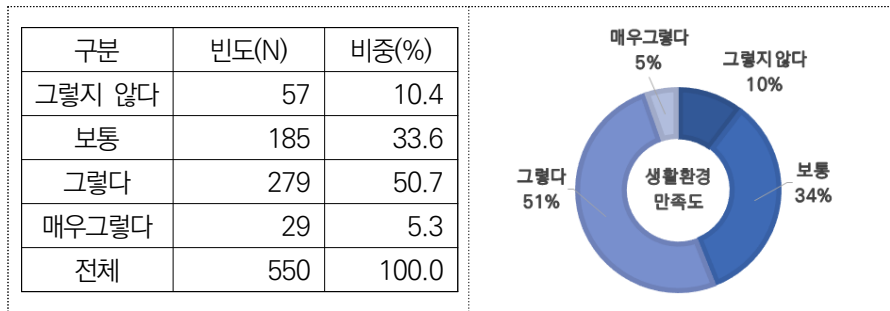
구 분		빈도	비중(%)	구 분		빈도	비중(%)
성별	남	295	53.6	결혼	미혼	85	15.5
	여	255	46.4	여부	기혼	465	84.5
연령	만19~30세	63	11.5	거주 기간	3년미만	16	2.9
	만31~40세	50	9.1		3년~5년미만	32	5.8
	만41~50세	81	14.7		5년~10년미만	44	8.0
	만51~60세	143	26.0		10년~20년 미만	56	10.2
	만61~70세	161	29.3		20년 이상	402	73.1
	만70세 이상	52	9.5	직업	농어업인	177	32.2
주소지	태안읍	55	10.0		전업주부	51	9.3
	안면읍	127	23.1		자영업	138	25.1
	남면	68	12.4		공무원	19	3.5
	고남면	36	6.5		회사원(민간)	101	18.4
	이원면	34	6.2		회사원(공공)	13	2.4
	원북면	66	12.0		전문직	4	0.7
	소원면	82	14.9		학생	12	2.2
	근흥면	82	14.9		일용직	14	2.5
연간 소득 수준	1000만원 미만	17	3.1		무직	21	3.8
	1000~2000만원 미만	71	12.9	학력	중학교 이하	163	29.6
	2000~4000만원 미만	227	41.3		고등학교	234	42.5
	4000~6000만원 미만	161	29.3		전문대	67	12.2
	6000~1억원 미만	72	13.1		대학	81	14.7
	1억원 이상	2	0.4		대학원	5	0.9
전 체		550	100.0	전 체		550	100.0

## 2. 분석결과

### 1) 주민 생활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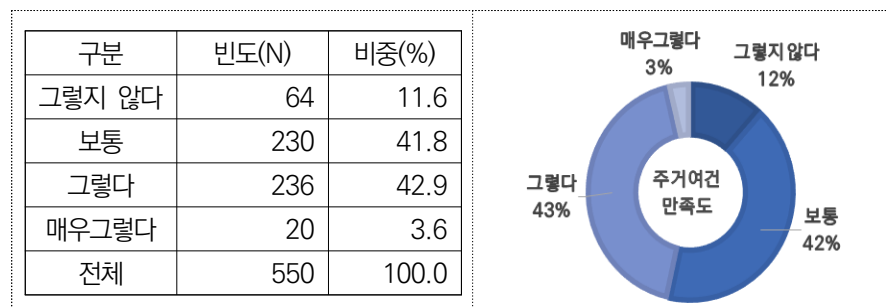
#### ① 태안지역 생활환경 만족도

- 생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하여 ‘만족한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자는 56.1%, ‘보통’이라는 응답자는 33.6%,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자는 10.4%로 나타남
  - 인구특성에 따른 만족도는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여 5점 만점을 적용하여 제시
  - 대체적으로 20대(3.06점), 30대(3.32점), 40대(3.42점), 50대(3.53점), 60대(3.66점), 70대 이상(3.83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태안군 거주기간이 길수록 높은 만족도 보임(10년~20년 3.48점, 20년 이상 3.54점)
  - 지역별로는 안면읍(37.4점), 태안읍(37.3점)으로 읍지역의 만족도가 높았고, 직업군에서는 공무원(3.79점), 전업주부(3.65점) 군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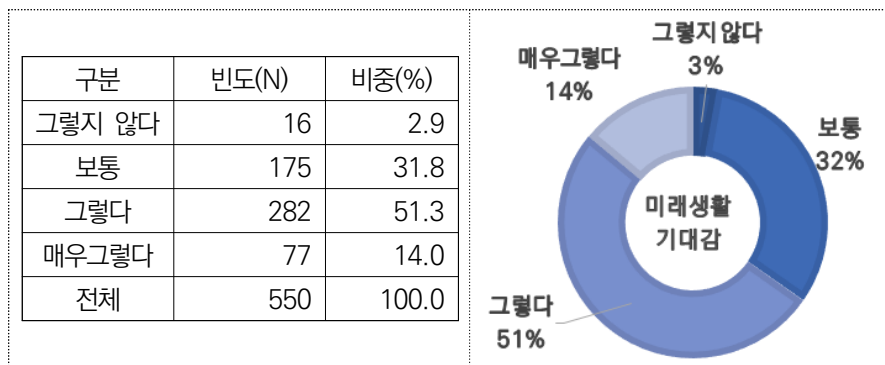
#### ② 태안지역 주거여건 만족도

- 주거여건 만족도에 대해서는 전체의 46.5%가 긍정적인 응답을 했으며, 보통 41.8%, 부정답변에 대해서는 11.6%의 응답률로 나타남
  - 만족도는 20대(3.02점), 30대(3.16점), 40대(3.25점), 50대(3.41점), 60대(3.57점), 70대 이상(3.62점)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주거생활 만족도가 낮고, 지역별로는 고남면(3.22점)과 원북면(3.26점)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 ③ 미래 생활만족도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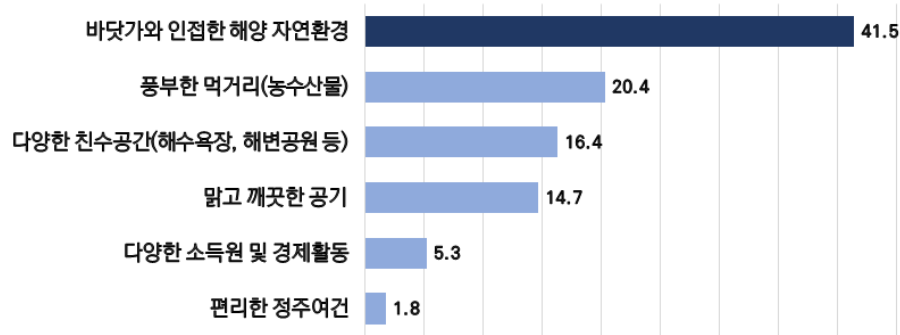
- 현재 생활과 비교한 미래 생활만족도 기대감에 대해서는 긍정의 응답이 65.3%로 높게 나타났다고,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2.9%로 나타남
  - 미래 생활 기대감은 20대(3.32점), 30대(3.48점), 40대(3.65점), 50대(3.80점), 60대(3.94점), 70대 이상(4.10점)로 연령이 낮을수록 부정적
  - 지역별로는 안면읍(3.86점)과 근흥면(3.80점)에서 가장 높은 기대감을 보였고, 이원면(3.65점)에서 가장 낮음



### ④ 지역생활 중 가장 큰 장점

- 태안지역 생활 중 장점에 대한 조사에서는 해양자연환경에 대한 의견이 41.5%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풍부한 먹거리 20.4% 다양한 친수공간 16.4%, 맑고 깨끗한 공기 14.7% 순
  - 해양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만70세 이상(48.1%), 이원면 거주민들(55.9%), 5년 미만 거주자들(50.0%), 농어업인(47.5%) 그룹에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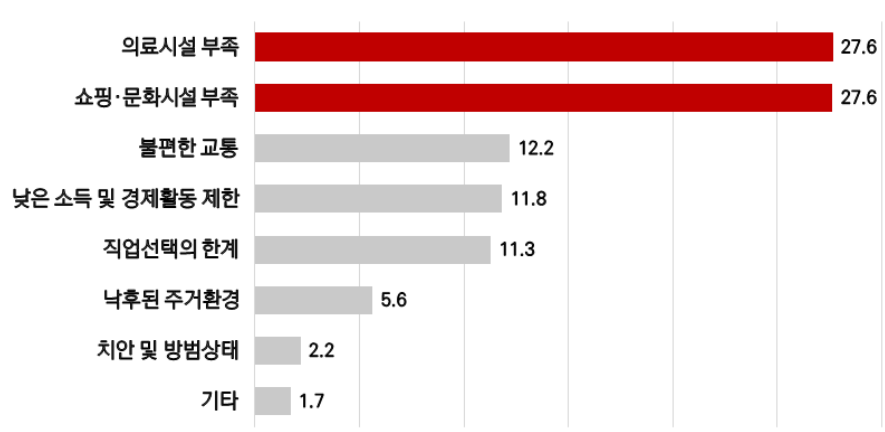
구 분	빈도(N)	비중(%)
맑고 깨끗한 공기	81	14.7
바닷가와 인접한 해양 자연환경	228	41.5
풍부한 먹거리(농수산물)	112	20.4
다양한 소득원 및 경제활동	29	5.3
다양한 친수공간(해수욕장, 해변공원 등)	90	16.4
편리한 정주여건	10	1.8
Total	550	100.0



#### ④ 지역생활 중 가장 큰 단점

- 태안지역 생활 중 단점에 대한 조사에서는 쇼핑·문화시설 부족, 의료시설 부족이 각각 2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불편한 교통 12.2%, 낮은 소득 및 경제활동 제한 11.8%, 직업선택의 한계 11.3%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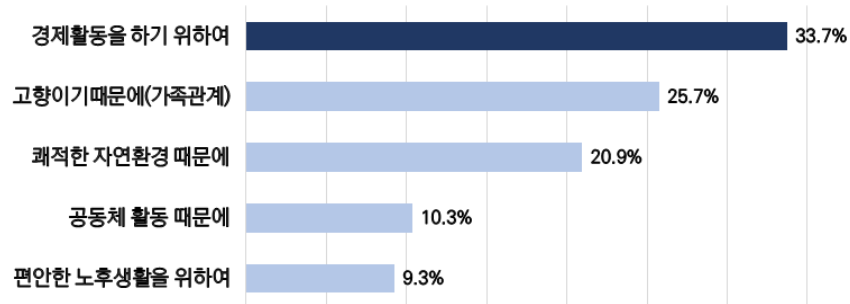
구 분	빈도(N)	비중(%)
불편한 교통	67	12.2
낮은 소득 및 경제활동 제한	65	11.8
쇼핑·문화시설 부족	152	27.6
의료시설 부족	152	27.6
직업선택의 한계	62	11.3
낙후된 주거환경	31	5.6
치안 및 방법상태	12	2.2
기타	9	1.7
Total	550	100.0



#### ⑤ 태안지역에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

- 태안지역에 거주하는 이유는 경제활동을 위한 이유가 33.7%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향이기 때문에 25.7%, 쾌적한 자연환경 때문에 20.9% 순
  - 경제활동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안면읍, 이원면 거주자들의 비율 높음

구분	빈도(N)	비중(%)
고향이기 때문에(가족관계)	306	25.7%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401	33.7%
쾌적한 자연환경 때문에	249	20.9%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110	9.3%
공동체 활동 때문에	123	10.3%
전 체(중복응답)	1,18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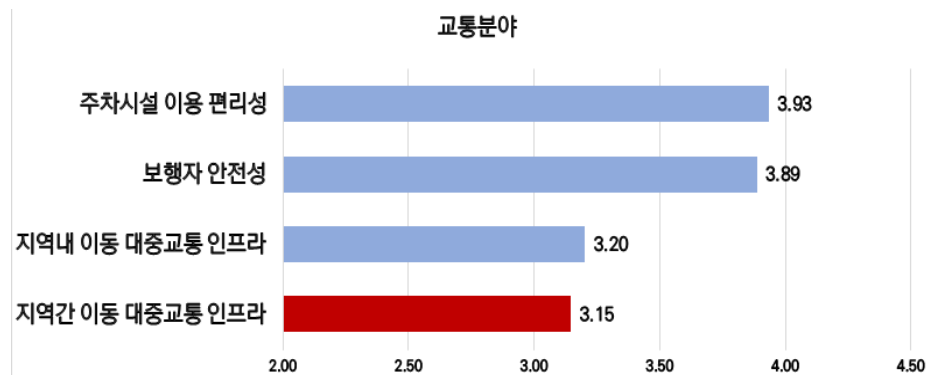


#### ⑥ 분야별 생활 만족도<sup>3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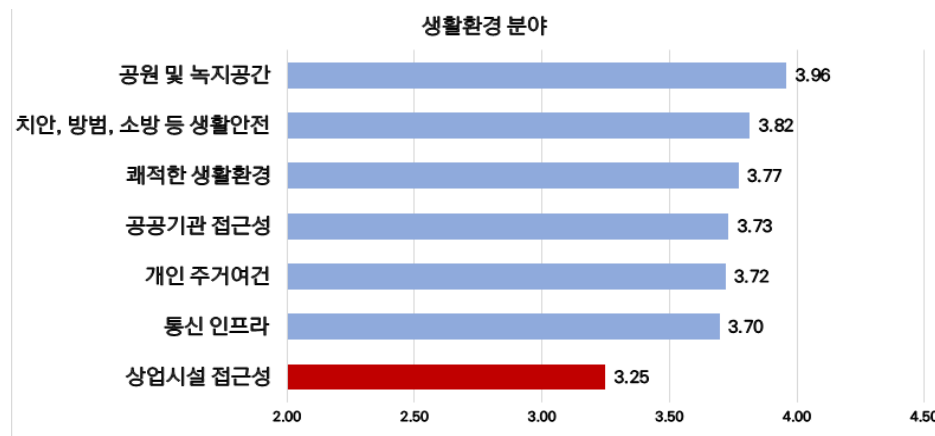
- 분야별 생활만족도 조사에서는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2.8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중교통 인프라(지역간 3.15점, 지역내 3.20점), 여가 및 문화행사 3.19점, 직업 및 직종 다양도 3.26점 순
  - 교통 분야에서는 시외버스·철도 등 지역간 이동의 대중교통 인프라 만족도가 3.1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외버스·택시 등 지역내 이동에 대한 대중교통 인프라 만족도는 3.20점으로 낮게 나타남

32)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여 5점 만점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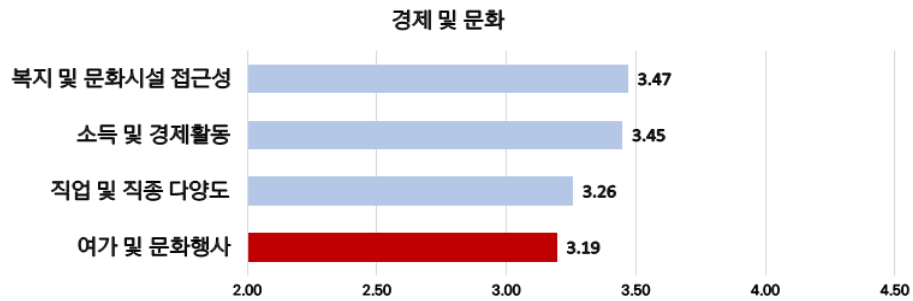
분 야	구 분	만족도
교 통	지역간 이동 대중교통 인프라	3.15
	지역내 이동 대중교통 인프라	3.20
	보행자 안전성	3.89
	주차시설 이용 편리성	3.93
생활환경	상업시설 접근성	3.25
	통신 인프라	3.70
	개인 주거여건	3.72
	공공기관 접근성	3.73
	쾌적한 생활환경	3.77
	치안, 방법, 소방 등 생활안전	3.82
	공원 및 녹지공간	3.96
경 제	소득 및 경제활동	3.45
	직업 및 직종 다양도	3.26
문 화	여가 및 문화행사	3.19
	복지 및 문화시설 접근성	3.47
의료시설 접근	의료시설 접근성	2.85
교 육	자녀 교육시설 및 환경	3.35
환 경	친수공간 접근성	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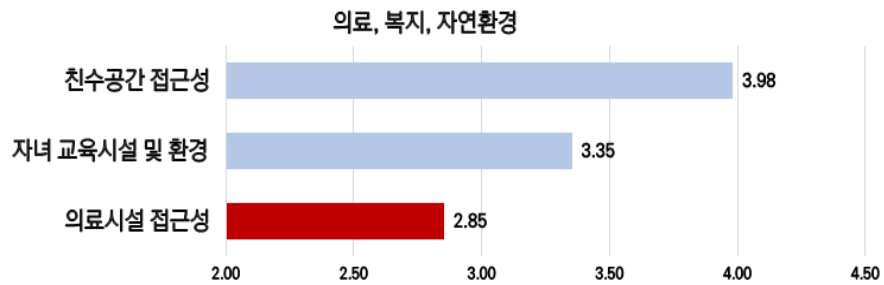
-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상업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3.2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통신 인프라 3.70점, 개인 주거여건 3.72점 순



- 경제 및 문화 분야에서는 여가 및 문화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3.1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업 및 직종 다양도 3.26점, 소득 및 경제활동 3.45점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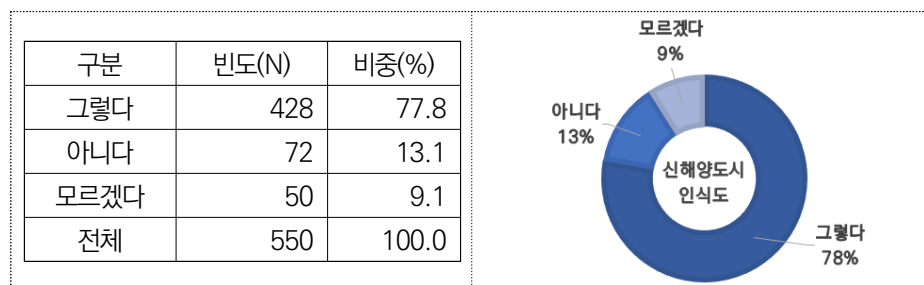
- 의료시설 접근성은 모든 항목 중 2.85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자녀 교육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치(3.53점)보다 낮은 3.35점



## 2) 해양도시 발전에 관련된 인식

### ① 신해양도시 인지도

- 태안군이 신해양도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7.8%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아니다'라는 부정적 응답은 13.1%, '모르겠다'는 9.1%로 나타남
- 부정답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안면읍(29.9%), 태안읍(16.4%) 거주민들의 응답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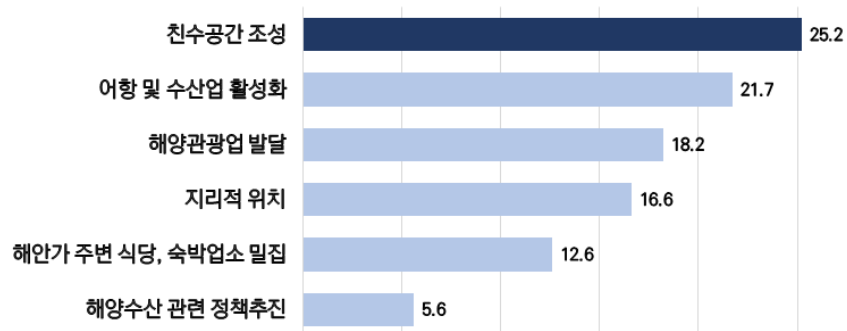


## ② 태안군을 신해양도시라고 인식하는 이유

- 태안군을 신해양도시라고 인식하는 응답자 중 그에 대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태안군에는 다양한 친수공간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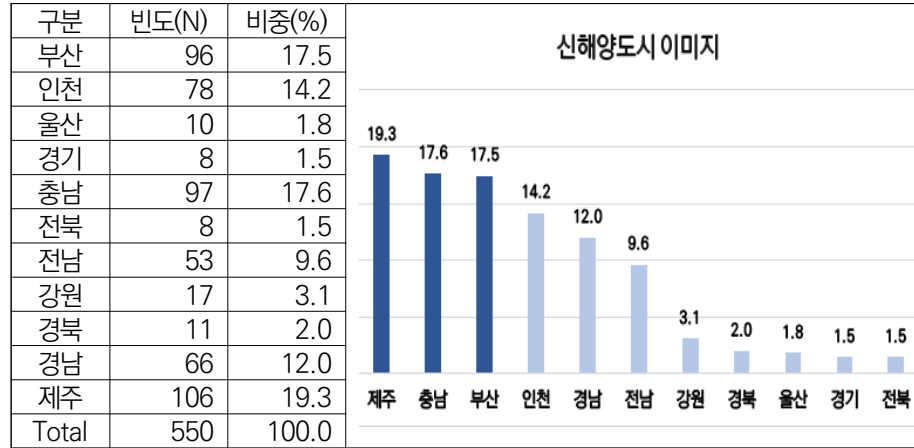
구 분	빈도(N)	비중(%)
지리적으로 해안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71	16.6
어항이 있고 수산업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93	21.7
해안가를 따라 식당(횃집), 숙박업소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54	12.6
해수욕, 서핑, 요트 등 해양관광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78	18.2
다양한 친수공간(해변공원, 해수욕장 등)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108	25.2
태안군청에서 해양수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4	5.6
Total	428	100.0

- 다음으로 어항 및 수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21.7%, 해양관광업 발달 18.2%, 지리적 위치 때문이라는 의견이 16.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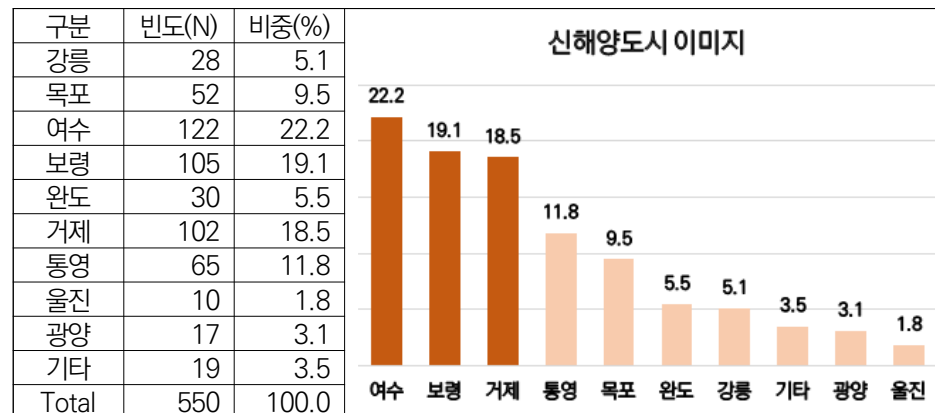
## ③ ‘신해양도시’ 이미지에 맞는 광역지자체

- 광역지자체를 기준으로 신해양도시 이미지에 가장 적합한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제주도라는 의견이 1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남 17.6%, 부산 17.5%로 태안지역 주민들은 충남 지역을 신해양도시로서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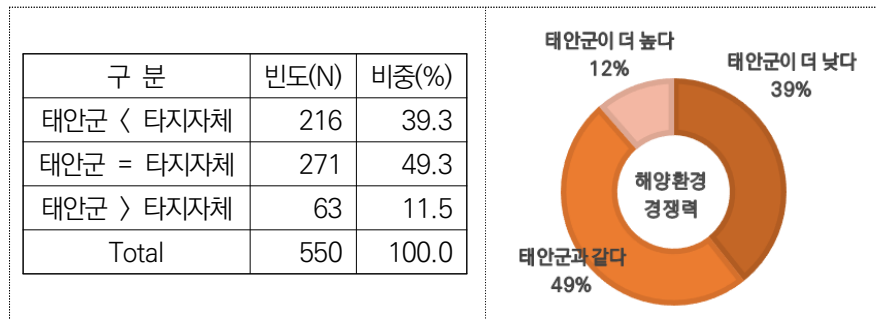
#### ④ ‘신해양도시’ 이미지에 맞는 전국 연안 지자체

- 전국 연안 기초지자체 중 신해양도시 이미지에 가장 적합한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여수’라는 응답이 22.2%로 가장 높았으며, 보령 19.1%, 거제 18.5%, 통영 11.8%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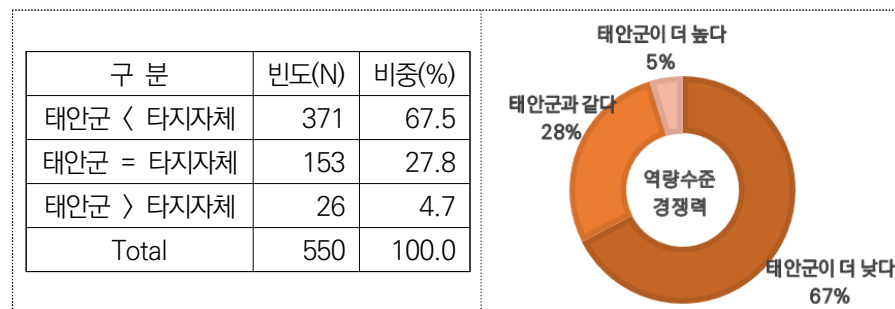
#### ⑤ 전국 연안 지자체 ‘신해양도시’에 비교한 태안군 해양환경 경쟁력

- 위에서 ‘신해양도시’라고 선택한 도시들과 태안군을 비교할 때, 해양생태·연안경관·해양생물 다양성 등을 의미하는 해양환경 수준에서 태안의 경쟁력을 더 낮게 평가하는 응답이 39.3% 수준
  - 해양환경 수준에 대한 경쟁력에 있어서 타지자체와 같다고 응답한 평가의견이 49.3%로 대부분이었으며, 태안군을 더 높게 평가의견은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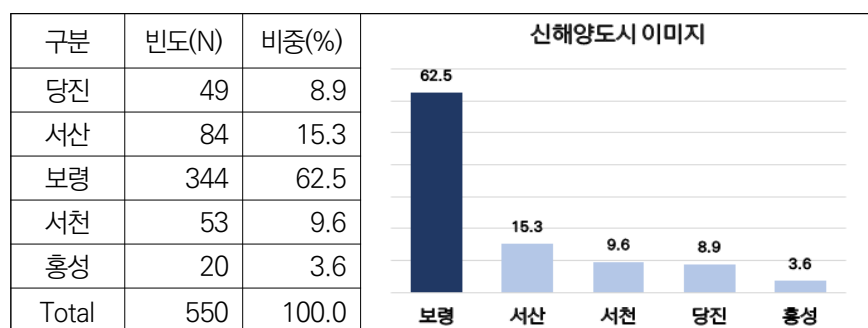
#### ⑥ 전국 연안 지자체 '신해양도시'에 비교한 태안군 지역역량 경쟁력

- 해양관련 인프라, 경제·산업 규모 등 태안군 자체 지역역량 수준을 비교한 결과 '태안군이 타지자체보다 더 낮다'라는 의견이 67.5%로 해양환경수준의 경쟁력 보다 훨씬 부정적인 의견 보임
  - 태안군이 신해양도시로서 갖춰야 할 지역역량 수준이 타지자체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27.8%, 태안군의 역량이 더 높다는 의견이 4.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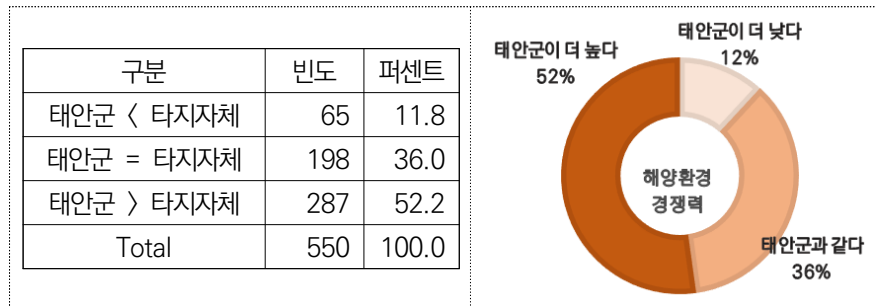
#### ⑦ 충남 서해안을 대표하는 신해양도시(태안군 제외)

- 충남 서해안에서 신해양도시로서 적합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령시가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산시 15.3%, 서천군 9.6%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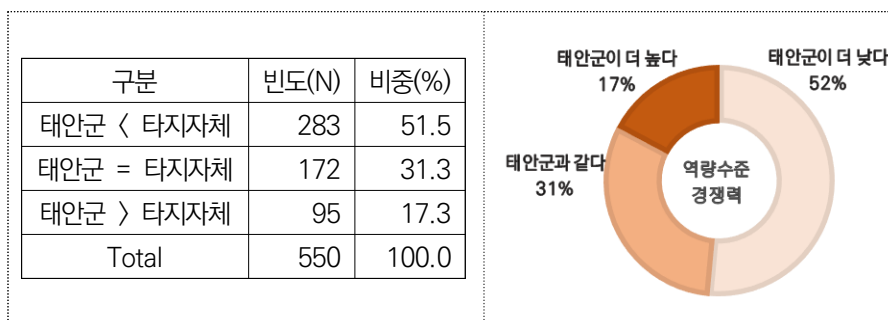
### ⑧ 충남도 타지자체 ‘신해양도시’에 비교한 해양환경 수준 경쟁력

- 위에서 선택한 충남의 지역들과 태안군을 비교할 때, 해양생태·연안경관·해양생물 다양성을 의미하는 해양환경 수준에서 태안의 경쟁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응답은 52.2% 수준
- 해양환경 수준에 대한 경쟁력에서 ‘타지자체와 같다’라는 응답은 36%로 나타났고, ‘태안군이 더 낮다’라는 응답은 11.8%로 나타나, 태안주민들은 충남도내에서 태안군을 신해양도시로서 경쟁력 있는 지역이라고 인식



### ⑨ 충남도 타지자체 ‘신해양도시’에 비교한 지역역량 경쟁력

- 해양관련 인프라, 경제·산업 규모 등 태안군 자체 지역역량 수준을 비교한 결과, 태안군이 충남 내 타지역보다 더 낮다라는 의견이 51.5%로 해양환경수준의 경쟁력 보다 훨씬 부정적인 의견 보임
- 태안군이 신해양도시로서 갖춰야 할 역량수준에 있어서 ‘타 지역과 비슷하다’라는 응답이 31.3%, ‘태안군 역량이 더 높다’는 의견이 17.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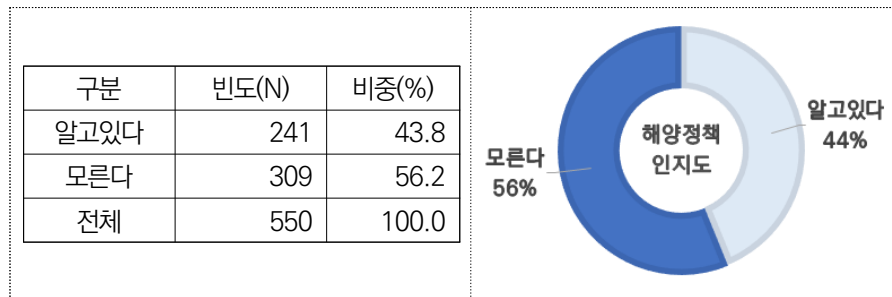


## 3) 해양수산물 관련 정책 인지도

### ① 태안군 해양수산물 관련 정책 인지도

- 태안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물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43.8%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56.2%는 ‘모른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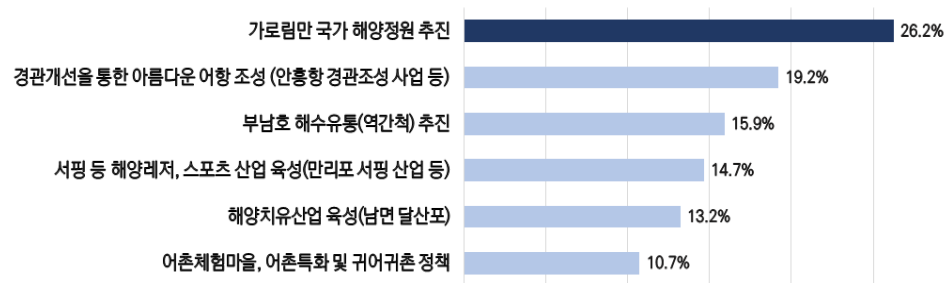
- 해양수산 정책에 대해 ‘모른다’라는 응답자 특성을 보면, 남성(46.8%) < 여성 (67.1%)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73%), 30대 (62%)로 젊은 층의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
- 지역별로는 태안읍(80%), 이원면(70.6%), 안면읍(69.9%)로 해양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전업주부(66.7%), 학생(83.3%), 자영업자(57.2%) 순임



## ② 가장 관심이 큰 해양수산관련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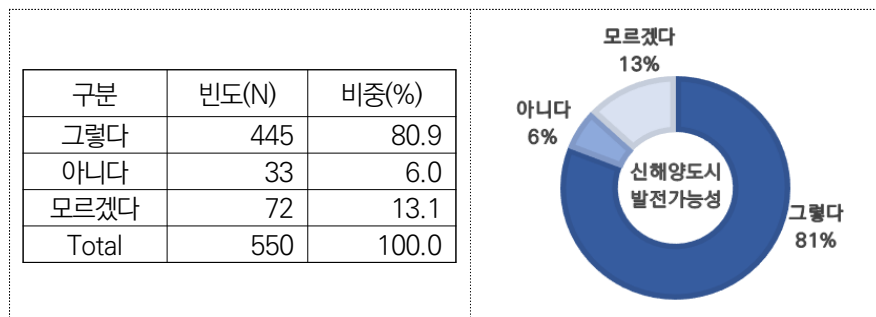
- 태안군 해양수산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가장 관심이 높은 해양수산관련 정책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가로림만 해양정원’라는 응답이 26.2%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경관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어항 조성(19.2%), 부남호 해수유통 추진(15.9%), 해양레저·스포츠 산업 육성(14.7%), 해양치유산업 육성(13.2%), 어촌체험마을·어촌특화 및 귀어귀촌 정책(10.7%) 순
  - 가로림만 해양정원 추진에 대한 관심도는 응답자 특성과 무관하게 모두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정책이었으나,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해양레저 및 스포츠 산업 육성(35.3%)에 관심이 높았고, 남성들은 어항 조성사업(41.1%)에 관심이 높음
  - 20대 연령대에서는 해양치유산업 육성(41.2%)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30대(47.4%), 50대(46.2%), 60대(39.4%)에서는 어항조성 사업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40대는 부남호 해수유통(38.5%), 70대 이상은 해양레저 및 스포츠 산업 육성(41.7%)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지역별로는 공통적으로 가로림만 해양정원 추진사업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태안읍은 어항조성사업(63.6%), 안면읍은 부남호 해수유통(52.4%), 이원면 어촌특화사업 및 어항조성 사업(각 50.0%), 원북면은 해양스포츠 산업육성(35.5%)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음
  - 남면, 고남면, 소원면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보다 각 지역의 사업에 더 큰 관심을 보였으며 남면은 해양치유산업 육성(57.5%), 고남면은 어항조성사업(56.3%), 소원면은 해양스포츠 산업육성(66.7%)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임

구분	빈도(N)	비중(%)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추진	127	26.2%
부남호 해수유통(역간척) 추진	77	15.9%
해양치유산업 육성(남면 달산포)	64	13.2%
어촌체험마을, 어촌특화 및 귀어귀촌 정책	52	10.7%
경관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어항 조성 (안흥항 경관조성 사업 등)	93	19.2%
서핑 등 해양레저, 스포츠 산업 육성(만리포 서핑 산업 등)	71	14.7%
Total (중복응답)	484	100.0%



### ③ 신해양도시로서의 발전가능성

- 향후 태안군의 신해양도시로서 발전가능성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그렇다’ 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80.9%를 차지했으며, ‘아니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6%, ‘모르겠다’는 응답이 13.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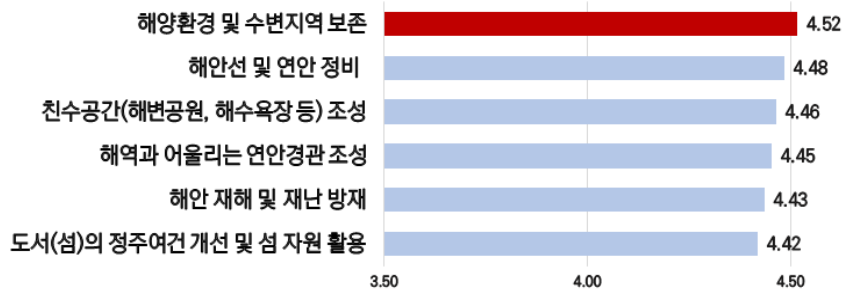
### ④ 정책사업 중요도<sup>33)</sup>

- 태안군이 신해양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한 사업의 중요도 평가를 해양공간, 해양산업, 수산·어촌, 해양관광, 해양교류 분야로 나눠서 조사하였으며 중요도에 대한 응답은 모든 분야에 대해 높은 중요도로 응답했으나 해양공간(4.46점)과 수산·어촌(4.43점)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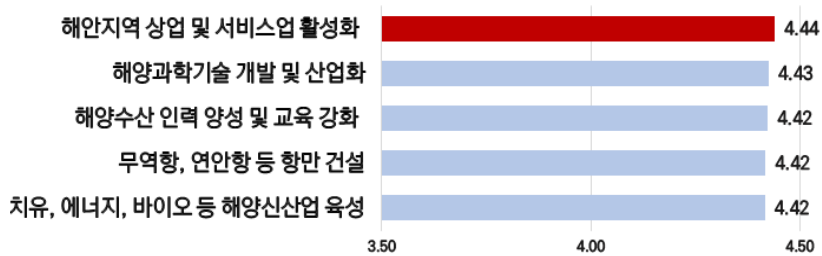
33)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여 5점 만점으로 작성

분야	정책내용	중요도
해양공간	도서(섬)의 정주여건 개선 및 섬 자원 활용	4.42
	해안 재해 및 재난 방재	4.43
	해역과 어울리는 연안경관 조성	4.45
	친수공간(해변공원, 해수욕장 등) 조성	4.46
	해안선 및 연안 정비	4.48
	해양환경 및 수변지역 보존	4.52
해양산업	치유, 에너지, 바이오 등 해양신산업 육성	4.42
	무역항, 연안항 등 항만 건설	4.42
	해양수산 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4.42
	해양과학기술 개발 및 산업화	4.43
	해안지역 상업 및 서비스업 활성화	4.44
수산·어촌	어항의 다원적 기능 강화	4.40
	수산자원 보전 및 지속가능성 제고	4.40
	어촌 경제·생활 공동체 회복	4.42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양식어업 육성	4.42
	수산물 유통, 가공 등 수산산업 육성	4.45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	4.48
해양관광	태안 바다 랜드마크 조성	4.29
	지역의 해양 역사·문화 복원	4.32
	여가, 레크레이션, 체험 등 위락시설 조성	4.43
	해양레저·관광 육성	4.43
	관광 콘텐츠 강화	4.49
해양교류	인근 국가(중국, 일본, 북한 등)와 교류 확대	4.22
	타 연안지역(도시)과의 네트워크 강화	4.22
	해양도시로서 세계적인 브랜드(네임밸류) 구축	4.32

- 해양공간 분야에서는 해양환경 및 수변지역 보존(4.52점)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해안선 및 연안 정비(4.48점), 친수공간 조성(4.46점), 해역과 어울리는 연안경관 조성(4.45점), 해안 재해 및 재난 방재(4.43점), 도서의 정주여건 개선 및 섬 자원 활용(4.42점) 순
  - 연령대별 차이를 보면, 해양환경 및 수변지역 보존에 대한 중요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나, 상대적으로 20대에서는 ‘도서(섬)의 정주여건 개선 및 섬 자원 활용’에 대하여 70대 이상에서는 ‘해안선 및 연안정비’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응답
  - 거주 지역별로 보면, 안면읍, 남면, 이원면에서는 ‘해역과 어울리는 연안경관 조성사업’에, 고남면에서는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근흥면에서는 ‘해안선 및 연안정비사업’에, 나머지 지역에서는 ‘해양환경 및 수변지역 보존사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라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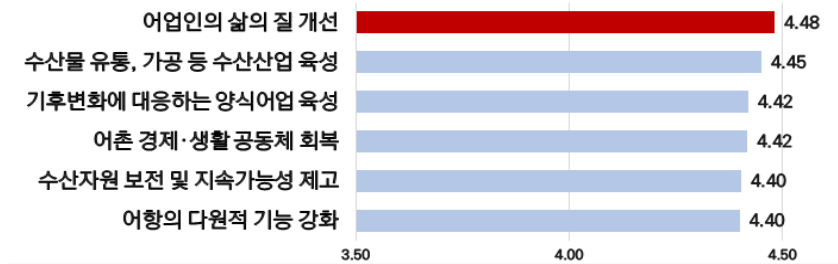


- 해양산업 분야에서는 해안지역 사업 및 서비스업 활성화(4.44점)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해양과학기술 개발 및 산업화(4.43점), 해양수산 인력 양성 및 교육강화(4.42점), 무역항·연안항 등 항만 건설(4.42점), 치유·에너지·바이오 등 해양신산업 육성(4.42점) 순
- 거주 지역별로는 태안읍 및 안면읍은 '치유·에너지·바이오 등 해양신산업 육성', 남면, 고남면, 소원면은 '해양수산 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이원면은 '해안지역 상업 및 서비스업 활성화', 원북면은 '해양과학기술 개발 및 산업화', 근흥면은 '해양수산 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해양과학기술 개발 및 산업화'에 대하여 중요성이 높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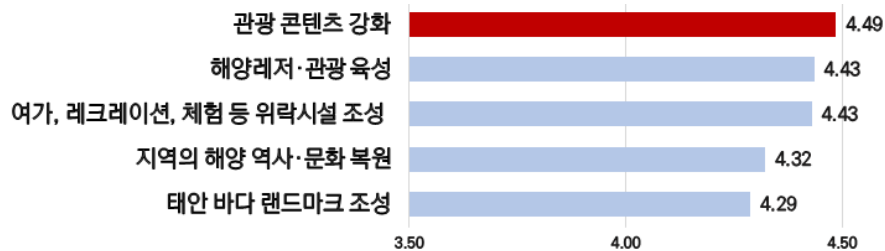


- 수산·어촌 분야에서는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4.48점)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산물 유통·가공 등 수산산업 육성(4.45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양식어업 육성(4.42점), 어촌 경제·생활 공동체 회복(4.42점), 수산자원 보전 및 지속가능성 제고(4.40점), 어항의 다원적 기능 강화(4.40점) 순
- 거주 지역별로는 태안읍 및 남면은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 안면읍은 '수산자원 보전 및 지속가능성 제고', 고남면 및 이원면은 '어촌 경제·생활 공동체 회복', 소원면 및 근흥면은 '수산물 유통·가공 등 수산산업 육성', 원북면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양식어업 육성',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중요성이 높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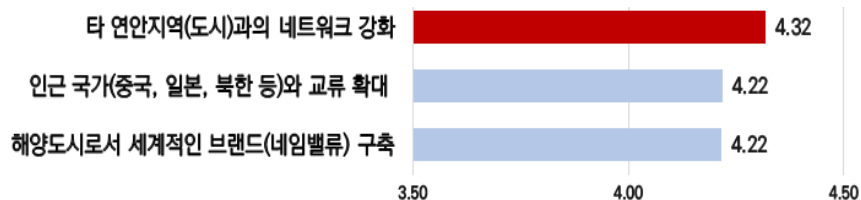




- 해양관광 분야에서는 관광콘텐츠 강화(4.49점)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해양레저·관광 육성(4.43점), 여가·레크레이션·체험 등 위락시설 조성(4.43점), 지역의 해양 역사·문화 복원(4.32점), 태안바다 랜드마크 조성(4.29점) 순
- 거주 지역별로는 태안읍, 안면읍, 남면, 원북면은 ‘해수욕·서핑·요트·낚시 등 해양레저·관광 육성’, 고남면 및 근흥면은 ‘지역·해역의 관광 콘텐츠 강화(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느낄거리 등)’, 소원면은 ‘지역의 해양 역사·문화 복원’, 이원면은 ‘해양레저·관광 육성’, ‘지역·해역의 관광 콘텐츠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높다고 응답



- 해양교류 분야에서는 타 연안지역과의 네트워크 강화(4.32점)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근 국가와 교류확대(4.22점), 해양도시로서 세계적인 브랜드 구축(4.22점)
- 해양교류 분야에서 중요도 차이는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20대와 30대는 ‘타 연안지역과의 네트워크 강화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고, 40대와 50대는 ‘해양도시로서 세계적인 브랜드 구축’, 60대 이상은 ‘인근 국가와의 교류 확대’에 대하여 중요성이 높다고 응답



### 3. 결론 및 시사점

#### >> 현재 태안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미래 생활에도 긍정적

- 태안주민들은 전반적으로 현재 생활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고, 미래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지역별로는 안면읍과 근흥면 주민들의 기대감이 가장 높았고, 이원면 주민들의 기대감은 낮게 평가됨에 따라 정책개발의 지역적 편차 고려 필요
  -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 및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젊은 층(20~40대)이 태안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정책개발 필요
- 태안주민들은 의료 및 문화시설 부재, 지역간 이동교통 미흡, 상업시설 접근성 부족 등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하였고, 경제활동을 위하여 태안에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
  - 주민들의 의료, 문화, 교통, 상업 등 정주생활 여건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또한 주민들은 경제활동의 목적으로 태안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경제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정책 필요

#### >> 서해안 대표 해양도시로서 자긍심 강하나, 해양관련 지역역량은 부정적

- 태안군이 보유한 해양·자연환경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있고, 대부분 응답자가 태안군이 ‘신 해양도시’라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
  - 태안은 해수욕장, 어항 등 다양한 친수공간이 있고, 충남에서 수산업과 해양관광업이 가장 발달해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태안군이 타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해양환경 수준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해양관련 인프라, 경제·산업 규모에서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
- 신해양도시로서 타지자체와 비교할 때 태안군의 해양환경 수준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나, 역량수준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남
  - 전국의 해양도시보다 충남도내 해양도시에서의 태안군의 해양관련 지역역량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충남도내에서도 태안군의 역량은 부족한 편

#### >> 태안주민들은 해양수산업 관련 정책 인지도가 낮은 편이며, 해양공간 및 수산업·어촌 정책을 중요하다고 인식

- 주민들은 태안군을 해양도시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태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하여 인지와 관심 부족
  - 특히 여성, 젊은 층(20~30대)의 해양수산 정책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해양수산 관련 정책홍보 필요

- 해양수산정책의 내용 면에서는 해양공간과 수산·어촌 분야에서 높은 중요성 인식
  - 해양공간에서는 해양환경 및 수변지역 보존, 해안선 및 연안정비를 높게 평가하고, 수산·어촌 분야에서는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 수산물 유통·가공 등 수산산업 육성을 중요하다고 평가
  - 사업별로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경관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어항 조성에 관심 높음

## 제3절 태안 해양수산 SWOT 분석

### 1. 태안군 해양수산의 대내적 특성

#### 1) 해양산업 및 인프라

##### >> 미래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한 풍부한 가능성 보유

-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추진
  - 태안군, 서울대, 동국대 간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태안군인공지능연구센터 추진단 구성·운영
- 현재 해양바이오수소 실증플랜트가 관내에 위치해 있으며, 향후 친환경 수전해 수소연료전지 연구 및 실증화·생산공급 단지를 조성 추진
- 해양관광 연계형 플라잉카 실증단지, 해양치유시범센터 등 추진

##### >> 태안군의 충남도 GRDP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산업기반 취약

- 태안군 GRDP는 2016년 19,466억 원으로 연평균 2.19%가 증가하고 있으나, 충남도내 비중은 2010년 2.05%에서 2016년 1.75%로 감소
- 태안군의 사업체 수는 6,052개로 충남도내 사업체의 3.6% 수준 불과하며, 이는 도내 15개 시·군 중 10위로서 중·하위권
- 태안군 원북면에 태안화력 5,052MW 시설용량을 보유한 석탄화력 위치
- 충남연안에는 총 79개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으나, 태안군에는 오직 2개(태안도시첨단, 태안농공단지)만 위치하여 산업기반 취약
- 현재 보령 원산도와 태안 영목항을 잇는 원산안면대교가 개통되어 있고, 2021년 해저터널과 육상교량을 연결되는 국도 77호선 연장공사가 완료되면 지역경제 지형이 바뀔 것으로 예상

##### >> 지역의 농업·수산업 및 서비스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 태안군은 충남 시·군과 비교하여 중·하위권(10위) 사업체 수가 확보되어 있으나, 농림어업, 숙박·음식업은 4위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적 상위권
- 태안군은 충남도 어촌계의 약 52.7%가 위치한 수산郡으로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어가 수와 어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 태안군은 2개의 국가어항을 비롯하여 14개의 지방어항, 12개의 어촌정주어항이 위치해 있어 충남 수산업의 중추적 역할 수행
- 농업분야에서도 전국적인 화훼생산지이면서 호박고구마, 육쪽마늘, 건고추 등이 유명한 지역으로서 위상 확보

## 2) 해양관광 및 역사·문화

### 》 유구한 해양역사와 문화자원 공존하는 서해안 대표 해양관광지

- 태안 안흥진성은 충청도 유일의 수군방어영으로서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560호 지정
  - 전국의 통제영·방어영·수영·수군진성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하여 수군진성(水軍鎭城)의 원형을 볼 수 있는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재
-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 수중 문화재 중 1/3 정도의 수량 관리<sup>34)</sup>
  - 인천, 경기, 충청 해역에서 발굴된 난파선 8척과 수중문화재 3만여 점 관리·활용
- 고남패총박물관이 위치해 있어 석기시대의 역사적 생활상 보존
  - 1980년대부터 고남지역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패총유적 전시

### 》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과 풍부한 해양관광자원 보유

-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나, 교통 인프라 미흡
  - 서울특별시 약110km(2시간), 대전광역시 약110km(1시간 45분), 세종시 약100km(1시간 30분), 내포신도시 약35km(50분) 거리
  - 직선거리 상으로는 광역도시권과 근접해 있으나, 고속도로 IC 및 철도 인프라 등 교통접근성 취약
- 수도권과 가까운 태안반도에 위치해 있으면서 리아스식 해안과 풍부한 갯벌,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이 위치해 있는 지역
-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해수욕장 33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만리포, 꽃지 등 전국적인 유명 해수욕장도 위치
  - 태안의 해수욕장은 백사장과 완만한 수면, 울창한 송림 자원을 갖고 있으며, 해안선을 따라 조성되어 있고, 인근 어항, 포구, 섬 등과 인접해 있어 서해안의 독특한 매력 발산
- 충남에서 가장 많은 118개의 도서(섬)가 위치해 있으며, 이 중 8개 도서가 유인도
  - 우리나라 국토 최서단 격렬비열도가 위치해 있고, 갯이갈매기로 주목을 받고 있는 궁시도 등 위치

### 》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휴양, 축제 등 개최

3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eamuse.go.kr/>」.

- 태안군에는 총 11개의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이 있으며, 이 중 병술만, 대야도, 용신, 만대마을이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 운영
- 해양성 기후와 풍부한 수산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축제 개최
  - 모래조각 페스티벌, 목련축제, 해맞이 축제, 수선화 축제, 가을꽃 축제, 저녁노을 축제, 대하축제, 허브축제, 빛 축제 등 다양한 테마 축제 개최
- 해수욕장 외 다수의 해양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 방문
  - 태안 해안길, 시두리해안사구, 천리포수목원, 팜카밀레허브농장, 안면도 자연휴양림, 안면면 꽃다리, 주라기 박물관 등

#### >> 최근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나 미흡

- 만리포 서핑, 서해안 카약 등으로 태안이 주목을 받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 줄 뚜렷한 해양레저·스포츠 기반 시설 부족
- 태안군 관내에는 다양한 해양 역사·문화·관광·축제 자원이 있으나, 이를 연계할 수 있는 매개가 부족하고 킬러 콘텐츠 부족
  - 태안군 관내에서는 충남도에서 가장 많은 33개의 해수욕장이 위치해 있으나, 보령의 대천해수욕장과 관광객 수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였고, 대천 머드와 같은 킬러콘텐츠 부족
  - 지역의 꽃, 갯벌, 수산물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체험·휴양이 이루어지고,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연계성이 부족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미흡
- 충남도에서 가장 긴 해안선과 갯벌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투자 미흡

### 3) 해양환경 및 생태자원

#### >> 남한 국토 중서부에 위치해 있고, 충남 3대 해역 중 2개 해역 접함

- 남한의 서해안 중심에 위치해 있고, 가로림만, 천수만을 접하고 있는 지역
  - 서해안 특유의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해 있으며, 전국에서 8번째로 긴 해안선과 전국에서 7번째로 넓은 갯벌 보유
  - 도서(유·무인도)는 118개가 있고, 국토 최서단 격렬비열도가 위치해 있어 상징성 보유
- 태안군 해안선을 따라 7개 읍·면이 바다를 접하고 있으며, 충남에서 가장 큰 수산세력 보유
  - 태안읍을 제외하고 7개 읍·면이 바다를 접하고 있으며, 수산업이 주된 지역산업

≫ 서해안 해양생태자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

- 국내 유일이 해안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어 국가차원의 해양생태 가치 인정
- 습지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해양생물보호구역, 수산자원보전지역 등 지정
  - 태안해안국립공원(자연공원), 두웅습지(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 신두리사구해역(해양생태계보호구역), 신두사구(생태경관보전지역), 가로림만해역(해양생물보호구역), 천수만(수산자원보전지역) 등 다수의 해양생태 자원 보유
- 해양환경·생태 보전을 위한 다양한 규제가 산재해 있어 지역개발 제한적
  - 태안지역에 위치한 화력발전소로 인한 온배수 및 대기오염 등 환경이슈 상존
  - 태안군 전역이 환경규제로 제약을 받고 있어 지역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4) 수산업 및 어촌공동체

≫ 충남 수산업의 약 50% 규모를 보유한 서해안을 대표하는 수산郡

- 어가 수로는 충남의 약 41.3%, 어촌계 수로는 충남의 약 52.7%
  - 태안군 관내에서는 안면도(30개), 고남면(14개), 남면(12개), 근흥면(12개), 소원면(11개) 순으로 어촌계 위치
- 어업권 건수로는 충남의 약 53.2%, 어업권 면적으로 약 37.8% 차지
  - 어업권 중 양식어업 면적은 4,596ha로 태안군 전체의 62.7%를 차지하며, 건수 기준으로는 37.3% 보유
- 태안의 어선 수는 충남도의 약 28.8%로 가장 많은 수 보유
  - 태안군 어선 수는 총 1,650척으로 충남에서 가장 많고, 다음은 보령, 서천 순
- 충남도내에서 태안의 지방어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6.6% 수준
  - 국가어항 2개, 지방어항 14개, 어촌정주어항 12개, 소규모어항 14개
  - 어항을 중심으로 하는 어촌뉴딜 사업지로 태안은 총 7개 어항 선정

≫ 풍부한 수산자원과 맛있는 수산물로 주목받는 어촌공동체 보유

- 꽃게, 주꾸미, 광어, 도미, 전어, 꽃게, 멸치 등 풍부한 수산물 생산
  - 그러나 태안 수산물 어획량은 수산자원의 감소로 연평균 9.8% 감소
- 충남에서 가장 많은 4개 어촌체험휴양마을(병술만, 대야도, 용신, 만대) 위치
  - 어촌체험은 주로 갯벌체험이 중심이고, 대야도 및 병술만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어촌체험휴양마을
- 전국 최초 어촌상생마을 모델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고, 적극적인 어촌공동체 활성화 정책 추진

- 자체적인 어촌연금지도를 시행하는 만수동 마을이 위치해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주목
- 태안 전역이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서 어촌지역개발 및 어촌공동체 활성화의 모범사례로 주목
- 충남도는 전국 2~3위권의 귀어귀촌 지역으로서 태안지역으로도 많은 귀어귀촌인 정착
- 2019년 기준 태안군의 귀농어인 수는 99명, 귀농어가구원 수는 132명으로, 귀농어인 기준 충남도내 4위 수준<sup>35)</sup>

## 5) 해양교류 및 네트워크

### >> 태안지역은 과거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던 안흥진 위치

- 태안군은 과거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으로서 외적 방어를 위한 안흥진성이 위치
- 태안군 앞바다에서는 과거 중국과의 교류·교역 중에 난파된 선박의 수중문화재 발굴

### >> 현재 태안군은 6개 국내도시와 2개의 국외(중국)도시와 자매결연 중

- 국내도시는 서울 서촌, 서울 강서, 강원 동해, 경남 고성, 충북 제천, 경기 수원
- 국외(중국)도시는 산둥성 태안시(泰安市), 산둥성 봉래시(蓬萊市)
  - 일본 와카야마현 시라하마정((白浜町)과는 우호관계 증 및 교류활동 강화 추진

## 2. 태안군 해양수산의 대외적 여건

### 1) 해양수산의 기회요인

#### >> 대중국 인적 교류 및 물적 교역 확대 예상

- 2014년에 체결된 한·중 FTA와 최근 체결된 RCEP의 영향으로 중국과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 예상
- 최근까지 사드문제, 북미갈등 등 민감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중국 관광객 방문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한·중 관계 개선 기대
- 충남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환황해권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중국 산둥성, 귀주성 등과의 교류 확대 예상
- 장기적으로 신항만 건설(보령신항), 항로개설(대산-용안, 위해) 등으로 중국과의 교류·교역 확대 예상

35)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 국가적인 해양신산업 육성 적지로 충남에 대한 관심 증가

- 대통령 충남방문으로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친환경선박, 첨단해양장비, 해양에너지 등 5대 핵심 해양신산업 육성 강조
- 가로림만 해양정원, 부남호 역간척, 해양치유, 해양바이오 등 미래 해양수산의 역점사업 추진 가능성 제고
- 충남도 차원의 서해안비전, 해양수산업발전계획, 해양신산업발전전략 등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 서해안 개발에 대한 관심증대와 태안의 교통인프라 확충 기대

- 남·동해안에 집중되었던 국가의 해양정책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해안권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
- 충남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으로 국가 해양수산 기관의 충남권 이전 및 유치 가능성 제고
- 현재 개통된 원산안면대교(솔빛대교)와 2021년 개통예정인 보령해저터널로 태안 남부(안면, 고남)와 보령시 간의 교통망 확보
- 이원-대산 연륙교 건설이 국가계획 반영에 따른 교통망 확충 예상

≫ 국민소득 향상으로 해양관광·레포츠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최근 낚시가 등산을 제치고 국민 레저·스포츠 1위로 등극(2018년)
-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에 따른 해양관광(요트, 서핑 등)에 대한 관심 증가
- 청년 층을 중심으로 서핑, 요트, 스킨스쿠버, 카약 등 해양 및 수상 레저에 대한 수요·관심 증대
- 국가차원의 해양레저·관광 인프라(마리나항만, 해수욕장 등) 적극적으로 구축
- 해양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및 해양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방안 모색

≫ 수산물 소비의 지속적인 확대 및 어촌 어메니티에 대한 관심 증대

-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58.4kg)이 가장 많은 수산물 소비국으로 등극
- 스마트 양식장,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등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R&D 투자 확대
- 도시어부, 삼시세끼(어촌편) 등 어촌, 도서(섬)를 배경으로 하는 TV 프로그램이 반영되면서 어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어촌자원을 활용한 어촌체험휴양마을이 활성화 되고, 해양치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귀어귀촌이 증가하고, 낚시인구가 확대되는 등 수산업·어촌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제고
- 어촌뉴딜 300,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등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 2) 해양수산의 위협요인

### ≫ 해양수산 정책의 지역적 불균형 및 편차 심화, 과도한 경쟁

- 부산(해양수산 혁신도시)을 거점으로 남동해권 중심의 해양수산 정책이 집중현상 발생
- 부산에 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조사원, 국립해양박물관 등 국가의 주요 해양수산 기관 이전으로 타 연안지자체의 상대적 소외감 발생
- 인천, 경기, 전북, 전남 등 서해안의 비슷한 여건을 가진 지자체 간 해양수산 분야의 과도한 경쟁으로 지역간 갈등 심화
- 수도권, 부산권, 전남권 등을 제외한 연안지자체의 해양수산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

### ≫ 코로나 19 전염병에 따른 해양수산의 전·후방 산업 타격

-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으로 음식업, 서비스업 등에 대한 소비 둔화 및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발생
- 코로나 19 전염병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 및 예방, 국민적 경각심 고조로 해양관광 중심인 연안지역 경제 침체
- 수산물 소비 급감, 해양레저스포츠 수요감소 등 해양수산 분야 전·후방산업에 부정적인 영향 발생
- 코로나 19 이후 공공위생 및 전염병 예방, 인체의 면역력 강화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해양치유, 수산물 소비 등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

### ≫ 빈번한 해양오염 및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확대

- 허베이스피리트 기름유출, 세월호 사고 등을 비롯한 크고 작은 해양오염 및 해양안전 사고 발생으로 바다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가중
- 낚시, 요트, 서핑 등 국민이 해양에서 즐기는 레저활동은 증가하였으나,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및 안전대책 미흡
-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태풍 발생 및 접근, 적조·녹조·고수온 등 환경적 영향으로 예상하지 못한 해양 재난·재해 발생 가능

### >> 연안 수산자원 고갈 및 어촌마을(공동체)의 사회·경제 활력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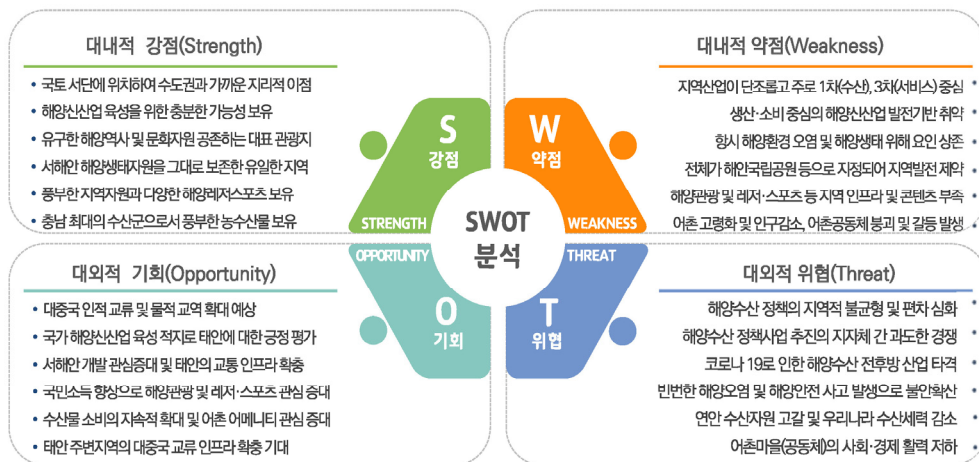
-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생산량 100만 톤 하회로, 전 해역에서 수산자원이 감소하여 연근해 어업의 존립 위협
-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급속한 변화로 우리나라 수산업의 근본적 변화 예상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남획, 낚시어선 증가로 지역 수산자원의 감소를 촉진하고, 수산자원을 둘러싼 갈등 심화
- 충남과 경기, 전북 간 해상경계로 인한 어장면적 감소 및 단조로운 생산중심으로 지역 수산업 발전의 한계 봉착
- 어촌사회의 고령화, 여성화, 과소화로 인하여 어업인력이 축소되고, 어촌공동체가 붕괴되어 어촌마을의 존립 위협

## 3. 태안군 해양수산 SWOT 분석

### >> 태안군 해양수산의 대내적 강점(strength) 및 약점(weakness), 대외적 위기(opportunity) 및 위협(treat) 제시

- 강점(Strength)
  - 국토의 서단에 위치해 있고,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가로림만, 천수만 위치
  - 인공지능집적단지, 해양바이오수소 등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한 가능성 보유
  - 유구한 해양역사 및 문화자원이 공존하는 서해안 대표 해양관광
  - 서해안 해양생태자원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
  -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휴양마을이 위치해 있고, 축제 등도 개최
  - 서핑, 카약 등 태안해안을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레저·스포츠 주목
  - 충남 최대의 수산郡이면서 풍부한 지역 농수산물 보유
- 약점(Weakness)
  - 태안군 GRDP는 증가하였으나, 도내 비중은 지속적 감소
  - 지역산업이 단조롭고 주로 1차(수산업) 및 3차(서비스업) 산업 중심
  - 생산·소비 중심의 해양수산업 구조로 해양신산업 발전기반 취약
  -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구체적인 정책추진 미흡
  - 항시 해양환경 오염 및 해양생태 위해 요인 상존
  - 郡 전체가 해안국립공원 등으로 지정되어 지역개발 및 발전 제약

- 해양관광 및 레저·스포츠 등에 활용될 지역 인프라 및 콘텐츠 부족
- 어촌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어촌공동체 붕괴 및 주민간 갈등 발생
- 기회(Opportunity)
  - 대중국 인적 교류 및 물적 교역 확대 예상
  - 국가 해양신산업 육성 적지로 충남(태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 서해안 개발에 대한 관심증대 및 태안의 교통인프라 확충 기대
  - 국민소득 향상으로 해양관광·레포츠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수산물 소비의 지속적인 확대 및 어촌 어메니티 관심 증대
  - 태안 주변지역의 대중국 교류 인프라(항만, 항공) 확충 기대
- 위협(Treat)
  - 해양수산 정책의 지역적 불균형 및 편차 심화, 과도한 경쟁
  -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전·후방 산업 타격
  - 빈번한 해양오염 및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확대
  - 연안 수산자원 고갈 및 어촌마을(공동체)의 사회적·경제적 활력 저하



〈그림 3-12〉 태안군 해양수산 SWOT 분석

## 》 태안군 해양수산의 S-O, S-T, W-O, W-T 전략 제시

- Strength-Opportunity 전략
  - 국토의 서단에 위치하므로, 중국과의 교류·교역의 중심지이자 국토수도의 첨병으로서 역할 부여
  -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 자원의 보고로서 그와 관련된 생태산업, 관광산업, 치유산업 육성

- 인공지능집적단지, 해양바이오수소, 해양치유산업 등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 해양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 해양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해양관광 콘텐츠(교육, 체험 등) 개발
- 태안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수산물 생산·유통·가공 시스템 혁신
- Strength-Threat 전략
  - 해양수산 분야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최적지로서 태안의 지리적 이점 강조
  -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서해안권 해양신산업 육성 및 지역발전 주도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해양치유산업의 전략적 육성
  - 해양오염 및 해양안전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개발
  -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 어촌공동체 붕괴 등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방안 모색
- Weakness-Opportunity 전략
  - 지역 해양수산업의 지식·기술 집적화 및 고도화로 미래 먹거리 발굴
  -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 분야와 관련된 동아시아 국가와의 지방외교 확대
  - 해양환경규제 안에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산업 발굴
  -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및 콘텐츠 확충
  - 적극적인 귀어귀촌 정책 추진 및 어촌마을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고령화 및 인구감소 대응방안 마련
- Weakness-Threat 전략
  - 국토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서해안 개발을 선도하는 태안군의 역할 및 위상 강조
  - 수도권과 인접한 태안군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국내·외 교통인프라 확충
  - 지식·기술집약형 해양신산업 육성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먹거리 발굴
  - 태안군만의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성 있는 해양수산업(해양관광, 해양레포츠, 해양치유산업, 수산업 등) 육성
  - 태안 수산업의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어촌공동체의 회복 주력

SO(강화전략)	ST(극복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국 교류·교역 중심지이자 국토수호의 첨병 역할</li> <li>• 해양환경 및 생태를 활용한 생태, 관광, 치유 산업 육성</li> <li>• 고부가가치 산업 전략적 접근으로 해양신산업 육성</li> <li>• 해양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li> <li>• 태안 수산업 지속가능성 제고 및 수산물 공급체계 혁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태안의 지리적 이점</li> <li>•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서해안권 발전 주도</li> <li>• 포스트 코로나 19를 주도할 수 있는 해양치유산업 육성</li> <li>• 해양오염 및 해양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발</li> <li>•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 어촌공동체 복원 등 장기적 대응</li> </ul>
WO(보완전략)	WT(방어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업의 지식·기술 집적화 및 고도화</li> <li>•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 분야 관련 지방외교 확대</li> <li>• 해양환경 규제 안에서 지역발전 견인 미래산업 발굴</li> <li>• 해양관광 및 레저·스포츠 전략적 투자 및 콘텐츠 확충</li> <li>• 귀어귀촌 및 어촌마을 활력 제고로 어촌인구감소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해안 개발을 선도하는 태안군의 역할 및 위상 강조</li> <li>• 수도권 인접한 태안군의 국내·외 교통인프라 확충</li> <li>• 지식·기술 집약형 해양신산업 육성 및 미래 먹거리 발굴</li> <li>•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차별성 있는 해양수산업 육성</li> <li>• 태안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어촌공동체 회복</li> </ul>

〈그림 3-13〉 태안군 해양수산 SWOT 전략



## 제4장 비전 및 추진계획

제1절 비전 및 목표

제2절 세부 실천사업

제3절 공간 중점 프로젝트

| 태안군 新해양도시 미래비전 |



### 1) '태안군'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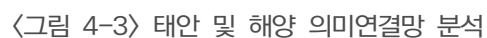
- 총 479개 기사(2018~2020년) 대상으로 빅데이터(word cloud) 분석
  - 2018년 183개, 2019년 144개, 2020년 152개 중앙지, 지방지 기사 분석



- 총 373개 기사(2018~2020년) 대상으로 빅데이터(word cloud) 분석
  - 2018년 143개, 2019년 119개, 2020년 111개 중앙지, 지방지 기사 분석



- 노출빈도 상위 15개 단어(word)를 대상으로 의미연결망 작성
- ‘지난해, 가로림만, 계획, 바다’의 연결성이 강하여 가로림만 해양정원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도 유추 가능
- ‘지역, 선정, 조성’의 연결성이 강하여 해양수산관련 공모사업에 대한 성과 반영



## 2. 기본방향 및 접근방법

### 1) 기본방향

#### (1)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High-tech) 접목

##### ≫ 해양수산자원과 4차 산업혁명 기술 간의 접목으로 미래 해양도시 구축

- 태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청정하고 풍부한 해양수산자원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접목을 통하여 인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미래형 해양도시 모델 구축

##### ≫ 해양산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 육성

- 고부가가치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미래 해양산업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사업 중심 육성
- 인공지능, 치유산업, 환경산업, 수산업 등 전통산업과 미래산업 간의 융·복합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 ≫ 지역의 해양수산 역량을 강화시켜 해양산업 중심도시로 육성

- 태안군의 강점인 수산업과 관광업을 과학기술, 마케팅 등과의 접목을 통하여 미래산업으로 육성시켜 신해양도시의 경제·산업 발전 견인
-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해양과학기술의 실증단지(테스트베드)로서 태안의 위상을 향상시켜 지역의 해양수산 역량 강화 및 해양산업 중심도시로 발돋움

#### ② 해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제고

##### ≫ 해양수산 및 연안생태 자원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 태안군이 보유한 해안선, 갯벌, 도서(섬), 연안, 사구 등 연안생태자원과 그곳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자원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항구적으로 이용가능한 활용방안 모색
-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미래세대에게 해양환경 및 연안생태 자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보전과 개발의 균형있는 정책 추진

##### ≫ 현재의 해양수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지속가능한 산업 육성

- 태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로림만·천수만, 해수욕장, 도서(섬), 수산물 등의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태안군내 해양수산자원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를 산업화로 연결시켜 주민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확립

#### 》 해양환경 복원을 통한 연안도시로서의 태안의 전통 회복

- 부남호 해수유통을 통한 수산업 중심 연안도시로서의 태안의 전통성을 살리고, 미래 굴포 운하 복원을 통한 뱃길 복원을 태안의 전통적 가치 재창출
-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으로 국민의 쉼터를 제공하는 한편, 태안이 갖고 있는 깨끗한 연안의 이미지 재창조

### ③ 주민이 행복한 미래형 연안도시(coastal city) 조성

#### 》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행복도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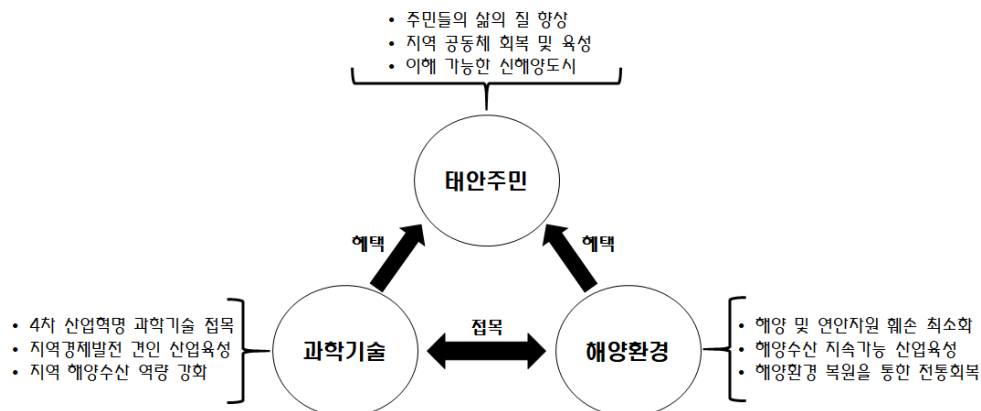
-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해양산업이 발달해 있어 일자리가 풍부하고, 다채로운 친수 시설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연안도시 조성

#### 》 지역 공동체 회복 및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원동력 확보

- 연안 및 어촌 지역의 주민공동체가 회복되어 함께 잘사는 상부상조의 옛 전통이 되살아나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 촉진
- 유류피해사고를 극복한 태안의 저력으로 주민주도로 환황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서해안의 대표 해양도시 조성

#### 》 태안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 가능한 신해양도시 모델 제시

- 태안군 읍·면별, 연령별, 직업별 다양한 주체들이 갖고 있는 이상과 사고를 하나로 수렴하고, 민·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신해양도시 모델 제시



〈그림 4-4〉 신해양도시 기본방향

## (2) 접근방법

### ① 방법적 접근

#### ≫ 서해안 대표 연안도시로서 태안의 「지리적·경제적 위치」에 주목

- 대한민국 서해안의 반도지역으로서 국토 최서단 격렬비열도가 위치해 있는 태안의 지정학상의 중요성과 상징성 강조
- 충남을 대표하는 수산郡이자 충남 수산업의 약 50%를 차지하는 태안군의 현재의 위상을 고려하면서 해양치유, 해양수소, 인공지능 등 미래 해양산업을 선도하는 태안의 미래 위상 부각
- 북으로는 서산시, 동으로는 홍성군, 남으로는 보령시와 연결되는 태안군의 지리적 특성과 함께 주변지역과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 창출방안 모색

#### ≫ 연안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살려 「미래 먹거리 발굴」 및 지역경제 건인

- 해양치유, 해양레포츠, 인공지능 등 태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수산자원과 미래기술(AI, IT, BT 등)과의 접목을 통하여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발전방안 모색
- 태안의 해양생태자원을 보전하고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면서 육성할 수 있는 해양신산업(치유, 레저,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발굴하여 서해안 대표 휴양도시 조성
- 마리나, 서핑, 휴양·치유 등 미래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지역 경쟁력의 근본적인 시프트 업(Shift up)
- 해양 환경·생태 및 역사·문화 자원 등 지역의 해양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여 산업화를 연계시켜 다채로움이 있는 태안의 이미지 부각

#### ≫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이해 가능한 신해양도시」 조성방안 모색

-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신해양도시를 조성하고자 함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해양수산정책에 반영
- 지역의 해양수산관련 주요 이슈에 대하여 토론하고 공론화하는 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이 이해 가능한 신해양도시 조성방안 마련
- 바다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어업인, 낚시업자, 레저사업자, 상인, 채굴업자 등)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형성하여 모두의 바다로서 상징성 부여
- 해양수산관련 사회적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강한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 ② 영역적 접근

### ≫ 태안군 여건에 부합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해양신산업 육성

- 전통 수산업 중심인 태안군이 해양수산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해양과학기술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해양신산업 육성
- 해양치유, 해양정원 등 국민의 삶의 휴양과 휴식, 치유를 제공할 수 있는 헬스케어 산업 중심으로 육성하여 태안의 해양수산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 인공지능, 플라잉카 등 미래산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강화시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발돋움
- 천혜의 해양생태자원과 깨끗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부화를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해양신산업 육성

### ≫ 한반도내 반도로서 서해안 해양성 기후를 갖고 있는 태안의 「해양환경자원 가치」 재발견

- 충남의 3대 연안 중 2개 연안(가로림만, 천수만)이 위치한 태안군의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중요성 및 지정학적 위치의 재발견
- 충남에서 가장 긴 해안선과 넓은 갯벌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양수산자원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는 서해안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의 위상 강화
- 부남호 해수유통, 갯벌복원, 도서개발 등을 통하여 태안의 옛 해양환경·생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한 미래 세대와의 공유 강화
- 지역의 해양자원인 모아(torf Moor Mud), 가로림만, 천수만, 수산자원 등의 가치 재발견 및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해양 환경·생태를 보전하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건강한 「해양 치유 및 레포츠 중심지」로서 위상 강화

- 태안의 해양자원(모아, 해수욕장, 가로림만, 천수만 수산물 등)을 활용하여 해양치유, 국가 해양공원, 어촌체험, 낚시, 서핑 등 다양한 해양관광 활동이 가능한 서해안 대표 지역으로서 위상 강화
- 헬스케어(치유), 레저(낚시, 요트, 해수욕), 스포츠(서핑, 카누)가 가능한 해양 치유 및 레저·스포츠의 중심지로서 국민들에게 건강한 삶과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건강한 지역의 이미지 구축
- 충남에서 가장 많은 해수욕장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다양한 농수산 먹거리가 생산되고, 낙조가 아름다운 서해안의 풍경을 담고 있는 최고의 서해안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제고
- 과거 연안지역으로 다양한 문물이 교류되고,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태안군의 해양 역사·문화적인 가치의 재발견

≫ 전통을 넘어 미래로 도약한 충남 「수산업의 중심지」로서 위상 강화

- 충남 수산업의 약 50%를 차지하는 태안의 위상을 더욱 높여 충남뿐만 아니라 서해안 전체를 선도하는 수산도시로서의 위상 구축
- 기존의 생산 중심에서 탈피하여 유통, 가공, 서비스 산업의 가치사슬을 연결하는 가치체계 구축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수산업 육성
- 어촌의 공동화, 과소화를 방지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이자 생활공동체로서 상생하는 어촌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육성
- 스마트 어촌의 개념을 도입시켜 미래어촌의 새로운 모습을 창출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경제 공동체로서 어촌 생활상 복원

≫ 환황해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포용적 교류」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 태안군의 주변지역(서산, 보령, 홍성 등)을 포용할 수 있는 해양수산 분야의 지역 리더십 및 역량 강화
- 서해안을 두고 맞닿아 있는 중국 산둥성과의 교류촉진을 통한 경제영토의 확장 및 환황해권 거점도시로서 위상 강화
- 해양수산관련 공공기관이 위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지역 브랜딩 및 인프라 구축, 정책지원 강화
- 民·官뿐만 民·民 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역 내 해양수산관련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대승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조성
- 유류사고 피해를 극복했던 태안군의 저력을 살려 신해양도시 조성을 통한 새로운 태안의 미래상(모습) 도출

③ 공간적 접근

≫ 태안의 공간적 특성 및 장점을 고려한 「해양수산자원 가치」 극대화

- 충남에서 가장 긴 해안선과 넓은 갯벌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되는 태안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 태안지역의 공간적 가치 강조 및 극대화
- 연안도시로서의 천혜의 해양관광자원과 역사·문화 자원의 결합을 통한 해양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위상 정립 필요
- 해수유통, 해양정원 등을 통하여 과거의 태안의 가치를 회복하고, 국민과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태안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을 고려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서해안을 두고 중국 산둥성과 가장 인접해 있는 태안의 국제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여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환황해권 거점도시로서의 위상 강화
- 북(서산시), 동(홍성군), 남(보령시)과 맞닿아 있는 태안군의 지리적여건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상생발전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동 발전방안 모색

≫ 태안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해양·연안 공간」 중요성 강조

- 충남 수산업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태안의 어촌지역을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지속가능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
- 태안의 연안에서 생활과 경제적 활동을 하는 주민들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역중심의 정책개발로 모두가 인정하는 신해양도시 조성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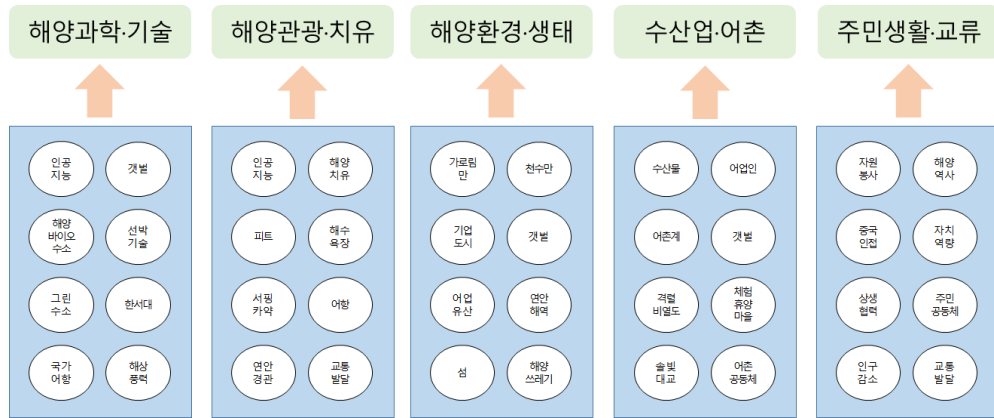
### 3. 기본구상 및 비전·전략

#### 1) 기본구상

≫ 태안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연안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입체적인 해양도시 모습 구현

- 해양과학·기술 : 인공지능, 그린수소, 해상풍력, 마리나항만 등 한국형 뉴딜정책에 부합하는 충분한 여건 구축
- 해양관광·치유 : 인공지능과 해양치유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고, 치유물질 피트, 아름다운 어항, 서핑·카약 등 관광자원 풍부
- 해양환경·생태 : 가로림만, 천수만과 인접해 있으며, 아름다운 연안경관과 신비로운 섬을 간직한 낙조가 아름다운 지역
- 수산업·어촌 : 풍부한 수산물과 넓은 갯벌을 보유하고 있으며, 충남 수산세력의 약 50%를 차지하는 서해안 대표 수산郡
- 주민생활·교류 : 123만 자원봉사자가 다녀간 성지이자, 주민자치 역량과 공동체 의식이 높은 환황해권 대표 도시





〈그림 4-5〉 태안의 해양·연안 자원

》 태안 新해양도시는 최첨단 과학도시, 건강한 치유도시, 친환경 생태도시, 스마트 수산도시, 포용적 교류도시로 구성

- 최첨단 과학도시 : 미래 해양산업 육성
- 건강한 치유도시 : 국민의 휴식처 제공
- 친환경 생태도시 : 해양환경 지속가능성 제고
- 스마트 수산도시 : 고부가가치 수산업 진흥
- 포용적 교류도시 : 환황해권 수도 위상강화



〈그림 4-6〉 신해양도시 기본구성(안)

## 2) 비전 및 전략

≫ 비전 : 郡民과 함께하는 환황해권 해양경제의 중심축! 신해양도시 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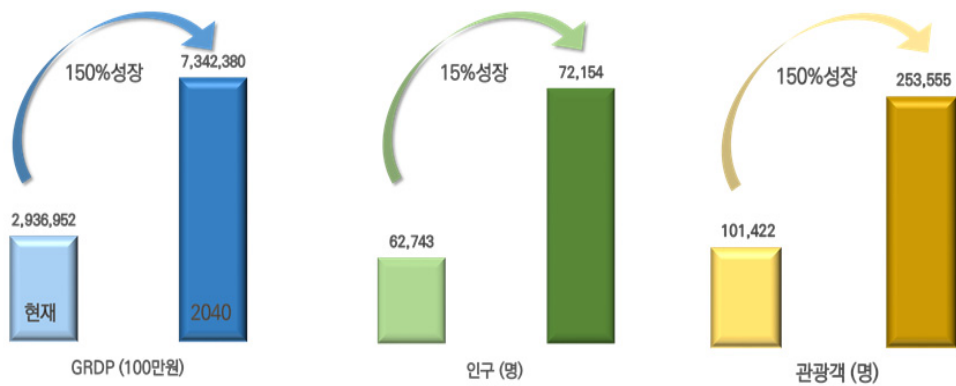
- 郡民과 함께 미래의 신해양도시를 만들어 가는 희망찬 태안 상징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은 신해양도시로서 위상 확보
- 미래 환황해권 해양경제의 중심축으로서 태안경제의 위상 제고
- 郡民이 행복하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해양경제 공동체 조성



### 3) 신해양도시 미래상

» 태안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해양도시 조성으로 2040년까지 GRDP, 인구, 관광객 수 증가 기대

- GRDP : 2040년까지 150% 성장하여 약 7조3천억 원 달성
- 인 구 : 2040년까지 15% 증가하여 약 7만2천 명 달성
- 관광객 : 2040년까지 150% 성장하여 연간 25만 명 유치



\* GRDP(2017, 당해년가격기준), 인구(2019), 관광객(2019) 기준

## 4. 세부사업

### 》 신해양도시 5대 추진전략 41개 실천사업

- 태안의 특성과 여건, 전망을 고려한 41개 세부 실천사업 제시

추진전략	번호	실천사업	사업구분	
1. 최첨단 과학도시	1-1	해양휴양형 인공지능 연구기반 조성	계속	단·중·장기
	1-2	해양관광 연계형 K-UAM 실증단지 구축	신규	중기
	1-3	마리나항만 및 복합단지 조성	신규	중·장기
	1-4	요트 튜닝산업 거점단지 조성	신규	중기
	1-5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계속	단기
	1-6	친환경 그린수소 생산거점 조성	신규	단·중기
	1-7	블루카본(Blue Carbon) 시장 선점	신규	중기
	1-8	KIOST 서해연구소 유치·설립	신규	중기
2. 건강한 치유도시	2-1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속	단·중기
	2-2	만리포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계속	단기
	2-3	다계절 테마 해수욕장 조성	신규	단기
	2-4	마음치유 펫 해수욕지구 조성	신규	단·중기
	2-5	국제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유치	신규	단기
	2-6	태안형 아름다운 어항(美港) 조성	신규	중기
	2-7	안흥외항 신해양관광지 조성	신규	단·중기
	2-8	북부권 해양레포츠 육성	신규	단기
	2-9	태안 해양역사체험길 조성사업	신규	단·중기
3. 친환경 생태도시	3-1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계속	단기
	3-2	부남호 해수유통 추진	계속	단·중기
	3-3	해양환경 컨벤션도시 조성	신규	중장기
	3-4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관광 개발	계속	단기
	3-5	해양공간관리계획 반영	신규	단·중·장기
	3-6	태안 갯벌보전·이용계획 수립	신규	단기
	3-7	세계(국가) 중요어업유산 등재	신규	단기
	3-8	태안 해양쓰레기 대응방안 구축	계속	단기
4. 스마트 수산도시	4-1	해삼산업 클러스터 육성	신규	단기
	4-2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신규	단·중기
	4-3	외해 가두리양식 기반구축	신규	중기
	4-4	수산식품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신규	단기
	4-5	해양관광형 특화거리 조성	신규	단기
	4-6	지역브랜드 격비꽃게 육성	신규	단기
	4-7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프로그램 개발	신규	단기
	4-8	어촌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신규	중기
5. 포용적 교류도시	5-1	서해안 해양환경 교류확대	신규	단기
	5-2	해양도시협력회의 주도	신규	단·중기
	5-3	신해양 주민자치역량 강화	신규	단·중기
	5-4	해양 자원봉사활동 성지 구축	계속	단기
	5-5	해양 자원봉사공동체 구축	신규	단·중기
	5-6	해양수산 사회적경제 활성화	신규	단기
	5-7	연안지역 교통인프라 강화	신규	중기
	5-8	귀어·귀농 활성화 및 잠재적 인구 유치	신규	중기

## 제2절 세부 실천사업

### 1. 최첨단 과학도시

#### 1) 현황 및 여건

##### >> 태안군 주도의 4차 산업혁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추진

- 태안군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융합선도 프로젝트’를 발판으로 인공지능 연구 및 산업을 선도적으로 추진
- 태안군 인공지능연구센터 추진단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기반으로 관련 연구자 및 산업체 유치 총력

##### >> 미래 교통수단으로 플라이카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2025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로드맵 추진

- 소재·배터리·제어(S/W)·항법 등 핵심기술이 발전하면서 ‘도심 항공 교통(UAM, Urban Air Mobility)’가 실현 가능한 차세대 모빌리티로 급부상
  - 2040년까지 UAM 세계시장규모는 1조5천억 원, 운행대수는 2035년까지 43,000대, 이용객 수는 2050년까지 4억4500만 명 예상<sup>36)</sup>
- 최근 20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민관합동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 테스트베드를 전남 고흥(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선정<sup>37)</sup>

##### >>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으면서 마리나, 크루즈 등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 고조

- 마리나 산업은 단순한 요트정박시설이 아닌 조선업, 선박수리, 용품제조, 서비스업 등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성 높음
- 국제적으로 마리나 산업이 여행의 일상화, 체험 중심의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고, 공유경제, 엔터테인먼트 산업과의 접목 가능
- 국가차원에서 마리나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나, 국내 요트 수리시설 등 미흡
- 태안군 안흥항은 국가 기본계획인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서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선정

##### >> 국가적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그린수소, 태양열,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전환 유도

36) 임두빈&염이슬(2020), ‘하늘 위에 펼쳐지는 모빌리티 혁명,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삼성KPMG 경제연구원, Vol 70.

37)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심항공(UAM) 기술·안전성 드높일 청사진 나온다’, 2020.12.29.일자.

-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 정책 중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과 관련하여 전국에 해상풍력단지 조성 추진
  - 충남에서는 태안(석도 및 난도 인근), 보령(외연도 및 황도 인근) 추진 중

#### >> 석탄, 석유 중심의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수소경제로 전환

- 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하여 2030년까지 연간 194만 톤 공급, 수전해 방식 생산비율 50%까지 확대하고, 수소 가격 1kg당 4,000원까지 낮출 계획 발표
- 포스코 에너지, 두산, 블루에너지 등 대기업 중심으로 생산비 절감을 이유로 개질, 부생-개질 수소 연료전지발전을 채택하였고, 대기업 중에서는 한화솔루션이 수전해기술 개발 착수

#### >> 2019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서부발전과 함께 ‘해양바이오수소 실증 플랜트’ 건설하여 완공

- 해양 미생물을 촉매로 수소 NA1은 지금까지 알려진 미생물 중 가장 많은 수소화 효소군(7종)을 보유해 생촉매로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중 최대의 수소 생산성 보임
- 실증 플랜트가 본격 가공되면 연간 약 330톤(1톤/일) 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2,200대 수소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는 규모

#### >> 우리나라는 넓은 갯벌을 갖고 있어 블루카본 활용성에 대한 높은 기대감<sup>38)</sup>

-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서·남해 갯벌(2,482km<sup>2</sup>)을 보유하고 있어 블루카본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sup>39)</sup>
- 블루카본이란 염생식물, 갈피 등 연안에서 서식하는 식물과 갯벌 등의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로서 유엔(UN)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해양생태계의 온실가스 흡수 속도가 육지생태계보다 최대 50배나 빠르다고 보고<sup>40)</sup>
- 태안은 전국에서 8번째, 충남에서 가장 넓은 갯벌면적(128.8km<sup>2</sup>)을 보유하고 있어 블루카본 활성화 최적지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본원이 2017년 부산 이전으로 서해안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 해양연구기관 부재

- 가로림만 해양정원, 부남호 역간적, 해양바이오, 해양쓰레기 등 해양과학기술 관련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고, 해양수산물 관련 발전 가능성이 높은 충남 서해안권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 유치 필요

38) 해양수산부, 온실가스를 줄이는 파란 신호 블루카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11.5.일자.

39) 해양수산부, 온실가스를 줄이는 파란 신호 블루카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11.5.일자.

40) 해양수산부, 온실가스를 줄이는 파란 신호 블루카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11.5.일자.(이하 동일)

## 2) 추진방향

### 》 추진방향 : 최첨단 해양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기초지자체로서의 위상 확보

- 대한민국 및 충청남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태안연안에서 시발시켜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 조성
- 대한민국 해양과학기술의 대표적인 서해안 테스트베드로서 태안의 위상을 확보하고, 과학 기술 실용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견인
- 미래 유망한 해양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친환경 해양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연안환경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 추진목표 : 4차 산업혁명 대응하는 서해안 대표 해양과학기술 도시 조성

- 해양치유·휴양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인공지능 연구기반 조성
- 미래 유망한 교통수단인 플라잉카 실증단지 조성 및 해양관광 연계
- 향후 미래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리나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 국가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하고 친환경 청정에너지 확보를 위한 해상풍력 발전단지 및 그린수소 생산거점 조성
- 2050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블루카본 활성화 및 시장 선점
- 해양수산업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연구기관 유치로 지역 해양수산 역량강화

### 3) 세부사업

#### ① 해양휴양형 인공지능 연구기반 조성

##### (1) 배경 및 필요성

###### >> 태안군 주도의 4차 산업혁명 주도권 확보

- 태안군이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융합선도 프로젝트’를 발판으로 지방 정부주도형 4차산업 혁명 관련 사업 실행 주도권 확보
- 서울대-태안군-동국대 업무협약을 통해 태안군이 인공지능 연구 및 산업 선도 지자체로 도약할 수 있는 독자적, 독점적 기반 조성 완료

###### >> 해양휴양형 인공지능연구센터를 통한 미래먹거리 발굴

- 해양치유형 관광, 스마트 농수산, 친환경 신에너지사업 분야는 태안군과 충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인공지능 기반 충남형 그린뉴딜 사업 추진에 선도적 역할 수행 가능
- 고급 연구-교육인력을 태안군으로 유치하여 지역의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 관련 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전문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의 신성장동력 마련
- 태안군 인공지능연구센터 추진단이 보유한 독자적인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기반으로 관련 연구자-산업체 유치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태안군(2019), 신해양광개토 사업 보고회
- 충청남도(2020), 제2단계 제1기 충남도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기·중기·장기(2021~2040년)
- 사업분류 : 계속
- 사업량 : 1식
- 사업지 : 태안군 남면 달산리 880-2
- 추진주체 : 태안군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설립 예정)
- 사업비 : 634억 원 (국비 47%, 도비 5%, 군비 7%, 민자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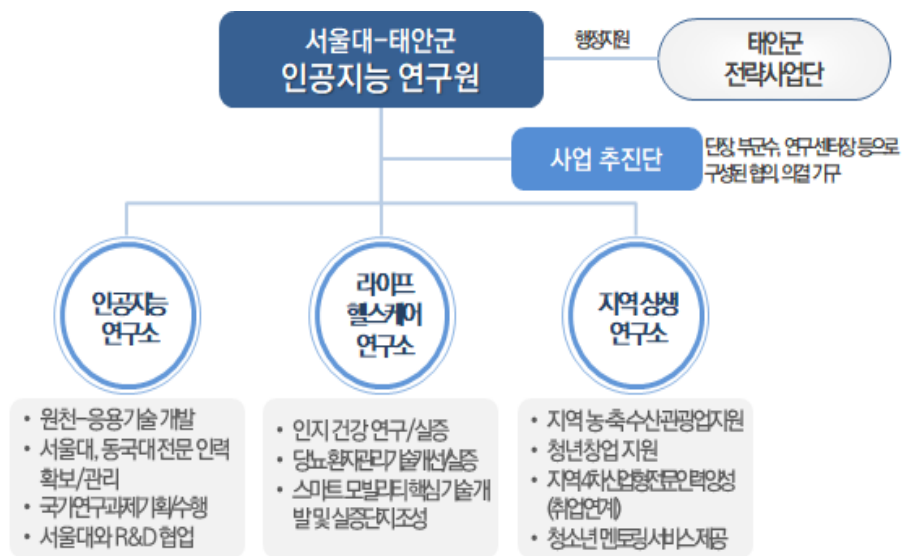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634	17	15	14	24	23.2	220.4	320.4
국비	300						100	200
지방비	도비	30	2	2	2	2	10	10
	군비	44	15	3	2	1.2	10.4	10.4
민자	260		10	10	20	20	100	100

#### (4) 주요 사업내용

##### 》 지역 현황 및 실태 조사, 산업수요를 고려한 추진체계 확립

- 인공지능 거점 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해 실수요자 맞춤형 기술개발 가이드라인 구축
- 군내 전 산업 내 AI기술 보급 현황조사 및 농축수산, 관광, 에너지 분야와 연계한 기술 개발범위 연구 및 조사
- 서울대-태안군 공동 사업추진 기구 설립 및 운용



〈그림 4-7〉 태안군 인공지능 연구센터 조직(안)

자료 : 태안군 인공지능연구센터 추진단

## >> 디지털 라이프·헬스케어 (실증)주거단지 조성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원격진단 등 ICT와 융합된 디지털 기술을 통한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정착지원 서비스, 돌봄·복지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통합 라이프·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 >> 인공지능 기반 노인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 뇌인지 질환 환자 대상, 상급 병원과 연계한 개인 맞춤형 뇌인지 건강 서비스 시범운영
- 착용성, 편의성과 신뢰성 검증받은 환자 친화적 일상 활동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웨어러블 통합 측정시스템을 적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 >> 인공지능 기반 해양치유관광사업 발굴 및 검증 프로젝트

- 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에 적용되는 융·복합 고부가가치 치유산업 육성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헬스케어 서비스 기반 조성
- 전 국민을 위한 치유관광 플랫폼 구축 (수요자선점)
  - 건강인, 스포츠동호인, 만성 대사질환자 모두를 아우르는 융·복합형 해양치유 서비스 플랫폼 구축
  - 이용자 건강 데이터를 축적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 추진

### 활동별 프로그램 이미지

<p><b>체험형 (Experience)</b></p> <p>▪ 태안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해양체험활동, 숲 등 생태체험 등</p>  	<p><b>레저형 (Leisure)</b></p> <p>▪ 고부가 레저사업을 접목한 활동 : 카약, 요트, 캠핑, 패들보트, 서핑 등</p>  
<p><b>휴양형 (Wellness)</b></p> <p>▪ 해양자원을 활용한 명상, 요가, 관광 등</p>  	<p><b>치유형 (Healing)</b></p> <p>▪ 해양자원을 활용한 테라피, 전문가 교육, 지역특산물 조리 활동 등</p>   

〈그림 4-8〉 건강인과 질환자 모두를 위한 고부가 해양치유모델

자료 : 태안군 인공지능연구센터 추진단

## (5) 기대효과

### ≫ 국내 최초 AI기반 해양치유도시 이미지 제고

- 다양한 해양자원 활용 건강관리 서비스 선제 발굴을 통한 국내 최고 해양치유 선도지역으로의 위상 제고 및 모델 확립
- 인공지능을 접목한 해양체험, 해양치유 등 다각적인 선도적 연구를 통하여 해양자원 연구기반 구축
- 우수 연구인력에 대한 선제적 유치로 태안군 자체 연구역량 강화
- 중앙정부의 그린뉴딜 및 디지털뉴딜 정책과 연계 가능
  - AI융합 산업 선도, 친환경 신에너지 사업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기후변화협정에 대응하고, 국제적 환경기준을 충족할 미래기술 선점

### ≫ 해양자원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해양헬스케어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창업기반 마련, 지역 인재 육성 등 해양자원 산업의 활성화 도모
- 다양한 만성질환 환우회, 온라인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충남도 내 관광객 유치
- 고부가 레저활동 및 상품개발 등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 ≫ 국민건강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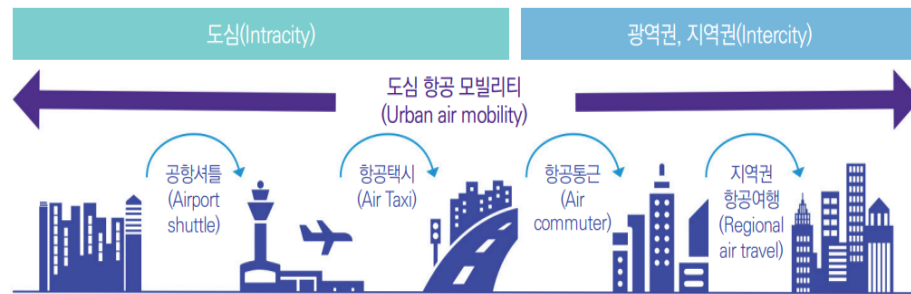
-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추적 가능하고, 지속적인 관찰·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자들의 건강관리 모니터링 가능
  - 수집된 당뇨, 비만 등 의료정보 데이터를 토대로 관련 정책, 연구, 홍보 등의 근거 자료를 활용하여 만성질환의 예방, 관리 등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② 해양관광 연계형 K-UAM 실증단지 구축

### (1) 배경 및 필요성

#### ≫ 미래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플라잉 카(flying car) 시대 도래 예상

- 소재·배터리·제어(S/W)·항법 등 핵심기술이 발전하면서 ‘도심 항공 교통(UAM, Urban Air Mobility)’가 실현 가능한 차세대 모빌리티로 급부상
  - 2040년까지 UAM 세계시장규모는 1조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운행 대수는 2035년까지 43,000대, 이용객 수는 2050년까지 4억4,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sup>41)</sup>



〈그림 4-9〉 UAM을 통한 항공운송 서비스의 활용범위

자료 : 임두빈&엄이슬(2020)

## >> 정부는 2025년 상용화를 위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개발을 위한 로드맵 마련 준비

-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항공교통 분야의 이슈와 과제를 발굴하는 산·학·연·관 전문가 기술위원회 운영
  - (업 계) 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 대한항공 등
  - (연구계) 항공우주연구원, 교통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등
  - (학 계) 한서대, 서울대, 건국대, 항공대, 인하대 등
- 2020년 12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민관합동 실증사업인 K-UMA 그랜드 챌린지 1단계 테스트베드로 전남 고흥(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선정<sup>42)</sup>
- K-UAM 그랜드 챌린지는 2025년까지 상용화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sup>43)</sup>
  - 0단계 : 2021년 시나리오 준비 및 테스트베드 구축, K-UAM 그랜드챌린지 마스터플랜 발표
  - 1단계 : 2022~2023년 개활지에서 실증
  - 2단계 : 2024년 도심지 실증 완료

41) 임두빈&엄이슬(2020), '하늘 위에 펼쳐지는 모빌리티 혁명,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삼성KPMG 경제연구원, Vol 70.

4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심항공교통(UAM) 기술 안전성 드높일 청사진 나온다', 2021.12.29.일자.

4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심항공교통(UAM) 기술 안전성 드높일 청사진 나온다', 2021.12.29.일자, 이하동일.



〈그림 4-10〉 시기별 UAM 시장 변화 패턴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심항공교통(UAM) 기술 안전성 드높일 청사진 나온다', 2021.12.29.일자.

## >> 충남도에서는 한서대가 K-UAM 사업에 적극적이며, 향후 태안군과 함께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노력 필요

- 한서대는 항공학부(항공소프트웨어, 항공전자공학, 무인항공, 항공교통물류 등)와 항공융합학부(항공신소재, 항공컴퓨터, 조종, 보안시스템 등) 운영
  - 한서대 태안캠퍼스에는 3개의 교육원과 비행장이 입지해 있으며,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사업에 높은 관심 보유
  - 한서대 항공학부 및 태안비행장 등과 연계한 해양관광 연계형 UAM 실증단지 조성을 통한 테스트베드를 넘어 실용화 단계에 진입 노력 필요
- 향후 태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도서와의 이격, 수도권 인접, 산업역량 및 인적 자원 등)을 적극적으로 부각 필요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관계부처 합동(2020), 도시의 하늘을 여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중기(2026~30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규모 : 1식(실증단지 30,000㎡)
- 사업지 : 한서대 태안 비행장 일원

- 추진주체 : 충청남도, 태안군, 한서대, 민간기업
- 사업비 : 1,000억 원 (국비 50%, 도비 20%, 군비 10%, 민자 20%)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1,000						1,000	
국비	500						500	
지방비	도비	200					200	
	군비	100					100	
민자	200						200	

#### (4) 주요 사업내용

##### >> K-UAM 실증단지 공간구상

- K-UAM 관련 R&D, 교육·훈련, 창업·산업화 등 통합 기업지원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
- 입주기관 간 지식·정보의 공유 및 확산, 소통 및 교류공간 조성
- 일·생활 균형 및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산업복지공간 조성

##### >> 해양관광 연계형 K-UAM 실증단지 조성

- K-UAM 실용화 및 상용화를 위한 안전문제 등 기반 및 테스트베드(Test-bed) 조성
  - 한서대 비행장과 연계하기 위한 STOL(Short Take-off and Landing)형 및 VTOL(Vertical Take-off and Landing)형 병행 개발 실증단지 조성
  - STOL(Short Take-off and Landing)형 : 일정 수준의 활주로 필요
  - VTOL(Vertical Take-off and Landing)형 : 활주로 불필요(수직 이착륙)
- K-UAM 실증단지 내 도입시설
  - 이착륙, 휴먼에러, 안전, 연료 효율성, 범위, 소음 및 항공교통 통제 관련 R&D센터 조성
  - 개인용 비행체(PAV) 개발관련 시제품 제작, 배터리, 모터, 수소전기, 헬리콥터 및 경비행기 제조 등 부품 및 장비업체 실증공간
  - 소재·구조, 제어·안전, 추진계통, 항행·통신, 배터리, 사이버 보안 관련 Start-up 공간 조성
  - 개인용 비행체(PAV) 시험비행 교육·훈련공간 조성
  - 연구인력, 기업인력 등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소통·교류 공간조성

- 개인용 비행체(PAV) 운항 관련 지원 플랫폼 구축
- 기타 문화·복지 등 편의시설

#### >> 태안군 해양관광과의 연계방안

- 태안군 내 주요 관광코스 및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개인용 비행체(PAV)를 해상항공택시로 시범·운영
- 한서대와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새로운 해양 항공·레저 스포츠 액티비티(Activity)로 제공

### (5) 기대효과

#### >> K-UAM 상용화 선도 및 해양관광과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주목받은 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새로운 해양 스포츠레저 액티비티(Activity)제공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 한서대 태안캠퍼스와 태안 비행장과의 연계·활용도 제고 및 케이블 카 건설의 대안으로 활용 가능
- 현재 태안군 남면에 조성 중인 UV랜드(드론스쿨, RC자동차서킷, 이·착륙장, 무인조정멀티 센터)와 시너지효과 창출 기대

### ③ 마리나항만 및 복합단지 조성

#### (1) 배경 및 필요성

#### >> 마리나 산업은 단순한 요트정박시설이 아닌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성이 큰 산업

- 마리나는 요트를 정박시킬 수 있는 시설과 육상에서 요트클럽하우스, 요트수리소, 요트적치장, 급유소 등 요트를 타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춘 요트전용항구 말함<sup>44)</sup>
- 마리나 산업은 대형 및 중소형 조선산업뿐만 아니라 요트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과 연계가 가능한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sup>45)</sup>
- 마리나는 계류, 보관, 수리, 점검, 청소, 보급, 정보제공, 식사, 숙박·휴식, 연수·교육, 안전 관리, 용품 판매, 기타의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구비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큼<sup>46)</sup>

#### >>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으면서 마리나 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 고조

44) 한국마리나협회 마리나포털, 「<http://www.marinaportal.kr/rb/?c=1/6>」

45) 한국마리나협회 마리나포털, 「<http://www.marinaportal.kr/rb/?c=1/6>」

46) 한국마리나협회 마리나포털, 「<http://www.marinaportal.kr/rb/?c=1/6>」



- 2009년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마리나항만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국내에는 총 37개의 마리나(총 2,403선석) 운영 중이고, 이 중 제주권이 가장 많음<sup>47)</sup>
  - 수도권(4개소) : 한강, 양산, 김포터미널, 전곡
  - 충청권(2개소) : 보령, 삼길포
  - 전북권(1개소) : 격포
  - 전남권(5개소) : 목포, 소호, 완도, 이순신, 비봉
  - 경남권(6개소) : 물건, 삼천포, 충무, 통영(공공), 지세포, 매물도
  - 부울권(3개소) : 수영만, 해운대, 남천
  - 경북권(5개소) : 양포, 포항구항, 오산, 후포, 두호
  - 강원권(3개소) : 강릉, 수산, 속초(공공)
  - 제주권(8개소) : 도두, 도두(공공), 한라, 김녕, 김녕(공공), 위미, 중문, 대포

#### >> 최근 세계 마리나 산업은 여행의 일상화 및 체험 중심의 관광 트렌드 반영 <sup>48)</sup>

- 국제마리나산업협회(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arine Industry Associations, ICOMIA)는 미래 마리나산업의 10대 키워드 선정
  - 10대 키워드 : ① 전기자동차 개발, ② 전기 해양 추진 시스템, ③ 재생 에너지, ④ 에너지 저장, ⑤ 원격 감지, ⑥ 모니터링 시스템, ⑦ 자율주행 요트, ⑧ 해수면 상승, ⑨ 해양오염 ⑩ 미세 플라스틱
- 최근 공유경제 확산, ICT와의 융합, 해양환경 보전, 어린이와 여성 등 마리나 이용 대상 확대, 가족 중심적인 친수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마리나 시장 확대에 초점
  - 레저선박 공유경제 시장은 2013년 30억 달러의 규모에서 2016년 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여 4년 동안 약 10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레저선박에 대한 소유주들의 연중 이용률이 높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여 이용률 제고를 통한 대중화에 기여
  - 친환경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마리나는 마리나산업의 미래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으며 친환경 전기보트,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마리나 시설 조성 등 친환경 기술 확보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관리모델 구축
  - 해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리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 마리나 구축 과 관련 인증 취득에 대한 관심 고조
  - 마리나 및 배후시설 기능 재편을 통한 친수문화공간 조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강조함에 따라 마리나 인근 배후지역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유인하는 매력 요소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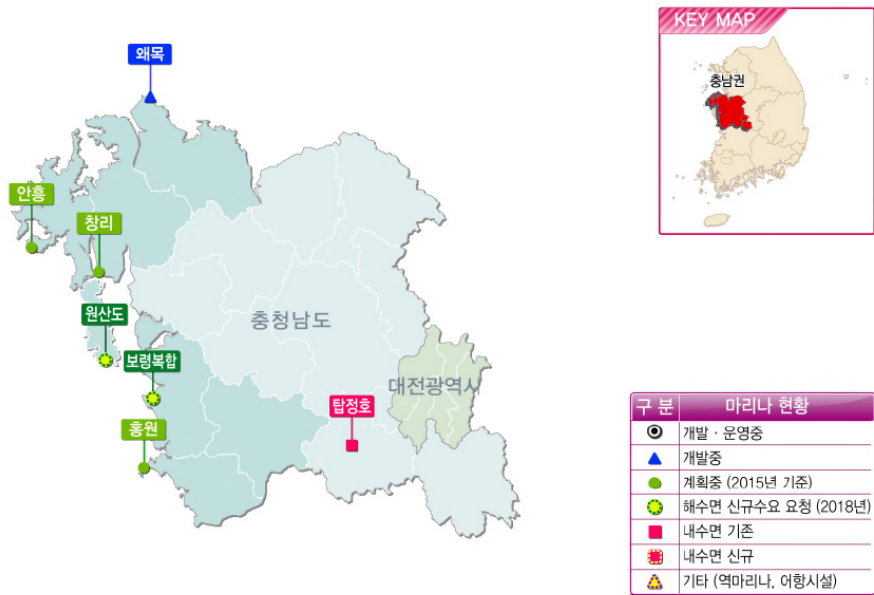
47) 해양수산부(2020),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48) 해양수산부(2020),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이하 동일.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20), 제2차 마리아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
  - 본 계획에 따른 충남에서는 왜목, 안흥, 창리, 원산도, 보령북합, 홍원, 탑정호(내수면) 선정



〈그림 4-11〉 충남권 마리아나항만 예정구역 위치도

자료 : 해양수산부(2020), 제2차(2020~2029) 마리아나항만 기본계획.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중기·장기(2026~2035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규모 : 1식 (해상 20선석, 육상 20선석)
- 사업지 : 안흥항 일원(마도)
- 추진주체 :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태안군, 민간기업
- 사업비 : 200억 원(국비 20%, 도비 10%, 군비 10%, 민자 60%)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200						100	100
국비	40						20	20
지방비	도비	20					10	10
	군비	20					10	10
민자	120						60	60

#### (4) 주요 사업내용

##### >>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해양관광과 연계된 마리나항만 조성

- 서해안 서단에 위치하고 있어 외해로부터 접근이 용이하여 위치적인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만 형태의 지형으로 인해 외곽시설 설치 시 정온도 확보 유리<sup>49)</sup>
- 서해안 최고의 청정바다와 인근의 태안해안국립공원 등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여 경관성이 뛰어나며 안흥항 꽃게축제, 안흥성, 해양유물전시관, 골프장, 해수욕장 등의 다양한 관광자원이 분포하여 관광객 집객효과 우수<sup>50)</sup>

##### >> 안흥항 경관사업과 연계하여 해양관광 및 레저·스포츠의 중심지로 육성

- 중소형 요트 중심의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고 주변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복합산업단지로 조성
- 마리나항만은 해상 20선석, 육상 20선석으로 조성하여 주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
  - 수용능력 : 40선석 (육상 20척, 해상 20척)
  - 주요시설 : 육상 보관장(드라이 스택), 계류장 및 잔교, 급유시설, 수납창고 및 급수시설, 충전시설, 클럽 하우스 등
- 향후 요트 수리, 매매·대여, 부품조달, 항로정보 등 전·후방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 고려 필요
- 향후 마리나항만 조성을 위한 민자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필요 시 마리나항만 대상지 변경 등도 고려 필요
  - 현재 어촌뉴딜 300 사업대상지 중 하나인 만대항도 가능한지 검토 필요

49) 해양수산부(2020),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50) 해양수산부(2020),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그림 4-12〉 안흥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위치도

자료 : 해양수산부(2020),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 (5) 기대효과

### ≫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신해양관광 수요에 선제적 대응

-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요트산업, 마리나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미래 관광산업에 대응
- 지역내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기여

## 4 요트 튜닝산업 거점단지 조성

### (1) 배경 및 필요성

#### ≫ 마리나 산업은 요트 정비시설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추진 필요

- 마리나 산업은 대·중·소형 조선산업뿐만 아니라 요트(레저보트)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연계가 가능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 분야<sup>51)</sup>
- 마리나 산업은 요트의 계류, 보관, 수리, 점검, 청소, 보급과 함께 선원들 및 관광객에게 정보제공, 식사, 숙박·휴식, 연수·교육, 안전관리, 용품판매 등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필수

51) 한국마리나협회 마리나포털, 「<http://www.marinaportal.kr/rb/?c=1/6>」

≫ 현재 국가 차원에서 마리나 산업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요트 수리시설 등 구축 미흡

- 국내에는 총 37개의 마리나(총 2,403선석) 운영 중이고, 총 70개의 예정구역을 선정하였으나, 관련 인프라 부족
  -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해수면 55개, 내수면 15개
  - 국내 마리나 사업체 수 154개사, 요트건조 가능 조선사 50여 개 운영
- 따라서 서해안 최고의 선박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태안에 마리나항만과 연계된 요트투닝산업 거점단지 조성 필요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19),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 해양수산부(2020),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
  - 본 계획에 따른 현재 태안군은 안흥항 선정
- 태안군(2020), 신해양 광개토 사업(2020~2022)
  - '신해양 레저 모빌리티 복합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중기(2026~2030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규모 : 1식
- 사업지 : 태안군 근흥면 일원
- 추진주체 : 충청남도, 태안군, 민간기업
- 사업비 : 100억 원 (국비 20%, 도비 10%, 군비 10%, 민자 60%)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100						100	
국비	20						20	
지방비	도비	10					10	
	군비	10					10	
민자	60						60	

#### (4) 주요 사업내용

##### ≫ 마리나항만은 단순한 요트정박시설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이 밀집했을 때 시너지 효과 창출

- 태안 안흥항의 마리나항만은 중·소형 요트 중심의 마리나항만으로 조성하고, 주변관광지와의 연계성을 통한 요트산업 복합단지로 조성
- 마리나 항만 부대시설로는 육상보관장(드라이 스택), 계류장 및 잔교, 급유시설, 수납창고 및 급수시설, 충전시설, 클럽하우스 등 설치 가능
- 현재 국내에서는 약 50여개의 요트 조선소가 위치해 있으나, 충남 서해안권에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요트가 일본에서 중고매물로 반입되어 수리가 필수적인 것을 고려할 때 수리와 튜닝이 가능한 산업 유치가 필수적임
- 태안군에는 현재 중·소형 조선소 및 선박특화단지(삭선리) 등이 위치해 있어 요트 수리 및 튜닝을 위한 지역 내 전문인력 및 기술 보유

##### ≫ 안흥항 경관사업과 연계하여 해양관광 및 레저·스포츠의 중심지로 육성

- 현재 태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안흥항 경관개선사업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요트 관련 해양관광 및 레저·스포츠 중심지로 육성
  - 안흥항은 서해안 수산업의 중심지로서 꽃게, 오징어 등 다양한 수산물이 풍부하고, 주변에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안흥진성, 골프장 등 풍부한 관광자원 보유
- 현재 태안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이 안흥항이므로, 안흥항 중심으로 마리나 복합시설을 갖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
-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 지역으로 변경 시 마리나 항만뿐만 아니라 관광자원, 숙박시설, 요트수리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 필요
- 현재 태안군이 추진 중인 '신해양 광개토 사업' 중 '신해양 레저 모빌리티 복합단지 조성'과 사업 조율 및 연계 필요

#### (5) 기대효과

##### ≫ 마리나 산업 집적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요트 등 레저선박이 정박이 가능한 마리나항만 시설뿐만 아니라 레저선박에 대한 수리와 튜닝이 가능한 후방산업을 집적시켜 마리나 복합산업단지로서 지역 일자리 창출
- 요트 수리 및 튜닝 산업을 선점하여 서해안권 해양레저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관련 산업 집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참고사례

### 〈호주 시드니 The Spit〉

- The Spit 마리나는 대도시 근교에 위치하여 관광객이 일상적으로 단기체류가 가능한 일상형



원자료 : Bryant Hevesi, Mosman Daily, "Superyachts to become a regular sight at The Spit once d'Albora Marinas revamp is completed", The Daily Telegraph, 2015.6.18.일자.

### 〈호주 골드코스트 Sanctuary Cove〉

- Sanctuary Cove 마리나는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여 장기체류 및 숙박이 가능한 리조트형



원자료 : 류효종(2007), 세계 레저보트 및 마리나 산업의 이해 : 지방자치단체 마리나 산업 정책 제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시드니사무소

자료 : 김종화 외(2018), 서천군 해양산업 발전 기본계획, 충남연구원

## 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 (1)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수소, 태양열,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유도

-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 중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의 일환으로서 풍력단지 조성 추진<sup>52)</sup>
  -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을 위하여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계측·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실증단지 단계적 구축
- 대표적인 석탄화력 발전인 보령화력 1호기, 2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풍력 등 대체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
  - 보령시는 중부발전과 함께 보령 외연도 북쪽, 황도 남쪽 해상 62.8km<sup>2</sup>에 2025년까지 1GW급 해상풍력단지 조성 추진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관계부처합동(2020), 한국판 뉴딜(그린뉴딜)
- 태안군(2020), 신해양 광개토사업(2020~2022)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기(2018~2025년)
- 사업분류 : 계속
- 사업량 : 1식
  - 설비용량 : 504MW (8MW×63기)
  - 발전량 : 1,314MWh/년 (약 40만 가구 사용가능한 전력량)
  - 사업지 : 태안군 석도 및 난도 인근 해상
  - 사업면적 : 공유수면 2.1km<sup>2</sup>(63만 평), 송전선로 39.8km (해저 39.1km, 육지 0.7km)
- 추진주체 : (주)태안풍력발전(서부발전, 남동발전, 호반건설, 두산중공업)
- 사업비: 2조 6,562억 원 (민자 100%)

52) 한국판뉴딜 HP 「[http://www.knewdeal.go.kr/front/view/newDeal02\\_02.do](http://www.knewdeal.go.kr/front/view/newDeal02_02.do)」, 이하동일.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26,562	231	231	8,800	8,800	8,500		
국비								
지방비	도비							
	군비							
민자	26,562	231	231	8,800	8,800	8,500		



〈그림 4-13〉 태안 해상풍력단지 위치도

자료 : 태안군(2020), 신해양 공개토사업 (2020~2022).

#### (4) 주요 사업내용

##### 》 태안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 현재 태안군 근흥면 앞바다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2018. 10.) : 태안군, (주)태안해상풍력, 남동발전, 서부발전, 두산중공업 등
  - 해상풍력 추진계획 협의 및 주민 홍보(2019. 2.)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청 및 간이해역 이용 협의
  - 해상교통안전진단 착수(2019. 7.), 풍황계측기 제작·설치(2019. 12.)
  - 풍황계측 및 타당성 조사 추진(2020년)



- 해상풍력 발전기 및 해저케이블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2024년 12월에 상업운전 개시 예정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전기사업허가 등 추진(2021년 예정)
  - 태안 해상풍력단지 착공 및 준공(2023~2025년 예정)
- 향후 추가적으로 해상풍력단지 3개(1.2GW) 조성 예정

## (5) 기대효과

### ≫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청정에너지원 조성으로 탄소중립 선도

-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 등 글로벌 환경이슈를 선점하여 청정한 태안의 위상 및 이미지 제고
- 해상풍력발전 관련 전·후방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 단,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어업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6] 친환경 그린수소 생산거점 조성

### (1) 배경 및 필요성

#### ≫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 교수는 수소에너지를 인간 문명을 재구성할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 규정<sup>5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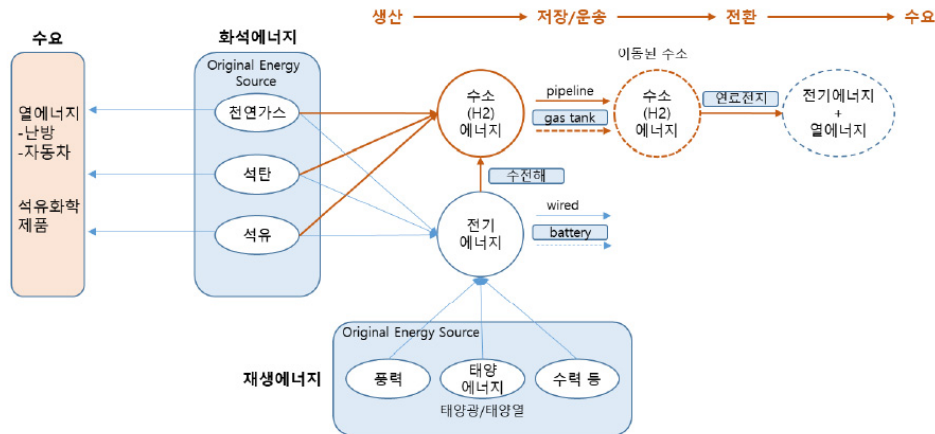
- 그는 저서 수소경제(Hydrogen Economy)에서 수소에너지를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 규정하고, 유사한 수소 에너지망을 통해 누구나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가 될 수 있는 민주적 에너지 권력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견

#### ≫ 석탄, 석유 중심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수소경제로 전환

- 선박, 자동차, 열차, 발전 등 산업 전반에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수소를 생산, 저장, 운송, 충전 등 전·후방 산업 육성
-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하여 2030년까지 연간 194만 톤 공급, 수전해 방식 생산비율 50%까지 확대, 파리기후변화협약 준수, 수소 가격 1kg당 4,000원까지 낮출 계획 발표
- 현재(2020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52개소, 개질-부생 수소 사용, 천연가스 수입(Qatar Dilemma), 글로벌 역학관계 등으로 정부는 개질수소에 집중 예상

53) 이상규&탁승문(2005), 수소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POSRI CEO REPORT, 2005-6, 포스코경영연구소, 이하 동일.

- 개질(改質, reforming)이란 형태를 재구성한다는 의미로 재료의 성분에서 화학 구조의 형태를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원하는 재료를 합성하고 추출하는 방법을 통칭<sup>54)</sup>
- 포스코 에너지, 두산, 블루에너지 등 대기업 중심으로 생산비 절감을 이유로 개질, 부생-개질 수소 연료전지발전을 채택하였고, 대기업 중에서는 한화솔루션이 수전해 기술개발 착수



〈그림 4-14〉 수소에너지의 위치

자료 : 정기대(2019), '수소경제의 경제적·기술적 이슈: Value Chain 5단계 중심', 포스코경영연구원.

## 》 지구온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산업이 부각되면서 그린수소 시장에 대한 글로벌 관심 고조

- 유럽국가의 디젤자동차 판매규제 및 전기차로의 전환, 국가차원의 탄소중립 선언 등 지구온난화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 강화
- 기존의 개질 중심의 Gray 수소에서 Green 수소로의 전환을 통한 세계에서는 통용되는 태안군 수소경제의 도약기반 마련

## 》 2019년 KIOST가 ㈜서부발전과 함께 '해양바이오수소 실증 플랜트' 건설하여 완공<sup>55)</sup>

- KIOST 연구진이 파푸아뉴기니 인근 남태평양 심해를 탐사하던 중 미생물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포착 후, 실증 플랜트에서 해양 미생물 'NA1'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국내 연구진이 미생물을 촉매로 수소를 생산하는 독보적인 원천기술 개발
- NA1은 지금까지 알려진 미생물 중 가장 많은 수소화 효소군(7종)을 보유해 생촉매로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중 최대의 수소 생산성 보임
  - NA1은 일산화탄소(CO)를 먹고 바닷물에서 분해하여 수소 생산

54) 손영준(2020), '신재생에너지의 현재와 미래', 기계저널, 60(2), pp53-56.

55) 이종수, '수소생산의 새로운 대안 해양 바이오 ① 미생물 이용 수소생산? 세계 최초 대량 수소생산 눈앞', 월간수소경제, 2019.12.3.일자. (이하 동일)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2019),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 충청남도(2020), 충남 해양바이오 산업육성 기본계획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기·중기(2021~2024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량 : 1식(10,000m<sup>3</sup>)
- 사업지 : 태안군 남면(기업도시 내)
- 추진주체 : 태안군, 서울대, 고려대 (주)서부발전, (주)현대도시개발
- 사업비 : 540억 원 (국비 68%, 도비 18%, 군비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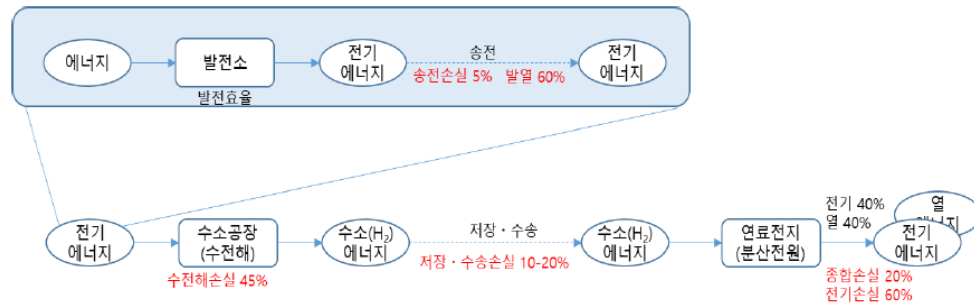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540	80	190	170	100			
국비	290	50	100	100	40			
지방비	도비	50	10	20	10	10		
	군비	50	10	20	10	10		
민자	150	10	50	50	40			

## (4) 주요 사업내용

### 》 P2G(Power to Gas) 수소생산단지를 선제적으로 구축

- 친환경 수소생산 R&D와 독자기술을 토대로 적극적 사업방식 채택
  - 예를 들어 정부 로드맵 상 2022년 수소공급량 47만 톤/년 중 10만 톤을 태안에서 생산·공급 시(10만톤 \* 5,000원/kg) 연간 5,000억 원 매출 가능 (40억 규모의 생산시설 구축 시 1.5~3 ton/일 생산 가능)
- 환경부 온실가스 저감 실증화사업과 연계하여 그린수소 보조금 정책 적극적으로 활용
  - 환경부는 내년 수소충전소 보조금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여 전국에 2021년 300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며, 태안은 4개소 정도 그린수소충전소 시범사업 우선 선정 가능
- 지역에 위치한 (주)서부발전과 태안군 간의 수소 생산-공급 계약 체결하여 태안군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가능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그림 4-15〉 수소의 에너지전환 과정

자료 : 정기대(2019), '수소경제의 경제적·기술적 이슈: Value Chain 5단계 중심', 포스코경영연구원.

## 》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실증, 생산, 공급의 가치사슬 및 산업생태계 구축

- 인공지능연구센터의 수소생산 기술 고도화 및 실증·교육을 위한 시연 시스템 구축
  - 실증시스템 구축 : 분당 83.4g, 1일 약 120kg 생산
  - 3NO-SYSTEM(무촉매, 무전해질, 무CO2)
- 친환경 수소 생산-공급 시스템 구축
  - 태양광, 풍력에너지(7kw/h)를 이용하여 수소생산, 일일 최대 3ton(5bar)의 수소 생산-압축-저장-공급 가능(kg당 5,000원 가정 시 일 1천5백만 원)
  - 친환경 그린수소충전소 구축하고, 도서지역에 분산형 그린수소충전소 구축

## 》 해양바이오수소 실증 플랜트와 연구 및 상용화 연계·협력 강화

- 미생물을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해양바이오수소 실증 플랜트와 연구 및 상용화를 연계·협력하여 추진
- 해양바이오수소 실증 플랜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연간 약 330톤(1톤/일) 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2,200대의 수소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는 규모<sup>56)</sup>
  - (주)서부발전은 330MW급 석탄가스화 복합화력 실증 플랜트(IGCC) 인근에 해양바이오수소 실증 플랜트를 건설하여 실험실 수준을 넘어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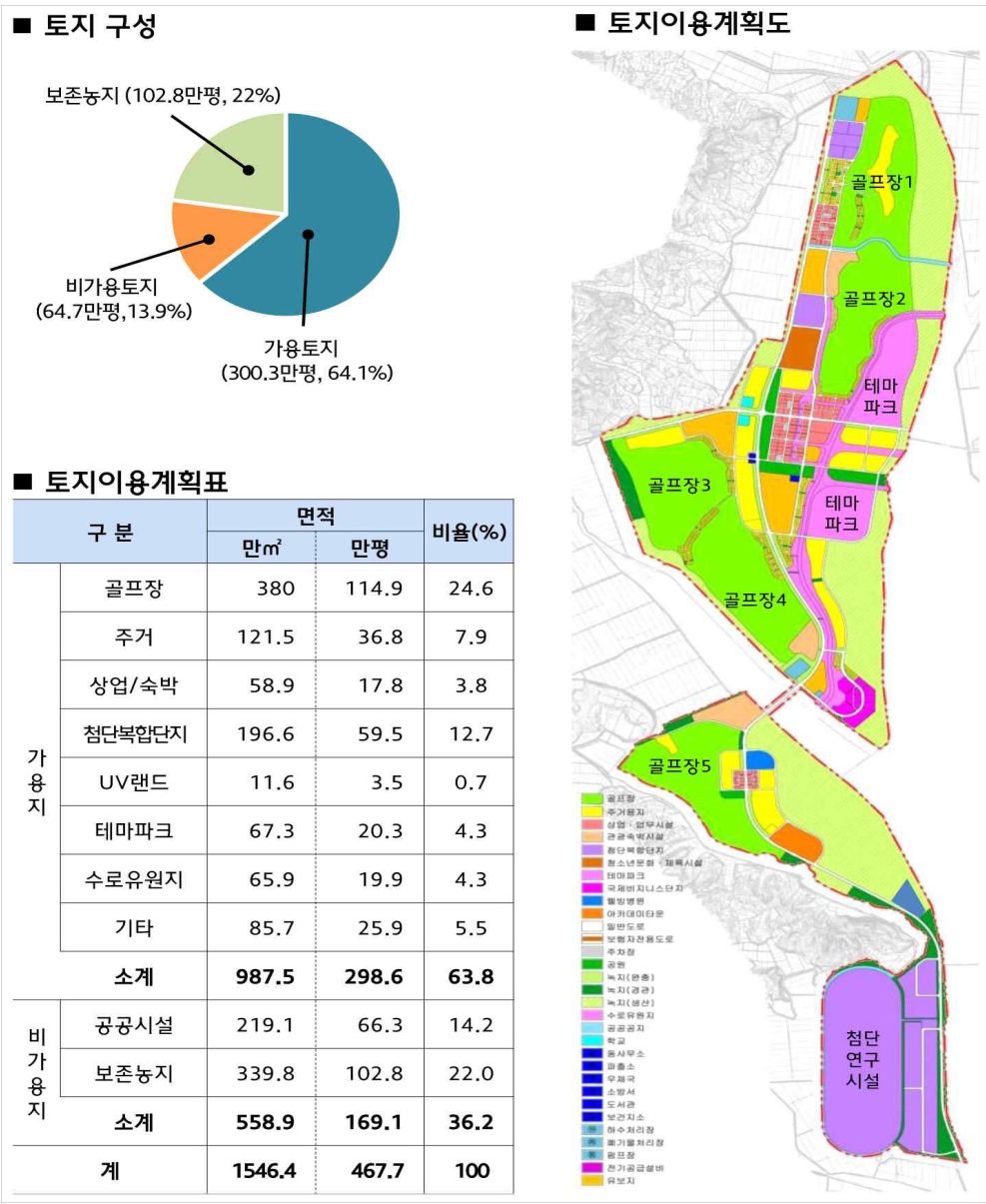
## (5) 기대효과

### 》 서해안 수소경제 선점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기여

- 친환경 수소 생산, 공급, 운송 등의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서해안 수소 거점지역으로 육성

56) 이종수, '수소생산의 새로운 대안 해양 바이오 ① 미생물 이용 수소생산? 세계 최초 대량 수소생산 눈앞', 월간수소경제, 2019.12.3.일자.

- 충청남도 수소경제 정책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기초 지자체 차원의 수소경제 선도 모델 제시
- 태안의 친환경·청정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국가의 그린뉴딜정책과의 부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비



〈그림 4-16〉 그린수소 생산-공급 개발단지 위치

자료 : 태안군(2021),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 7 블루카본(Blue Carbon) 시장 선점

### (1)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넓은 갯벌을 갖고 있어 블루카본 활용성에 대한 높은 기대감<sup>57)</sup>

-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서·남해 갯벌을 보유하고 있어 블루카본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sup>58)</sup>
-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13개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총 면적 1,422 km<sup>2</sup>) 되었으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갯벌은 우리나라 전체 갯벌면적 2,482km<sup>2</sup>의 약 57%에 해당

≫ 블루카본이란 염생식물, 갈피 등 연안에서 서식하는 식물과 갯벌 등의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sup>59)</sup>

- 푸른 숲의 수많은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처럼, 해양생태계도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
- 유엔(UN)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해양생태계의 온실가스 흡수 속도가 육지 생태계보다 최대 50배나 빠르다고 보고

≫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sup>60)</sup>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을 목표로 3+1 전략 추진
  -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의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 기반 강화 1대 전략
-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에서는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면서 5대 기본방향 설정
  -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촉진, 산림·갯벌·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강화
- 세계 각국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 이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UN)에 제출했으며, 2021년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을 앞두고 2020년까지 이를 갱신하기로 합의

57) 해양수산부, 온실가스를 줄이는 파란 신호 블루카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11.5.일자.

58) 해양수산부, 온실가스를 줄이는 파란 신호 블루카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11.5.일자.

59) 해양수산부, 온실가스를 줄이는 파란 신호 블루카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11.5.일자.(이하 동일)

6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50 탄소중립,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81562>」

- 우리나라는 2015년 6월에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 목표로 제출

》 태안은 전국에서 8번째, 충남에서 가장 넓은 갯벌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블루카본 활성화 최적지

- 태안의 갯벌면적은 128.8㎢로서 충남도 갯벌면적은 338.9㎢의 38.0% 차지
- 태안 황도 등의 갯벌복원 경험과 부남호 해수유통 등 해양환경 복원 추진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관계부처 합동(2020),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2050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2020),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 충청남도(2018), 연안역 블루카본 잠재적 가치 평가 학술연구 용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한국해양환경공단, 2018년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사업(국내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 및 평가관리기술 개발)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중기(2026~2030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량 : 1식
- 사업지 : 태안군 전역 (테스트베드 구축 시 이원면)
- 추진주체 :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태안군, 민간
- 사업비 : 40억 원(국비 50%, 도비 12.5%, 군비 12.5%, 민자 25%)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40	-	-	-	-	-	40	
국비	20						20	
지방비	도비	5					5	
	군비	5					5	
민자	10						10	

주 : 테스트베드 구축 시 예산

## (4) 주요 사업내용

》 태안군 갯벌생태 및 염생식물, 미세조류, 잘피 등에 대한 조사 실시<sup>61)</sup>

61) 김종화 외(2018), 서천군 해양산업 발전 기본계획, 충남연구원.



- 태안 갯벌의 분포 및 생태현황, 염생식물, 미세조류, 맹그로브, 갈피 등의 서식밀도와 생체량 등을 조사하여 탄소 흡수원으로서 가능 여부 검토
- 염생식물, 미세조류, 갈피 등에 대한 인공식재를 식재를 추진하여 실제 탄소·흡수 및 배출에 대한 연구 및 조사

#### >> 블루카본 활용성에 대한 郡차원의 적극적인 관심 필요

- 현재까지 블루카본관련 정책은 연구 단계이므로, 향후 정부의 정책동향을 면밀히 파악 후, 블루카본 테스트베드 구축 시 적극적인 대응
-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갯벌, 습지를 활용한 자연·생태의 탄소흡수 기능강화를 적시하였기에 블루카본은 연구단계를 넘어 활용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 블루카본 연구의 최적지로서 태안군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대정부 대응 및 충남도와 지속적인 협력 필요
- 탄소배출권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여 郡재정에 기여 예상
  -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 평균 거래가격이 톤당 2만2127원으로 연간 거래금액이 8680억 원 달함<sup>62)</sup>
  - 2001년 전국 최초 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무안(42km<sup>2</sup>)과 2018년 전국 최대 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신안(1100.86km<sup>2</sup>)의 갯벌면적을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으로 산정해보면 각각 연간 7억4000만 원과 194억4000만 원 예상<sup>63)</sup>

#### >> 블루카본 활성화 논리를 활용하여 갯벌복원정책 적극 추진

- 블루카본 활성화를 위해서는 폐염전, 폐양식장 등 훼손·방치된 갯벌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태안군내 갯벌복원 사업 추진 시 대정부 설득의 논리로 적극 활용<sup>64)</sup>

### (5) 기대효과

#### >>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블루카본 시장 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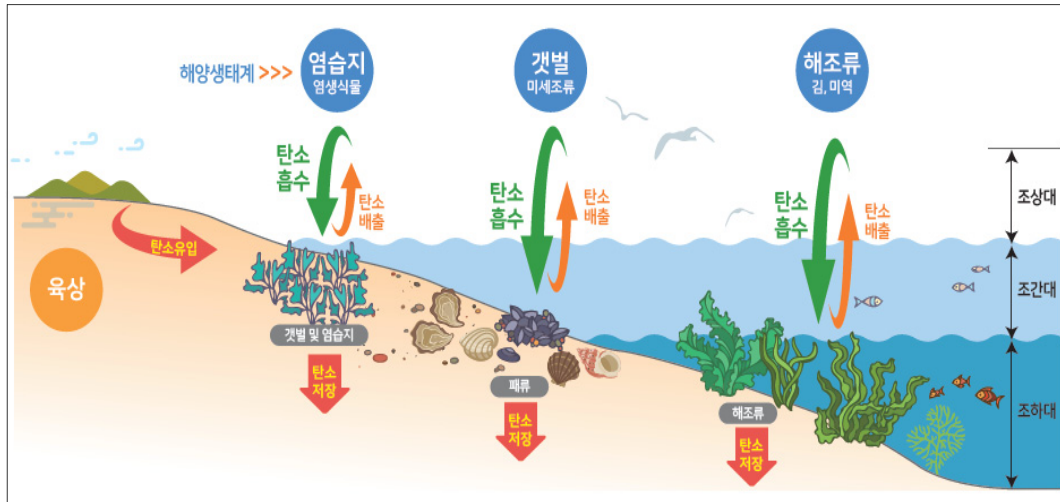
- 태안군이 풍부하게 보유한 갯벌을 활용하여 블루카본 시장을 사전에 선점함으로써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적극적인 보조
- 블루카본이 탄소배출권거래제에 진입 시 태안군 재정에 기여

62) 이정은, 지구온난화 시대 블루카본으로 주목 받는 갯벌, 환경일보, 2019.10.16.일자.

63) 이정은, 지구온난화 시대 블루카본으로 주목 받는 갯벌, 환경일보, 2019.10.16.일자.

64) 해양수산부, 온실가스를 줄이는 파란 신호 블루카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11.5.일자.





〈그림 4-17〉 블루카본의 탄소 흡수·배출 체계

자료 : 충남연구원(2018), '블루카본(Blue Carbon)을 아시나요!?', CNI 인포그래픽 45호.

## 8 KIOST 서해연구소 유치·설립

### (1) 배경 및 필요성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본원이 2017년 부산 이전으로 서해안 연구공백 발생

- KIOST는 남해연구소(거제), 동해연구소(울진), 제주연구소,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통영해양생물자원기지 등 운영 중

≫ 태안은 서해안에 위치한 해양과학기술 연구의 최적지 평가

- 가로림만, 천수만, 근소만 등 반폐쇄성 해역이 위치해 있고, 국토의 최서단 격렬비열도의 관할구역
  - 가로림만 해양정원, 부남호 역간척 등 해양과학기술 관련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
  - 충남에서 가장 넓은 갯벌면적 138.4㎢를 보유하고 있고, 충남 수산업의 약 55%(어촌계 기준)를 점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수산자원 서식
  - 국토 최서단 격렬비열도가 위치해 있고, 118개의 도서(유인도 8개) 위치해 있어 서해 도서연구의 적지로 평가
  - 해양쓰레기, 불법어업, 해양생태계 변화 등 해양수산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가능한 현장으로서 주목
- 국내유일의 해양국립공원인 태안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습지보호구역·람사르습지(두웅습지), 해양생태계보호구역(신두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신두사구), 해양생물보호구역(가로림만), 수산자원보전지역(천수만) 등으로 지정

》 태안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에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 공공기관이 부족하여 해양수산정책 추진에 곤란

- 혁신도시 추진에 따라 부산 동삼지구(영도)에 KIOST, KMI,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해양수산관련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 충청남도내에는 서천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위치해 있고,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폴리텍대학(해양수산캠퍼스) 유치 확정
- 태안에 해양수산 관련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환황해권 해양거점으로 서의 위상 확보 및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 현재 태안군에서는 국립수산물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가 운영 중인 태안양식연구센터 유일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충청남도(201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유치 타당성 개발 및 설립방안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중기(2026~2030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량 : 1식
- 사업지 : 태안 남면 또는 근흥면 신진도리
- 추진주체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사업비: 300억 원 (국비 100%)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300						300	
국비	300						300	
지방비	도비							
	시군비							
민자								



태안군 1후보지(남면 달산포)



태안군 1후보지(근흥면 신진도리)

〈그림 4-18〉 KIOST 태안군 후보지

자료 : 충청남도(201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유치 타당성 개발 및 설립방안.

#### (4) 주요 사업내용

##### ≫ KIOST 서해연구소 유치를 위하여 서해 연안 지자체간 경쟁심화

- 현재 인천, 경기(안산), 충남, 전북, 전남 등 모든 서해연안 지자체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유치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
  - KIOST가 이전한 부산에서는 KIOST의 역할 및 기능, 조직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우려하여 서해연구소 설립 반대
- 현재까지 중앙정부 및 KIOST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지자체간 과열경쟁으로 지역간 갈등발생의 소지가 있어 갈등관리과제로 분류하여 관리 중
  - 아직까지 KIOST 서해연구소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동향은 감지되지 않음

≫ 태안이 서해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정주여건 개선 선행

- 충남도내에서는 태안, 서천, 당진, 보령 등 주요 연안시·군이 각자의 유리한 입지조건을 내세우며 유치 희망의사 타진
  - 서천은 장항, 당진은 신평, 대천은 대천 또는 무창포 일대의 부지 제공예정
- 태안군이 KIOST 서해연구소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자원이 풍부해야 하고, 관계기관과의 인접성·연계가능성이 강조되어 해양수산과학기술을 연구하기에 최적지로 평가받아야 함
  - 또한 KIOST 서해연구소 입지와 관련된 인프라를 제공하여야 하고, 근무 직원들의 정주여건(교육, 문화, 의료 등) 개선 필요

≫ 해양수산 공공기관이 지방이전 관련 대비 필요

- 그 외 혁신도시 시·군2 사업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중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한국어촌어항공단(FIPA), 한국해양환경공단(KOEM) 등에 대한 이전가능성도 높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동향 관찰·주시 필요
  - 충남도 차원에서도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내포유치를 적극 추진가능
  - 부산 동삼혁신도시에 해양수산 공공기관이 집중되어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해양수산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될 가능성 높음

(5) 기대효과

≫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서해안 해양수산 거점 도약

- KIOST 서해연구소 유치에 따른 서해안 해양과학기술의 전초기지 역할 수행
- 해양수산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전후방산업 육성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 참고사례

### 〈KIOST 제주연구소〉

- 2015년 한반도 기후변화와 해양환경변화 조사를 위한 전조기지로서 제주연구소 설립
  - 현재 미세조류를 활용한 해양바이오 연구 추진하면서 미세조류 생산 실증시설을 갖추고, 숙주세포와 줄기세포, 배양배지 개발 등의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미세조류 연구와 함께 인지기능개선 소재의 임상실험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산업화 등을 추진하여 연구부터 산업화까지 지원
  - 위성관측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유해 외래종 유입과 고수온 및 저염수 현상 등 제주의 해양환경과 생태계 관측, 제주 해양생물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해양 천연물의 항암활성 탐색, 제주해역 정착 미기록 열대종 분포현황 및 활용 가능성, 제주 소라의 산업적 활용기술 개발 연구
- KIOST 제주연구소에서는 해양과학교육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실시
  - 지역사회 공헌을 위하여 ‘찾아가는 해양과학교실’과 ‘방과후 창의교실’을 운영하여 해양과학에 대한 저변확대 및 미래세대 육성 추진 중
  - 지역사회 협력을 위하여 매년 해안환경정화활동 실시



자료 : 송현수, 'KIOST 제주연구소, 개소5주년 맞아', 부산일보, 2020.06.19일자.



## 2. 건강한 치유도시

### 1) 현황 및 여건

≫ 웰빙(well-being)과 힐링(healing) 사회적 트렌드가 확산되고, 국민들의 건강과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 웰니스 산업은 세계 경제생산의 약 5.3%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세계 경제성장 대비 2배(연평균 6.4%)로 성장 중<sup>65)</sup>
- 세계 웰니스 산업의 시장규모는 2015년 3조7천억 달러에서 2017년 4조2천억 달러로 급성장<sup>66)</sup>

≫ 태안군은 완도(전남), 울진(경북), 고성(경남)과 함께 해양치유산업 협력 지자체로 선정

- 해양치유산업은 바다의 치유자원을 과학적으로 이용하여 관광복지, 의료복지, 일자리 창출, 국민건강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순기능 보유
- 태안군은 소금, 피트, 염지하수, 함초, 해수, 해풍 등 다양한 해양 치유자원과 해양관광·레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해양치유산업의 중심으로 성장 가능

≫ 국내 해양레저관광 이용객 수가 2017년 580만 명을 기록하였고, 서핑, 수중레저, 카누·카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 이 중, 서핑활동 인구는 2014년 약 4만 명에서 2017년에 20만 명으로 약 5배 증가
- 최근 만리포를 찾는 서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해안 서핑명소로 주목을 받으면서 국제대회 유치 추진

≫ 여름철에 집중된 해수욕장 관광객을 위한 차별적인 매력의 다계절 해수욕장 조성 필요

- 태안군 관내에는 총 28개 지정해수욕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해수욕과 주변 환경에 의존하고 있어 차별성 부족
- 타 지역(양양, 해운대 등)의 유명 해수욕장의 경우, 해수욕 위주가 아닌 주변환경을 활용한 테마를 부여하여 다계절 관광객 유입 촉진

≫ 국민들은 반려동물에서 마음의 안식처를 찾고 있으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91만 가구

- 최근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 2조3,300억 원에 달하였고, 2027년 6조원 까지 확대 전망

65) 한국웰니스산업협회 HP, 「<http://www.k-wellness.or.kr>」, 원자료 : Global Wellness Institute

66) 한국웰니스산업협회 HP, 「<http://www.k-wellness.or.kr>」, 원자료 : Global Wellness Institute

- 반려동물 중 관상어는 개(83.9%), 고양이(32.8%), 어류/열대어(2.2%)로 3위에 랭크

#### >> 어항의 해양관광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어항의 다기능 관심 증가

-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특화 개발시키기 위하여 ‘아름다운 어항 조성계획’, 해수부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에서는 명품 어촌어항 조성을 위해 ‘아름다운 어항 조성 계획’ 수립
- 현재 동해 수산항, 남해 미조항, 서해 격포항, 제주 김녕항이 아름다운 어항으로 조성

#### >> 태안 북부권에 가로림만 해양정원, 이원~대산 교량 건설 등으로 개발 수요가 발생하면서 관광객 유입 기대

- 이원~대산 교량이 연결될 경우 태안 이원과 서산 대산은 동일 생활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개발수요 증가 예상
- 특히, 가로림만 국가정원사업과 함께 해양관광 및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2) 추진방향

#### >> 추진방향 :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태안을 찾는 관광객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 이미지 조성
- 천혜의 자연환경 및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 보장
- 해수욕, 서핑·요트, 해양스포츠 등 최신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역동적인 태안의 이미지 창출
- 태안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경관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주민들의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
- 태안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 추진목표 : 우리나라 서해안을 대표하는 해양치유관광의 거점 조성

-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 발굴
- 지역의 장점을 살린 해양레저·스포츠 육성을 통한 서해안 해양레포츠 중심지 도약
- 테마있는 해수욕장 조성을 통한 다계절 관광객이 찾는 해양관광산업 육성
- 국민의 몸과 마음까지 함께 치유하는 태안의 치유 이미지 강화
- 국제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한 세계적인 해양레포츠 거점 조성

- 지역 수산업의 중심인 어항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육성
- 지역 내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새로운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 3) 세부사업

#### ①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 조성

##### (1) 배경 및 필요성

≫ 휴식과 건강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웰니스 (Wellness) 산업 수요 급증<sup>67)</sup>

- 웰빙(well-being)과 힐링(healing) 사회적 트렌드가 확산되고, 국민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케어, 항노화, 뷰티케어 등을 포괄하는 라이프케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예상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치유가 주목을 받았으나, 유럽과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해양자원(seawater, mud, sand, coastal climate)을 이용한 탈라소테라피(thalassotherapy)가 휴양 및 치유기능을 갖추고 성공적으로 발전<sup>68)</sup>
- 웰니스 산업은 세계 경제생산의 약 5.3%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세계 경제성장 대비 2배(연평균 6.4%)로 성장 중<sup>69)</sup>
  - 세계 웰니스산업 시장규모는 2015년 3조7천억 달러에서 2017년 4조2천억 달러로 급성장<sup>70)</sup>
-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웰니스산업에 높은 관심 예상

≫ 태안은 2017년 해양치유 협력지자체로 선정되어 해양치유산업의 선도지역으로 부상

- 태안군은 완도(전남), 울진(경북), 고성(경남)과 함께 2017년 해양수산부의 '해양치유 가능 자원 발굴 및 산업화를 위한 실용화 연구' 협력 지자체로 선정
- 태안군은 소금, 피트, 염지하수, 함초, 해수, 해풍 등 다양한 해양 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양관광·레저 콘텐츠와의 결합을 통한 해양치유관광 선도 가능
- 해양치유산업은 바다의 물리적 자원(바닷물, 모래, 진흙, 소금, 공기, 풍광 등)을 과학적으로 이용하고, 국민들에게 치유를 제공하고 관광복지, 의료복지를 실현하는 해양치유산업으로

67) 해양수산부(2020),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

68) 김충곤 외(2016), 국가지원 해양헬스케어 단지 조성사업 유치를 위한 해양헬스케어산업 육성연구, 충청남도 연구용역.

69) 해양수산부(2020),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 이하 동일.

70) 한국웰니스산업협회 HP, 「<http://www.k-wellness.or.kr>」, 원자료 : Global Wellness Institute



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민 건강증진 등 다양한 순기능 발휘<sup>71)</sup>



〈그림 4-19〉 태안군 해양치유단지 기본구상

자료 : 태안군(2020), 신해양 광개토 사업 보고서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20),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
- 충청남도(2016), 국가지원 해양헬스케어 단지 조성사업 유치를 위한 해양헬스케어산업 육성연구
- 태안군(2020), 신해양 광개토 사업

##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기·중기(2020~2030년)
- 사업분류 : 계속
- 사업량 : 3식
  -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성, 해양치유 특화여촌 개발, 해양치유 바이오단지 조성
- 사업지 : 남면 달산포 및 기업도시, 군내 어촌마을
- 추진주체 :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태안군, 민간기업
- 사업비 : 910억 원(국비 30%, 도비 12%, 군비 17%, 민자 41%)
  -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성 : 340억 원(국비 170억 원, 도비 51억 원, 군비 119억 원)

71) 충청남도(2020), 제2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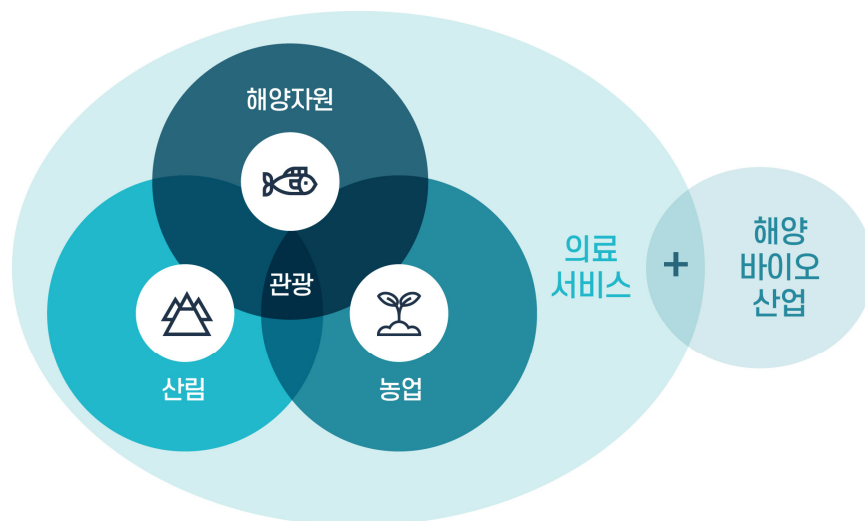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910	46	178	116	120	150	100	200
국비	270	30	80	60	50	50		
지방비	도비	111	9	26	16	30	30	
	시군비	159	7	72	40	20	20	
민자	370				20	50	100	200

주 : 2020년 사업비(국비 10억, 도비 3억, 군비 7억)는 2021년 예산에 포함

### (3) 주요 사업내용

#### >> 태안형 해양치유산업 방향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융·복합 산업

- 태안이 갖고 있는 해양자원, 산림자원, 농업자원과 그것의 교집합인 관광을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의 테두리 내에서 해양치유산업 형성
-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과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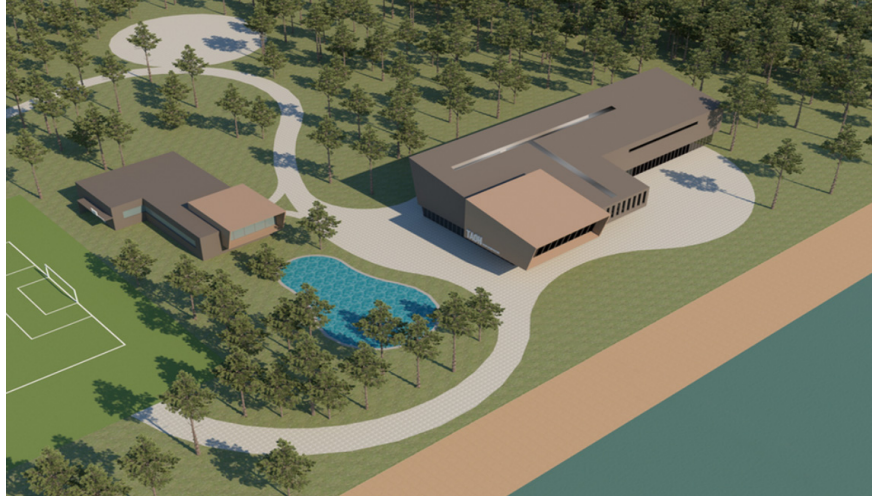


〈그림 4-20〉 태안군 해양치유산업 방향

#### >> 태안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성 및 성공적 운영

- 태안군의 주요 해양치유자원을 바탕으로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성
  - 해사(관절), 해송림(고혈압), 피트(통증완화), 소금팩(통증완화) 등

- 특히 해양치유자원 피트는 태안군 전역에 약 20여만 톤 추정
- 해양치유센터의 주요시설은 본동과 부속동으로 구분하여 조성
  - 센터 본동(지상 2층) : 1층(월풀, 탈라소 풀, 아쿠아 짐 등), 2층(소금치유실, 피트 테라피, 기타 휴식공간 등)
  - 센터 부속동(지상2층) : 1층(객실, 실험실 등), 2층(객실, 휴게실, 옥상정원 등)



〈그림 4-21〉 태안군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감도

자료:네이버 블로그, 충청남도, 「<https://blog.naver.com/sinmunman/221770370824>」

- 향후 태안군 해양치유 시범센터의 주요 역할을 지역 및 수도권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각종 테라피 및 재활 프로그램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
  - 해양치유센터에 의료인이 상주하면서 테라피스트 역할 수행



〈그림 4-22〉 태안군 해양치유센터의 역할

## >> 해양치유 특화어촌 개발 : 어촌체험휴양마을 또는 어촌뉴딜 대상지<sup>72)</sup>

- 태안군내 어촌체험휴양마을 또는 어촌뉴딜 대상지 중 우수한 해양환경과 치유자원을 보유한 곳을 해양치유 특화형으로 조성<sup>73)</sup>
  - 해양레저, 어촌체험 인프라·콘텐츠 해양치유가 결합된 다계절 프로그램 개발지원
  -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해양치유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 갯벌체험센터·어촌체험관 등 기존 공간에서 지역 주민이 음식·팩·마사지·체조 등 간단한 치유 프로그램 제공, 낚시·요트·스노클링 등 지역 해양레저 프로그램과 펜션·민박 등 숙박업소 연계
- 지역주민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바우처 제도 도입<sup>74)</sup>
  - 해양치유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발하여 지역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72) 해양수산부(2020),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추진

73) 해양수산부(2020),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이하 동일)

74) 해양수산부(2020),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이하 동일)

- 지역주민 바우처 등을 제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郡내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마을단위 해양치유시설 이용 촉진 (※ 어촌체험휴양마을 또는 어촌뉴딜 대상지 마을 활용)

#### >> 해양치유 바이오단지 조성 : 태안 기업도시 내 바이오기업 유치

- 해양치유센터에서 소모되는 해양바이오제품을 관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의약품, 기능성 식품, 기능성 화장품 등 헬스케어 분야의 바이오기업을 태안 기업도시내 산업연구단지에 적극적으로 유치
  - 현재 서천군에서 추진 중인 해양바이오산업과는 차별적으로 보다 해양치유에 근접한 용품 및 제품을 생산하는 거점으로 추진
  -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에서 해양바이오 기업에게 ‘해양치유 친화기업’ 인증 및 제품 연구·개발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활용 기대

#### >> 향후 대규모 리조트 단지 조성을 통한 서해안 해양치유 거점지역으로 성장

- 해양치유산업의 기반이 마련되고 저변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민간 투자를 통한 대규모 리조트 단지가 건설되어 서해안권 해양치유 핵심거점지역으로 성장 기대
- 해양치유산업은 국가정책에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으로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대응 마련

### (5) 기대효과

#### >> 해양치유 시범센터를 기반으로 지역밀착형 해양치유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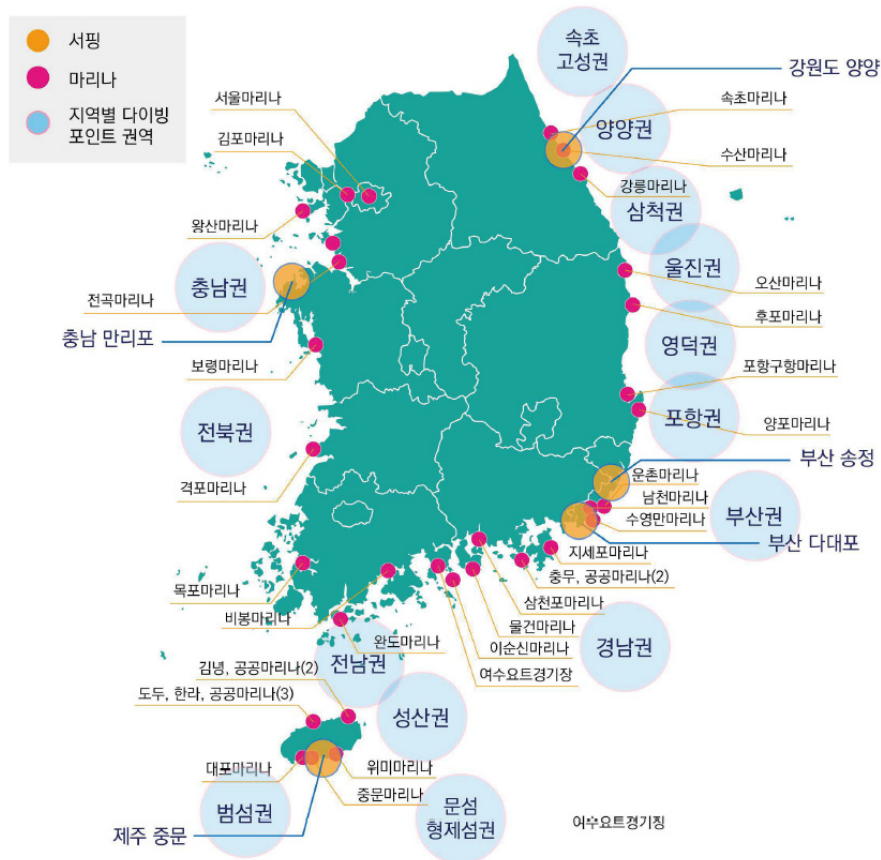
- 해양치유 시범센터를 중심으로 마을단위 치유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 바이오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의 미래 먹거리 발굴
- 해양치유산업의 전·후방 산업 간 연계를 고려한 클러스터 형성

## ② 만리포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 (1) 배경 및 필요성

#### ≫ 국내 해양레저 활동이 증가하면서 만리포가 서핑의 최적지로 부각

- 국내 해양레저·관광 이용객 수가 2017년 580만 명을 기록하였고, 서핑, 수중레저, 카누·카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sup>75)</sup>
- 이 중, 서핑활동 인구는 2014년 약 4만 명에서 2017년에 20만 명으로 약 5배 증가<sup>76)</sup>
  - 국내 서핑인구는 2017년 약 20만 명으로 총 인구대비 0.4% 수준이고, 미국은 2019년 약 287만 명으로 총 인구대비 7% 수준



〈그림 4-23〉 전국 해양레저 현황

원자료 : 해양수산부, 전국마리나현황 현황, 마리나산업관련 통계, 2019 해양레저 체험교실 운영현황.

자 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7),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해양레저가 뜬다', KMI 인포그래픽.

75) 관계부처 합동(2019),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76)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9),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해양레저가 뜬다', KMI 인포그래픽 (원자료 : SFIA, Surfing Participation Report 2019 및 대한서핑협회).



- 최근 만리포를 찾는 서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해안 서핑명소로 주목을 받으면서 국제대회 유치 추진
  - 서핑 방문객 수 : '17년 1만2천 명 → '18년 2만3천 명 → '19년 5만 명
  - 2021년 월드서프리그(WSL)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 유치 추진

#### >> 만리포에 다양한 해양레포츠 기반 구축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 만리포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전한 해양레포츠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해양레저 수요에 대응하고 서핑, 해수욕, 먹거리 등과의 연계를 통한 경제적 효과 창출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충청남도(2019), 충청남도 2단계 1기 지역균형발전사업(시군자율유형)
- 태안군,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해양안전 복합센터 구축)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기 (2021~2024년)
- 사업분류 : 계속
- 사업량 : 1식
- 사업지 : 소원면 의항리 1145번지 (만리포 해수욕장)
- 추진주체 : 태안군
- 사업비: 167억 원 (도비 47%, 군비 53%)
  - 해양레포츠 체험시설 및 안전교육센터 건립 사업비 : 157억 원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167	8	68.3	72.3	5.2	3.2	10	
국비								
지방비	도비	78.5	4	34.15	36.15	2.6	1.6	
	군비	88.5	4	34.15	36.15	2.6	1.6	10
민자								

#### (4) 주요 사업내용

##### ≫ 만리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해양레포츠 체험시설 및 안전교육센터 건립 추진

- 그동안 서해안 서핑의 성지인 만리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 만리포 해수욕장에 샤워시설, 거치대 및 LED 전광판 설치('18년)
  - 카버보드 볼파크 사업대상지(의항 1157번지) 선정 및 설계완료('19년)
  - 만리포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완료('19년)
  - 충남 제2단계 1기 지역균형발전사업(시군자율유형) 공모신청('19년)
- 해양레포츠 및 안전교육센터를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
  - 지하1층 : 기계실, 다이빙풀장, 안전교육장
  - 지상1층 : 다이빙풀장, 안전교육장(4,308㎡)
  - 지상2층 : 사무실, 회의실(1,482㎡)
  - 옥 상 : 루프탑(roof top)카페, 전망대 등

##### ≫ 해양레포츠 체험시설 및 안전교육센터 건립 후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필요

-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관광객에게 유쾌한 경험을 줄 수 있는 친절교육, 비즈니스 마인드 강화
- 만리포 노래자랑 개최, 만리포 해설사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 지역주민들을 해양체험 및 해양안전 도우미로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기회 부여
- 주변 상권과의 연계를 통한 '착한가게 운동' 추진 및 독려
  - 착한가게 운동 :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하여 바가지를 근절하고 적절한 가격에 우수한 품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상권의 자발적 운동
- 주변 어촌계와 연계한 어촌체험 상품개발을 통한 지역상생 발전 도모
- 주민, 상인, 어업인 간의 상호이해 및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회 및 갈등 조정·해결을 위한 상시기구 운영 등 추진

#### (5) 기대효과

##### ≫ 만리포에서 다양한 해양레포츠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만리포에 서핑, 해수욕 외에 해양레포츠 체험과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여 상시적인 관광객 유입기반 구축
- 만리포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및 주민간의 상생협력 기반 조성





〈그림 4-24〉 해양레포츠 체험시설 및 안전교육센터 조감도

자료 : 태안군(2020), 신해양 광개토 사업 보고서

### ③ 다계절 테마 해수욕장 조성

#### (1) 배경 및 필요성

##### ≫ 태안군 방문객들은 연안에 위치한 특성상 대부분 여름 해수욕장에 집중

- 태안 관광객들이 여름 해수욕장에 편중되어 있어, 여름 성수기에는 교통정체, 숙박부족, 바가지요금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지역 이미지 악화
- 방문객이 여름 성수기에 집중되는 이유는 여름휴가철을 즐기는 관광객이 많을 것도 요인이나, 여름 외 계절에 관광객을 태안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지역의 매력 부족
- 이러한 특정기간의 관광객 집중은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및 생활환경을 저해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의 갈등·마찰로 인한 사회문제로 비화 가능
- 또한 여름 성수기 외부업체 난립으로 바가지요금이 성행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 가능

##### ≫ 차별적인 해수욕장 조성으로 지역 매력 강화 및 경쟁력 확보

- 태안군 관내에는 총 28개 지정해수욕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해수욕과 주변 환경에 의존하고 있어 차별성 부족
  - 기존 만리포해수욕장, 안면도해수욕장 등을 거점 해수욕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대표 테마가 분명하게 부여되지 못하여 거점 해수욕장으로 명칭하기에 한계
  - 그 외 지역의 해수욕장도 특별한 테마가 부여되지 못하여 차별성 부족

- 타 지역의 유명 해수욕장의 경우, 기존 해수욕 위주가 아닌 주변환경을 활용한 테마를 부여하여 다계절 관광객 유입 촉진
  - 양양 서피비치(서핑), 해운대 해수욕장(불꽃축제), 강릉 안목해변(커피) 등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15),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태안군, 테마형 명품해수욕장(전망대) 조성사업
- 태안군,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고품격 해수욕장 운영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기(2021~2025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량 : 1식
- 사업지 : 군내 28개 지정해수욕장
- 추진주체 : 태안군
- 사업비: 50억 원 (군비 100%)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50	10	10	10	10	10		
국비								
지방비	도비							
	군비	50	10	10	10	10		
민자								

## (4) 주요 사업내용

### >> 태안군 관내 다계절 이용이 가능한 테마 해수욕장 조성

- 각 해수욕장별 차별화된 매력성 확보를 통한 다계절 방문객 유입을 위한 실천가능한 주제를 부여하여 조성
  - 여름에 단순한 해수욕 목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 외, 지역의 차별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독특한 경험이 제공될 수 있는 주제(테마) 개발
  - 테마 해수욕장의 개발 후 다양한 조형물, 부대시설 등 설치 지원

- 각 해수욕장별 지역주민 주도로 테마 해수욕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모방식을 통한 대상을 선정하고, 郡 차원의 지정 필수
  - 마을기업, 마을협동조합 등의 사업체 구성을 통해 마을 공동사업으로 진행
  - 체계적인 주민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주민 스스로 해당 해수욕장에 부합하는 테마를 발굴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郡 차원에서 해양관광, 해수욕장 전문가를 파견하여 마을주민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 대학생 및 청년 창업인 등이 참여하는 해수욕장 관광 비즈니스모델로 발굴된 사업을 해당 해수욕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 테마 해수욕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성과 미달성 시 지정취소 및 지원중지를 통한 책임있는 운영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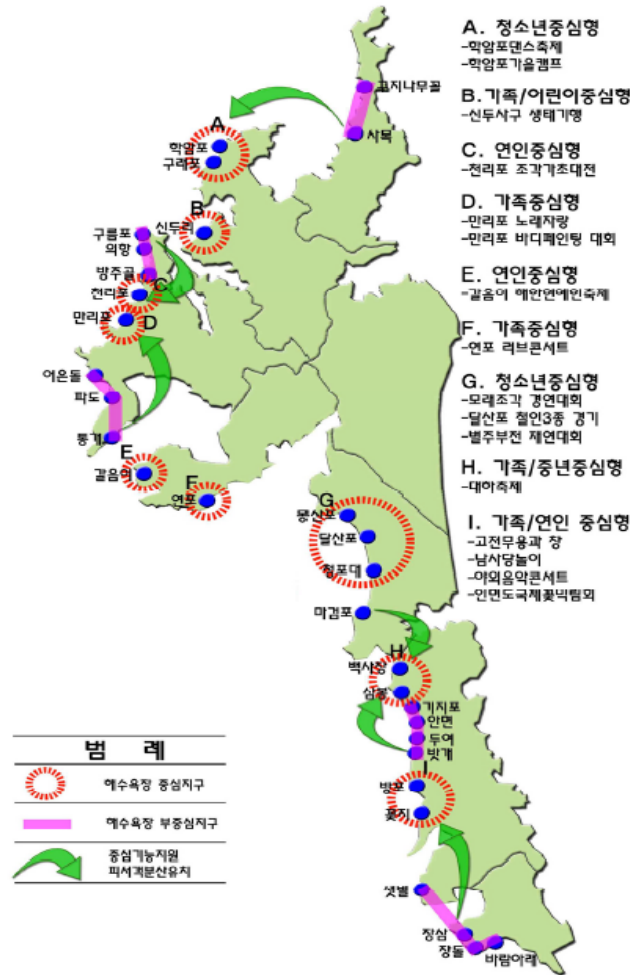
#### >> 대학생과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수욕장 관광 비즈니스모델 개발

- 지역 대학생과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태안관내 해수욕장을 소재로 관광 비즈니스모델 개발 공모 추진
  - 태안만의 특색을 반영한 해수욕장 관광 비즈니스모델 개발로 차별성·특성화 강화
  - 관광 비즈니스모델은 지역 특산물 등을 활용한 유형상품부터 트래킹 코스, 모빌리티 대여 등 무형상품까지 모두 포괄
  - 단순한 공모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지역 대학생, 청년 창업자, 마을주민 등)가 합심하여 관광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했을 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
- 해수욕장 관광 비즈니스모델 개발에는 주제를 제한하지 말고, 지원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형태 공모
  -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 지역 비즈니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발전 모색
  - 관광 비즈니스모델을 통하여 상품의 시제품 개발, 생산 및 유통, 홍보·프로모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상품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지역 공공자산으로 운영

### (5) 기대효과

#### >> 다계절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테마 해수욕장 조성으로 지역의 활력 증진

- 해수욕장을 통한 창출된 소득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다계절 관광객 유입 모색
-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대학생, 청년 등 젊은 층에게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틀 마련



〈그림 4-25〉 태안군 주요 해수욕장별 차별화 특화 구상도 예시

자료 : 김경태 외(2016), 충남 해수욕장 실태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전략연구, 충남연구원.

#### 4 마음치유 펫 해수욕지구 조성

##### (1)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 및 치열한 경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 고통 호소

- 2019년 자살사망자 수는 13,799명이고, 자살률은 26.9명으로 하루 평균 37.8명의 자살사망자 발생<sup>77)</sup>
- 특히 충청남도 자살률은 2019년 35.2명으로 가장 높고, 자살 사망자 수도 743명으로 상위권 기록

77)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를 의미함

- 또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울증 또는 불안감을 경험한 국민의 40.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sup>78)</sup>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국 만20~65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상태’ 조사

#### >> 국민들은 반려동물에서 마음의 안식처를 찾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856만 마리 양육<sup>79)</sup>

-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91만 가구이며, 개는 495만 가구(598만 마리), 고양이는 192만 가구(258만 마리)로 파악
  - 양육가구 추이 : (‘15년) 21.8%(457만 가구) → (‘17년) 28.1%(593만 가구) → (‘19년) 26.4%(591만 가구)
  - 전국 마릿수 추이 : (‘15년) 개 513만 마리, 고양이 190만 마리 → (‘17년) 개 662만 마리, 고양이 233만 마리 → (‘19년) 개 598만 마리, 고양이 258만 마리
- 반려동물 중 관상어는 개(83.9%), 고양이(32.8%), 어류/열대어(2.2%)로 3위에 랭크

#### >>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생산·소비 활동의 펫코노미 시대와 함께 펫 비즈니스 급부상<sup>80)</sup>

- 최근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 2조3,300억 원에 달하였고, 2027년 6조 원까지 확대 전망
- 펫 비즈니스의 주요 트렌드로는 펫푸드, 펫테크, 펫금융, 펫플레이, 펫리빙 등 다양함
  - 펫푸드 : 사람의 식제품처럼 세분화되고, 사람이 먹는 제품과 같은 원료로 제조된 사료가 등장하며 펫의 휴머니제이션(Humanization,인간화) 심화
  - 펫테크 :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 ICT기술이 펫 제품에 접목되는 펫테크로 진화
  - 펫금융 : 금융권에서 펫 비즈니스와 금융상품을 결합하여 펫적금, 펫신탁, 펫카드, 펫보험 등 펫금융 부상
  - 펫플레이 : 펫푸드, 의료서비스 등 반려동물이 필요로 하는 항목외에 반려동물의 레저생활, 여행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다수 서비스 등장
  - 펫리빙 : 펫과 함께하는 삶, 펫의 태생부터 죽음까지 함께 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주거형태, 장묘방식 등이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 제품 및 서비스 등장

#### >> 국민들이 반려동물과 마음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태안에 위치시켜 해양치유산업을 몸에서 마음으로 확장

- 태안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 육성이 몸 건강을 중심으로 한다면, 마음 건강을 확보를 위한 반려동물과 해양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조성

78)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도자료, ‘국민 40.7% 코로나 19로 우울·불안 경험했다’, 2020.10.14.일자.

79)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전국 591만 가구에서 반려동물 856만 마리 키운다’, 2020.04.29.일자.

80) 김수경 외(2018), 펫코노미 시대, 펫 비즈니스 트렌드, Issue Monitor 93, 삼성 KPMG 경제연구원.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2020),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
- 해양수산부, 제2차 관상어산업육성 종합계획(2021~2025)
- 태안군, 친근한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23~2027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량 : 3식
  - 펫 해수욕장 지정, 주민협의체 구성, 관상어 유통·전시관 건립
- 사업지 : 고남면 일원
- 추진주체 : 태안군
- 사업비 : 450억 원 (국비 27%, 도비 5%, 군비 24%, 민자 44%)
  - 펫 해수욕장 지정 및 주민협의체 구성 : 50억 원 (군비 100%)
  - 관상어 유통·전시관 건립 : 400억 원 (국비 30%, 도비 5%, 군비 15%, 민자 50%)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450			210	210	10	20	
국비	120			60	60			
지방비	도비	20		10	10			
	군비	110		40	40	10	20	
민자	200			100	100			

## (4) 주요 사업내용

- » 펫플레이 관점에서 반려동물과 놀이가 가능한 해수욕장을 지정하고, 놀이터, 샤워장 등 부대시설 조성
- 국도 77호선 관광객 유입에 대비하여 반려동물과 해수욕을 향유할 수 있는 해수욕장을 고남면 또는 안면읍 일원에 지정

- 후보지로는 바람아래해수욕장, 장돌해수욕장, 장삼포해수욕장, 운여해변 등
- 해수욕장 내에는 반려인 의견을 수렴하여 동물 특성에 부합하는 시설 설치
  - 반려동물 놀이터, 샤워장, 먹이장, 화장실 등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반려동물과 함께 가능한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 서핑, 바나나보트, 카누·카약 등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해양 액티비티 프로그램 개발
- 단, 반려동물 유기에 대비하여 입장객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신상 기본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획득 불가피
  - 유기된 반려동물 처분을 위한 조례제정 등 법률적 검토 필요

#### >> 해수욕장 주변지역에 반려동물과 숙식 가능한 숙박시설 등록 및 홍보, 관상어 유통·전시관 설치 등 다양한 편의 제공

- 반려동물 지정 해수욕장 주변의 펜션업자와 연계하여 반려동물과 숙식 가능한 숙박시설(펜션 등)을 지정·등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홍보강화
- 해수욕장 주변에 관상어 유통·전시관을 설립하여 관상어에 대한 관광객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관상어 분양사업을 통한 주민소득 증진
  - 해양수산부 '제2차 관상어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따른 관상어 관련 통합 생산·유통단지(아쿠아펫랜드)와 연계 필요

#### >> 인근 마을주민 및 주변상권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 및 프로모션 추진

- 반려동물 해수욕장 지정을 위해서는 인근 마을주민들의 양해와 협조가 절실하므로 주민들에게 사업의 취지를 적극 설명하고, 이를 통한 수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 체계 구축
  - 해수욕장 청소, 반려동물 분변,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사전양해 필수
- 주변상권과의 협조를 통하여 반려인들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숙박시설 정비, 주변식당 및 잡화점과의 연계 필수
- 향후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해변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를 통한 소득사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가능

### (5) 기대효과

#### >> 국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태안의 가치 및 이미지 강화

- 반려인구가 약 1,500만 명으로 예상되는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태안만의 특색있는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입 촉진



## 참고사례

### 〈반려동물 해수욕장 이용은 사회적 이슈〉

- 현재 반려동물과 출입·입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대부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운영
  - 지역주민 및 비반려인과의 마찰, 안전사고, 쓰레기(분변 등), 소음문제 등으로 대부분 해수욕장이 출입(또는 입수) 금지
  - 반려인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해수욕장 출입(입수)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 제기
- 강원도 양양 광진해수욕장 (일명 : 멍비치)
  - 해수욕장 출입은 물론이고 입수까지 가능 (단, 5종 맹견은 출입 금지)
  - 현재 '멍비치' 라는 카페까지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 중
  - 그 외 강원도 양양 지경리 해수욕장도 애완견의 출입 및 입수 가능



자료 : 네이버 블로그, 어울림 동물병원(국내 애견전용 해수욕장 멍비치), 「<https://m.blog.naver.com>」

## ⑤ 국제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유치

### (1) 배경 및 필요성

#### ≫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와 활동인구 증가

-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인구는 2013년 대비 31.4%, 서핑활동 인구는 2014년 대비 5배가 증가<sup>81)</sup>
- 해양레저관광 인구는 17년 580만 명에 육박<sup>82)</sup>
  - 서핑(10만 명), 수중레저(108만 명), 카누·카약(1.5만 명) 등

81)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7),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해양레저가 뜬다', KMI 인포그래픽.

82) 관계부처 합동(2019),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그림 4-26〉 해양레저 기구

원자료 : 한국마리나협회, 마리나포털, 「<http://marinaportal.kr>」.

자 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7),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해양레저가 뜬다', KMI 인포그래픽.

## 》 서핑 활동에 최적화된 '만리포니아' (만리포 해수욕장)

-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고 서해안의 특성상 낮은 수심 등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초·중급자들의 서핑 활동에 최적화
- 만리포해수욕장의 서핑 활동 방문객은 지속적으로 증가
  - ('17년) 1만 2,000명 → ('19년) 5만 명
- 지역 경제 활성화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스포츠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한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유치에 대한 관심과 노력 필요
- 스포츠대회의 유치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수 있어 다양한 지자체에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
- 지역에 특성에 부합한 스포츠관광(이벤트)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의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유사한 공모사업 존재
- 태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유치를 위한 노력 필요
- 또한, 대회유치는 태안군민들의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 증대와 참여문화 확산에 기여
  - 태안군민의 충남도내 생활체육 참여율 12위(40.0%) 수준<sup>83)</sup>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관계부처 합동(2019),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 사업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기 (2021~2025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량 : 1식
- 사업지 : 태안 만리포해수욕장 일대
- 추진주체 : 태안군청
- 사업비 : 100억 원 (국비 60%, 도비 18%, 군비 22%)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100		10	10	10	10	60	
국비	60		5	5	5	5	40	
지방비	도비	18	2	2	2	2	10	
	군비	22	3	3	3	3	10	
민자								

## (4) 주요 사업내용

### >> 국제대회 유치에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필요

-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에 있어 승인과 참가자들 확보를 위한 가장 선행되어야할 사항임
- 국제경기단체 - 중앙경기단체 - 지방경기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MOU 협약 추진 필요
  - 태안군청 - 지방경기단체 - 중앙경기단체 - 국제경기단체 간 협약 필요
  - 대한서핑협회(KSA)는 7개의 지부로 구성, 충청남도 서핑협회를 통해 대한 서핑협회(KSA)와 MOU협약 추진

83)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생활체육조사.

≫ 중앙정부의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공모사업 선정

- 지역의 스포츠자원과 관광산업을 융·복합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임
  - 사업 내용 : 3년간 지원 [국비(5):지방비(5)] / 사업비 : 10억\*3년=30억
- 국·내외 해양레저스포츠대회 유치 추진
- 태안군 해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스포츠 종목 및 유치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
  -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 기본 방향, 프로그램, 홍보, 관리계획, 조달 방안 등

≫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 지원공모사업 선정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국제경기대회 중 특색 있는 지자체에 10억 미만의 국비(운영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
-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하여 개최되지 않았던 ‘월드서프리그(WSL)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쉽 페스티벌’ 등 재유치 추진 필요

(5) 기대효과

≫ 서해안 해양레저·스포츠의 메카로 도약하여 해양레저·스포츠 산업 선점

- 서핑의 고장 ‘태안’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해양레저·스포츠 산업의 집적 촉진
- 태안군민들의 해양 스포츠 참여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예상

## 참고사례

### 〈 WCT 의성국제컬링컵 〉

#### ■ 2019 WCT 의성국제컬링컵

- 경북 의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인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산업에 2018년에 선정되었으나 1년차 평가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지원금 중단
- 하지만 지속적으로 컬링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자체내에서 의성컬링스포츠관광사업 세부실행계획 개발 연구용역을 실행
- WCT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노력을 통해 의성에서 2019 WCT 의성국제컬링컵 대회를 유치

#### ■ 2020 WCT 의성국제컬링컵

- 2019년 의성국제컬링컵 대회라는 이력을 통해 2020년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 지원공모 사업 선정(1억 8천만원),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중단



자료 : 이희대, 매일신문(2020.06.19.)

## ⑥ 태안형 아름다운 어항(美港) 조성

### (1)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낚시, 수중레저, 카누, 요트 등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해양관광의 중심으로서 어촌·어항 중요성 부상

- 어항을 중심으로 어선은 감소하는 반면 레저관광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어촌·어항 관광 활성화 지원 노력

≫ 국가 차원에서 어항의 제 기능뿐 아니라 아름다운 어항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 해수부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서는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특화 개발시키기 위한 아름다운 어항 조성계획, 해수부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에서는 명품 어촌·어항 조성을 위한 아름다운 어항 조성계획 수립
- 현재 동해 수산항, 남해 미조항, 서해 격포항, 제주 김녕항이 아름다운 어항으로 조성

≫ 태안은 급변하는 해양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연안명소로서 아름다운 어항 사업을 통한 해양관광도시 지향

- 태안에는 국가어항 2개, 지방어항 14개, 어촌정주어항 12개, 소규모 어항(포구) 14개
  - 국가어항 : 모항, 안흥
  - 지방어항 : 가의도, 구매, 마검포, 만대, 만리포, 몽산포, 방포, 백사장, 여은돌, 영목, 채석포, 천리포, 통개, 학암포
  - 어촌정주어항 : 가경주, 개목, 당암, 대야도, 연포, 의점포, 정산포, 청산, 탄개포, 황골, 황도, 황포
  - 소규모어항 : 곰섬, 내리, 당산, 독개, 뒷장별, 만수동, 미개, 장곰, 장돌포, 정당, 죽고지, 진상, 내파수도, 외도
- 태안군 어항이 보유한 독특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스토리텔링을 개발함으로써 아름다운 어항 및 지역 브랜드 조성 필요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19), 제3차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2020~2024)
- 충청남도(2018), 충청남도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중기(2026~2030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량 : 2식
- 사업지 : 국가어항 1식, 지방어항 1식
- 추진주체 : 태안군
- 사업비: 130억 원 (국비 77%, 군비 23%)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130						130	
국비	100						100	
지방비	도비							
	군비	30					30	
민자								

#### (4) 주요 사업내용

##### >> 아름다운 어항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태안군 국가어항 1식과 지방어항 1식을 선정하여 경관적·생태적·감성적·문화적 가치를 더하여 관광객들이 심미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어항을 조성
- 어항을 어업기능을 기반으로 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합형 다기능항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중심공간으로 육성
  - 2014년 해수부는 해역별로 어항 4개소를 선정하여 150억 원 규모의 예산 투입

##### >> 아름다운 어항 조성을 위한 컨셉과 스토리텔링 개발

- 태안 어항만의 독특한 컨셉 및 스토리텔링 개발
- 기존의 아름다운 어항 조성은 H/W 사업만으로 추진되었기에 H/W 사업과 함께 S/W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 브랜드 조성
-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아름다운 어항 사업과 함께 어항 축제, 어촌 문화센터, 해양레저, 주말 시장 등의 연계한 사업추진을 위한 어항의 컨셉과 대표 스토리텔링 개발
  - 향긋하고 분위기 있는 커피 거리 강릉항, 에메랄드 빛 바다 한국의 나폴리 장호항, 아름다운 경관과 해양 레저체험을 즐길 수 있는 지세포항, 이국적인 풍광 속 요트 투어 김녕항 등의 컨셉 필요



## 》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어항 경관개선 사업 추진

- 태안군 경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어항 경관계획 수립 및 추진
- 깨끗한 경관, 콘셉트 있는 경관, 지역의 역사성, 장소성, 특이성 등을 함께 고려한 경관개선 추진
- 경관개선을 통해 장소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품 장소 조성

### (5) 기대효과

## 》 태안군 어항의 경쟁력 강화와 전국 대표 해양관광지로의 자리매김

- 아름다운 어항 조성으로 태안군 어항의 브랜드 확보 및 관광객 증가, 주민의 소득향상 기대
- 아름다운 어항을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어촌 공동체의식 회복 기대

### 참고사례

#### 〈제주 아름다운 어항 김녕항〉

- 2014년 해양수산부의 아름다운 어항 사업 선정된 김녕항은 국비 약 100억이 투입되어 아름다운 해녀 조형물, 올레길 19코스와 연계한 해안 산책길 조성, 음악회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김녕정원, 낚시, 해녀 체험장 조성, 수산문화복합센터(수상레저복합시설, 전시실, 커피숍, 샤워실 등), 방파제 벽화 사업 추진
- 김녕항 마을은 가장 많은 해녀가 활동하고 있고 물질하는 해녀 옆에서 유명한 남방큰돌고래를 볼 수 있는 어촌이기에 이를 컨셉으로 설정하여 사업 추진



자료 : 김호천, '제주 김녕항 아름다운 어항만든다 2020년 완공', 연합뉴스, 2018.4.8.일자.

## 7 안흥외항 신해양관광지 조성

### (1) 배경 및 필요성

≫ 안흥외항은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및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도약

- 안흥외항은 관광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중국사신들이 이동했을 것이라 추정되는 마도 사신순례길(가의도~마도), 수증문화재 3만여점을 보유한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안흥나래교, 안흥성이 인근에 입지<sup>84)</sup>
- 신진도 케이블카 계획(안흥내항~부억도), 안흥성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계획, 항구 경관 개선사업, 유람선, 골프장 등을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sup>85)</sup>

≫ 태안군 경관기본계획에 안흥외항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선정

- 태안군 경관기본계획의 안흥외항 관련 계획으로 해양체험거리 조성, 상업지역 옥외광고물 정비, 진입가로 경관개선 사업, 주차장 녹화사업 등이 제시되었고, 관광지형(해수욕장, 항포구)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선정

≫ 태안군에서는 안흥외항 경관개선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포구 경관개선 연구 추진

- 태안군 민선7기 공약사항 안흥외항 경관개선 및 항구 특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경관개선과 관광객 유입을 위한 '다시 찾고 싶은 항포구 활성화 연구' 추진
- 안흥외항 경관개선을 위해 4억3,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스콘 포장, U형 수로공사 등 추진

≫ 태안에서 가장 큰 항구이자 국가어항인 안흥외항을 본래의 어항 기능과 더불어 지역의 신(新)해양관광지 조성 필요

- 안흥외항에 대한 경관개선 및 활성화 방안 수립으로 서해안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국가어항으로 랜드마크킹 필요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태안군(2021), 태안군 안흥외항 경관개선 및 활성화 계획
- 태안군(2015), 태안군 경관기본계획
- 해양수산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명품어촌테마마을)

84) 충청남도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inmunman/221421926137>」

85) 충청남도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inmunman/221421926137>」



-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사업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기 (2024~2025년), 중기 (2026~2030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량 : 1식
- 사업지 : 태안군 안흥외항
- 추진주체 : 태안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사업비 : 100억 원 (국비 70%, 군비 30%)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100				20	30	50	
국비	70				14	21	35	
지방비	도비							
	군비	30			6	9	15	
민자								

### (4) 주요 사업내용

#### >> 자연친화적 경관 및 안흥외항 친수공간 조성

- 조망축 및 통경축 조성, 안흥외항 친수공간 조성, 오픈스페이스 및 포켓광장 조성으로 친화적 경관 조성
  - 주요 도로에서 해안경관으로의 조망성 향상을 위한 다수의 통경축 확보
  - 해안 연접부에 조망, 휴식 등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
  - 최소한의 시설물 설치 및 통합된 디자인 적용 등을 통한 해안경관 정체성 확보
  - 상징가로와 연계한 개방적인 오픈스페이스 조성으로 통하여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 마도 친수공간 조성
  - 안흥외항에 인접한 마도에 개방적인 이용형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공간이용의 활성화 도모
  - 마도에는 현재 물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기에 가족단위로 특히 아이들을 위한 수변에서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

#### >> 지역 랜드마크 및 상징적 경관 조성

- 역사·문화와 연계한 야간경관 조성으로 특색있는 경관 연출

- 랜드마크 건물군 및 방파제 랜드마크 조성
  - 차별화된 건축물 경관 형성을 통해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이미지 완화
  - 관광적 요소가 될 수 있는 상징적인 방파제 경관 형성
- 상업시설 등의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상징적인 상업가로 조성
  - 해안가를 따라 입지한 상업 건축물의 외관과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조화로운 상징적인 상업가로 조성

#### >> 안흥외항 진입 접근성 개선을 위한 경관 조성

- 대상지 정체성이 반영된 상징조형물 설치를 통해 인지성 강화
- 사신들의 순례길 등을 모티브로 열주형 진입형 경관 및 지역의 역사·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진입 경관 조성
- 통합적 디자인을 적용한 안내시설물 설치
- 포장 및 가로시설물 정비 등을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 클린어항 이미지 구축 및 마을경관 정비

- 항구 주변 경관 저해요소의 정비를 통한 공간의 쾌적성 향상
- 안흥외항 어촌마을의 경관 정비
  - 벽화 조성, 지붕색채 통일 등을 통한 연접 해안 및 구릉지 경관과 조화로운 어촌마을 경관 정비

### (5) 기대효과




#### >> 안흥외항을 아름다운 관광명소이자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조성

- 어항을 친화성이 높은 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입 기대
- 역사적 스토리를 고려한 경관개선 추진을 통해 방문객의 흥미도 증진 및 서해안의 대표 관광명소 기대

## 참고사례

###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항〉

- 마량항 중앙에 바다로 친수광장 조성, 휴식공간이 조성된 바다 위 전망대 설치, 스토리텔링 조형물 설치(물결모양 벤치, 조형물, 배 모양 화분 등), 바다 활용한 어구보관시설(앞바다 위 부표를 활용한 어구 보관) 등의 경관 개선사업 추진

친수광장		
전망대 및 조형물		
어구보관		

자료 : 윤정미 외(2021), 태안 안흥외항 경관개선 및 활성화 계획, 태안군 시군협력과제, 충남연구원

## ⑧ 북부권 해양레포츠 육성

### (1) 배경 및 필요성

≫ 태안 북부권은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 사업에서 소외되었으나 최근 해양정원, 교량건설 등 개발수요 발생

- 태안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고, 도로교통망 상 타 지역으로 이동시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관광객 유입이 어려운 여건
- 그러나 최근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추진되고 있고, 태안 이원 ~ 서산 대산 간 교량 건설에 대한 움직임 가속으로 개발수요 발생

## >> 국도 38호선(이원~대산) 교량건설에 따라 북부권 개발수요 증가예상

- 태안군 이원면 내리(만대항)에서 서산 대산읍 독곶리(황금산)까지 5.61km를 교량으로 연결함으로써 현재 이원~대산 간 73km의 거리(약 1시간 30분)를 단축<sup>86)</sup>
- 교량이 연결될 경우 태안 이원과 서산 대산은 동일 생활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개발수요 증가 예상
- 특히, 가로림만 국가정원사업과 함께 해양관광 및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17), 제1차 해수욕장 기본계획(2016~2025)
- 태안군(2020), 신해양 광개토 사업 보고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자원 개발사업
- 태안군, 학암포 중심 복합관광개발사업 추진
- 태안군, 신해양 레저 모빌리티 복합단지 조성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기(2021~2025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량 : 1식
- 사업지 : 원북면(학암포·구례포 일원), 이원면(만대항 일원)
- 추진주체 : 태안군
- 사업비: 220억 원 (국비 45%, 도비 23%, 군비 23%, 민자 9%)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220	4	73	65	53	25		
국비	100	2	38	30	20	10		
지방비	도비	50	1	15	15	14	5	
	군비	50	1	15	15	14	5	
민자	20		5	5	5	5		

86) 강제일, '양승조, 박병석 의장 예방 현안 지원요청', 중도일보, 2021.1.27.일자.

#### (4) 주요 사업내용

##### ≫ 원북면 학ampo·구례포 해수욕장을 스마트 해수욕장으로 개발

- 천혜의 깨끗하고 푸른 바닷물을 간직하고 있는 학ampo·구례포 해수욕장을 해양레저와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해수욕장으로 개발
  - 서해에서는 보기 드물게 깊고 푸른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다양한 해양레저(바나나보트, 윈드서핑, 수상스키 등)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 해양레포츠 활동에서 초보자인 관광객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북부권 해양레포츠 명소로 육성
- 동해안의 서피비치와 같은 이국적인 느낌의 해수욕장 이미지 발굴
  - 학ampo의 깊고 푸른 물을 배경으로 여름철에 동남아시아, 하와이와 비슷한 느낌의 이미지를 발굴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입 촉진



〈그림 4-27〉 양양 서피비치

- 전자결제시스템 및 웨어러블 장비 등을 통한 스마트 해수욕장 지향<sup>87)</sup>
  - 위치기반 위험정보, 긴급구조, 미아찾기 등 안전관련 기술이 내장된 웨어러블 장비 개발하여 보급
  - 해수욕장 전자결제시스템, 웨어러블 개인장비를 통하여 해수욕장 주변상권과 연계하는 용품대여, 레저활동, 부대시설 등 이용에서 현금없이 결제가 가능한 스마트 해수욕장 도입

87) 김종화 외(2018), 서천군 해양산업 발전 기본계획, 충남연구원, 이하 동일



〈그림 4-28〉 해운대 스마트비치 시설

자료 : 네이버 블로그(부산아쿠아리움), 「<https://m.blog.naver.com/blueloveba/60195172146>」.

## 》》 이원면 만대항을 공유 해양레저 모빌리티 단지로 조성

- 만대항이 2020년 어촌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소형 선박계류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해양레저 모빌리티 운영 기반 마련
- 또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에 따라 관광객 증가에 따른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제공 필요
- 해양레저 모빌리티는 일반 관광객이 손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로서 관광객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수익창출 가능
- 해양레저 모빌리티를 개인소유가 아닌 관광객에게 일정시간 대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제트스키, 소형 레저선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되,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을 최우선하여 운영
  - 제트스키 강습회, 레저선박 조정교실 등 주기적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향후 해양레저 모빌리티 사업의 발전속도를 고려하여 경정비 및 부대시설 설치여부 고려

## (5) 기대효과

### 》》 태안 북부권 해양레포츠 거점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가로림만 해양정원, 이원~대산 교량건설 등 개발수요에 대응하여 태안 북부권을 새로운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여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9 태안 해양역사체험길 조성

### (1) 배경 및 필요성

#### >> 코로나19 이후 국내 중심으로의 관광트렌드 변화 조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의 조사 결과, 코로나19 종식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여행'(국내·외) 선정
- 또한, '코로나19 종식 시 연령 별 국내여행 의향' 또한 76~84%로 확인되어 국내 여행에 대한 흥미가 높은 것으로 확인<sup>88)</sup>
  - 코로나19 시기에 확인된 국내여행 의향은 18~22%로 나타나, 코로나19 종식 후 급증할 문화 수요에 대한 대응 요구
- 특히 해외에서 코로나 위기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관광은 아직 안정화되기 어려운 국제관광에 대한 보완재 기능 수행
  -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해외 입국 절차 등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기때문에 해외여행 및 출·입국 절차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지속적인 국내 관광시장 성장 전망
- 따라서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역사자원들을 결합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보다 편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재구성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관광분야 급부상

- 외부의 대규모 관광객에 의존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예측 불가능성에 따른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한계를 가지며 지역주민들의 참여 및 확보 미흡
- 따라서 농촌, 자연, 건강 등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가족단위 또는 소규모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체류형 프로그램 주목
  - 이와같은 맥락에서 역사·문화·자연자원 등을 연계해 하나의 경로에서 다양한 자원들을 향유할 수 있는 힐링 콘텐츠가 주목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걷기와 자전거 여행을 중심으로 기존의 코스정보 DB와 외부의 오픈 API 정보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의 '두루누비' 홈페이지 구축·운영
- 이에 따라, 각 지역의 경우 지역의 지역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결합하여 도로를 통해 지역의 자원을 소개하고, 향유할 수 있는 방안 수립 논의 중
  - 향후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운영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논의 필요

8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한국관광 회고와 향후 전망」, 2020,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위한 문화관광콘텐츠분야 회고와 전망



>> 태안 안흥지역의 경우, 육지·해양에 걸쳐 다양한 시기의 역사자원, 경관자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와 연관된 다양한 전시·관람 시설 존재

- (역사자원) 태안지역은 안흥량 일대의 사나운 물길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중요성에 의해 고려 시대 이후 지속적으로 해로 교통의 중심지로 활용
  - 고려시대에는 안흥정(安興亭)이 건축되어 송나라 사신들을 접대하는 공간으로 기능했으며, 지방의 세곡(稅穀)을 실은 조운선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핵심 경유지가 되어 조선시대에는 안흥진(安興鎭)이라는 수군진 설치
  - 이에 따라, 왜구의 주 침략지점이 되기도 하여, 안흥진, 소근진 등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관방시설이 구축되어 조운선의 보호 및 해안방위 담당
  - 특히, 현전하는 안흥진성은 조선시대 방어영성으로 수려한 경관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11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 (경관자원) 태안의 물길과는 별개로 리아스식 해안, 갯벌, 사구, 기암괴석 등 태안반도 및 안면도 전반에 걸쳐 뛰어난 자연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에, 1978년 태안해안국립공원이 지정되어 현재까지 관리
  - 특히 태안해안국립공원은 국내 유일의 해안형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만리포 해변을 비롯해 파도리해변, 연포해변, 도장골해변, 갈음이해변 등 다양한 해안 관광요소 보유
  -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 상, 제철에 맞춘 다양한 낚시 활동이 이루어지며, 현재까지도 낚시를 위한 관광객들이 빈번히 방문
- (박물관·기념관) 이와 더불어, 태안군에는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전시·관람시설을 구축하고 있어 지역의 역사 및 주요 사건들을 조명하는 공간으로 기능
  - 신진도, 마도 등 해안지역에서 발굴된 난파선 내 다수의 수중문화재들이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에 보존·전시
  - 또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는 유류피해 흔적 및 방제작업을 체험할 수 있는 관람시스템을 구축해 당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조명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서해안비전 추진계획
- 태안해안국립공원 해변길 조성계획
- 두루누리 통합정보서비스 구축사업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23~2027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량 : 3식
  - 자전거·걷기 도로 구축, 역사·문화 스토리텔링북 개발, 이벤트 및 프로모션 개발
- 사업지 : 소원면, 근흥면 일원
- 추진주체 : 태안군
- 사업비 : 30억 원 (균비 100%)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30			10	5	5	10	
국비								
지방비	도비	15		5	2.5	2.5	5	
	군비	15		5	2.5	2.5	5	
민자								

## (4) 주요 사업내용

### 》 자전거·걷기 도로 구축 및 관련 인프라 제공

- 태안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자원에 대응해, 태안군 및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지역의 마을길, 셋길, 유류유출사고로 만들어진 방제도로 등을 연결하여 '태안 해변길'을 구성하여 운영
  - 현재 학암포~파도리 구간(약 43km), 몽산포~안면도 영목항 구간(약 57km)에 걸쳐 총 7가지 코스의 해변길 운영
  - 다만, 두 구간의 중간에 위치한 근흥면 일대의 경우 별도의 해변길 미구축
- 각종 역사자원 및 문화자원이 산재해있는 소원면, 근흥면 일원을 중심으로 기존의 도로를 활용하여 자전거·걷기 도로 구축(약 50km)

- 경유지로는 소근진, 안흥진, 국립태안유물전시관, 신진도, 마도 등의 역사자원과 연포해변, 도장골해변, 갈음이해변 등 자연환경 등 고려 가능
- 주요 거점별 완주 인증스탬프 및 포토존 설치·운영



〈그림 4-29〉 태안해변길 및 태안해양역사체험길의 구성

- 경유지 주변에는 캠핑 및 숙박시설 등을 구축하여 체류형 관광 유도
  - 태안 해변길 등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걷기도로의 인프라 및 기존의 숙박·캠핑시설 등을 활용하며, 지정 음식점의 경우 자전거/걷기 길 이용자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안내 및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경로주변의 역사·문화자원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문화 아카데미 운영 및 안내자(해설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 태안의 역사를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북 및 안내판 개발

- 경로주변에 위치한 지역의 역사자원들을 설명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북을 구성하여, 해당 내용을 안내판 및 활용 프로그램에 적용
  - 스토리텔링 북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들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대표 캐릭터를 구축·운영
- 스토리텔링 북의 서술에 지역 주민들 또한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지역의 역사와 관련해 지역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들 또한 채록하여 문화자원 확보

≫ 인근 문화자원 및 지역주민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 및 프로모션 추진

- 자전거·걷기 도로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에 산재한 문화자원과의 연계 및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문화자원을 조명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및 프로모션 진행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해당 사업의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이 해설사, 안내자이자, 상시 모니터링의 주체로 참여 유도
  -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부족한 전문성 보완
- 자전거·걷기 도로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을 기획하여, 지역 및 문화자원에 대한 홍보효과 기대
  - 자전거길 및 종주길 대회, 길 사진 공모전 및 전시 등을 통해 이용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걷기 행사를 운영하여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주변상권과 협조를 통하여 이용객들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향후 ‘명사와 함께 달리는 태안해안’, ‘청소년 자전거 캠프’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를 통한 소득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문화재 활용사업 및 전시사업 등과 연계하여 역사자원과의 연계 강화

(5) 기대효과

≫ 태안지역의 역사·문화·자연 자원이 연계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의 구축을 통한 태안군의 이미지 강화

- 뛰어난 자연경관 및 문화유산을 볼 수 있는 자전거·걷기 도로의 운영을 통해 그동안 소외된 관광요소들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
- 태안만의 특색있는 해양·역사가 연계된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타 지역과의 차별성 확보

## >> 지역주민 주도의 해양역사체험길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해양역사체험길의 운영을 통해 경로 주변의 숙박·펜션업 및 요식업을 비롯한 각 분야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또한, 지역의 역사 및 문화유산, 자연유산해설사로 근무하게 되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노령인구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해양역사체험길의 운영은 비단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사업의 지속성도 기대

### 참고사례

#### 〈지속적인 둘레길, 종주길 기반의 역사자원 발굴〉

-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기존의 둘레길 및 종주길 주변에 위치한 역사자원 발굴활동 진행
  - 현재 조성되고 있는 둘레길의 경우 사전에 인접 문화자원들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진행
  - 이를 통해 단순한 자연경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맥락에 기반한 복합적 향유 시도
- 인천광역시 역사·문화둘레길 조성(일명 : 인천둘레길)
  - 역사·문화·자연이 살아있는 '인천 역사·문화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
  - 또한 둘레길 및 종주길 코스에 대한 '역사·문화 스토리텔링북'을 개발하여 배포
  - 관련 포토존을 설치하였으며, 둘레길 완주 시 메달 및 기념품 등 제공



자료 : 인천문화통신 3.0, 역사와 문화를 느끼며 걷는 인천둘레길, 「<http://news.ifac.or.kr>」

### 3. 친환경 생태도시

#### 1) 현황 및 여건

≫ 가로림만은 입구가 북서쪽을 향하는 지형적 독특함과 높은 생물다양성 보전한 천혜의 灣<sup>89)</sup>

- 가로림만은 해양생물 다양성이 높은 청정갯벌을 유지하고 있어 생태관광의 최적지로 평가되며 환경을 배려하는 최신 관광트렌드 부합
- 가로림만 해역은 보호대상해양생물, 멸종위기종인 점박이 물범, 붉은발말뚝게, 흰발농게, 거머리말 등 서식 확인

≫ 부남호는 간척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부남호 방조제에 의하여 천수만과 분리된 담수호<sup>90)</sup>

- 부남호 남북으로 기다란 형태이며 폭은 2~3km이고, 길이는 약 13km 정도이고, 면적은 1,021ha<sup>91)</sup>
- 부남호 담수호 수질등급은 6등급으로 농업용수로 부적합하여 개선 필요

≫ 가로림만 해양정원, 부남호 해수유통 등 주요 해양환경사업으로 태안·서산 지역의 큰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 예상

- 가로림만 해양정원으로 2030년까지 지역 일자리 2천여개, 생산유발효과 4,588억 원, 관광객 연 413만 명 예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sup>92)</sup>
- 부남호 해수유통으로 2030년까지 일자리 15,000개 창출, 생산유발효과 16조8천억 원, 관광객 연 8백만 명 유치 가능<sup>93)</sup>
- 국가정원과 해수유통 등의 사업을 기반으로 해양환경을 테마로 하는 MICE 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 가능

≫ 최근 국내·외 관광객들의 오버 투어리즘(over tourism)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관심 증가

-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이란 미래세대의 관광기회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동시에 현세대의 관광객 및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sup>94)</sup>

89) 충청남도(2017), 가로림만권역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연구. 인용하여 작성(이하 동일)

90) 권영주 외(2020), 천수만 부남호 하구복원 사업의 경제성 분석, 환경정책 28(1), 163-183.(이하 동일)

91) 원자료 : 환경부(2018), 지하수조사연보,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충청남도(2019), 천수만권역 종합발전전략 수립 연구, 충남연구원.

92) 충청남도 업무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93) 충청남도 업무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94) 최락인(2019),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한 관광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AJMAHS) 9(4), 2019, 349-358.

- 생태관광(ecological tourism)이란 자연자원의 보전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동시에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며,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여행<sup>95)</sup>
- 태안군이 간직한 천혜의 해양환경·생태 및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필요

≫ 2018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여 해양공간계획체제 도입·시행

- 선점식 해양 이용에서 “先계획 後개발”체제로 전환이 필요하여 2017년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
- 태안군 해양산업도시 계획수립에 따른 연안 해역의 주요 보전·이용 계획을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에 중점적으로 반영 추진 필요

≫ 2019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을 제정하고, 2020년 1월부터 본격 시행<sup>96)</sup>

- 태안의 갯벌면적은 128.8㎢로서 충남도 갯벌면적은 338.9㎢의 38.0% 차지
- 갯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갯벌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갯벌 관리·복원 기본계획)’ 수립 중

≫ FAO에서는 2002년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 (GIAHS :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도입·시행<sup>97)</sup>

- 우리나라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 (NIAHS: Nation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해양수산부에서는 별도로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KIFHS : Korea Important Fisheries Heritage System) 도입
- 최근 충청남도에서 ‘충남 해양문화 원형 및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국가어업유산 등재 추진 중이므로 태안군 고유한 어업유산 등재 추진 필요

≫ 태안군 연안 및 해수욕장에는 수도권, 중국 등의 해양쓰레기가 밀려 들어와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

- 태안군은 2018년 전국 해양쓰레기 관리역량 우수 시·군으로 평가될 정도로 해양쓰레기 처리에 적극적인 행정력 투입<sup>98)</sup>

95) 최락인(2019),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한 관광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AJMAHS) 9(4), 2019, 349-358. (원자료 : The Ecotourism Society(1991), 「<http://www.ecotourism.or.kr/>」)

96) 이재영, ‘갯벌법 시행과 앞으로의 과제’, 현대해양, 2020.3.9.일자. (이하 동일)

97) 선우윤정(2018), 중국·일본의 세계중요농업유산 현황과 시사점,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이하 동일)

98) 충청남도 HP(카드뉴스), ‘해양쓰레기 해결, 충남이 나섭니다’, 「<http://www.chungnam.go.kr>」

- 또한 2020년부터 ‘침적쓰레기 정화사업’을 군 직영사업으로 전환하여 바닷 속 5~40m 수심에 쌓여있는 해양쓰레기 수거<sup>99)</sup>
  - 태안군에서는 해양쓰레기를 2018년 5,040톤, 2019년 5,000톤, 2020년 5,745톤 수거
- 태안군에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을 통한 해양쓰레기 처리계획

## 2) 추진방향

### ≫ 추진방향 : 해양 생태·환경 자원의 가치 있는 활용과 미래세대에 전달

- 청정한 해양환경 및 생태자원을 보다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해양 및 연안 개발과 보존의 균형점을 찾아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태안만이 간직한 천혜의 해양환경을 국민 모두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시설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 적극적인 해양환경 및 연안생태 복원을 통하여 미래세대에게 가치있고 지속가능한 환경·생태 자원 전달

### ≫ 추진목표 : 해양환경 및 연안생태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 및 지속가능성 제고

- 해양환경·생태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가로림만 해양정원 추진
- 하구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수산생물의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남호 해수유통 추진
- 굵직한 해양환경 이슈를 바탕으로 해양환경 보전·복원 메카로 성장하기 위한 해양환경 컨벤션도시 조성
- 태안 천혜의 해양환경·생태자원에 대하여 배려하며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관광 추진
- 태안연안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역이 주도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 천혜 태안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체적인 갯벌보전·이용계획 수립
- 태안 어업유산의 세계(국가) 중요어업유산 등재로 수산郡으로서의 태안의 위상 확보
- 서해안 전반에 걸쳐 사회문제화되는 해양쓰레기 대응방안 마련

99) 이영채, '태안군, 50억 투입해 바닷속 쓰레기 1400톤 수거한다', 2020.6.4.일자.



### 3) 세부사업

#### 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 (1) 배경 및 필요성

≫ 서해안 해양생태계가 하굿둑 건설, 방조제 건설, 간척지 매립 등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해양수산 생물의 서식 저해<sup>100)</sup>

- 시화호, 화옹호, 아산삽교호, 간월호, 부남호, 금강하구, 새만금(만경강, 동진강), 영산강하구 등은 농지, 산업단지 조성 및 농업용수 개발을 목적으로 자연생태계 본연의 기능을 상실
- 자연형 만(灣)을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충청남도 가로림만과 전남 함평만이 유일하여 보전의 필요 제기

≫ 가로림만은 灣의 입구가 북서쪽을 향하는 지형적 독특함과 높은 생물다양성 보전<sup>101)</sup>

- 가로림만은 해양생물다양성이 높은 청정갯벌을 유지하고 있어 생태관광의 최적지로 평가되며 최신 관광수요에 부합
  - 대형 저서동물 종수(149종)가 우리나라 전체 상위 25%, 염생식물 분포면적은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준의 9배, 대형저서동물을 기준으로 해양생태계 건강도는 국내 상위 25%이내이며, 어류는 전어·조피볼락·쥐노래미 등을 포함하여 48종 서식
  - 가로림만 해역 91.237km<sup>2</sup>는 2016년 7월 29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
  - 가로림만 해역은 보호대상해양생물, 멸종위기종인 점박이 물범, 붉은발말뚝개, 흰발농개, 거머리말 등 서식 확인

≫ 그동안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두고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한 대안적 지역발전정책 필요

- 가로림만의 높은 해양환경·생태 가치를 부각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주민 소득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충청남도(2017), 가로림만 권역 지속가능 발전전략 수립 연구
- 충청남도(2019), 가로림만 해양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100) 충청남도(2017), 가로림만권역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연구. 인용하여 작성(이하 동일)

101) 충청남도(2017), 가로림만권역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연구. 인용하여 작성(이하 동일)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기(2021~2025년)
- 사업분류 : 계속
- 사업량 : 1식
- 사업지 : 태안군 및 서산시 가로림만 일원
- 추진주체 :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태안군, 서산시
- 사업비 : 2,448억 원 (국비 70%, 도비 10%, 태안 10%, 서산 10%)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2,448.33	68.81	81.41	676.04	1,079.33	542.74		
국비	1,555.27	48.17	57.06	429.97	652.69	367.38		
지방비	도비	350.06	6.88	8.15	123.33	51.56		
	군비	271.5	6.88	8.1	61.42	61.9		
서산시	271.5	6.88	8.1	61.42	133.2	61.9		

### (3) 주요 사업내용

≫ 충남도와 태안군, 서산시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위하여 노력<sup>102)</sup>

-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및 국가사업화를 위한 정책적 투자 지속
  - 가로림만권역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17.11.)
  - 가로림만 해양정원 기본계획 수립('19.4)
  -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 및 충남 경제투어 시 가로림만 생태환경 잠재력 언급
  - 국회 및 해수부, 기재부, 농림부 등 방문 가로림만 해양정원 지속적 건의
  - 가로림만 해양정원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19.12.)

≫ 비전 설정 :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지는 명품 생태공간<sup>103)</sup>

- 새로운 유형의 해양정원 조성으로 글로벌 해양생태관광의 거점 구축

102) 충청남도 업무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103) 충청남도(2019), 가로림만 해양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인용하여 작성(이하 동일)

- 가로림만의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복원·보전 및 활용방안 마련
- 지역 및 주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전전략 수립

≫ 기본방향 : 건강한 바다환경, 해양생태 관광거점, 지역상생<sup>104)</sup>

- 건강한 바다환경(복원) : 솔감저수지 하구 복원, 오지리 갯벌생태계복원,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 갯벌정원, 환경기초시설, 유인도서 경관개선사업, 국제갯벌보호센터, 점박이물범보호센터
- 해양생태관광거점(보존) : 해양정원센터, 가로림만 생태학교, 점박이물범 전시홍보관, 해양문화예술설, 예술창작공간, 해양힐링숲, 등대정원, 가로림만 전망대
- 지역상생(활용) : 가로림만 둘레길, 화합의 다리, 지역특산물센터, 식도락거리, 생태탐방맷길, 가로림만 투어버스, 브랜드 및 상품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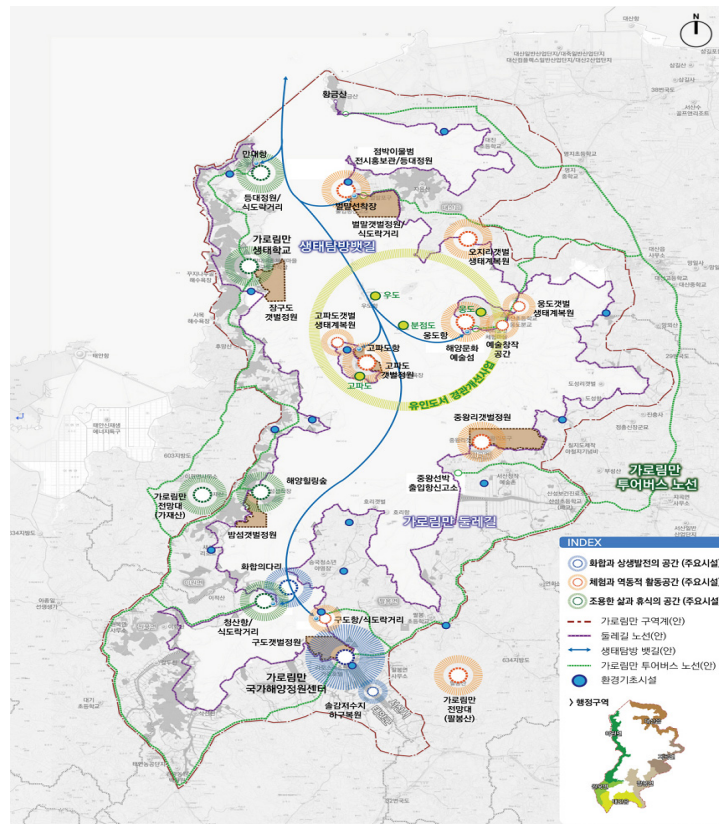
## (5) 기대효과

≫ 가로림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해양보호구역 등 규제구역에 대한 균형적·합리적 이용을 통한 국가 해양환경·생태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기여
- 조력발전소 건립 등으로 갈등을 겪은 가로림만 인근 주민들에게 새로운 대안적 사업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갈등 해소 기여
- 2030년까지 지역 일자리 2천여개, 생산유발효과 4,588억 원, 관광객 연 413만 명 예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sup>105)</sup>

104) 충청남도(2019), 가로림만 해양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인용하여 작성(이하 동일)

105) 충청남도 업무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4-30〉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구상도

자료 : 충청남도(2019), 가로림만 해양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 2 부남호 해수유통 추진

### (1) 배경 및 필요성

≫ 하구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으로서 수산생물의 산란장 및 서식장 기능 수행<sup>106)</sup>

- 하구역은 강과 바다로부터의 유입으로 인해 수층과 퇴적물 속에 영양염이 높아 생산성이 높은 환경으로 정의
- 1981년 영산강 하굿둑을 시작으로 이후 1987년 낙동강, 1990년에 금강에 하굿둑 건설
  - 하굿둑 건설에 따라 수질악화, 빈산소층에 의한 생태계 파괴, 용출현상으로 악취발생 및 산소부족에 의한 생태계 파괴, 표층수의 수질이 개선되어도 지속적인 수질악화 초래, 하구호에 녹조현상이 발생하여 생태계 파괴, 수역의 파괴로 생태계 순환의 고리 차단 등 문제점 발생

106) 충청남도(2019), 천수만 하구환경 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부남호 하구(갯벌)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참고하여 작성(이하 동일).

≫ 부남호는 천수만의 북측에 위치한 두 인공호소(부남호, 간월호) 가운데 하나로 간척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부남호 방조제에 의해 천수만과 분리<sup>107)</sup>

- 담수호 수질등급은 6등급으로 남북으로 기다란 형태이며 폭은 2~3km이고, 길이는 약 13 km 정도이고, 면적은 1,021ha<sup>108)</sup>
- 부남호 평균 수심은 약 8m 정도이나 남측 방조제 부근에 최대 25m 정도로 깊고 대부분의 지역은 수심 얇음<sup>109)</sup>

≫ 영양염의 부족으로 생물 다양도가 감소하고, 수층 생태계 및 저서생물에 큰 영향을 미침<sup>110)</sup>

- 연안으로부터 공급된 유기물들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부남호에 모두 퇴적되어 유기물 오염을 야기하며, 이로 인해 빈산소수괴(oxygen deficient water mass) 형성 등으로 인한 생물의 사체는 퇴적물에 축적되어 수질악화 및 악취 발생<sup>111)</sup>
- 현재 부남호 수질 내 염분 분포는 바다와 가장 가까이 인접해 있는 하류지역은 수심이 깊어질수록(0~15 m) 염분 농도(4.7~31.4psu)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중간 및 상류 지점에서는 깊이에 상관없이 모든 층에서 염분농도 2.0~4.0psu 수준<sup>112)113)</sup>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충청남도(2016), 충청남도 연안 및 하구생태복원방안 연구
- 충청남도(2019), 천수만권역 종합발전전략 수립 연구
- 충청남도(2019), 천수만 하구환경 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부남호 하구(갯벌)복원 기본계획 수립)

107) 권영주 외(2020), 천수만 부남호 하구복원 사업의 경제성 분석, 환경정책 28(1), 163-183.(이하 동일)

108) 원자료 : 환경부(2018), 지하수조사연보,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충청남도(2019), 천수만권역 종합발전전략 수립 연구, 충남연구원.

109) 원자료 : 환경부(2018), 지하수조사연보,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충청남도(2019), 천수만권역 종합발전전략 수립 연구, 충남연구원.

110) 권영주 외(2020), 천수만 부남호 하구복원 사업의 경제성 분석, 환경정책 28(1), 163-183.(이하 동일)

111) 원자료 : 환경부(2018), 「<http://water.nier.go.kr>»; 충청남도(2019), 천수만 하구환경 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부남호 하구(갯벌)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12) 원자료 : 환경부(2018), 「<http://water.nier.go.kr>»; 충청남도(2019), 천수만 하구환경 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부남호 하구(갯벌)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13) psu(practical salinity unit)는 실용염분단위로 해수 1 kg에 들어있는 총 염분의 g을 나타내는 값이며, 바닷물의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여 염분의 정도를 산출할 때 사용하는 단위(권영주 외, 2020)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22~2030년)
  - 해수유통(역간척) 추진 : 2022~2025년, 해양생태도시 조성 : 2026~2030년
- 사업분류 : 계속
- 사업량 : 1식
- 사업지 : 태안군 및 서산시 부남호 일원
- 추진주체 :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태안군, 서산시
- 사업비 : 2,972억 원 (국비 70%, 도비 10%, 태안군 10%, 서산시 10%)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2,972		60	50	500	500	1,862	
국비	2,080.4		42	35	350	350	1,303.4	
지방비	도비	297.2	6	5	50	50	186.2	
	군비	297.2	6	5	50	50	186.2	
서산시	297.2		6	5	50	50	186.2	

### (3) 주요 사업내용

#### 》충남도와 태안군, 서산시는 부남호 해수유통을 위한 논리 및 타당성 개발<sup>114)</sup>

- 지역주민과의 협의,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토대로 합리적 논리 개발
  - 천수만 해양환경 살리기 협의회 개최('18.11)
  - 하구복원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현대건설 협의 추진('19.1)
  - 천수만 해양환경 살리기 협의회 개최('19.6)
  - 부남호 하구복원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9.7)
  - 어업인(창리, 간월호, 당암 어촌계) 설명회 개최('19.8)
  - 어촌계장 대상(보령, 서산, 홍성, 태안/37명) 설명회 개최 ('19.11)
  - 농업인 대상(서산, 태안/30명) 설명회 개최('19.11)
  - 천수만 하구환경 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19.12)
  - 2020 연안·하구 생태복원 국제 콘퍼런스 개최('20.10)

114) 충청남도 업무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이하 동일)

≫ 부남호 해수유통(역간척)을 위한 단계적 추진<sup>115)</sup>

- 1단계 : 타당성 마련 (2019년까지)
  - 기본계획 수립(해수유통 시뮬레이션, 담수호 수질개선 대책 마련, 재원확보)
- 2단계 : 하구복원 (2020~2025년)
  - 예타시행, 복원사업 추진(실시설계 및 보상, 해수유통구 설치, 우회도로 조성 등)
- 3단계 : 해양생태도시 조성(2026~2030)
  -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생태관광 및 해양레저 상품개발), 지역경제 활성화(해양신산업 육성)

≫ 태안군은 중·장기적으로 부남호 해수유통 이후, 굴포운하 추진 가능

- 고려와 조선 시대 대표적인 토목공사로 꼽히는 굴포운하는 태안·서산 사이에 뱃길(해로)을 내는 대역사였으며, 고려 인종(1134년) 때부터 조선 현종(1669년) 때까지 530여년간 10여 차례나 시도됐지만 끝내 성공하지는 못함<sup>116)</sup>
- 향후 가로림만과 천수만을 잇는 뱃길을 통하여 다양한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고, 해양친수도시로서의 위상 확보 가능

## (5) 기대효과

≫ 부남호 역간척을 통한 천수만과 가로림만의 해양생태학적 이용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현재 수질 악화로 농업용수로 가치가 없는 부남호 역간척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으로 새로운 경제활력 제고
- 가로림만 해양정원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한 관광객 유입 효과 가능
- 2030년까지 일자리 15,000개 창출, 생산유발효과 16조8천억 원, 관광객 연 8백만 명 유치 가능<sup>117)</sup>

115) 충청남도 업무자료를 참고하여 작성(이하 동일)

116) 조성민, '수에즈운하보다 수백 년 앞선 굴포운하', 연합뉴스, 2018.2.3.일자.

117) 충청남도 업무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4-31〉 부남호 역간척 조감도

자료 : 충청남도(2019), 천수만 하구환경 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부남호 하구(갯벌)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 ③ 해양환경 컨벤션도시 조성

#### (1) 배경 및 필요성

≫ 가로림만 해양정원, 부남호 해수유통 등 굵직한 해양환경 정책사업 추진 중이며, 향후 경제적 파급효과 클 것으로 예상

- 가로림만 해양정원으로 2030년까지 지역 일자리 2천여개, 생산유발효과 4,588억 원, 관광객 연 413만 명 예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sup>118)</sup>
- 부남호 해수유통으로 2030년까지 일자리 15,000개 창출, 생산유발효과 16조8천억 원, 관광객 연 8백만 명 유치 가능<sup>119)</sup>
- 또한 가로림만과 천수만을 잇는 굴포운하가 개발될 경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

≫ MICE는 Meetings(회의), Incentives(포상), Conventions(컨벤션), Exhibitions&Events(전시&이벤트)의 약자<sup>120)</sup>

- MICE 산업은 1990년대 후반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가 컨벤션 사업을 계기로 경제도약의 전기를 맞이하면서 등장한 개념

118) 충청남도 업무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119) 충청남도 업무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120) 경기관광공사(2017), 경기 MICE 중장기 육성방안 (2017~2021)

- MICE 산업은 공해가 없는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지역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산업으로서 지역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로도 주목<sup>121)</sup>
- MICE 방문객들은 지출금액이 레저목적의 일반여행자들보다 훨씬 높고, 행사의 규모가 커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며, 관광비수기에 숙박업, 항공업, 회의개최 시설, 식·음료업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예상<sup>122)</sup>

#### 》》 해양레저산업과 MICE 산업의 간의 융·복합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sup>123)</sup>

- MICE산업의 가장 큰 후방효과는 관광산업으로서 실제 상당수의 MICE 프로그램은 전체 일정에서 본회의나 전시회 참가 후 개최지 주변의 문화, 역사, 레저 등의 포스트 투어프로그램을 결합하여 구성
  - 제주 MICE산업의 경우 MICE 회의성격에 따라 다양한 포스트 투어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데, 이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 중 하나가 요트투어
  - 중문에 위치한 상그릴라 요트투어의 경우 연간 MICE관련 포스트 투어프로그램 참가자가 5천명 내외로, 추후 가족 등 재방문율이 60퍼센트에 달하며, 현재 요트투어 이용객수는 이제 연간 7만명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요트구입도 늘어나 최대 55피트급 요트 5척 보유

#### 》》 현재까지 충남에서는 제대로 된 MICE 산업 부재

- 지역경제 활성화에 MICE 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수도권, 부산, 제주와 비교했을 때 회의·전시 목적으로 한 MICE 시설이 부재하고, MICE 산업 경쟁력 약함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태안 기업도시 주변에 해양환경이라는 테마를 바탕으로 MICE 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필요
  - 충남 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신도시와 약 4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내포의 행정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 타 지역이 해양레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가로림만 해양정원과 부남호 해수유통을 통한 해양환경 보존 및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테마로 운영 가능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2019), 제4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019~2023)
- 해양수산부(2014),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 충청남도(2019), 가로림만 해양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121) 최병춘(2010), 'MICE 산업 동향 연구', 한국콘텐츠학회지 8(4), 46-53.

122) 최병춘(2010), 'MICE 산업 동향 연구', 한국콘텐츠학회지 8(4), 46-53. (원자료 : Johnson, L. "MICE- Size and Economic impact of the meeting sector", BTR Tourism Research Report. 1, 1999, pp.9-18)

123) 김충환(2014), '해양레저와 MICE, 최적의 융복합산업', 요팅매거진 2월호. (이하 동일)



- 충청남도(2019), 천수만 하구환경 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부남호 하구(갯벌)복원 기본계획 수립)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중·장기 (2026~2035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량 : 1식
- 사업지 : 태안 기업도시 (태안읍)
- 추진주체 : 충청남도, 태안군, 민간
- 사업비 : 5,000억 원 (민간 100%)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5,000						2,000	3,000
국비								
지방비	도비							
	군비							
민간	5,000						2,000	3,000

### (4) 주요 사업내용

#### ≫ 가로림만 해양정원과 부남호 해수유통 정책에 발맞춰 해양환경 컨벤션 도시 육성

- 부남호 해수유통 3단계 '해양생태도시 조성'에 발맞춰 해양환경을 테마로 하는 해양환경 컨벤션 도시 조성 추진
- 해양환경·생태를 배려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부남호 해수유통을 통한 해양생태복원을 추진한 충남도 및 태안군의 노력에 대한 당위성 확보

#### ≫ 태안 기업도시 국제비즈니스단지, 상업무용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컨벤션 센터를 조성하고, 호텔, 상점가 등 유치를 통한 활성화 추진

- MICE 산업의 근간이 되는 대형 컨벤션 센터를 설립하여 국제행사 유치가 가능한 규모로 추진
- 고품격 숙박·식사와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호텔 유치를 통한 비즈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 주변의 해양레저기반 (해양치유센터, 마리나항만, 해양정원,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과 연계한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프로그램 개발
- 태안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트래킹, 해수욕, 전통문화체험 등 지역의 관광요소와의 결합을 통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 인근 대학(한서대 등)과 연계하여 MICE 산업관련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학과 개설 및 전문인력 육성 추진



〈그림 4-32〉 태안 기업도시 상업업무단지(좌) 및 국제비즈니스단지(우)

자료 : 태안기업도시 HP, 「<http://www.taeanec.com/vision>」

## (5) 기대효과

### 》 공해가 없는 고부가가치 MICE 산업으로 태안의 미래 먹거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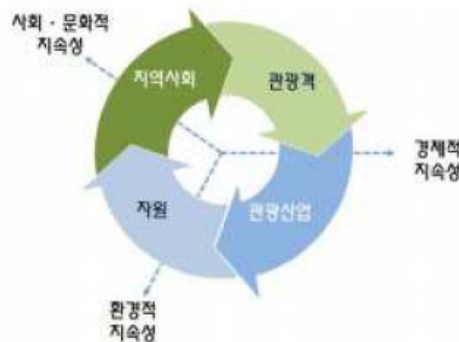
- 공해가 없는 MICE 산업을 통한 태안의 청정이미지를 강화시키고, 가로림만 해양정원과 부남호 해수유통의 상징성을 활용한 해양환경을 테마로 하는 MICE 산업 육성 가능
- 충남 혁신도시의 배후지역으로서 컨벤션 기능을 갖추고 있어 내포신도시의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내포경제권 구축
- MICE의 전·후방산업을 육성으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 4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관광 개발

##### (1)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국내·외 관광객들의 오버 투어리즘(over tourism)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관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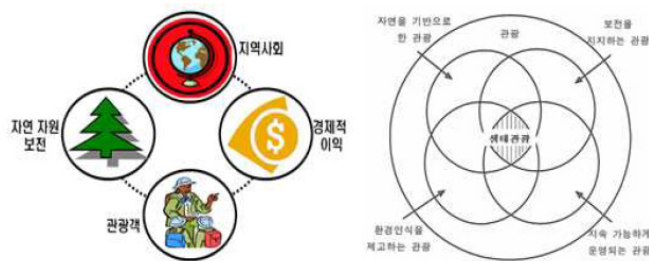
-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이란 미래세대의 관광기회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동시에 현세대의 관광객 및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문화 보전과 필수적인 생태적 과정, 생물 다양성 그리고 생명지원체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심미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것<sup>124)</sup>



〈그림 4-33〉 지속가능한 관광의 4요소 및 원칙

자료 : 최락인(2019)

- 생태관광(ecological tourism)이란 자연자원의 보전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동시에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며,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여행<sup>125)</sup>



〈그림 4-34〉 생태관광(좌)과 생태관광의 틀(우)

자료 : 최락인(2019)

124) 최락인(2019),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한 관광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AJMAHS) 9(4), 2019, 349-358.

125) 최락인(2019),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한 관광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AJMAHS) 9(4), 2019, 349-358. (원자료 : The Ecotourism Society(1991), 「<http://www.ecotourism.or.kr/>」)

≫ 태안의 수려한 해양경관 활용 및 역사문화자원 보존을 통한 지역정체성 확립 필요

- 태안군은 북으로는 가로림만, 남으로는 천수만이 위치해 있고, 118개의 도서(섬)과 559.34km의 해안선, 128.8km<sup>2</sup>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이 가능한 최적의 지역
- 또한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으로서 습지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해양생물보호구역, 수산자원보전지역 등이 지정되어 있어 해양환경·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
-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되는 한국어촌의 전통문화 계승과 문화적 자긍심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 안면도(安眠島)의 고남면에서 발견된 10여 개소의 패총, 이른바 고남 패총군과 남면의 달산 패총군은 모두 신석기 시대의 유적으로, 두 패총군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신석기 시대의 유물
  - 태안지역에서는 지금으로부터 4500~5000년경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지역으로서 고대시대(삼한, 백제, 통일신라), 고려·조선 시대를 넘어 현재에 이를

≫ 태안군이 간직한 천혜의 해양환경·생태 및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필요

-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생태관광의 수요를 확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 마련 필요
- 미래세대에게 태안 고유의 어촌 민속·문화·역사·생태에 대한 보존과 복원가치 증진을 위한 교육 필수

(2) 관련 계획 및 사업

- 충청남도(2017),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
- 충청남도(2019), 충남 해양문화 원형 및 콘텐츠 발굴 연구 (1차년)
- 충청남도(2019), 충남 해양문화 원형 및 콘텐츠 발굴 연구 (2차년)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기 (2019~2025년)
- 사업분류 : 계속
- 사업량 : 3식 (어촌민속마을, 에코뮤지움, 도서생태관광)
- 사업지 : 고남면 가경주, 근흥면 가의도, 연안도서(섬)
  - 어촌민속마을 조성(가경주 마을), 에코뮤지움 조성(가의도), 도서생태관광(섬)

- 추진주체 :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태안군, 지역주민
- 사업비 : 156.41억 원 (국비 52%, 도비 11%, 군비 37%)
  - 어촌뉴딜 사업예산 : 가의도북향(31.9억 원), 가경주향(84.51억 원)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156.41	116.41	10	10	10	10		
국비	81.49	81.49						
지방비	도비	17.46	17.46					
	군비	57.46	17.46	10	10	10	10	
민자								

주 : 어촌뉴딜 사업 (가의도북향, 가경주향)의 예산을 합산하였고, 2019년 및 2020년 예산도 2021년 예산에 합산

### (3) 주요 사업내용

#### 》 현재 추진 중인 어촌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郡 자체적인 어촌민속마을과 에코뮤지엄으로 발전 추진

- 어촌뉴딜 사업과 연계된 예술·문화·역사·생태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 해양수산부 2019년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국민휴양형)로 가의도북향과 가경주향 선정
  - 가경주마을 : 어촌민속마을로서 독살, 해루질 등 어촌생활 전시·체험관 조성
  - 가의도북향 : 생태와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서해관광 중심지로 조성
- 태안 가경주 마을은 어촌민속마을로서 신석기 시대부터의 태안어촌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고유한 어촌민속 중심의 체험형 공간으로 조성 필요
- 태안 가의도는 서해안의 ‘하와이’로 불릴만큼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요자의 힐링욕구에 부합하는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 그에 따른 에코뮤지엄 형태로 조성 필요
  - 전국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태안 ‘육쪽마늘’의 시작점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더 큰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
  - 에코뮤지엄은 1973년 프랑스의 학자인 앙리 비리에르(Georges Henry Rivie’e)가 인간·자연·지역유산을 결합해 만든 개념으로, 생태를 의미하는 에콜로지(ecology)와 박물관(museum)의 합성로서, 인간을 포함한 자연생태 모두를 아울러서 특정한 유산지역을 뮤지엄 범위로 설정하고,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특징을 갖고 있음<sup>126)</sup>

## 》》 가경주 및 가의도 마을의 생태자원과 지역 역사·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조사·연구 추진

- 가경주 마을의 어촌문화와 역사성을 부각시키고, 가의도의 생태적 특징을 반영한 장소성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 부각 필요
- 두 마을의 특성(연안과 도서, 민속과 생태)라는 점을 대비시켜 각각의 장소 마케팅을 추진하고, 두 마을의 특산품을 개발·육성하여 지역 브랜드로 육성 필요
- 해양자원 활용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및 어촌의 역사와 문화를 공연과 전시를 통해 활용 연계하는 체류형 상품개발 필요
  - 가경주 마을의 연안어촌을 특성을 살려 주변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역사적 예술·문화 프로젝트 추진
  - 가의도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휴양지에 예술성을 가미시킨 치유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반 마련
- 향후 태안군, 지역 주민, 관광업체, 생태전문가 등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계절 탐방프로그램 구축
  - 마을 내 유희공간 및 폐공간을 활용하여 해양 역사·문화·예술·생태관광 공간으로 조성
  - 계절별, 시기별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로 해양관광 수요 적극적으로 대응

## 》》 태안의 유·무인도 자원을 활용하여 도서생태관광 추진

- 우리나라 서해바다 끝점인 격렬비열도를 무동력 패들링(카약)으로 방문
  - KBS '다큐멘터리 3일'을 통하여 방송되면서 격렬비열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
  - 태안 앞바다의 다양한 도서 및 생태자원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 마련
- 태안의 도서(섬)은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공간으로서 생태관광의 큰 자산 보유
  - 궁시도(괭이갈매기 서식지), 옹도(등대), 격렬비열도(서해 최서단 상징성) 등
- 이와 같이, 해양레포츠와 도서(섬)자원을 활용한 도서생태관광 추진 필요
  - 그 외, 안흥항에서 출발하는 여객선 등을 활용한 일주 프로그램도 고려 필요

### (5) 기대효과

## 》》 태안군 해양환경·생태자원과 어촌의 역사·문화적 산물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 추진

- 서해권 역사·문화와 생태체험관광의 수요확대에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
- 주민 참여 도모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제 관광수요의 증가와 질적 다양화 가능

126) 장세길(2013), '농업유산, 유산관광 그리고 에코뮤지엄 : 농어업유산의 지역 활성화 연계를 위한 에코뮤지엄 적용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20(4), 한국농촌지도학회, 989-1021.



〈그림 4-35〉 격렬비열도 챌린지 일주코스

자료 : 태안군 업무자료

## 참고사례

### 〈경기만 에코뮤지엄〉

- 2016년부터 경기만 일대인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의 자연과 문화, 역사자원의 보존 및 계승을 위해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을 추진 중
  - 경기도지사,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 자치단체장이 협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 사업의 주체는 경기문화재단이 담당
  - 각 지역의 거점센터에는 지역 민간협업체가 활동
- 경기만에 산재한 문화예술·생태·역사 등 조사 연구를 통해 경기만 에코뮤지엄 컬렉션 100선을 발굴, 주요 권역별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경기만지역의 지역문화 활성화 도모
  - 생명, 평화, 순화, 재생을 핵심가치로 하고, 경기만 정체성 회복과 지역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를 비전으로 설정
  - 창조적 지역재생, 에코투어리즘, 다크투어리즘, 참여와 순환을 발전전략으로 제시



자료 : 경기만 에코뮤지엄 홈페이지([http://www.ecomuseum.kr/bbs/content.php?co\\_id=ecomuseum](http://www.ecomuseum.kr/bbs/content.php?co_id=ecomuseum))



## ⑤ 해양공간관리계획 반영

### (1) 배경 및 필요성

≫ 2018년 4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여 해양공간계획체제 도입시행

- 선점식 해양 이용에서“先계획 後개발”체제로 전환이 필요하여 2017년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제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
- 「해양공간계획법」에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해양공간을 9개 해양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명시
- 「해양공간계획법」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 보전 및 이용·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을 지정·관리
- 태안군 해양산업도시 계획수립에 따른 연안 해역의 주요 보전·이용 계획을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에 중점적으로 반영 추진 필요
  - 태안군 관할 해양공간의 용도를 사전에 지정하고 관리하여 해양공간 핵심 활동의 합리적 배분 유도 목적
- 기존 수립된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태안군은 미고시)에서 지정된 용도구역을 바탕으로 해역의 특성과 다양한 해양공간의 이용·개발·보전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공간의 현재 활동 및 미래 수요에 맞는 계획안을 수립 중
  - 충남도 해양공간계획 수립 진행 중(2020.3~2021.9)
  - 태안군 해양공간 이용수요에 대한 공간계획 선반영 요청이 필수적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19), 해양공간기본계획(2019~2028)
- 해양수산부(2021), 충남해역 해양공간계획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기·중기·장기(2021~2040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량 : 1식
- 사업지 : 태안군 전역
- 추진주체 :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태안군



- 사업비 : 불필요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	-	-	-	-	-	-	
국비								
지방비	도비							
	군비							
민자								

#### (4) 주요 사업내용

>> 태안군 해역의 특성과 다양한 해양공간의 이용·개발·보전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공간의 현재 활동 및 미래 수요에 맞는 계획의 수립 지원

- 태안군 관계부서 및 관내 민·관·산·학·연이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협력 및 참여회의 실시를 통해 효율적인 해양공간 관리계획 반영
  - \* 「해양공간계획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함
- 2021년에 충남해역 해양공간계획 고시 예정으로, 계획 확정까지 포괄적 반영 가능하며, 충남해역 해양공간계획은 고시 이후, 계획수립 시점부터 수시 변경 가능
  - 해양환경 여건 변화로 해양용도구역 등 해양공간관리계획 내용 중 일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변경(도지사 권한)
  - 고시일 이후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보전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는 변경 절차를 통하여 탄력적으로 관리
  - \*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수립·고시된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2035년 태안군 기본계획, 태안군 경관계획, 신해양도시 계획 등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해양공간계획에 선반영 요청 (기존 용도구의 변경 반영 필요)
  - 해양치유센터, 가로림만 해양정원, 부남호 역간척, 국립공원지역 조정, 각종 보호구역 지정확대, 해상풍력 단지 조성, 골재채취 허가구역 반영, 마리나항만 개발, 어촌뉴딜300, 어장복원 및 양식산업 다변화, 연안 지역 위험지구 지정(연안정비사업 연계) 등 태안군 현안과제 중심으로 중점 반영 요청
- 계획 수립 및 고시 이후, 계획의 수시변경 요구가 가능하며,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통해 해양이용·개발구역 수립·변경 가능
  - 다양한 해양이용·개발계획을 수립·변경, 지구·구역지정·변경 전에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 등을 사전에 해양수산부와 협의

- 향후 계획 고시 후, 수정 계획 수립(2025년)이나 제2차 해양공간계획수립(2030년) 시 태안군 신해양도시 관련 수정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

## (5) 기대효과

### ≫ 해양공간 통합관리 체제확립으로 해양공간 이용 갈등의 사전예방과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가능

-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입지에서의 신해양도시 계획 추진 유도
- 의사결정의 속도와 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 계획수립이 가능

### ≫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고려한 해양공간특성 분석 및 공간계획 수립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전이 가능

- 부처별, 시군별 이해관계에 따른 해양공간 선점경쟁 가속화로 무분별한 공유수면 매립 시도로 인해 해양환경 훼손 (지난 26년간 국내 연안 매립준공 면적 753.9km<sup>2</sup>)

## 참고자료

### 〈해양공간계획〉

#### ■ 해양공간계획의 목적

- 해양공간을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
-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여 “선(先)계획 후(後)이용” 체제의 통합관리
-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9개의 용도구역\*을 지정(어업활동, 환경·생태계관리, 해양관광, 에너지개발, 골재·광물, 항만·항행, 연구·교육, 안전관리, 군사활동)

#### ■ 해양용도구역의 정의

-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한 구역
- 해양의 인간활동 간 이해상충갈등 완화, 해양가치 유지증진을 위한 구역



자료1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료2 : KMI(2019), 해양공간·연안관리 정책 이슈와 과제, 2019 해양수산전망대회(해양세션)

## ⑥ 태안 갯벌보전·이용계획 수립

### (1) 배경 및 필요성

≫ 과거 갯벌은 쓸모없는 땅으로 여겼으나, 최근 갯벌은 사람뿐만 아니라 해양생물에게 다양한 생태적 기능 제공<sup>127)</sup>

- 갯벌은 농업용수 또는 농지 확보, 산업단지개발 등을 위해 간척되거나 매립
  - 대규모 간척·매립사업은 일제강점기부터 시행되었고 일제강점기 때 사라진 갯벌의 면적은 약 570km<sup>2</sup>로 추정되고, 광복 이후 1980년대까지 사라진 갯벌의 면적도 약 530km<sup>2</sup>에 달함
  - 특히, 공식적인 갯벌면적 통계가 시작된 1987년부터 1997년 사이에 새만금(208km<sup>2</sup>), 시화지구(180km<sup>2</sup>)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약 810km<sup>2</sup>의 갯벌 파괴
- 그러나 최근 연구를 통하여 갯벌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공간으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그 생산성은 먼 바다에 비해 10~20배, 농지나 산림지역에 비해 3~10배 정도 높은 것으로 판명

≫ 2019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을 제정하고, 2020년 1월부터 본격 시행<sup>128)</sup>

- 그동안 「습지보전법」에 따라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
  -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
-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13개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총 면적 1,422 km<sup>2</sup>) 되었으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갯벌은 우리나라 전체 갯벌면적 2,482km<sup>2</sup>의 약 57%에 해당
  - 태안의 갯벌면적은 128.8km<sup>2</sup>로서 충남도 갯벌면적은 338.9km<sup>2</sup>의 38.0% 차지
- 갯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갯벌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갯벌 관리·복원 기본계획)’ 수립 중
  - 갯벌 관리·복원 기본계획은 갯벌 관리 및 이용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갯벌 생태계와 갯벌생태서비스 등의 이용현황, 갯벌생물 서식환경의 보호,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갯벌어업등의 활성화, 갯벌 복원 및 추진계획 등 포함

127) 이재영, ‘갯벌법 시행과 앞으로의 과제’, 현대해양, 2020.3.9.일자. (이하 동일)

128) 이재영, ‘갯벌법 시행과 앞으로의 과제’, 현대해양, 2020.3.9.일자. (이하 동일)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21),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기(2022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량 : 1식
- 사업지 : 태안군 전역
- 추진주체 :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태안군
- 사업비 : 10억 원 (군비 100%)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10		10					
국비								
지방비	도비							
	군비	10	10					
민자								

## (4) 주요 사업내용

### >> 갯벌법에 포함된 '갯벌관리구역'에 능동적으로 대응<sup>129)</sup>

- 갯벌법에서는 갯벌의 특성과 관리목표 등에 따라 갯벌을 '갯벌보전구역', '갯벌안전관리구역', '갯벌휴식구역', '갯벌생산구역', '갯벌체험구역' 등 총 5개 관리구역으로 구분
  - 갯벌관리구역 지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는 해당 관리구역 지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해양수산발전심의회 심의 통과 필요
  - ① 갯벌보전구역 : 갯벌생태계가 우수하고 갯벌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우선적으로 보전·관리가 필요한 구역
  - ② 갯벌안전관리구역 :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갯벌 등으로서 갯벌 등의 이용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구역
  - ③ 갯벌휴식구역 : 갯벌생태계의 보호·회복 등을 위하여 휴식이 필요한 구역

129) 이재영, '갯벌법 시행과 앞으로의 과제', 현대해양, 2020.3.9.일자. 참고하여 작성 (이하 동일)

- ④ 갯벌생산구역 : 수산종자의 방류, 산란장 조성 등 생물자원의 생산증대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구역
- ⑤ 갯벌체험구역 : 갯벌생태관광 등을 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
- 이 중 갯벌생산구역 중 일정한 환경기준을 충족한 갯벌은 ‘청정갯벌’로 지정 가능
  - 갯벌생산구역 중 관리주체와 관리방안이 명확하고 일정한 환경기준을 충족한 갯벌은 ‘청정갯벌’로 지정
  -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판매 및 소비촉진을 위해 포장 등에 ‘청정갯벌 수산물’표시, 홍보, 우선 구매 등을 위한 규정 포함
- 갯벌법에 따라 갯벌관리구역, 갯벌복원이 시행된 인접지역, 해양보호구역 등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된 곳에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주민 소득증대 방안 마련 필요
  - 갯벌생태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관광자원의 조사·발굴 및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면서 갯벌생태관광, 갯벌생태 해설사 육성 및 양성기관 인증(지정) 추진

#### ≫ 태안군은 갯벌법에 시행에 대응하여 자체적인 갯벌보전·이용계획 수립

- 충남도내에서 가장 넓은 갯벌을 보유한 태안군이 선도하여 갯벌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갯벌보전·이용계획 수립 필요
  - 태안군 전체 갯벌에 대한 환경성(건강성) 평가, 이용현황 및 이용계획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갯벌관리구역 설정에 선제적으로 대응
- 사전에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청정갯벌’ 지정을 위한 논리 및 타당성 개발
  - 청정갯벌은 일정한 환경기준뿐만 아니라 관리주체와 관리방안 명확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매뉴얼 제작 등도 필요
- 갯벌생태마을 지정, 갯벌생태관광 추진, 갯벌해설사 양성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갯벌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촉진
  - 갯벌생태마을 지정을 통한 갯벌생태관광을 실천하고, 갯벌해설사 양성 및 양성기관 지정을 통한 갯벌생태관광의 소프트웨어 기반 구축

### (5)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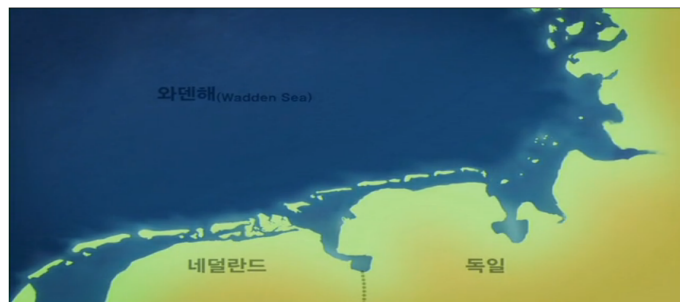
#### ≫ 갯벌법 시행에 따른 태안에 능동적인 대응으로 갯벌생태관광 거점 도약

- 갯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사전 갯벌보전·이용계획 수립으로 중앙정부 및 충남도의 설득을 위한 논리 및 타당성 개발
- 갯벌생태마을 지정, 갯벌해설사 양성 등 태안군 갯벌생태관광을 위한 기반 조성

## 참고자료

### 〈독일 와덴해 사례〉

- 독일은 북해의 와덴해 해역에서 가장 넓은 갯벌을 보유하고 있으며, 섬 면적을 합하여 총면적 5,215km<sup>2</sup>의 갯벌이 독일 북해연안 4개 주에 속함
  - 주별 갯벌면적은 쉘레스비히-홀스타인(Schleswig-Holstein) 2,843km<sup>2</sup>, 함부르크(Hamburg) 117km<sup>2</sup>, 브레멘(Bremen) 1km<sup>2</sup>, 니더작센(Niedersachsen) 2,254km<sup>2</sup>
- 와덴해(Wadden Sea)는 네덜란드 - 독일 - 덴마크로 이어지는 해역으로, 와덴해 갯벌은 전체가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록된 세계3대 갯벌 중 하나 (3개국 공동관리)
- 독일은 갯벌 보전을 위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갯벌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간의 접근을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독일 전체에서 관광가능한 갯벌은 1%에 불과하고, 모두 3등급으로 정하여 관광객 출입 통제
- 갯벌 등급 : 절대보호구역, 중간구역, 관광가능구역
  - 갯벌가이드 제도를 운영하여 갯벌가이드가 관광객을 안내하고 갯벌훼손 감시
  - 절대보호구역은 출입이 통제되고 중간지역과 관광가능구역은 갯벌가이드를 동행하여 출입



자료 : 김종화(2018), 서천군 해양산업 발전기본계획 (원자료 : 환경스페셜, 「갯벌복원, 바닷물을 허하라」, KBS, 2009.9.30. 방영)

## 7 세계(국가) 중요어업유산 등재

### (1) 배경 및 필요성

》 FAO(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는 2002년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 (GIAHS :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도입·시행<sup>130)</sup>

-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정상회의’에서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발족한 것을 시작으로 많은 국가에서 전통적인 농업시스템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하려는 프로젝트 추진

130) 선우윤정(2018), 중국·일본의 세계중요농업유산 현황과 시사점,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이하 동일)

- FAO는 세계중요농업유산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의지와 환경과의 상호 적응을 통해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게 유지되고 있는 뛰어난 경지 이용 시스템과 경관”이라고 정의
- GIAHS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식량 안보’, ‘생물다양성’, ‘전통 농업 지식 및 기술’, ‘경관’, ‘농업 문화’ 등 5가지 요소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는 농업시스템을 파악하고 후대를 위해 보존하는 것
  - 이때 동적 보존(dynamic conservation)을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농업시스템이 앞에서 언급한 5가지 요소를 유지함과 동시에 현대의 생활방식, 기술, 경제·사회 환경에 적응하여 발전되어야 한다는 개념

≫ 우리나라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 (NIAHS: Nation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해양수산부에서는 별도로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KIFHS : Korea Important Fisheries Heritage System) 도입

- 현재 우리나라 세계중요농업유산 : 청산도 구들장논, 제주 밭담, 금산 인삼농업, 하동 전통 차농업 지정
- 현재 우리나라 국가중요농업유산 : 청산도 구들장 논(‘13), 제주 밭담(‘13), 구례 산수유농업(‘14), 담양 대나무 밭(‘14), 금산 인삼농업(‘15), 하동 전통 차농업(‘15),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16),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17), 울릉 화산섬 밭농업(‘17),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18),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18),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18),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19), 고성 해안지역 둥벙 관개시스템(‘19), 상주 전통꽃감(‘19)
- 현재 우리나라 국가중요어업유산 : 제주 해녀어업(‘15.12), 보성 뽕배어업(‘15.12), 남해 죽방렴어업(‘15.12), 신안 천일염업(‘16.10), 완도 지주식 김 양식업(‘17.12),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18.11),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18.11), 통영·거제 견내량 돌미역 채취어업(‘20.6)

≫ 최근 충청남도에서 ‘충남 해양문화 원형 및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국가어업유산등재 추진

- 충남도내 태안 자염, 가로림만 세발낙지잡이, 서천 유부도 백합채취, 천수만 굴채취, 서천 비인만 독살, 보령 외연도 가시리 채취어업을 국가어업유산등재 추진





태안 자염



가로림만 새빨낙지잡이



서천 유부도 백합채취



천수만 굴채취



비인만 독살



외연도 가시리 채취어업

〈그림 4-36〉 충남 어업유산 후보군

자료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2020), 충남 해양문화 원형 및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자료.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충청남도(2021), 충남 해양문화 원형 및 콘텐츠 발굴 연구
-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
- 해양수산부,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 (KIFHS)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기(2021~2025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량 : 1식
- 사업지 : 태안군 전역
- 추진주체 :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태안군
- 사업비 : 5억 원 (군비 100%)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5		2	2	0.5	0.5		
국비								
지방비	도비							
	군비	5	2	2	0.5	0.5		
민자								



#### (4) 주요 사업내용

≫ 태안군은 예부터 보유한 우수한 어업유산을 국가중요어업유산 및 세계 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여 서해안 대표 수산郡으로서 위상 강화

- 태안군 연안에서는 과거부터 독살어업, 자연생산 등 전통어업이 발달해 왔고, 그 생산물을 활용한 수산가공품도 시대에 맞게 발전
- 지역 기반산업의 한 축인 수산업에 대한 국가 및 세계 인증을 통하여 태안 어업인들의 자긍심 고취 필요
- 우선 전통어업 유산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국가중요어업유산 등재 후, 세계중요어업유산 등재 추진
  - 과거 태안 독살을 국가어업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미등재
- 국가어업유산으로 등재되면 어업유산 지정지구 어촌체험마을로 선정되어 국비 지원이 가능하여 주민소득 향상에도 도움
- 국가중요어업유산 등재를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등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구용역 실시
- 우리나라 수산업의 특성 상, 특정 연안지역에서만 행해지는 전통 어구·어법은 드물고, 전국 공통의 어업자산 중 국가어업유산으로 선점하는 것이 중요
- 국가중요어업유산 등재 후, FAO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세계중요어업유산 등재 추진이 바람직함
  - 현재 태안군에서 추진 중인 '육쪽마늘' 국가중요농업유산과 함께 시너지 효과 창출

#### (5) 기대효과

≫ 태안군 수산업의 정체성을 찾고 지역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 발굴

- 예부터 내려온 태안 수산업의 전통을 계승·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태안연안 및 어업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자긍심 고취
- 어업유산을 지역브랜드로 개발하여 가치있는 미래유산으로 전승



〈그림 4-37〉 어업유산 지정지구 어촌체험마을

자료 : 국가중요어업유산 HP, 「[http://www.국가중요어업유산.kr/page\\_EXAJ25](http://www.국가중요어업유산.kr/page_EXAJ25)」

## 8 태안 해양쓰레기 대응방안 구축

### (1) 배경 및 필요성

≫ 태안군 연안 및 해수욕장에는 수도권, 중국 등의 해양쓰레기가 밀려 들어와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

- 충청남도는 2019년 기준 연간 1만8천여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1만2천여 톤 수거<sup>131)</sup>
  - 해양쓰레기 발생량 : ('18년) 1만8444톤, ('19년) 1만8535톤
- 태안군은 2018년 전국 해양쓰레기 관리역량 우수 시·군으로 평가될 정도로 해양쓰레기 처리에 적극적인 행정력 투입<sup>132)</sup>
- 또한 2020년부터 '침적쓰레기 정화사업'을 군 직영사업으로 전환하여 바닷 속 5~40m 수심에 쌓여있는 해양쓰레기 수거<sup>133)</sup>
  - 태안에서는 해양쓰레기를 2018년 5,040톤, 2019년 5,000톤, 2020년 5,745톤 수거

131) 유진환, '충남도, 올해 해양쓰레기 처리에 206억 원 투입', KBS.

132) 충청남도 HP(카드뉴스), '해양쓰레기 해결, 충남이 나섭니다', 「<http://www.chungnam.go.kr>」

133) 이영채, '태안군, 50억 투입해 바닷속 쓰레기 1400톤 수거한다', 2020.6.4.일자.

》 태안군에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을 통한 해양쓰레기 처리계획

- 충청남도는 2021년 도서지역과 침적 해양폐기물 일제 정리사업,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건조,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등 추진 예정
- 이 중,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는 해양쓰레기 처리와 재활용을 위하여 태안군 관내에 하루 38.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2023년까지 설치 계획

(2) 관련 계획 및 사업

- 충청남도(2019),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광역 전처리시설 설치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연구
- 충청남도, 우리마을 해양쓰레기는 내가! 사업
- 태안군,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사업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기(2021~2025년)
- 사업분류 : 계속
- 사업량 : 2식
- 사업지 : 태안연안 전 지역
  -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는 근흥면 도항리에 설치
- 추진주체 :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태안군
- 사업비 : 180억 원 (군비 100%)
  -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는 173억 원 (국비 75억 원, 도비 75억 원, 군비 23억 원)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180	60	113	3	2	2		
국비	75	25	50					
지방비	도비	75	25	50				
	군비	30	10	13	3	2	2	
민자								

#### (4) 주요 사업내용

##### >> 태안군 주민들이 지역 내 해양쓰레기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태안군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해양쓰레기 발생량 및 수거량을 상시적으로 정보 공개
- 태안군내 어촌마을과 내륙지역 시민단체, 학교, 기업 등과 연계하여 해양쓰레기 수거행사 개최 지원
- 해양레저·스포츠 동호회와 함께 하는 해상쓰레기 수거행사 수시개최

##### >> 태안연안 거점별 해양쓰레기 감시단(자치회) 조직 운영

- 태안연안의 거점을 지정하고 해양쓰레기 현황을 조사하고, 수거, 처리하는 전담 자치회 조직을 운영하고, 태안군 해양환경지킴이로 위촉
- 매년 거점별로 활동내역과 실적을 조사하여 표창 수여식 개최

##### >> 주민과 함께 하는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설립 추진

-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파쇄, 탈염, 분리·선별이 가능한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 설치 추진
-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설립에 따른 해양환경오염 및 지역관광 이미지 타격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투명한 행정처리를 통하여 신뢰확보 필요
- 해당시설 설치 후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한 대안마련 필요 (고용창출, 관광시설 입지 등)



〈그림 4-38〉 해양쓰레기 사냥대회

자료 : 김가영, '카약 타고 즐기는 해안 쓰레기 사냥대회', 충남매일, 2020.11.09.일자.

## (5) 기대효과

≫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지속적인 해결방안 모색

- 주민 스스로 해양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를 주민자치 및 자원봉사로 연결시켜 사회적 순기능으로 발전
- 해양쓰레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

## 4. 스마트 수산도시

### 1) 현황 및 여건

≫ 태안은 전국 최고 수준의 생해삼 생산지이나 산업육성기반 매우 취약

- 태안군은 전국 연간 생해삼 생산량의 27%수준인 730톤에 달하나, 가공기반이 취약하여 생산량의 대부분이 경남 통영 등 역외로 유출
- 해삼산업 가치사슬 단계(종묘→중간육성→양식→가공→유통·판매)별 육성기반 및 수직적 일관시스템 도입 필요

≫ 세계적으로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양식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 발굴 필요

- 최근 양식산업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양식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ICT 신기술을 융합하여 혁신적 원가절감과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을 도모하는 스마트양식어업 도입 가속화
- 태안군은 충청남도 양식어업 면적 중 62.7%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나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해안국립공원 지정 등의 지리적 한계로 기술집약적 양식 및 육상수조식 양식은 부족한 실정

≫ 내만 중심의 양식은 소규모의 영세 형태 및 과밀화에 따른 자가 오염으로 적조 등에 의한 양식생물 대량폐사가 빈번하게 발생

- 주요 양식 선진국은 내만중심 양식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육상양식과 외해양식으로 생산체계를 전환하고, 해양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외해양식시설을 도입 추진
- 태안군이 위치한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며, 수심이 얕음으로 인하여 어류양식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외해 양식기술이 도입될 경우 생산 조건의 불리함 극복 필요

≫ 해양수산부는 FPC(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 건립 등을 통한 新수산물 유통망 구축 추진

- 新수산물 유통망은 ‘산지 위판장 → 산지거점유통센터(FPC) →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 소비지’를 구축하여 고품질 수산물을 공급
- 태안군은 지역 수산물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수산식품 상품을 만들어 어업인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 국도 77호선 연장에 따른 충남 서해안권 관광지도의 변화 예상

- 국도 77호선(영목~원산도~대천)을 잇는 해상교량(영목~원산도) 및 해저터널(대천~원산도) 건설 중
- 국도 77호 개통에 따라 태안과 보령 지역의 해양관광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군차원의 대비
- 연륙교 등을 통하여 태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소비의 기회’ 제공 필요

≫ 최근 충청남도는 꽃게를 대표 수산물로 선정하여 대대적인 육성계획 발표

- 충남 꽃게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서해안 꽃게는 맛과 영양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며, 연안지역 대부분에서 생산
- 태안에 꽃게는 지역을 대표하는 수산물이자 계국지, 꽃게장, 꽃게탕 등 지역 향토음식으로 발전

≫ 최근 최서단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계획 추진<sup>134)</sup>

- 격렬비열도는 ‘서해의 독도’라고 불리는 곳으로 서해의 대표적인 황금어장이면서 중국과 인접하여 지리적, 군사적 요충지

≫ 최근의 관광트렌드는 웰니스(wellness)의 영향으로 휴식·휴양, 체험·여가 등으로 다양한 수요 발생하고 여촌관광에 대한 높은 관심

- 충남의 여촌체험휴양마을은 총 10개소이고, 이 중 태안군은 4개소
- 여촌체험휴양마을은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주로 갯벌체험) 중심으로 관광객의 요구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관광객의 재방문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최근 어촌지역의 과소화,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공동체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 필요

134) 유진환,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KBS, 2020.11.7.일자(이하 동일)

- 특히 최근 ‘자치분권’ 정책에 따른 마을만들기사업 지방이양 등에 대응한 태안군만의 농어촌정책 마련 필요

## 2) 추진방향

≫ 추진방향 :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발전을 통한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 고부가가치 수산업을 육성을 통한 어업인 소득향상 및 어촌경제 활성화
- 수산업의 생산, 유통, 소비체계 혁신을 통한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 태안 수산업·어촌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역브랜드 구축
- 어촌공동체 복원, 어촌인구 유입촉진 등을 통한 살기 좋은 어촌 구현

≫ 추진목표 : 수산업·어촌의 가치를 보전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 가치사슬 단계별 수직적 육성기반으로 바탕으로 해삼산업 클러스터 조성
- 빅데이터, AI, IC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양식클러스터 조성
- 내만(內灣) 중심의 양식을 극복하기 위한 외해 가두리양식으로 생산성 향상
- 최신 소비트렌드에 부합하는 수산식품 생산을 위한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 충남 서해안의 새로운 관광여건에 부합하는 관광형 수산시장 조성
- 태안의 상징성인 격렬비열도와 꽃게를 연결한 격비꽃게 육성
- 태안만의 차별적인 스마트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프로그램 개발
- 주민 모두 함께 잘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어촌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 3) 세부사업

### ① 해삼산업 클러스터 육성

#### (1) 배경 및 필요성

≫ 전국 최고 수준의 생해삼 생산지이나 산업육성기반 매우 취약

- 태안군은 전국 연간 생해삼 생산량의 27%수준인 730톤에 달하나, 가공기반이 취약하여 생산량의 대부분이 경남 통영 등 역외로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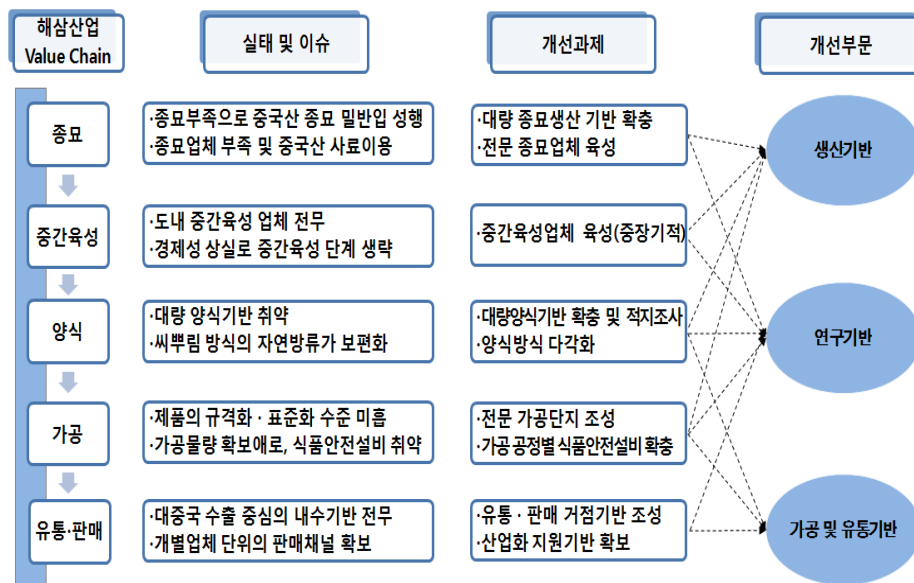
〈표 4-1〉 태안 해삼산업 일반현황

해삼양식장	가공업체	생해삼 생산량	년간수익	비고
144개소/ 1,231ha	4개소	730톤/년	100억원	전국 생산량의 27%

자료 : 태안군 업무자료(태안군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계획)

## >> 해삼산업 가치사슬 단계(종묘→중간육성→양식→가공→유통·판매)별 육성기반 및 수직적 일관시스템 취약

- 가치사슬 단계별로 육성기반이 취약하여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직적 일관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 노정
  - 해삼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생산기반, 연구기반, 가공 및 유통기반을 확충하고 가치사슬 단계별로 연계하는 수직적 일관시스템 구축 필요



〈그림 4-39〉 태안 해삼산업 가치사슬별 실태 및 문제점

자료 : 신동호(2015), 충남 해삼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안, 충남연구원.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충청남도(2019), 충남 해삼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 충청남도(2019), 충청남도 경제발전전략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기(2022~2030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량 : 1식
- 사업지 : 태안군 연안일대
- 추진주체 :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태안군, 민간
- 사업비: 1,000억 원 (국비 50%, 도비 19%, 군비 11%, 민자 20%)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1,000		60	90	225	225	400	
국비	500		30	50	100	100	220	
지방비	도비	190	12	10	50	50	68	
	군비	110	6	10	25	25	44	
민자	200		12	20	50	50	68	

#### (4) 주요 사업내용

##### >> 해삼산업 가치사슬 단계별 육성을 위한 주요사업

- 해삼 종묘 및 중간육성기반 조성
  - 양식 및 가공물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공차원의 대단위 종묘자원 센터 설립과 민간부문에서 전문 종묘와 중간육성을 병행할 전문기업 육성
- 해삼양식 기반조성
  - 도서주변 해역, 만, 간석지 등을 대상으로 대량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양식적지 조사 및 대단위 축제식 양식단지 조성
  - 여름철 염도, 수온, 산소공급 문제 등 계절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ICT 융·복합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 해삼 가공 및 유통판매 기반 조성
  - 기존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확대하여 해삼 전문 유통·판매거점 시설로 활용하고 해삼 전문특화단지를 조성하여 가공산업의 집적화 도모
- 해삼 연구 및 산업화 지원기반 조성
  - 충남 수산연구소와 연계하여 양식기술, 양식장 시험운영, 종묘생산 연구를 추진하되, 동 기관이 해삼전문기관이 아니므로 국립해삼연구센터 유치 전개
  - 기능성 식품연구, 제품의 인증 및 시제품 제작, 제품포장 및 디자인, 홍보, 특허, 판매 및 수출 등 제 부문을 지원할 해삼산업화 지원센터 조성

## (5) 기대효과

### 》 생해삼의 단순 생산지에서 국내 해삼산업의 메카로 도약

- 국내 해삼산업의 생산·가공·유통 거점지역으로 자리 매김
- 종묘→중간육성→양식→가공→유통·판매 단계별 업체 간 분절화 방지 및 수직적 일괄시스템 실현

### 참고사례

#### 〈중국의 해삼 종묘 및 중간육성 사례〉

구 분	영성오류해삼종묘센터	청도해삼종묘배양장
양식규모	• 247,934㎡	• 종묘생산시설 2,000㎡ • 중간육성시설 600㎡
양식유형	• 종묘(육상수조) • 양식(축제식)	• 종묘(육상수조) • 중간육성(축제식)
양식방법	• 종묘생산 후 즉시 양식장 이소 - 중간육성단계 생략	• 종묘생산 후 중간육성시설 이소
종묘생산량	• 1~2kg/1㎡	• 7,500kg/년
출하증량	• 100~170g	• 5~10g
양식장 전경		

원자료 : 충청남도 수산관리소 해외출장보고서(2012, 2013)

#### ■ 청도서지해진품발전 유한공사 사례(중국)

- 표준화 생산시범 기지 내 축제식 양식장 1,451,880㎡, 해삼종묘육성장 99,990㎡, 중간육성장 21,000㎡, 해삼가공 공장을 연계하여 종묘→중간육성→양식→가공→유통 전단계의 일괄시스템 구축
- 이를 통해 연간 40톤 이상을 생산하며 종묘에서 판매까지 약 1년 소요

#### ■ 글로벌 수산기업 '마루하니치로' 사례(일본)

- 일본은 해삼의 전략적 가치를 인지하고 자국 내 글로벌 수산기업 '마루하니치로'로 하여금 해삼 양식업의 기술을 보유한 카이센쿠라쿠부(海鮮俱樂部)기업과 공동출자하여 '마루하니치로카미노구니'기업을 설립하고 해삼의 종묘생산→육성→수매→가공→수출에 이르기까지 수직적인 일괄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중국 건해삼 시장으로 진출

자료 : 신동호(2016), 충남 해삼산업 육성 로드맵, 현안과제연구, 충남연구원.

## ②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 (1)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양식산업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양식에 빅데이터, AI, ICT 등 신기술을 융합하여 혁신적 원가절감과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을 도모하는 스마트양식어업 도입 가속화

- 2050년 세계 동물성 단백질 수요 70% 증가(FAO 전망)에 대비한 대안으로 환경비용이 적은 수산양식이 부상하고 있으며, 수산물 소비는 지속적 증가
  - FAO ‘세계 수산 및 양식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세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연간 2005kg(45.2 파운드) 육박<sup>135)</sup>
  - 또한 2018년 전 세계 총 수산물 생산량은 1억7900만 톤에 달하고, 2030년에는 2억 4400만 톤으로 2018년 대비 15% 증가 예상<sup>136)</sup>
- 대규모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와 기자재 및 유통가공 업체 등 연관산업 배후단지 구축사업(스마트양식단지)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이 주도하는 양식장 시설에도 첨단스마트양식 기술도입 적극 지원
  - 현재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3개소(부산고성·신안)가 추진 중이고, 신규로 2개소 추진 예정이며, 내수면 스마트 양식은 과산에 1개소, 향후 신규 1개소 추진 예정
- 미국, 노르웨이 등 양식선진국들은 환경 및 경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양식을 위해 양식기술의 디지털화·자동화 추진

≫ 태안군은 충청남도 양식어업 면적 중 62.7%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나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해안국립공원 지정 등의 지리적 한계로 기술집약적 양식 및 육상수조식 양식은 부족한 실정

-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서해수산연구소 태안양식연구센터 등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확보
  - 태안양식연구센터는 서해의 갑각류를 연구하는 서해안 어족자원 양식기술 확보
- 최근 양식기술의 발달로 해수를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폐쇄순환여과양식시스템 등의 개발로 태안에서도 육상양식장 설립을 위한 지리적 위치선정 가능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19), 수산혁신 2030 계획
- 해양수산부(2019), 아쿠아팜 4.0 추진전략

135)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list.do?rbsldx=1>」

136)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list.do?rbsldx=1>」

- 해양수산부(2021),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 해양수산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 태안군, 스마트 피쉬 팜 조성사업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기·중기(2022~2025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량 : 1식 (테스트베드 및 배후단지 조성)
- 사업지 : 태안 이원면 일원
- 추진주체 :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태안군, 민간
- 사업비: 400억 원 (국비 55%, 도비 10%, 군비 15%, 민간 20%)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400		90	110	110	90		
국비	220		50	60	60	50		
지방비	도비	40	10	10	10	10		
	군비	60	10	20	20	10		
민간	80		20	20	20	20		

주 : 부지매입비 별도

### (4) 주요 사업내용

≫ 태안형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대량생산 단지, 가공·유통·수출 단지, R&D, 창업교육, 인력양성 등 집적화한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sup>13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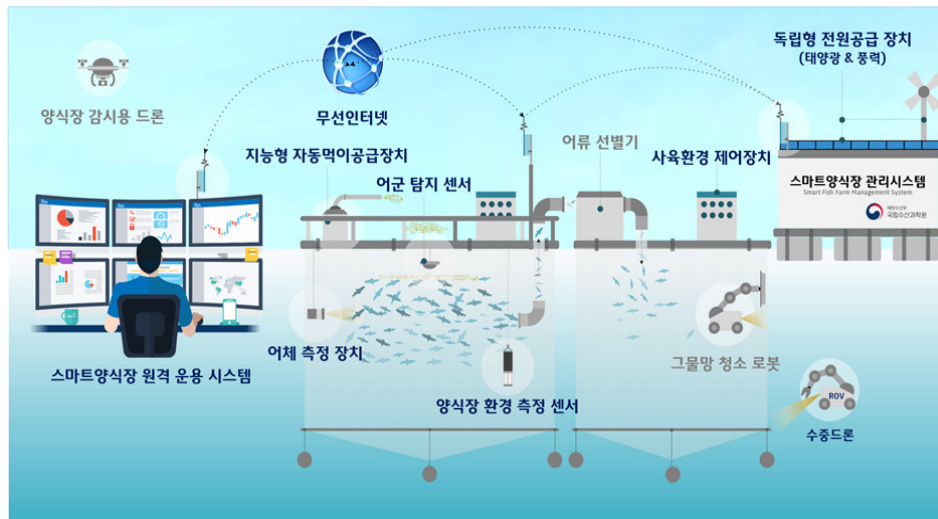
- 태안형 스마트양식 특화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전·후방 산업 집적 및 배후단지 조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137) 해양수산부(2019), 2019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가 공모계획

〈표 4-2〉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개념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구축	민간 주도형 대량생산	가공·유통·수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식기술 실증·실습</li> <li>- 최적사육 조건 도출</li> <li>- 양식기술 표준화·고도화</li> <li>- R&amp;D, 창업교육, 인력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후부지에 민간 양식 단지 건립</li> <li>- 테스트베드에서 축적된 성과 도입 및 확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자유치 및 기존사업과 연계 연관시설 집적</li> <li>- 클러스터 내 생산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li> </ul>

자료 : 해양수산부(2019), 2019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가 공모계획



〈그림 4-40〉 스마트 양식장 통합운영 시스템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이미 시작된 바다의 산업혁명, 친환경 스마트 양식', 2018.10.30.일자.

## >> 태안군 스마트양식 발전을 위하여 새우 등 갑각류 양식단지 및 내륙형 어류 육상양식 실증시설 구축, R&D 센터 등 조성

- 스마트 갑각류(새우 등) 양식단지 구축
  - 저염분 바이오플라크 기술, 수질모니터링 및 알람시스템, 자동 급이조절 및 수질관리 시스템 등이 접목된 갑각류 전문 스마트 양식단지 구축
  - 해양수산부 신규추진 예정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공모에 참여. 갑각류 전문화로 차별성 확보 가능
  - 스마트 양식단지와 연계한 스마트 수산물 가공 공장을 통해 양식단지 및 민간 스마트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가공하는 지원시설
  - 해당 시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장기 보관 및 유통 가능한 고차 수산식품 가공공장 조성
- 스마트 육상 어류양식 실증시설 구축
  - 상업화 규모의 폐쇄순환여과양식시스템 적용 및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ICT 신기술을 융합한 내륙형 어류 스마트양식 실증시설 구축

- 폐쇄순환여과 기술 기반 스마트 양식에는 자동화, 무인화 기술 등 4차 산업 혁명 신기술 적용을 위한 R&D 필요. 지역별로 조성되는 스마트 양식 실증시설에 필요한 기술개발 추진
- 향후 수산업 관련 기업유치, 양식 전문기관 유치 등을 통한 전·후방 산업 집적화를 통한 클러스터 조성 추진

## (5)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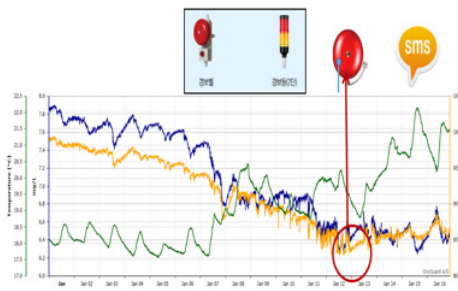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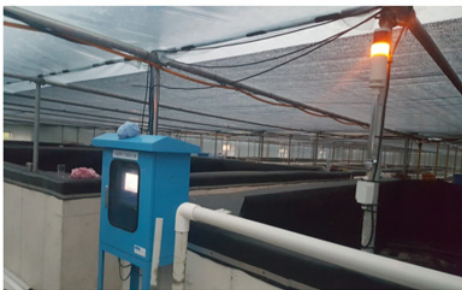
### 》 AI, 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태안군 수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

- 스마트양식 기술을 활용한 태안군의 수산분야 혁신산업 기반 구축 및 최초 내륙형 어류 스마트양식이라는 선도 이미지 구축
- 스마트 양식단지 및 스마트 가공산업을 통해 갑각류에 대한 생산·가공·유통 집적효과를 제고시키고, 수산물 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참고사례

### 〈함평천지새우 바이오플록 새우양식장 스마트 양식 적용 사례〉

- 함평천지새우는 최근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바이오플록 새우양식장에 수질모니터링 및 알람 시스템 등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일부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사용
- 부유물이 극도로 높은 바이오플록의 용수 내에서도 센싱 부위를 자동으로 세척하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센서의 유지보수를 자동화함으로 측정오류를 최소화한 사례
- 호지별 DO, pH, 수온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알람을 올려주는 시스템으로 바이오플록의 불안정한 수질환경 속에서 새우의 급이조절과 수질관리를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평가



자료 : KIMST(2019), 아쿠아팜 4.0혁신기술개발사업 기획보고서

## 참고사례

### 〈해양수산부 아쿠아팜 4.0 추진전략〉

- 해양수산부,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전통산업인 수산양식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ICT 신기술을 융합하여 혁신적 원가절감과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을 도모하는 ‘아쿠아팜 4.0 실행계획’ 발표
- 그동안 육안 관측과 경험에 의존해 온 수산양식 분야에 ICT 기술을 융합할 경우 종자·사료·기자재 등 연관산업 개발 혁신에 속도를 더하고, 데이터 기반의 최적관리로 양식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국내외 시장의 성장가능성도 큰 것으로 평가
- 정부는 양식산업의 전체 가치사슬을 디지털 데이터로 연결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양식기술 혁신, 양식현장과 연계한 기술 확산, 국내·외 시장 창출 등을 추진하여 국내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추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제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2019.9.27.일자

## ③ 외해 가두리양식 기반구축

### (1) 배경 및 필요성

≫ 내만(內灣) 중심의 양식은 소규모의 영세형태 및 과밀화에 따른 자가 오염으로 적조 등에 의한 양식생물 대량폐사가 빈번하게 발생

- 최근 주요 양식 선진국은 내만중심 양식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육상양식과 외해양식으로 생산체계를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외해양식시설을 도입 추진
  - 노르웨이 살마사(SalMar ASA)의 오션팜1(Ocean Farm 1)은 연구시험용 연어양식 면허 1호를 취득한 생산·연구 복합시설로, 모두 8개의 면허를 통해 연간 150만 마리의 연어를 양식할 수 있으며, 특히 플랜트 1기당 2만여 개의 IoT(사물인터넷) 기반 센서를 장착할 수 있어 양식 생산 공정의 자동화 및 스마트화 실현<sup>138)</sup>
  - 최근 중국은 선박, 플랜트(외해 해저에 시설을 고정시켜 운영)를 활용한 외해양식 기술을 개발 중이며, 외해플랜트 양식장 5기(직경 139m) 발주(총 1,600억 원)<sup>139)</sup>
- 외해양식은 오염원이 없는 청정 과산화수소수가 충분하고 적절한 조류로 인해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어류 및 사료 폐기물이 주변 해역에 오염을 일으키지 않아 폐사의 위험이 낮으며, 공간적 활용이 매우 높음
- 태안군이 위치한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며, 수심이 얕음으로 인하여 어류양식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외해 양식기술이 도입될 경우 생산 조건의 불리함 극복 가능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19), 수산혁신 2030 계획
- 해양수산부(2021),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중기(2026~2030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량 : 1식
- 사업지 : 태안군 외해 및 안흥항 일원
- 추진주체 :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태안군, 민간기업
- 사업비: 800억 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15%, 민간 20%)

138) 김임권, '수산의 미래 양식산업, ③ 해외 수산양식 동향', 한국수산신문사, 2018.5.8.일자.

139) 해양수산부(2019), 수산혁신 2030 계획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800						800	
국비	400						400	
지방비	도비	120					120	
	군비	120					120	
민간	160						160	

#### (4) 주요 사업내용

≫ 외해 가두리 양식 확대를 위한 실증 R&D 개발 및 외해양식 전문교육 시설로 활용 가능한 태안 외해양식 실증시설(테스트베드) 구축

- 서해안은 낮은 수심과 태풍 등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외해 양식 플랜트를 체계를 확보하여 외해양식을 통한 어류양식 기반 확보
- 주요 외해양식 품종(참다랑어, 연어, 바리 등)중 태안해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정하고 신품종 발굴을 통해 미래양식 성장 동력 확보

≫ 외해양식과 연계된 육상거점(어항)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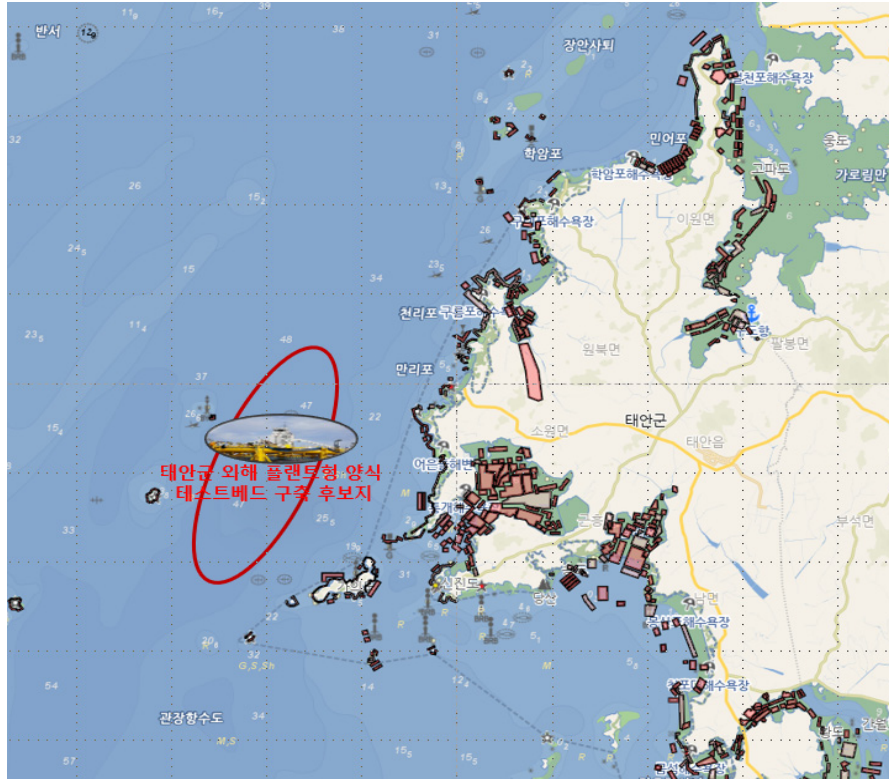
- 외해양식 생산, 가공, 유통 등 연관산업이 집적된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지역어항을 활용한 육상지원 거점 구축
  - 태안군에서는 국가어항(모항항, 안흥항) 중 수산업 관련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안흥항을 거점으로 조성 필요
- 종자(치어), 사료, 가공·유통 등 외해에 조성된 가두리 양식장에 공급 되는 기초 원자재와 생산된 양식 수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육상시설을 구축 필요

#### (5) 기대효과

≫ 외해양식은 어항에 위치한 육상지원 시설이 필요하며, 이를 중심으로 지역 연계산업과 동반성장 가능

- 가공 및 원자재 지원 시설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육상 양식 지원 시설과 연계하여 산업 집적효과 발생 가능
- 외해양식 실증 및 연구 시설을 활용하여 관련 기자재 시장진출 가능

- 외해 양식시설의 실증을 통해 어류양식 기반이 약한 태안군의 어류양식 선도 이미지 확보



〈그림 4-41〉 태안군 외해 양식 테스트베드 후보지(안)

#### 4 수산식품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 (1)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혁신 방안을 마련하면서 FPC(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 건립 등을 통한 新수산물 유통망 구축 추진<sup>140)</sup>

- FPC는 산지에서 수산물을 집적하여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거점유통시설
  - 新수산물 유통망은 '산지 위판장 → 산지거점유통센터(FPC) → 소비자분산물류센터(FDC) → 소비자'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고품질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생산 및 유통 단계의 고부가가치화 도모
- 해양수산부에서는 2022년까지 현재 5개소인 산지거점유통센터를 10개소까지 확대 추진
  - 현재 강원(속초시수협), 제주(한림수협), 전남(완도금일수협), 경북(경주시수협), 경남(고성 해송수협), 인천(경인북부수협), 강원(강릉시수협), 전남(장흥스마트팜), 충남(보령수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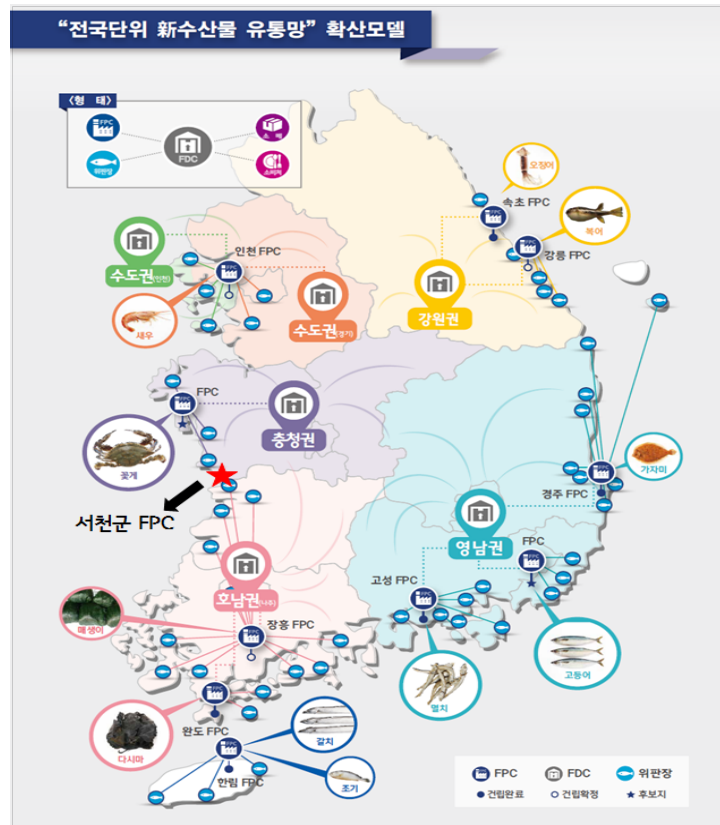
140) 해양수산부(2018),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안)

≫ 태안군에서는 해삼을 주력품목으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가 구성되어 있으며, 태안 농·수산물 통합 로컬푸드 직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

- 태안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산물 500여 품목과 수산물 100여 품목을 함께 판매하는 전국 최대 규모·품목의 농수산물 통합 로컬푸드 직매장
- 로컬푸드 직매장과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와 연계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우수사례

≫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설립을 통한 지역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 지역 수산물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수산식품 상품을 만들어 어업인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그림 4-42〉 전국 新수산물 유통망 확산 모델

자료: 해양수산부(2018),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안)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18),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2018~2022)
-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물발전계획
- 충청남도(2020), 수산물 유통·홍보·수출 발전 기본계획(2020~2024)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기(2023~2025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량 : 1식
- 사업지 : 태안군 내 어항 (안흥항, 모항항 등)
- 추진주체 :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태안군, 수협
- 사업비 : 60억 원 (국비 40%, 도비 15%, 군비 15%, 자부담 30%)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60			20	20	20		
국비	24			8	8	8		
지방비	도비	9		3	3	3		
	군비	9		3	3	3		
민자	18			6	6	6		

### (4) 주요 사업내용

#### >> 최신 수산물 소비트렌드에 부합하는 수산식품 공급을 위한 FPC 설립

- 충남도내의 약 50%의 수산세력을 보유하고 있는 태안군이 수산물 유통관련 전처리시설 부족
- 최근 수산물 소비트렌드는 1인가구 증가, 간편식 선호 등을 인하여 밀키트(meal kit)와 같은 간편조리식을 선호하는 추세
- 태안군에서 전처리 시설을 갖춘 FPC 설립으로 지역 수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소비촉진 기여

#### >> 태안군이 생산하는 대표 수산물을 중심으로 운영 필요

- 태안군의 주력 수산물인 꽃게, 우럭 등에 대한 전처리 시설 도입
  - 특히 꽃게는 충남 대표 수산물로 선정되어 있어 충남도와 연계·협력 가능
  - 해양수산부가 공표한 '전국단위 新수산물 유통망'에서는 충청권은 '꽃게'가 FPC 건립 후보지였으나, 현재 충청권에서는 꽃게 대상 FPC 미건립 (보령 FPC는 대구, 키조개)

- 최근 태안지역에서 생산되는 반건조 우럭도 높은 상품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HACCP 시설 등이 부족하고, 소량생산에 따른 낮은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FPC 설치를 통한 개선 가능
- 꽃게탕, 우럭탕 등을 밀키트로 제작 가능하며, 표준화된 포장과 적절한 가격이 형성될 경우 이마트, 롯데마트 등으로 납품 가능

≫ FPC 사업을 官(해수부, 충남도, 태안군)과 협력하여 民(지역수협)이 주도해서 추진해야 하므로, 지역수협의 협력 필요

- 태안군 3개 지구수협(서산수협, 안면도수협, 태안남부수협) 중 희망하는 수협이 추진하거나, 3개 수협이 협력하여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양수산부,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품질위생형 위판장(H-FAM)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5) 기대효과

≫ 최신 수산물 소비트렌드에 대한 대응을 통하여 지역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 꽃게, 우럭, 주꾸미, 멸치, 오징어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전처리 및 유통 시설을 구축하여 고부가가치화 추진
- 지구수협 중심의 운영을 통한 생산자 조직화로 급변하는 수산물 소비트렌드에 능동적 대응 및 경쟁력 확보
- FPC 설립으로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상품화 과정의 투명성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 ⑤ 해양관광형 특화거리 조성

### (1) 배경 및 필요성

#### ≫ 국도 77호선 연장에 따른 충남 서해안권 관광지도의 변화 예상

- 국도 77호선(영목~원산도~대천)을 잇는 해상교량(영목~원산도) 및 해저터널(대천~원산도) 건설 중
  - 원산안면대교는 2019년 12월에 개통되었고, 해저터널은 2021년 6월 개통 예정
- 국도 77호 개통에 따라 태안과 보령 지역의 해양관광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군차원의 대비
  - 태안군에서는 영목항 전망대를 건설하고, 활성화 프로그램(우력학교) 운영 계획
  - 전망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조례제정 검토
  - 연륙화로 인한 관광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력 강화 추진

#### ≫ 연륙교 등을 통하여 태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소비의 기회’ 제공 필요

- 태안 남면에 위치한 ‘태안 로컬푸드 직매장’은 영목항과의 지리적 거리로 인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미흡
- 영목항 인근에 관광객이 소비할 수 있는 관광형 수산시장을 개설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제공 필요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태안군, 영목항 전망대 건설
- 태안군, 연륙화로 인한 관광트렌드 대응력 강화
- 태안군, 미래 태안을 여는 청년몰 조성사업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기 (2022~2024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량 : 1식
- 사업지 : 고남면 영목항 및 인근
- 추진주체 : 태안군
- 사업비 : 60억 원 (군비 67%, 자부담 33%)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60		15	15	15	15		
국비								
지방비	도비							
	군비	40	10	10	10	10		
민자	20		5	5	5	5		

#### (4) 주요 사업내용

##### ≫ 원산안면대교가 끝나는 지점 부근에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소비·관광형 특화거리 조성

- 지역의 대표 농수산물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간단한 먹거리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즐거움 제공
- 영목항 전망대와 연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하여 태안의 새로운 상권으로 자리매김
- 영목항이 단순히 거쳐가는 공간이 아닌 잠시라도 머무는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특화거리 조성<sup>141)</sup>
  - 강릉 안목항 커피거리 : 카페가 늘어난 특화거리로서 커피를 테마로 하여 많은 관광객 유입
  - 통영 강구안 거리 : 벽화가 유명한 동피랑과 함께 꿀빵이 유명하여 볼거리와 먹거리를 함께 제공
  - 일본 시모노세키 카라토 수산시장 : 수산물 도매시장이나, 초밥,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시장으로 변모하여 많은 관광객 유입

##### ≫ 영목항 인근을 태안(안면도)의 맛을 보여주는 거점 관광지로 조성

- 영목위판장을 중심으로 가상 경매체험이 가능한 공간과 수산물 직판장을 조성하여 볼거리·먹거리 제공
  - 매일 정해진 시간에 경매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의 명물로 육성
  - 관광객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저렴한 가격에 주변 식당에서 신선한 수산물로 식사가 가능하도록 지원
  - 지역상권과 연계한 수산물 직매장을 조성하여 관광객이 손질된 수산물을 구매하여 갈 수 있는 소비기회 제공 (※ 해당 산업은 지역상권과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 필요)

141) 김종화 외(2018), 서천군 해양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동일)



- 영목항 주변 주차장이나 공터를 활용하여 푸드트럭(포장마차) Zone 지정·운영
  - 태안군에서 추진 중인 '청년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간단한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트럭 Zone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 제공
  - 주변상권과 판매상품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섭취할 수 있는 식·음료 중심으로 판매
  - 郡차원에서 입점업체를 선정·관리하고, 지역사회에 일정부분 기여 의무 부여



〈그림 4-43〉 여수 낭만포차 전경

자료: 네이버 블로그, 낭만 따라땀다요미, 「<https://blog.naver.com/innaui/222234192151>」

- 고남면 일대 농가와 연계하여 커피나무 재배용 온실을 조성하여 상징성을 부여하고 관광농원, 커피거리 형태로 운영하여 관광객 유인
  - 국민 대다수가 선호하는 커피온실을 고남면에 조성하고, 바리스타 체험, 커피나무 수확체험 등 다양한 영농체험 프로그램 개발
  - 고남면에서 수확한 커피를 태안군 카페에 보급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상품(농산물)으로 개발 (브랜드 예시 : 고남커피)
  - 영목항 주변의 주차장 또는 공터를 활용하여 간이 커피거리(푸드트럭 중심)를 조성하되, 향후 성패에 따라 민간투자 가능
- 고남면 주변상권과 함께 하는 자체적인 상권 활성화 기회 제공
  - 지역상권이 관광객을 맞이하여 고품질 서비스와 상품(음식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교육 및 경영마인드 교육 실시
  - 지역상권과 푸드트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협력하기 위한 체계(조직) 구축
  - 전망대와 연계한 포토존, 경관조명 설치, 조경수 식재 등 노력 추진





〈그림 4-44〉 강릉 강문 해변 포토존

자료: 네이버 블로그, 고문헌사랑, 「<https://blog.naver.com/kjchol123/222133275207>」

#### 》 기존 태안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연계방안 모색

- ‘미래 태안을 여는 청년몰 조성사업’을 영목항으로 배치하여 관광객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푸드트럭, 포장마차 거리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에 볼거리, 먹거리 제공
- 신해양 광개토사업 ‘CITTASLOW 커피산업 복합단지’ 사업과 연계하여 커피특화거리 조성
- 영목항 전망대 건설사업 중 ‘(가칭)우럭학교’와 연계하는 체험거리 제공

#### (5) 기대효과

##### 》 충남 서해안의 새로운 관광지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영목항이 거쳐가는 공간이 아닌 머무는 공간으로 재편하여 주민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영목항 이미지를 구축하여 지역발전 기반 마련
- 관광객에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여 서해안 대표 해양관광지로 발돋움



〈그림 4-45〉 일본 시모노세키 카라토 수산시장

주 : 카라토 수산시장에서 초밥을 파는 모습(좌)과 초밥을 먹는 관광객 모습(우)

원자료 : 네이버 블로그(온화한 이야기), 「<https://blog.naver.com/travelushuaia/221337360902>」

자 료 : 김종화 외(2018), 서천군 해양산업 발전 기본계획, 충남연구원.

## 6 지역브랜드 격비꽃게 육성

### (1) 배경 및 필요성

#### ≫ 최근 충청남도는 꽃게를 대표 수산물로 선정하여 대대적인 육성계획 발표

- 충남 꽃게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서해안 꽃게는 맛과 영양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며, 연안지역 대부분에서 생산
- 태안군의 대표 수산물은 꽃게 외에도 전복, 바지락, 해삼, 주꾸미 등이 있으며, 이 중 꽃게는 태안을 대표하는 수산물이자 계국지, 꽃게장, 꽃게탕 등 지역 향토음식으로 발전

#### ≫ 최근 최서단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계획 추진<sup>142)</sup>

- 우리나라 영해기점 23곳 가운데 하나로서 ‘서해의 독도’라고 불리는 곳
- 서해의 대표적인 황금어장이면서 중국과 인접하여 지리적, 군사적 요충지
-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은 타당성 조사 및 항만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2022년 지정 전망

#### ≫ 우리나라 최서단으로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홍보 필요

- 격렬비열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대국민 홍보하기 위하여 충남(태안)이 대표 수산물인 꽃게를 활용
- 격렬비열도에 대한 홍보와 함께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운동을 함께 벌여 시너지 효과 창출

142) 유진환,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KBS, 2020.11.7.일자(이하 동일)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충청남도(2019), 도어 제정 및 해양문화 캐릭터 육성 연구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기 (2022~2025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량 : 1식
- 사업지 : 태안군 전역(격렬비열도)
- 추진주체 : 충청남도, 태안군
- 사업비 : 20억 원 (도비 60%, 군비 40%)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20		5	5	5	5		
국비								
지방비	도비	12	3	3	3	3		
	군비	8	2	2	2	2		
민간								

## (4) 주요 사업내용

### >> '격비꽃게' 브랜드 개발 및 프로모션 진행

- 격비꽃게 브랜드를 개발하고, 대국민 홍보 프로모션 추진
  - 격비꽃게 캐릭터 개발, 홍보책자 개발, 대중매체(TV, 라디오, 지하철 등) 홍보
- 격렬비열도의 상징성을 표현하는 꽃게 향토요리 개발
  - '독도새우'와 같이 격렬비열도의 상징성을 부여한 꽃게 향토요리 개발
  - 주재료인 꽃게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산물을 부재료로 활용하여 태안의 지역성 강조
  - 격렬비열도에서 어획한 꽃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꽃게 요리로 격렬비열도 형상
  - 태안군 내 식당에서 격비꽃게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메뉴 개발 및 전파
- 태안에서 개최되는 해양레저·스포츠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

- 무동력 패들(카약, 카누 등) 격렬비열도 챌린지 등 행사와 결합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 요트, 서핑 등의 국제행사와 연계하여 국제적인 홍보효과 제고

≫ ‘격비꽃게’가 지역브랜드로 발전하기 위하여 충남도와 적극적으로 협력

- 격렬비열도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충남 대표 수산물 꽃게로 표현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
- 본 연구에서 제안한 FPC 설립과 함께 연계하여 추진하여 수산물 유통·소비정책의 일관성 제고

(5) 기대효과

≫ 격렬비열도와 꽃게의 상징성을 결합하여 지역브랜드 개발

- 우리나라 최서단 격렬비열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효과를 제고시키고, 태안 대표 수산물 꽃게의 소비촉진을 동시에 함으로써 시너지효과 창출 가능
- 충남도가 대표 수산물로 꽃게를 지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함으로써 태안꽃게 이니셔티브 강화



〈그림 4-46〉 꽃게(좌)와 격렬비열도(우)

자료(좌) : 김기룡·민형관, '충남 대표 수산물 꽃게 선정', 신아일보, 2019.10.7.일자.

자료(우) : 객남희, '충남 최고 서쪽 끝 섬, 격렬비열도의 아름다움', 뉴스티엔티, 2020.11.17.일자(원자료 : 충청남도 제공)

## 7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프로그램 개발

### (1) 배경 및 필요성

≫ 최근의 관광트렌드는 웰니스(wellness)의 영향으로 휴식·휴양, 체험·여가 등으로 다양한 수요 발생

- 관광객들은 낚시, 어촌(갯벌)체험 등 이색적인 경험을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함
- 그러나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주로 갯벌체험) 중심으로 관광객의 요구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관광객의 재방문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충남의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총 10개소이고, 이 중 태안군은 4개소

-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충남도내 어촌체험휴양마을은 태안 4개(대야도, 병술만, 만대, 용신), 보령 4개(무창포, 장고도, 삽시도, 군현), 서산 2개소(중리, 웅도), 서천 2개소(월하성, 선도리)
  - 태안군 어촌체험휴양마을 4개소 중 대야도와 만대 마을은 어촌뉴딜 사업 대상지로도 선정
- 충남도뿐만 아니라 태안군도 어가 수, 어업인구, 수산세력과 비교하여 군내 가용 가능한 체험공간과 시설이 부족한 상황

≫ 충남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특색있는 체험 프로그램 필요

- 현재의 갯벌체험 중심의 어촌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관광객 유입 및 성장의 한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진일보한 발전 필요
  - 전국에 총 113개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있고 비슷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경쟁력 확보 필요
- 모빌리티,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조성 필요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해양수산부(2019), 수산혁신 2030 계획
- 해양수산부(2021),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기(2021~2025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량 : 4식
- 사업지 : 태안군 어촌체험휴양마을
- 추진주체 : 태안군
- 사업비 : 4억 원 (군비 100%)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4	-	1	1	1	1		
국비								
지방비	도비							
	군비	4	1	1	1	1		
민자								

### (4) 주요 사업내용

#### >> 각 어촌체험휴양마을 특성을 고려한 특화프로그램 개발

- 태안군 4개 어촌체험휴양마을별로 특화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테마형 어촌체험휴양마을로 발전 촉진
  - 대야도 마을(안) : 문화·예술이 넘치는 심미적 감성의 체험마을
  - 병술만 마을(안) : 누구나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족단위 체험마을
  - 용신 마을(안) : 안흥항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먹거리 체험마을
  - 만대 마을(안) : 해상 모빌리티를 즐길 수 있는 활기찬 체험마을
- 육상 및 해상 모빌리티를 즐길 수 있는 체험마을 조성
  - 대야도 마을(안) : 육상 모빌리티를 이용하여 마을을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
  - 만대 마을(안) : 해상 모빌리티를 활용하여 해양레포츠가 가능한 프로그램
  - 두 마을 현재 어촌뉴딜 사업지로서 각 육상 및 해상 모빌리티 구축 중



## >> 지역의 관광여건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전략적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도 77호선 연장(영목~원산도~대전)에 따른 숙박형 체험프로그램 개발
  - 마을 내 펜션, 민박 등과 연계하여 부족한 숙박문제를 해결하고, 관광객이 주민들과의 실질적 교류를 통한 재방문을 향상
  - 실제 어촌주민들이 거주하는 집에서 생활하는 주민참여형 민박을 관광객에게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어촌체험보다 더 현실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을 관찰하고 동참하게 하여 어촌다움을 느낄 수 있는 어촌체험 가능<sup>143)</sup>
  - 태안군내 여러 관광시설(전망대, 관광농원 등)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태안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과의 연계방안 모색
  - 태안 남면에 조성 중인 해양치유 시범센터의 지구별 거점으로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용
  - 센터에서 운영하는 일부 프로그램과 테라피 요법, 장비 등을 공유하여 관광객에게 제공
- 최근 관광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VR, AR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sup>144)</sup>
  -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해당 어촌마을의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지(안흥항, 안흥성, 해수욕장, 석양경관 등)를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가상체험기술 도입
  - 4D 상영관을 설치하여 어촌체험휴양마을의 특색있는 역사와 생활상 소개
  - 태안군 각 어촌체험마을별로 VR·AR을 접목시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 제공

## (5) 기대효과

### >> 최근 관광트렌드에 부합하는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프로그램을 통한 관광객 유입

- 기존 갯벌체험 프로그램에 더하여 관광객 수요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어업외 소득 향상 기여
- 어촌체험휴양마을을 郡의 핵심 관광기반으로 육성하여 지역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제공

143) 김중화 외(2018), 서천군 해양산업 발전 기본계획, 충남연구원.

144) 김중화 외(2018), 서천군 해양산업 발전 기본계획, 충남연구원(이하 동일)

## 참고사례

### 〈일본 나가사키 오지카(小値賀) 투어리즘〉

- 일본 규슈지역 나가사키에 위치해 있는 오지카 마을은 섬 주민들의 육지로의 이주가 잦아지면서 인구가 급감하면 주민들 스스로 어촌관광을 통한 섬 경제활성화 도모
- 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어촌체험 강사 및 해설사 등을 참여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섬의 특성 상 관광객이 숙박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여 주민들의 집에서 민박을 할 수 있도록 숙박 제공
- ‘오지카 아일랜드 투어리즘’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어촌관광을 추진하여 비교적 체계적인 운영체계 구축



자료 : 오지카(小値賀) HP, 「<https://ojikajima.jp/travel>」

## 8 어촌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 (1)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어촌지역의 과소화,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공동체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

- 어촌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민주도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 마련이 요구



- 향후 문화복지 등 어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상대적으로 소외된 어촌지역에 대한 불균형, 불평 등의 문제를 해결 필요
- 특히, 최근 ‘자치분권’ 정책에 따른 마을만들기사업 지방이양 등에 대응한 태안군만의 농어촌 정책 마련 필요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충청남도(2016), 충청남도 어업·어촌 중·장기 발전전략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중기 (2021~2030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량 : 4식
  - 어촌마을만들기 추진, 한계마을정책 추진, 찾아가는 문화·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어촌마을연금제도 운영
- 사업지 : 태안군 어촌마을
- 추진주체 : 태안군, 어촌마을주민
- 사업비 : 50억 원 (군비 100%)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50	5	5	5	5	5	25	
국비								
지방비	도비							
	군비	50	5	5	5	5	25	
민자								

## (4) 주요 사업내용

### 》 주민주도의 맞춤형 어촌마을만들기 및 차별화된 한계마을정책 추진

- 침체된 어촌마을을 중심으로 내생적 발전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각 마을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을 통하여 어촌공동체 활성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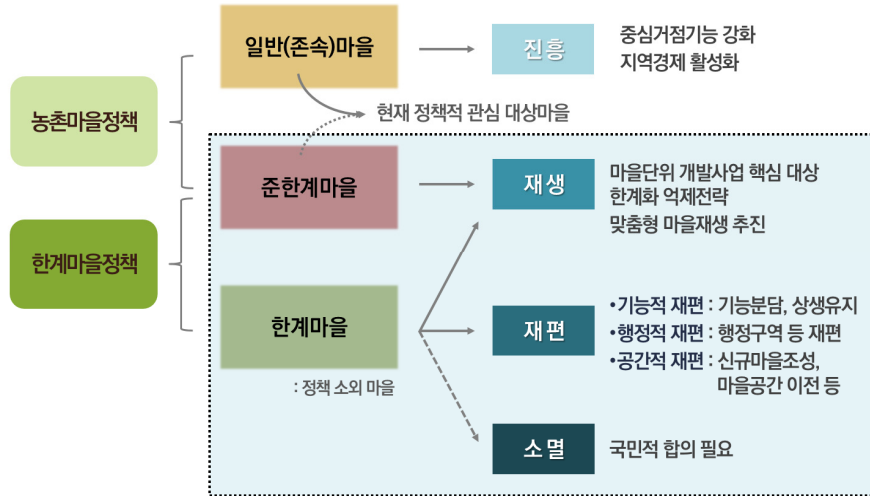
- 마을만들기 사업 지방이양과 함께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마을학교(현장포럼 등)를 운영하여 마을발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도모하고, 각 역량 단계별로 체계적 마을육성 추진
- 그동안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마을만들기를 어촌마을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지역의 우수한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태안군 연안마을로 확대 추진



〈그림 4-47〉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추진체계

자료: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2017), 지도로 보는 충남 마을만들기 행정사업

- 과소화·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내발적 역량이 한계에 달한 어촌마을에 대하여 차별화된 ‘한계(限界)마을정책’ 추진
  - 과소·고령마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생 가능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 등을 통한 재생을 도모하고,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능적·행정적·공간적)재편 방법 검토
  - 기능적 재편: 인근 마을 등 복수의 마을을 묶어 상호협력과 상호보완의 관계 속에서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
  - 행정적 재편: 행정구역 개편 등을 통한 커뮤니티 재편
  - 공간적 재편: 신규마을 조성, 마을공간 리모델링 또는 마을이전 등을 통한 커뮤니티 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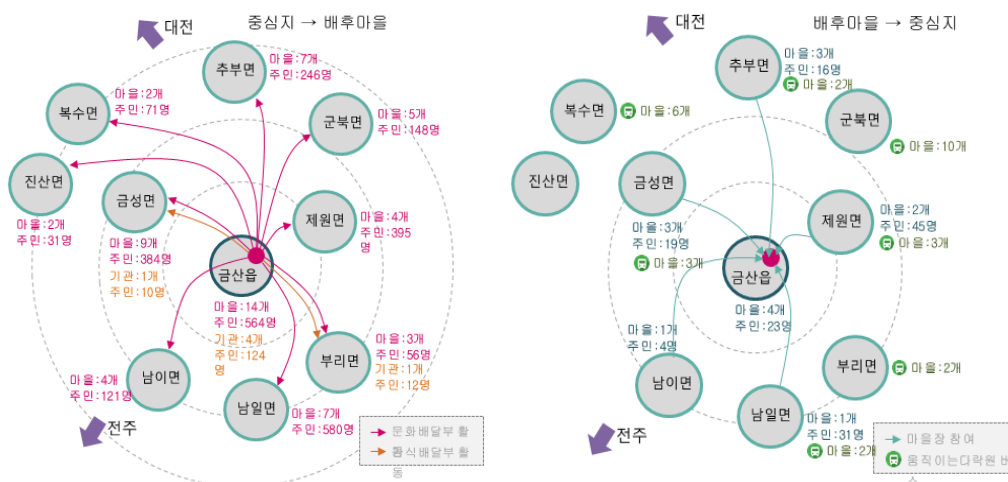


〈그림 4-48〉 한계마을정책 기본 틀 예시

자료: 서천군(2018), 서천군 한계마을 실태분석 및 유형별 정책 대응방안

## 》 찾아가는 문화·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쇠퇴하고 소외된 어촌마을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촌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도모
  - 귀농·귀촌·귀어인의 재능기부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한글강좌, 건강관리, 원예·미술·문화강좌 등을 마을로 직접 찾아가서 진행
  - 또한 사회복지사, 요양관리사 등 역량이 있는 인적자원을 육성하여 독거노인 케어, 영유아 돌봄, 장애인 케어 등 복지 및 의료 서비스 확대



〈그림 4-49〉 금산군 문화배달부 활동 사례

자료: 금산군 내부자료

## >> 태안군 어촌마을연금제도 안정적인 정착 및 확산

- 고남면 만수동어촌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을연금제도’ 모델을 태안군 전체로 확대
  - 만수동 마을 주민은 ‘어촌계 연금제도’를 통해 어촌계 총원 96명 중 노동력을 상실한 21명을 제외한 75명이 공동 생산한 총액의 30%를 수혜자에게 균등 배분<sup>145)</sup>
  - 연금대상자는 80세 이상 고령자, 장기 입원환자, 장애 판정자 등 자력으로 수익 활동이 어려운 어촌계원이며, 현재 계원의 22%인 21명에게 연간 1인당 약 300만원(월20~30만원 상당)이 연금형태로 지급<sup>146)</sup>
  - 마을연금제도 모델을 태안군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농민수당 등 기본소득제도를 검토하여 태안군 어촌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촌 기본소득 도입 추진
  - 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확대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 선정기준, 기본소득 금액 및 지급기간, 지급 조건, 자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진행
  - 초기에는 과소화·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이후 전체 마을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불균형과 불평등의 문제를 완화시키고 어촌 마을로의 인구유입의 잠재적 여건 마련
- 충남 농어민수당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어촌마을 내 수익을 통하여 자체적인 연금제도 운영 유도
  - 필요 시, 충남도와 협의하여 일정금액 보조 추진

## (5) 기대효과

### >> 어촌마을 인구감소 시대에 내생적 발전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제고

- 본격적인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어촌마을 여건 조성
- 쇠퇴하고 침체된 어촌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와 함께 내생적 발전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활성화 도모

145) 이희득, ‘태안군 고남면 만수동어촌계, 전국 최대 마을연금제도 운영, 중부매일, 2019.6.24.일자.

146) 이희득, ‘태안군 고남면 만수동어촌계, 전국 최대 마을연금제도 운영, 중부매일, 2019.6.24.일자.

## 참고사례

### 〈태안 만수동 마을〉

- 만수동 마을은 안면도 끝자락인 고남면에 위치하였으며, 굴, 바지락, 해삼, 갑오징어 등 다양한 수산물 생산되고 있으며, 국도 77호선 연장으로 원산안면대교가 연결되어 앞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마을
- 만수동 마을은 2016년 6월부터 은퇴한 고령의 어르신과 자력으로 어업활동 불가능한 계원들에게 어장수익금 중 일부를 분배하여 마을연금제도를 추진 중이고, 판매수익의 30%를 연금으로 적립
- 현재 마을에는 56가구가 있으나, 마을연금제도 운영 후 12가구가 귀어·귀촌하는 등 성과도출
-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18년 ‘우수 어촌특화 역량강화마을’ 대상, 2019년 ‘어울림 마을 콘테스트’ 대상 수상



자료 : 이병성, '위드 코로나 시대, 다시 마을이다 <4> 태안 만수동마을 어촌계', 한국농어민신문, 2020.12.30.일자.

## 5. 포용적 교류도시

### 1) 현황 및 여건

≫ 태안은 123만 명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유류유출사고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해양환경 복원의 메카와도 같은 지역

- 해양환경오염 극복에 대한 상징성이 큰 지역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유류피해극복 기념관이 건립될 정도로 상징성이 큰 지역

≫ 태안은 해양쓰레기가 국외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수산업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사회문제로 대두

- 태안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는 중국의 약 93.5%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

≫ 부산과 인천, 제주 등 기존 알려진 해양도시는 규모 및 자원 등 대형화 되어 있으며 배후도시 포함

- 특색 있는 지역의 자원도 매우 중요하나, 그 규모와 인구, 시설 등 해양도시를 구성하고 요소들이 충분하게 구축
- 태안은 해양도시로서 충분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으나, 해양도시로의 성장을 위하여 규모와 인구, 시설 등 기본적인 요건들은 지속적으로 구축 필요

≫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통합 신해양도시 추진으로 실효성 있는 계획 추진 필요

- 해양도시로서 지역발전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수용 필요
-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실효성 제고 가능

≫ 태안의 서해안 유류오염 유출사고는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자원봉사의 독보적인 사례

- 태안군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유출사고로 전국적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음
- 전 세계적인 해양환경 분야 자원봉사활동의 메카로 발돋움 필요

≫ 태안군은 2007년 서해안 유류오염피해 사고를 통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 및 체계적 관리 필요성 체감

- 태안군내 각 지역들은 지난 2007년 유류피해극복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관리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당시 한계의 극복을 위한 체계화 필요성에 공감
- 유류오염피해 극복을 위하여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관리, 통제와 봉사자들의 안전·보건사고, 자원봉사증명서 및 접수관리 등에 대한 한계 경험

#### 》 태안은 사회적기업 3개, 마을기업 9개 보유하여 사회적경제 기반 취약

-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소득을 높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를 해양수산 분야에서 육성하여 주민 모두 함께 잘 사는 기반 마련
- 지역의 해양레포츠, 수산·어촌, 먹거리 자원을 활용한 해양수산 융·복합 사회적기업 육성 촉진

#### 》 서해안 국도의 단절구간 연결로 국가무역항, 서해안 산업물류시설,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서해안 남북교통축 형성 필요

- 가로림만 단절구간 연계로 국가무역항(대산항), 관광지(안면도, 천수만) 접근성과 연계성 향상
- 태안~보령~서산(국도 77호선, 국도 38호선) 사업과 연계하여 충남에서 수도권까지 막힘없는 산업·관광 교통축 형성

#### 》 본격적인 인구감소시대 도래와 함께 지방소멸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 향후 태안군의 잠재력과 자원을 활용한 적극적인 귀어·귀농·귀촌 정책을 전개가 필요하고, 지역의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잠재적 인구유치

## 2) 추진방향

#### 》 추진방향 : 소통과 교류를 통한 환황해권 글로벌 해양도시로 성장

- 서해안의 해양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국제적 소통과 교류의 장 마련
- 해양환경 문제의 역사적 업적을 계승하여 청정 해양도시로서 위상 강화
- 주민들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활기찬 해양도시로의 기반 구축
- 지역 공동체 복원 및 정주환경 개선, 인구유치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 추진목표 : 충남 서해안을 넘어 환황해권 대표도시로서 위상 강화

- 환황해권 신해양도시로서 중국과의 해양환경 교류 확대



- 태안과 지리·경제적 여건 비슷한 소도시 중심의 해양도시협력회의 주도
- 주민들의 참여와 수용력을 높을 수 있는 신해양도시 지구계획 수립
- 해양 자원봉사활동의 성지로 평가받고 있는 태안의 위상 제고 및 해양 자원봉사체계 구축
- 태안만의 고유한 해양수산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촉진
- 국도연결, 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한 신해양도시로의 발전기반 구축
- 적극적인 인구 유치정책을 통한 태안군의 미래 성장기반 구축

### 3) 세부사업

#### ① 서해안 해양환경 교류확대

##### (1) 배경 및 필요성

≫ 태안은 123만 명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유류유출사고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해양환경 복원의 메카와도 같은 지역

- 해양환경오염 극복에 대한 상징성이 큰 지역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유류피해극복 기념관이 건립되었으나 상징성을 국제적으로 강화 노력

≫ 태안은 해양쓰레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항·포구, 해안가, 수중에 적치되는 심각한 해양환경 문제에 노출된 지역

- 매년 해양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처리 및 수거지원사업에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지역
- 2020년 6천 톤의 해양폐기물 수거를 목표로 약 74억 원 예산투입 예정
- 2022년까지 근흥면 도항리 일대에 해양쓰레기 광역전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

≫ 국외에서 태안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경우 중국의 약 93.5% 차지

- 2015~2019년 동안 국외에서 충남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유입되며, 태안 역시 마찬가지 상황
- 전체 해양쓰레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으로 아주 크지는 않으나 국제협력을 통해 해양 쓰레기 발생량을 저감시킬 경우 매년 수백톤 규모의 저감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최근 중국의 지방정부와 NGO 단체 역시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중국은 지방정부와 NGO가 협력하여 연안정화와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을 활발히 전



개 중

- 렌두 오션(rendu ocean)과 같은 NGO 단체는 2015-7년까지 14개의 동부 해안가 도시 정부와 협력하여 연안쓰레기 수거활동 및 쓰레기에 대한 정보파악 활동을 추진

》 태안군과 중국 연안에 위치함 도시정부와 해양쓰레기 문제 협력강화

- 태안과 중국 연안에 입지한 도시정부 모두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태안의 해양환경 복원의 상징성을 국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바, 태안-중국 지방정부 간 해안 환경 관련 국제협력 추진방안 모색
- 특히, 태안의 중점교류 파트너인 산둥성과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교류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태안은 현재 산둥성 타이안시(1997년, 자매교류), 평라이시(2016년, 우호교류)와 교류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두 도시와의 협력방안 검토 필요

(2) 관련 계획 및 사업

-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충청남도(2018),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기(2022~2025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량 : 1식
- 사업지 : 태안군 연안일대
- 추진주체 : 충청남도, 태안군, 충남도, 산둥성(평라이시·타이안시 정부), 중국 환경NGO(렌두 오션)
- 사업비 : 5억 원 (도비 30%, 군비 70%)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5		0.5	1.5	1.5	1.5		
국비								
지방비	도비	1.5		0.5	0.5	0.5		
	군비	3.5	0.5	1	1	1		
민자								

#### (4) 주요 사업내용

##### ≫ 태안 군민과 산둥성 평라이시, 타이안시 주민이 함께하는 ‘5월의 공동 연안정화활동’ 실시

- 현재 매년 9월 실시되고 있는 <국제연안정화의 날> 활동에 태안군과 산둥성 모두 참가 중
- 그러나 이는 태안과 평라이·타이안과의 협력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전 지구적인 차원의 활동
- 중국의 해양 환경 NGO단체인 렌두 오션이 진행한 모니터링에 따르면, 중국에서 해양 쓰레기 문제, 특히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시기는 5월
- 이 시기에 중국의 지방정부, NGO가 태안과의 협력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
- 매년 5월 평라이시, 타이안시의 환경 관계자와 시민, 중국 주요 NGO 단체 관계자를 태안에 초청하여 공동연안정화활동을 실시하고 관련된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
- 또한 위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태안과 평라이, 타이안이 매년 순차적으로 해당 활동을 기획, 주관하는 방안 추진

##### ≫ ‘협력도시 간 랜선 해양환경 투어’, ‘청소년 해양환경 외교관’ 사업 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력 경색이 심화된 상황에서, 대면 접촉을 전제로 하는 공동연안정화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불가능
- 위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태안, 산둥성 평라이, 타이안이 상호 지역의 해양환경 실태와 심각성을 온라인으로 파악하고 공동의 협력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단순히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닌, 태안과 산둥성 각 도시들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온라인 투어를 통해 느낀 소감을 화상을 통해 교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해양환경 외교관> 사업도 병행하는 것 검토 필요

#### (5) 기대효과

##### ≫ 해양환경 분야에서 환황해권 글로벌 리더 위상 확보

- 태안 환경협력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중국 도시들과의 실체화된 교류성과 도출
- 해양환경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 관광, 사회문제 등까지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 마련

## 참고사례

### 〈경북 구미시 자매도시 랜선 투어〉

#### ■ 구미시와 교류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해외 도시를 온라인을 통해 홍보

- 매년 7~8월이면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이 해외 또는 국내 여행을 떠났지만 올해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해외여행은 물론 외출까지 자제되는 상황이 지속
- 이에 구미시는 자매우호도시로 떠나는 랜선투어를 통해 시민들의 해외여행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자매우호도시를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
- 자매(우호)도시 소개 글, 일반현황, 사진, 홍보영상 등을 도시 별로 편집하여 구미시 SNS 공식계정에 게재
- 중국 장사 및 위남, 독일 볼프스부르크, 영국 맨체스터 등지와 해당 사업 실시하였으며 반응이 좋아 국내 지방정부 주요 비대면 교류사례로 채택



자료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2020), 한중 비대면 교류사례집

## 2 해양도시협력회의의 주도

### (1) 배경 및 필요성

≫ 부산과 인천, 제주 등 기존 알려진 해양도시는 규모 및 자원 등 대형화 되어 있으며 배후도시 포함

- 특색 있는 지역의 자원도 매우 중요하나, 그 규모와 인구, 시설 등 해양도시를 구성하고 요소들이 충분하게 구축
  - 더욱이 교통체계도 잘 구성되어 있어 관광객 및 기타 도시로서의 규모와 조건들을 충분하게 구축

≫ 신해양도시로서의 성장은 주변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하여 대형 해양도시와의 차별성과 함께 경쟁력 확보 필요

- 해양도시로서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도시가 지녀야 할 다양한 요건들의 충족 필수
  - 태안은 해양도시로서 충분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으나, 해양도시로의 성장을 위하여 규모와 인구, 시설 등 기본적인 요건들은 지속적으로 구축 필요

≫ 태안군이 해양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도시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해안 해양도시와의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자원과 시설을 공유하고 공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로서의 성장기반 조성 필요
  - 이를 위해 서해안 해양도시와의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가칭)해양도시협력회의’를 구성·운영 필요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기·중기 (2021~2030년)
  - 단기(~2025년)까지는 태안군에서 주도하되, 이후에는 타 지자체에서 주관하도록 유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량 : 1식
  - 정례적인 회의(연 1회)를 통한 각 지자체 소개의 장 마련
- 사업지 : 태안군
- 추진주체 : 태안군 및 서해안권 지자체
- 사업비: 9억 원 (군비 44%, 타 지자체 54%)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9		1	1	1	1	5	
국비								
지방비	도비							
	군비	4	1	1	1	1		
타 지자체	5						5	

## (4) 주요 사업내용

≫ 가칭 ‘충남해양도시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

- 태안군을 비롯해 서해안 지자체와 해양도시로서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 협의체는 태안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운영을 위한 각종 기반 조성
- 태안군과 비슷한 규모의 동일한 특성을 가진 서해안권역 소도시를 중심으로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연안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규모로 성장 모색

#### 》 해양도시로서 성장을 위한 지역개발의 방향을 공동으로 구상하여 지역의 경쟁력 확보

- 해양도시의 기본구상 및 전략들을 공유하고 함께 구상함으로써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 확보 필수
- 각 시·군의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지역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도 함께 포함시켜 협력체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 시설과 자원의 공유와 함께 공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양도시로서 규모와 요건 충족방안 모색

- 각 지자체의 시설과 자원의 공유방안과 공동프로그램의 운영방안을 개발하여 적용토록 운영
- 태안군과 함께 인근 지자체가 함께 해양도시로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주도적 역할 조직으로서 기능 수행

#### 》 해양도시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강화 방안 모색

- 지자체뿐만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개발을 위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사업 운영을 위하여 요구되는 역량 확보방안 강구
- 각 지자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해양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향후 포럼 형태로 발전 필요

### (5) 기대효과

#### 》 해양도시 위상과 규모 등 제반여건 조성을 위한 추진기구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체계적 지역개발사업 추진 가능

- 태안군과 서해안권역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해양도시로서 기반여건 조성 가능

## ③ 신해양 주민자치역량 강화

### (1) 배경 및 필요성

#### 》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을 비롯하여 통합적인 신해양도시 추진에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하여 주민주도형 실천계획 수립 필요

- 태안이 해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수용이 매우 중요
-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실효성 제고 가능

» 군민의 수요를 마을과 지역계획의 정책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 유지 필요

- 마을 및 지역의 의제를 함께 공유하고 숙의하여 결정함으로써 지역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력 확보
- 신해양도시로서 발전을 위하여 주민참여의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은 본질적인 주민자치의 실현 가능
- 주민 스스로 마을과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지원과 지속적 역량강화 필요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태안군(2019), 신해양광개토 사업 보고회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기·중기(2021~2025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량 : 1식
  - 신해양 주민역량강화 교육, 주민총회, 지구계획 수립 등
- 사업지 : 태안군 전역 (읍·면 단위)
- 추진주체 : 태안군 및 주민자치회
- 사업비 : 4억 원 (군비 100%)
  - 매년 2개 지구(읍·면) 선정하여 각 5천만 원 지원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4		1	1	1	1		
국비								
지방비	도비							
	군비	4	1	1	1	1		
민자								

#### (4) 주요 사업내용

##### >> 신해양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지구계획 수립

- 기존 주민자치회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신해양도시 취지에 부합하는 신해양 지구계획 수립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전문 컨설팅기관 및 태안군이 연계하여 신해양 지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해당 읍·면 특성에 맞는 추진 과제 및 실행사업 도출
- 수행사업은 컨설팅 기관에 위탁하며 본격적 실행사업은 주민-컨설팅 기관-태안군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립
  - 읍·면 주민들의 역량에 따라 신해양 지구계획의 대상과 범위 등을 점진적 확대

##### >> 신해양 주민총회의 운영 및 신해양 지구계획의 실행

- 기존 주민자치회 등 주도로 신해양 주민총회를 운영하고 지구별 인구에 따라 참여규모 등 설정
  - 주민총회에서는 신해양 지구계획의 추진방향, 특화전략, 실천사업 등을 논의 하고, 운영 및 제반사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
- 신해양 주민총회는 각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조직하되, 각 읍·면별 대표로 구성되는 중앙 주민총회(가칭, 태안군 신해양 주민총회)를 조직하여 운영
  - 태안군 신해양 주민총회는 ‘(가칭) 태안군 신해양도시 위원회’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하는 자문기구의 역할 수행



〈그림 4-50〉 (가칭) 태안군 신해양 주민총회 조직도

≫ 신해양 지구계획의 구체화 및 실행력 담보

- 기존 수립된 ‘신해양도시 미래비전’과 연관성이 높은 신해양 지구계획은 사업추진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실천력 강화
- 신해양 지구계획은 신해양도시 미래비전의 큰 틀에서 각 읍·면이 실천할 수 있는 실행계획의 성격 부여

(5) 기대효과

≫ 신해양도시 미래비전과 연계된 신해양 지구계획 수립을 통하여 주민들의 ‘신해양도시 비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실행력 강화

- 향후 신해양 지구계획을 통하여 주민들과 신해양도시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신해양도시 미래비전의 큰 틀에서 각 읍·면별 실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효적인 주민주도형 자치분권의 기반 조성
- 주민들 직접 참여한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지역 정체성을 인지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참고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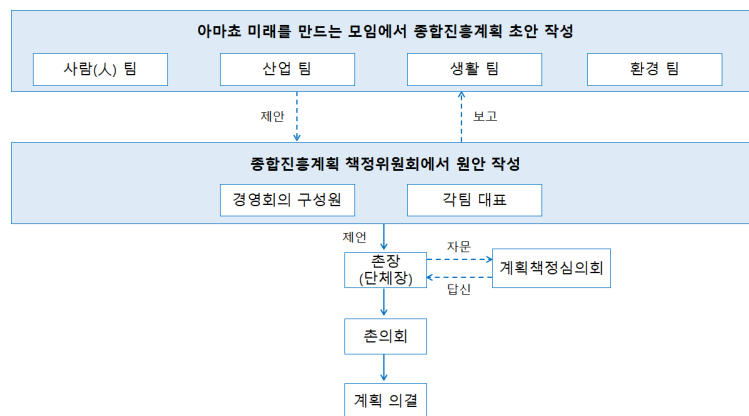
### 〈주민참여형 종합계획 수립 사례(일본 시마네현 아마초)〉

#### ■ 아마초(海士町) 개요

- 시마네현(島根県) 반도에서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마초는 작은 몇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기초자치체임
- 총 면적은 약 33.5km<sup>2</sup>로 그리 넓지 않지만, 풍부한 자연환경과 오랜 역사를 간직한 문화유산 자원이 많은 지역이고, 2018년 3월 기준으로 인구 2,353명 세대수 1,057호로 비교적 소규모 자치단체임

#### ■ 주민공모를 통한 종합진흥계획 수립

- ‘종합진흥계획’이란 기초자치단체의 최상위 계획으로 자치단체가 향후 10년간 추진할 비전, 전략,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립한 계획으로서, 아마초에서는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행정이 힘을 모아 수립함



#### ■ 아마초 종합진흥계획 수립 추진 체계

- 아마초 종합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첫 작업으로 지역의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지역문제 도출을 위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 후 ‘아마초의 미래를 만들기 위원회(이하 ‘미래 만들기 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진흥계획 초안을 작성함
- ‘미래 만들기 위원회’에서 만든 초안을 가지고 ‘아마초 종합진흥계획 책정위원회’에서 최종안을 만들며 아마초의회 의 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함

#### ■ 주민참여형 ‘미래 만들기 위원회’

- ‘아마초 종합진흥계획 수립’에 있어 다양한 속성을 가진 주민들이 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공모 형식으로 추진함
- 아마초 ‘미래 만들기 위원회’는 4개 분과(사람, 산업, 생활, 환경)로 구분되어 있으며 분과별로 지역문제에 대해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방안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는 계획안을 만들어 총 24개의 ‘아마초 마을 만들기 계획안’을 제시함

주 : 여기에서 소개되는 ‘제4차 아마초 종합진흥계획’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10개년 계획이며, 종합진흥계획이란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최상위 계획으로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과 유사함

자료 : 일본 아마초(海士町)(2009), 제4차 아마초 종합진흥계획(第四次総合振興計画).

#### 4] 해양 자원봉사활동 성지 구축

##### (1) 배경 및 필요성

###### ≫ 태안군의 고유한 특성에 부합하는 자원봉사 환경구축 및 문화정착 필요

- 태안군의 광범위한 해양수산 활동의 조직적인 운영과 태안군의 특성을 살린 자원봉사 환경구축을 위하여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과 자원봉사의 문화 확산이 필수적임
- 생계를 위한 해양수산업 활동과 함께 신해양도시 태안의 지역적 특색 형성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중심의 다양한 활동 창출이 효과적임
-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지역홍보와 지역위상의 상승 등 자원봉사 중심지로서 도약할 수 있는 정책적 참여수단도 필요

###### ≫ 태안의 서해안 유류오염 유출사고는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자원봉사의 독보적인 사례

- 태안군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유출사고로 전국적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음
  - 태안군은 2007년 12월 홍콩국적의 유조선인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단 간의 충돌로 원유가 유출되어 막대한 피해
  - 전국적으로 123만 명이 넘는 전국적인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인한 피해극복은 전 세계적인 자원봉사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으며 빠른 시간에 원유피해를 극복한 저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인식 확산
  - 태안군의 유류오염 극복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은 국내의 각계각층 참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노동자 및 일반주민, 전문기술을 갖춘 기관 등 관련된 모든 주체가 참여한 활동
  - 태안군과 군민들은 전국적인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구축을 위한 활동의 선제적 경험을 갖고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 인지

###### ≫ 전 세계적인 해양환경 분야 자원봉사활동의 메카로 발돋움 필요

- 태안군의 전국적이며 세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을 활용하여 해양수산 분야에서 지역주민 참여중심의 자원봉사 활동 확산 도모
- 과거 유류오염피해극복의 경험과 유산을 연계하여 전국을 대표하는 자원봉사활동의 聖地로 도약 필요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태안군, HS호 유류오염사업 백서(1~3차)
- 태안군, 전국 자원봉사자 연수원 건립 사업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기 (2017~2025년)
- 사업분류 : 계속
- 사업량 : 3식
  - 전국 자원봉사자 연수원 설립,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세계 해양자원봉사 성지 브랜드 구축 확산
- 사업지 :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주변(소원면 의항리) 등
  - 전국 자원봉사자 연수원 : 소원면 의항리 산 182-142번지 인근
- 추진주체 :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태안군
- 사업비 : 180억 원 (국비 50%, 도비 17%, 군비 34%)
  - 전국 자원봉사자 연수원 : 165억 원(국비 90억 원, 도비 30억 원, 군비 45억 원)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15억 원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180	60	60	60				
국비	90	30	30	30				
지방비	도비	30	10	10	10			
	군비	60	20	20	20			
민간								

주 : 2019년 토지매입비(군비) 6억 원은 2021년 예산에 포함

**(4) 주요 사업내용****》 전국 해양환경 자원봉사 거점이 되는 '전국 자원봉사자 연수원' 설립·운영**

- 태안군에서는 2017년부터 유류오염사고 10주년을 계기로 '전국 자원봉사자 연수원' 건립 추진
  -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주변)에 부지면적 13,316㎡, 연면적 3,224㎡로 교육동(지하1층, 지상3층)과 숙박동(지하1층, 지상2층)을 구분하여 건축 계획
- 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 '전국 자원봉사자 연수원' 설립을 통한 해양 자원봉사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내실있는 해양 자원봉사의 거점 확립
  - 현재 국가 및 도 차원의 지원으로 '전국 자원봉사자 연수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인근 토지매입비를 군비(45억 원)로 충당하기도 하고, 2019년 1,982㎡ 매입

- 유류오염 극복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전국단위의 자원봉사자 발굴 육성을 위한 통합적 교육기관으로서 다양한 자원봉사 체험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국내에서는 매년 자원봉사에 대한 대표적인 행사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며 국외의 자원봉사 네트워크와 교류하며 국내에서 자원봉사 교육관련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

#### 》 유류오염피해극복 자원봉사활동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현재 추진 중인 충청남도의 유류오염피해극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태안군 중심의 활동 강화
  -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준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2023년 이내 최종 등재를 목표로 계획
  - 2007년 12월 이후 10여 년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록들에 대하여 지역 언론 중심으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 해양환경 자원봉사활동 세계기록유산 등재요건 충족을 위한 적극적 기록생산과 보전활동 추진
  -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문자나 이미지, 기호로 기록된 자료들과 시청각 자료, 인터넷 기록물에 대한 DB화를 추진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 필요
  - 태안군민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 관련 과거 기록(문서, 이미지, 시청각자료 인터넷 자료 등)에 대한 수집과 인터뷰 구술활동에 대한 활동 필요

#### 》 태안군 ‘세계 해양 자원봉사의 성지’ 브랜드 구축 및 확산

- 태안군은 대통령이 참석한 2017년 9월 태안군 유류피해극복 기념식에서 자원봉사자 성지 선포식 개최
- 지난 2012년에는 태안군이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자원봉사대회에서 태안군 시민단체인 ‘태안사랑’과 함께 비영리 자원봉사기구(POL)로부터 특별 공로상 수상
  - 본 대회의 기념패 수여를 통하여 태안군이 세계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성지로서 방문해야 할 필수적인 지역으로 언급되면서 한국 자원봉사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
- 이러한 자원봉사 정신을 유지·승하여 태안군의 ‘세계 해양 자원봉사의 聖地’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홍보 확산 필요
  - 태안군에서 국제자원봉사대회, 아시아태평양자원봉사대회, 국제자원봉사 컨퍼런스와 같은 국제대회 개최와 해외 자원봉사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필요

### (5) 기대효과

#### 》 해양환경관련 자원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의 성지로서 태안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

- 태안군이 갖고 있는 유류오염피해극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운영 및 관계의 경험을 충분

히 활용하여 해양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적인 자원봉사 성지로서의 위상 구축

- 자원봉사활동 중심으로 태안군민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의 기반이 마련되고 지역 해양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 사례 전파 가능



〈그림 4-51〉 전국 자원봉사자 연수원 위치

자료 : 태안군 업무자료

## 참고사례

### 〈미국의 전국 및 지역사회봉사공단(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CNCS) 운영〉

- 미국은 공익을 위한 정부활동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이 매우 활발한 사회적 특성 보유
  - 특히 1993년 지역사회봉사지원법에 의해 창립된 CNCS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자원봉사체계를 운영하는 조직
  - CNCS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아메리코, 시니어코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며 봉사자들이 속한 지역사회 욕구 충족을 위해 시민단체, 종교단체, 학교, 지역기관에서 봉사활동 수행
  - 시니어코 프로그램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행되며 봉사자의 역량 및 생활환경, 소득, 직업 등 다양한 조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지역사회 욕구를 세분화하여 매칭함
  - 특히, 봉사자가 선택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교육활동과 일정 수준 이상의 실습 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교육과정을 마친 봉사자들에 대해 주정부 및 지역센터를 통해 봉사의 기회 부여
  - 아메리코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25만 명의 회원들에게 재난·재해 대응, 주택수리, 방과 후 프로그램, 방법 및 방역활동 등 보다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교육하고 활동 지원
  - 평시에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동하며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는 국가안전 활동에도 투입
  - 교육활동은 CNCS와 지역 자원봉사센터가 서로 연계하여 자원봉사관리를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초급과정, 고급과정, 파트너십 형성(비영리단체, 기업자원봉사자)으로 내용 구성
  -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함께 자원봉사자의 훈련을 위한 트레이너 양성 활동도 함께 수행
  - 특히, 트레이너 양성과정은 지역의 이슈발견과 토론과정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는 방안에 대하여 교육하여, 이수한 인재들은 지역 자원봉사센터로 파견

자료: 최상미 외(2017) 서울시 자원봉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 5 해양 자원봉사공동체 구축

### (1) 배경 및 필요성

≫ 태안군은 2007년 서해안 유류오염피해 사고를 통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 및 체계적 관리 필요성 체감

- 태안군내 각 지역들은 지난 2007년 유류피해극복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관리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당시 한계의 극복을 위한 체계화 필요성에 공감
- 유류오염피해극복을 위하여 전국에서 개인 및 단체, 공공기관, 국제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태안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여 많은 기록을 남겼으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관리, 통제와 봉사자들의 안전·보건사고, 자원봉사증명서 및 접수관리의 행정적 미흡 등의 한계와 문제점도 야기

≫ 자원봉사인력과 지역주민 중심의 공동체 조직의 연계 필요

- 해양 및 어촌의 자원봉사활동은 외부에서 투입되는 인원이나 활동 횟수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해 해양 및 태안군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와 협력이 효과적임
- 외부의 자원봉사자(조직)의 효과적, 안전적 자원봉사 활동 수행을 위한 해당지역의 공동체 조직과 연계활동 필요

#### 》 지역공동체 차원의 정기적인 해양자원봉사활동 수행 필요

- 공공(정부)에서 감당하기 힘든 지역 곳곳의 해양지역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실제 참여하는 정기적인 해양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며, 정기적으로 해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역공동체 조직화 필요
- 마을 어촌계 및 주민자치회 등 지역의 유관 공동체 조직과 연계하여 해양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전담 공동체 조직 마련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태안군, HS호 유류오염사업 백서(1~3차)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기·중기(2022~2030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량 : 2식
  - 태안군 자원봉사센터 규모 및 업무 확대, 읍·면별 해양 자원봉사공동체 지정·지원
- 사업지 : 태안군
- 추진주체 : 태안군, 태안군자원봉사센터
- 사업비 : 25억 원 (군비 100%)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25		2	2	3	3	15	
국비								
지방비	도비							
	군비	25	2	2	3	3	15	
민자								

#### (4) 주요 사업내용

##### ≫ 태안군 ‘해양 자원봉사공동체’ 지정

- 2015년 개정된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자원봉사단체 지원(제15조 2)에 해양 및 어촌관련 자원봉사단체 지원을 추가하며, 센터의 사업(제8조)에도 ‘해양 및 어촌보호 활동 수행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의 내용 추가
- 태안군 읍·면 단위에서 주민공동체 조직 대상 「해양 자원봉사공동체」지정하여 재정지원 및 활동관리 수행
- 해양 자원봉사공동체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비영리단체(조직)를 대상으로 공모와 심사를 통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정
- 공모지원 공동체는 주민 대상으로 해양 및 어촌 관련 자원봉사의 수요를 발굴·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한 자원봉사 계획서를 제출하며, 이를 근거로 선정

##### ≫ 지역공동체 조직대상 지역의 해양 자원봉사활동 지원

-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동체는 월 1회 이상 주기적인 해양 및 어촌의 자원봉사활동 실시와 자원봉사의 지원활동 수행
- 이를 위하여 태안군은 태안군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선정된 공동체당 연간 6백만 원의 활동운영비와 관련 자원봉사활동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태안군자원봉사센터는 해양 자원봉사공동체의 운영 및 지원사업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및 업무 확대
- 해양 자원봉사공동체 간 상호교류와 자원봉사활동의 정보 및 운영 노하우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 ≫ 지역공동체 조직의 자원봉사 관리활동의 체계화 지원

- 마을 어촌계 및 주민자치회 등 지역의 관련 조직들과 해양 자원봉사공동체를 연계하는 ‘해양 자원봉사활동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원
- 태안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신청하는 외부조직 및 주체들에게 ‘해양 자원봉사공동체’로 일원화 추진
- ‘해양 자원봉사공동체’ 중심으로 안내, 관리, 통제 등의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자원봉사활동 거점조직’ 역할 지원
  - 태안군자원봉사센터 및 각 읍면동, 어촌계로 접수되는 자원봉사활동 요청에 대하여 각 읍·면에 존재하는 해양자원봉사 공동체로 업무를 일원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



-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참여자들의 동선 파악, 봉사활동의 업무배분 및 안전관리, 장비 지원(대여), 식사·숙박 정보 제공, 자원봉사증명서 제공, 유류오염, 해양사고 등 대형재난에 의하여 많은 자원봉사자 유입 시 지역별 관리센터의 역할 수행

## (5) 기대효과

### 》 공공이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주민 중심의 자생적 활동기반 마련

- 해양 및 어촌에서 자원봉사의 활성화로 인한 주민 정주여건의 개선과 효과적인 해양환경 형성
- 외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태안군 자원봉사 활동으로의 적극 유인과 자원 봉사 지원시스템 선진화의 전국적 이미지 구축

## 참고사례

### 〈논산시 자원봉사센터의 ‘다 같이 돌아 동네 한 바퀴’ 프로그램〉

- ‘다 같이 돌아 동네 한 바퀴’는 논산시 자원봉사센터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읍면동 거점센터가 주관하는 행복마을 공동체 만들기 특화 프로그램
  - 논산시 관내 각 분야별 자원봉사자들을 마을단위로 구성하여 마을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 중심의 종합복지 프로그램
  - 특히 초고령화 시대에 주목하여 마을 독거노인세대들에 대해 노인들의 활동영역 축소, 역할상실 열악한 위생환경에 따른 소외문제 해결에 주목하며 마을의 지리와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방문하여 활동
  - 구체적으로 읍면동 자원봉사거점센터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행복마을 코디네이터와 거점센터 상담가가 마을주민들과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소소한 민원부터 마을의 숙원사업까지 수요를 파악하여 즉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의 경우 주민과 봉사자가 함께 해결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읍·면·동 및 지역전문기관으로 요청하는 현장 중심 봉사 프로그램 활동
  - 마을주민과 전문적인 영역의 자원봉사자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관내 14개 거점센터 중심으로 매월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 맞춤형 특화 봉사프로그램을 수행하여 마을주민의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음



자료 : 장병일, ‘논산시자원봉사센터, 행복마을 공동체 만들기 동거동력’, 중도일보, 2019.09.21.일자.

## ⑥ 해양수산 사회적경제 활성화

### (1) 배경 및 필요성

≫ 충남도 (예비)사회적기업은 총 133개이고, 태안에 위치한 사회적기업은 3개

- 충남도에서는 천안 36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아산 23개, 서천 23개 순
  - 태안 3개, 천안 36개, 공주 9개, 당진 7개, 보령 5개, 서산 6개, 아산 23개, 계룡 1개, 논산 7개, 금산 4개, 부여 4개, 서천 13개, 예산 3개, 청양 3개, 홍성 9개
- 태안의 사회적기업은 농식품 가공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분야 편중

≫ 충남도 마을기업은 총 127개이고, 태안에 위치한 마을기업은 9개

- 충남도에서는 공주 13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논산 12개, 아산·보령·서산·홍성 10개 순
  - 태안 9개, 천안 4개, 공주 13개, 당진 6개, 보령 10개, 아산 10개, 서산 10개, 계룡 3개, 논산 12개, 금산 7개, 부여 8개, 서천 9개, 예산 7개, 청양 9개, 홍성 10개

≫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경제를 해양수산 분야에서 육성하여 주민 모두 함께 잘 사는 기반 마련

- 태안만의 고유한 자원인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향상 등을 통한 함께 잘사는 신해양도시 조성
- 지역의 해양레포츠, 수산·어촌, 먹거리 자원을 활용한 해양수산 융·복합 사회적기업 육성 촉진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합동(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고용노동부(2018),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
- 관계부처 합동(2019),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 충청남도(2017), 제2차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2018~2022)
- 태안군, 태안형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 추진
- 태안군, 사회적경제와 함께 하는 청년일자리 사업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기(2022~2025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량 : 1식
- 사업지 : 태안군 전역
- 추진주체 : 태안군
- 사업비 : 10억 원 (군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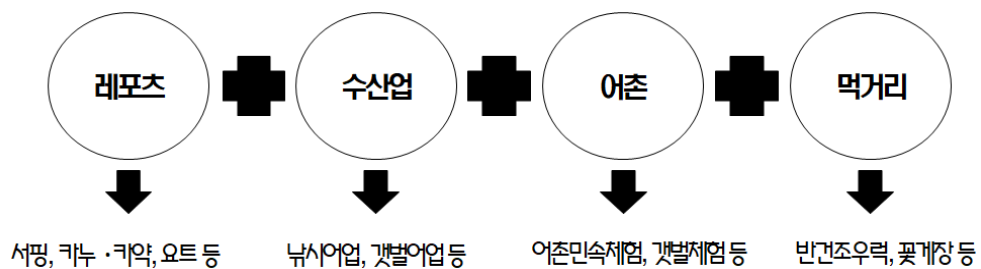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10		2	2	3	3		
국비								
지방비	도비							
	군비	10	2	2	3	3		
민자								

#### (4) 주요 사업내용

##### >> 태안의 해양수산분야의 자원과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기업 육성

- 최근까지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선도 사례 미흡
- 태안의 해양수산 자원 및 산업을 기반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국가 및 충남도 선도 필요
- 태안의 중요 강점이 해양레포츠, 어촌체험마을, 낚시어업, 수산식품가공 분야 등 해양수산 관련분야에서의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경영 컨설팅 추진



〈그림 4-52〉 사회적경제로 활용 가능한 태안 해양수산자원

## >> 해양수산 사회적기업가 양성 및 창업지원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 해양수산 분야에서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및 ‘사회적경제 대학’ 운영
  - 해양수산 분야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지역내 사회적기업가 발굴 추진
  - 공모전은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 제시뿐만 아니라 지역일자리 창출, 사회에 대한 수익환원, 지역사회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현재 태안군이 운영하고 있는 ‘혁신대학’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교육강좌’를 개설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이론 및 사례를 상시 학습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지역대학과 연계한 사회적경제(기업) 평생교육과정 등 개설 추진
- 해양수산 사회적기업 공모전 수상자들에 대한 창업 지원
  - 해양수산 사회적기업 공모전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창업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태안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태안의 후예’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가능한 청년층에서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 해양수산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추진
  -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와 사회적경제 전문가가 함께 전담팀을 구성하여 해양수산분야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 회계, 마케팅 등 지원
  - 향후 구성될 태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여 전문적·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 (5) 기대효과

### >> 태안만의 고유한 사회적경제 자산을 바탕으로 주민상생 경제발전 기반 마련

- 태안이 간직하고 있는 해양수산 자원과 산업을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

## 7 연안지역 교통인프라 강화

### (1) 배경 및 필요성

#### >> 서해안 국도의 단절구간 연계로 국가무역항, 서해안 산업물류시설,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서해안 남북축 산업·관광 교통축 형성 필요

- 가로림만 단절구간 연계로 국가무역항(대산항), 관광지(안면도, 천수만) 접근성과 연계성 향상 도모

- 태안~보령~서산(국도 77호, 38호) 사업과 연계하여 충남에서 수도권까지 막힘없는 국도 77호선 산업·관광 교통축 형성

》》 대산~당진 고속도로와 태안~보령 국도의 Missing Link 연계로 지역 간 연계교통망 확보

- 지역균형발전과 국가도로정책(전 국토의 고속도로 30분 이내 접근,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 국토부, 제2016-578호) 실현을 위한 선행조치 필요
- 2016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대산~당진 고속도로와 본 사업노선이 연계될 경우 태안군의 고속도로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 (2) 관련 계획 및 사업

- 국토교통부(2019), 제5차 국토종합계획
- 국토교통부(2021),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 국토교통부(2021),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
- 충청남도(2020),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반영
- 태안군(2020), 신해양 광개토 사업 보고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중기(2020~2030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량 : 1식 (연장 5.61km, 왕복 4차로 신설)
- 사업지 : 태안군 이원면 내리 ~ 서산시 대산을 독곶리
- 추진주체 : 국토교통부(※ 현재 2020년 일괄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
- 사업비 : 29.83억 원 (국비 100%)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29.83	0.05	0.05	1.49	2.97	4.46	20.81	
국비	29.83	0.05	0.05	1.49	2.97	4.46	20.81	
지방비	도비							
	군비							
민자								

#### (4) 주요 사업내용

##### >> 국도 38호선(이원~대산) 교량 건설에 따라 획기적인 교통기반 구축

- 태안군 이원면 내리(만대항)에서 서산 대산읍 독곶리(황금산)까지 5.61km를 교량으로 연결함으로써 현재 이원~대산 간 73km의 거리(약 1시간 30분)를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sup>147)</sup>
- 총 길이 5.61km(왕복 4차로)로 해상교량 2.65km, 접속도로 2.96km이며, 교량이 연결될 경우 태안 이원과 서산 대산은 동일 생활권으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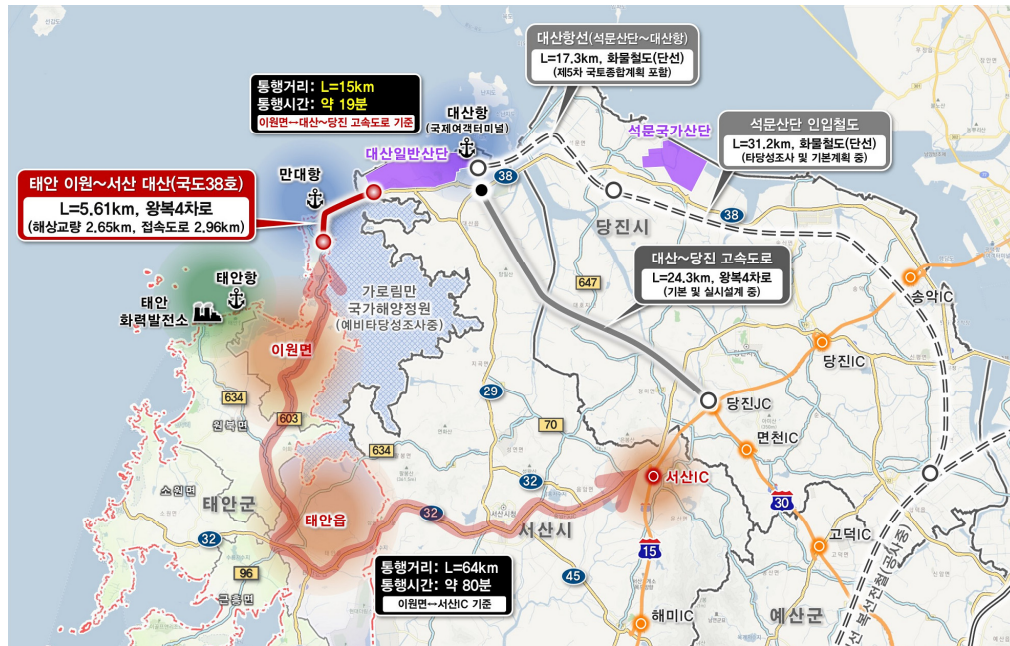
##### >> 그동안 지속적인 대정부 설득을 통한 논리 개발

- 국도38호 연장지정 사전기본조사비 국비 1억 확보 ('18.12)
- 이원-대산 사전기획조사용역 착수('19.4.~'20.4.)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이원~대산 연륙교 건설 반영('19.12)
-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국토부(안) 반영('20.01)
-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토부(안) 반영('20.5)
- 향후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및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 고시 예정
-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일괄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

##### >> 국도 38호(이원 ~ 대산) 노선연장 외 태안고속도로 건설 등 광개토 사업 추진

- 태안고속도로(태안~서산공항~내포신도시~세종시) 건설 (L=122km)
- 지방도 603호(태안~원북) 4차선 확장 (L=5.8km, B=20m)
-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 (군도1호 등 3개노선 3km)
- 국도77호(안면~고남) 4차선 확·포장 (22.3km)
- 기업도시~서산웰빙특구 연결도로(부남교) 건설 (L=680m, B=25m(교량 300m))
- 원청사거리 교차로 개선 (L=1.1km, B=3.5~20m)

147) 강제일, '양승조, 박병석 의장 예방 현안 지원요청', 중도일보, 2021.1.27.일자.



〈그림 4-53〉 국도 38호(이원 ~ 대산) 노선도

자료 : 태안군, '태안군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자료(2020.06)'를 수정하여 작성

## (5) 기대효과

### ≫ 태안군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성 약 2배 향상

- 태안군은 고속도로 접근시간은 사회경제지표가 유사한 23개 시·군 대비 약 2.6배 열악함
  - 현재 태안군은 서해안 고속도로(서산IC)까지 29km이고 34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
  - 사회경제지표가 유사한 23개 시·군의 고속도로 접근거리는 평균 11km이나 태안군은 29km로 약 2.6배 더 소요
- 태안군 고속도로 30분 이내 접근가능한 면적은 현재 22%(113km<sup>2</sup>)이고,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39%(201km<sup>2</sup>)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
- 대산-이원 연륙교 교통편익은 연평균 109.5억 원으로 추정되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3,485억 원으로 예상
  - 직·간접 영향권 내 수혜인구는 관광객 기준 9,070천 명, 지역주민 기준 2,052천 명으로 추정
  -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태안·서산 지역에서 총 3,485억 원, 전국적으로 5,954억 원으로 추정

### ≫ 수도권, 중부·강원·경상권의 관광·여객·물류 회랑 구축

- 수도권 접근회랑: 수도권(서해안고속도로) ↔ 국도38호선 ↔ 대산-이원 연륙교 ↔ 지방도



603호선 ↔ 국도77호선 ↔ 수도권(서해안고속도로)

- 중부 강원 경상권 접근회랑: 대전-당진 고속도로 ↔ 대산-당진 고속도로 ↔ 대산-이원 연륙교 ↔ 지방도 603호선 ↔ 국도77호선 ↔ 보령-울진 고속도로 ↔ 대전-당진 고속도로

≫ 접근성 강화에 따른 문화, 관광, 물류, 산업 활성화 기대

- 다양한 문화·여가 시설 입지 활성화, 대산항 관련 기존 물류·산업 시설이 태안군 북부지역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⑧ 귀어·귀농 활성화 및 잠재적 인구 유치

(1) 배경 및 필요성

≫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방소멸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

- 향후 태안군의 잠재력과 자원을 활용한 적극적인 귀어·귀농·귀촌 정책을 전개 필요
  - 그동안 '상시체류형' 인구유치에 치중했던 인구정책을 확대하여 '비상시 정기 체류형' 잠재적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 요구
- 특히, 태안군 지역 내 방치되었던 빈집 등의 다양한 유희시설의 가치 제고를 통하여 활용성을 높이고, 이를 잠재적 인구유치의 자원으로 활용 필요

(2) 관련 계획 또는 연구

- 해양수산부(2018), 제1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18~2022)
-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충청남도(2016), 충청남도 어업·어촌 중·장기 발전전략
- 충청남도(2018), 충청남도 귀어귀촌지원 종합계획(1차)
- 태안군, 태안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중기(2022~2030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량 : 3식
  - 귀어·귀농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귀어·귀농 인큐베이팅 및 신규창업 지원, 체재형 주말별장 조성 및 문화예술인 한 달 살기 추진
- 사업지 : 태안군 일원



- 추진주체 : 태안군, 농어촌마을 주민
- 사업비 : 90억 원 (군비 100%)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					중기	장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 '30년	'31~ '40년
합계	90		10	10	10	10	50	
국비								
지방비	도비							
	군비	90	10	10	10	10	50	
민자								

#### (4) 주요 사업내용

##### >> 귀어·귀농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귀어, 귀농, 귀촌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귀어·귀농 종합지원센터를 조직하고 원스톱(One-Stop) 창구 운영
  - 태안군 전체를 대상으로 빈집, 빈터, 임대 가능한 주택 및 건축물, 휴경지, 기타 유휴시설 및 유휴공간 등 토자주택에 대한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태안군청 또는 태안군농업기술센터 등에 귀어·귀농에 필요한 토자주택 관련 정보와 다양한 지원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원스톱(One-Stop)창구를 통해 수요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귀어·귀농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 태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귀어·귀촌인이 지역에서 정착하는데 필요한 일 자리 알선 및 재능기부 활동을 장려하고, 어촌계의 진입장벽을 낮춰 태안군으로의 귀어인 유치 활성화 도모

##### >> 체계적 귀어·귀농 인큐베이팅 및 신규창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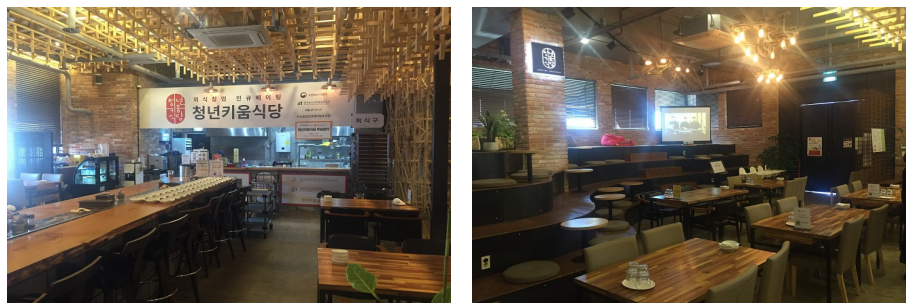
- 농어촌지역의 유휴시설 등의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하여 귀어·귀농인의 집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귀어·귀농 인큐베이팅 추진
  - 매화동방마을, 갈두천마을, 동백마을 등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귀농인의 집 이외에 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귀어·귀농인의 집을 육성하고 예비 귀어·귀농인에게 제공하여 지역으로 정착지원
  -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예비 귀어·귀농인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



〈그림 4-54〉 충북 증평군 죽리마을 귀농인의 집 사례

자료 : 조영재·윤정미(201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유지관리 및 유희시설 활용도 제고방안 모색 기초연구, 현안과제연구, 충남연구원.

- 귀어·귀농뿐만 아니라 태안군 지역 내에서 취·창업을 준비하거나 실제 창업을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창업 공간 조성
  - 청년키움식당 등 중앙정부의 취·창업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농어촌지역의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아이템에 대해 사전품평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신규창업 공간 육성



〈그림 4-55〉 전북 완주군 청년키움식당 사례

자료 : 조영재·윤정미(201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유지관리 및 유희시설 활용도 제고방안 모색 기초연구, 현안과제연구, 충남연구원.

## 》 체재형 주말별장 조성 및 문화예술인 한 달 살기 추진

- 농어촌지역의 빈집, 유희공간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여 체재형 주말별장 조성
  - 귀어·귀농의 의향이 있는 도시민이나 지역에서 체류를 원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임대 또는 분양해 주는 형태로 운영
  - 수요에 따라 일정한 규모의 텃밭을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마을 주민이 운영주체가 되어 귀농·귀촌인의 정착 주거지, 예비 귀농·귀촌인의 인큐베이팅 시설, 방문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등의 형태로 자유롭게 운영
  - 농어촌지역 유희시설을 활용한 잠재적인 귀어·귀촌·귀농인을 유인여건 마련
- 빈집 등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인이 태안군에 와서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 한 달 살기’ 추진

- 귀어·귀농인의 집, 체재형 주말별장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문화예술인에게는 태안군에서 체류하면서 문화예술적 영감을 얻고, 동시에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교류활동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에게는 문화예술을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5) 기대효과

### 》 귀어·귀농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통한 인구유입 촉진

- 귀농인 유치에 집중되었던 귀농정책을 확대하여 다양한 귀어정책을 통한 귀어인 유치 활성화 도모
-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유휴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잠재적인 귀어·귀농·귀촌인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참고사례

#### 〈농촌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한 ‘예술인 완주 한 달 살기 프로젝트’〉

- 완주문화재단에서는 예술인 문화귀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마을의 빈집, 빈방, 빈창고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예술인에게 빌려주어 예술인에게는 영감과 충전을, 농촌마을에는 문화적 활력을 견인할 수 있는 완주형 예술인 레지던시 사업인 ‘예술인 완주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2017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30여명의 예술가 참여
- 2018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 16명(한달살기 7명, 백일살기 7명, 예술가의집(누에게스트하우스) 2명)이 참여하였고, 8개 마을에서 250여명의 주민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
  - 예술인들에게 재료비 명목으로 한달에 3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집주인은 소정의 임대료를 받음
- 2019년 올해는 문화사랑방 공간 공개모집을 통해 2개소만 선정하여 문화예술인 한 달 살기를 진행
  - 첫째는 리모델링 비용 800만원 정도와 활동비를 지원(총사업비 5,000만원)해주고, 이후 2년간 활동비만 지원해주는 사업 진행 중

자료 : 조영재·윤정미(201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유지관리 및 유휴시설 활용도 제고방안 모색 기초연구, 현안 과제연구, 충남연구원 (원자료 : 완주문화재단 내부자료)



사진자료 : 이용철, ‘2017 완주문화재단 예술인 청년작가 완주 한 달 살기’, 쿠키뉴스, 2017.9.1.일자.  
네이버 블로그, 완주군, 「<https://blog.naver.com/wanjugun/221416486214>」.

## 제3절 공간 중점 프로젝트

### 1. 공간계획

#### 1) 기본방향

≫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태안군 8개 읍·면의 여건 및 특성을 최대한 반영

- 태안내 각 지역(읍·면)별 여건 및 현황, 개발상황, 자연조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해양수산 사업 제시
- 태안 관내 각 읍·면의 역할을 나누기보다는 해당 지역만의 고유한 여건 및 조건에 부합하는 역할 제시

≫ 지역 간 경쟁을 배제하고 상호보완적 협업관계 정립으로 특화공간 창출

- 유사한 자연조건 및 산업기반을 갖춘 관내 지역 간의 과도한 경쟁을 배제하고, 상생협력·상호보완의 틀에서 협업관계 형성
- 각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적재·적소의 사업 및 역할분담을 통한 다양한 갈등의 최소화 및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

≫ 태안 각 읍·면의 자연조건, 산업기반을 고려하되, 향후 발전 가능성에 부합하는 공간별 특화계획 수립

- 해변, 해수욕장, 갯벌, 항·포구, 솔향기길 등 자연자원 및 관광자원을 고려하되, 수산업, 해양관광 중심의 산업기반과의 접목 도모
- 지역 내 전통산업과 미래산업이 어우러질 수 있는 특화공간을 창출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기여

≫ 태안의 지리적 여건, 해역적 특성,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4개 축으로 설정

- 新해양관광축 : 교통망 확충에 따른 미래 관광수요의 중심개발 축
- 新해양산업축 : 인공지능, 해양치유 등 해양신산업의 중심거점 축
- 新해양생태축 : 가로림만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생태의 보전·복원 축
- 新해양경제축 : 교통망 확충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축

## 2) 공간계획 구성

### >> 新해양관광축

-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요트 튜닝산업, 마리나산업 등 육성
- 태안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어항을 본래의 기능과 더불어, 지역의 신해양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교통망 확충, 개발수요가 예상되는 북부권 해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 해양레저·스포츠 육성
- 역사·문화 자원과의 결합을 통한 자전거·걷기 도로 구축, 역사·문화 스토리텔링북 개발 등 추진

### >> 新해양산업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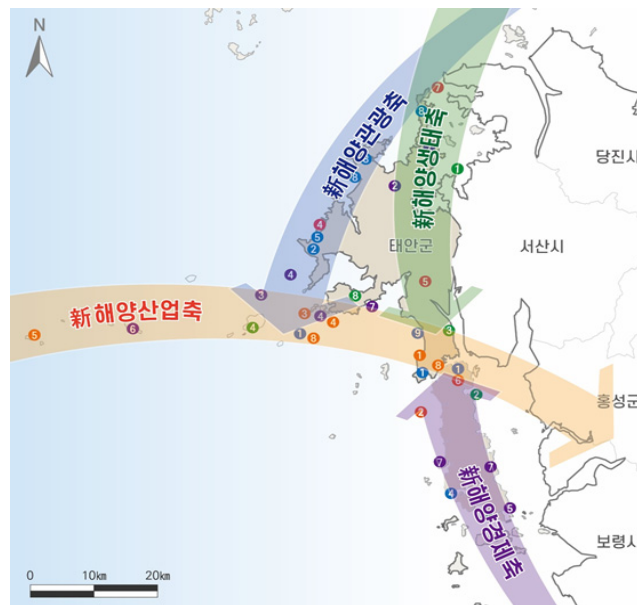
-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해양치유산업을 결합한 해양휴양형 인공지능연구센터, K-UAM 실증단지 조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
- 국민의 건강한 삶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 조성
- 미래 청정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및 친환경 그린수소 생산거점 조성으로 탄소중립 선도
- 해양과학기술관련 국책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서해안 대표 해양도시로서의 도약기반 마련 및 위상 강화

### >> 新해양생태축

- 천혜의 갯벌과 해양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가로림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방안 마련
- 부남호 해수유통을 통한 수산자원 복원 및 해양생태학적 이용가치 제고
- 태안기업도시를 해양환경·생태를 테마로 하는 해양환경 컨벤션도시로 육성하여 지역의 성장기반 마련
-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관광에 초점을 맞춘 에코뮤지엄 및 도서생태관광 추진으로 지역의 다양한 매력 발산

≫ 新해양경제축

- 서해안 新관광지도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마음치유 펫 해수욕지구, 어촌민속마을 조성으로 관광객의 소비지출 확대
- 최신 유통·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설립으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생산기반 구축
- 국도 77호선 연장에 따른 지역먹거리 특화거리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그림 4-56〉 태안군 공간별 특화계획



## 2. 중점 프로젝트

### 1) 미래 해양치유 프로젝트

#### 프로젝트 배경

≫ 국가적으로 웰빙(well-being)과 힐링(heal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 여가 및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제고

- 웰니스 산업은 세계 경제생산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성장 대비 약 2배(연평균 6.4%)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2017년 4조2천억 달러로 급성장<sup>148)</sup>
-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치유가 주목을 받았으나, 유럽과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해양자원(seawater, mud, sand, coastal climate)을 이용한 탈라소테라피(thalassotherapy)가 휴양 및 치유기능을 갖추고 발전<sup>149)</sup>
-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웰니스산업에 높은 관심

≫ 태안은 2017년 해양치유 협력지자체로 선정되어 해양치유산업의 선도지역으로 부상

- 태안군은 완도(전남), 울진(경북), 고성(경남)과 함께 2017년 해양수산부의 ‘해양치유 가능 자원 발굴 및 산업화를 위한 실용화 연구’ 협력 지자체로 선정
- 태안군은 소금, 피트, 염지하수, 함초, 해수, 해풍 등 다양한 해양 치유자원과 해양관광·레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해양치유산업의 중심으로 성장 가능
- 해양치유산업은 바다의 물리적 자원(바닷물, 모래, 진흙, 소금, 공기, 풍광 등)을 과학적으로 이용하고, 국민들에게 치유를 제공하고 관광복지, 의료복지를 실현하는 해양치유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민 건강증진 등 다양한 순기능 발휘<sup>150)</sup>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해양휴양형 인공지능연구센터 조성으로 미래 먹거리 발굴 추진

- 인공지능(AI) 기술과 해양치유산업을 접목시켜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을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 수요자에 부합하는 맞춤형 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첨단 해양치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 해양치유산업 및 전·후방 연계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의 성장기반 구축 및 미래 먹거리 발굴

148) 한국웰니스산업협회 HP, 「<http://www.k-wellness.or.kr>», 원자료 : Global Wellness Institute

149) 김충곤 외(2016), 국가지원 해양헬스케어 단지 조성사업 유치를 위한 해양헬스케어산업 육성연구, 충청남도 연구용역.

150) 충청남도(2020), 제2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 프로젝트 개요

- 사업기간 : 단기·중기·장기 (2021~2040년)
- 사업량 : 5식
  - 인공지능연구센터 조성,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성, 해양치유 특화어촌 개발, 해양치유 바이오단지 조성, 해양치유관리단 유치
- 사업지 : 태안군 남면 달산포리 및 어촌마을
- 추진주체 :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태안군, 민간기업
- 사업비 : 1,544억 원
  -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 634억 원
  -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성 : 340억 원

## 프로젝트 내용

### >> 현재 추진 중인 태안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성 및 성공적인 운영으로 해양치유산업의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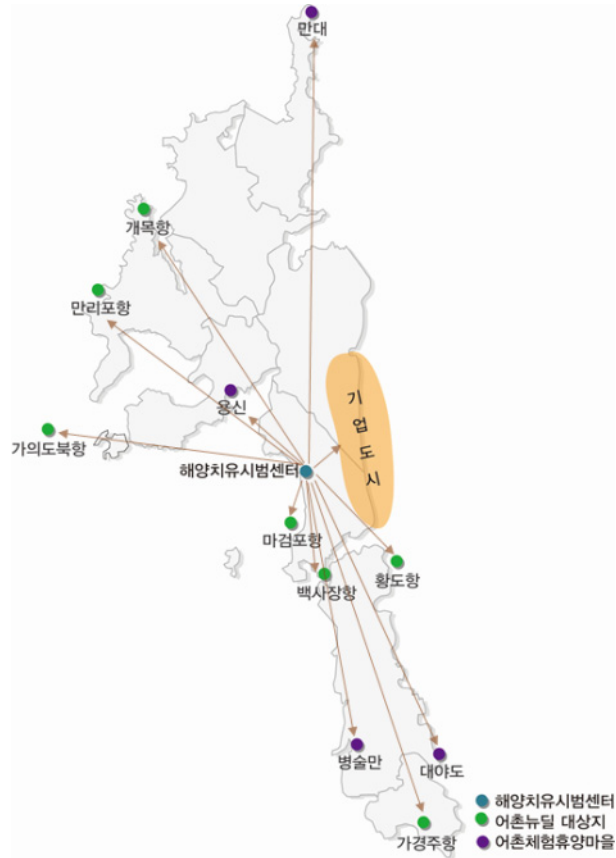
- 태안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자원, 산림자원, 농업자원과 함께 관광, 서비스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해양치유산업 육성
- 태안 해양치유 시범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수도권 및 지역의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각종 테라피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유거점으로 성장 유도
- 해양바이오산업과의 연계·결합을 통한 지역 내 시너지효과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 견인

###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복지서비스 제공

- 어촌체험휴양마을 또는 어촌뉴딜 대상지 중 우수한 해양환경과 치유자원을 보유한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특화사업 지원
  - 해수욕, 해양레저, 어촌체험 등 관광자원과 결합된 다계절 프로그램 지원
  - 어촌내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해양치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 낚시·요트·스노클링 등 레포츠 업체, 펜션·민박 등 숙박업소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해양치유관련 전·후방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내 기반 확충
  - 약품, 기능성 식품, 기능성 화장품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헬스케어 생산기업을 유치하여 클러스터(집적화) 촉진



-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서해안 해양치유 거점으로 성장



〈그림 4-57〉 해양치유 시범센터의 중심적 역할

》》 해양치유형 인공지능연구센터 운영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구축

- 서울대-태안군 공동사업으로서 인공지능, 라이프 헬스케어, 지역상생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연구조직 운영
- 디지털 라이프·헬스케어 (실증)주거단지 조성, 인공지능 기반 노인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인공지능 기반 해양치유관광사업 발굴 및 효능검증 추진

》》 해양치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해양치유관리단 유치

- 인공지능 기반 태안군 특화 해양치유산업 전문기관 설립추진
  - 태안군내 위치한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등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래 해양치유·관광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기관 유치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해양치유지구 선정·관리, 해양치유자원관리, 해양치유 산업육성, 해양치유서비스 검증·개발·인증·평가·보급 관리는 ‘해양치유

관리단'의 역할로 규정

- 해양치유 공동연구 및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 서울대, 동국대, 태안군 간 체결한 '인공지능 집적단지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커뮤니케이션센터, 해양치유자원 연구실, 인공지능 스마트 헬스케어 연구실, 해양치유 바이오산업화 지원센터, 해양치유 주민건강지원단
- 해양치유단 유치를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해양 문화·치유·관광 산업주체의 전략적 육성
  - 해양문화 및 해양치유 관광 통합지원 센터 조성
  - 해양치유지구 기본계획 수립 : 해양치유센터 조성을 토대로 달산포-청포대-몽산포 권역을 아우르는 치유지구(탄소중립 치유지구, 에너지자립 치유지구 등) 설계 및 기본계획
  -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사회적경제기반 해양바이오 산업생태계 조성, 관내 해양치유·바이오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 기대효과

### ≫ 세계 최초 인공지능기반 해양치유기술 확보로 미래산업 선점

- 태안군이 보유한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인공지능기술을 접목시킨 미래지향적인 해양치유산업 육성
- 인공지능 기능을 접목한 해양체험, 해양치유 등 선도적 연구를 통하여 해양치유산업기반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중앙정부의 그린뉴딜 및 디지털뉴딜 정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 AI융합 산업 선도, 친환경 신에너지 사업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기후변화협정에 대응하고, 국제적 환경기준을 충족할 미래기술 선점

### ≫ 해양치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삶의질 개선

- 해양치유를 넘어 해양 헬스케어산업으로의 발전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전·후방산업 창업기반 마련
- 해양관련 레저·스포츠 활동 및 상품개발 등으로 통한 타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한 만성질환, 재활치료 등 필요한 수요와의 접목으로 헬스케어 목적의 방문객 유치

### ≫ 해양치유, 인공지능 전문(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역량 강화

- 해양치유 시범센터를 중심으로 마을단위 치유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 바이오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의 미래 먹거리 발굴
- 해양치유관리단 유치를 통한 국내 해양치유의 거점이자 선도지역으로서의 역할 및 위상 강화

## 2) 광개토 신해양관광 프로젝트

### 프로젝트 배경

≫ 국도 77호선(고남~대천)과 38호선(이원~대산) 교량 건설에 따른 남·북부권 개발수요 증가 예상

- 태안군 고남면과 보령 원산도, 대천을 잇는 국도 77호선 연결에 따른 새로운 관광수요 발생 예상
- 태안군 이원면 내리(만대항)에서 서산 대산을 독곶리(황금산) 까지 5.61km를 교량으로 연결 함으로써, 현재 이원~대산 간 73km의 거리(약 1시간 30분)를 단축시키고, 이는 태안 북부권이 서산과 동일생활권으로 전환되고, 개발수요 증가 예상<sup>151)</sup>

≫ 태안 북부권은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 사업에서 소외되었으나, 최근 가로림만 해양정원, 교량건설 등 개발수요 발생

- 태안화력발전소가 위치해있고, 도로교통망 상 타 지역으로 이동시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관광객 유입이 어려운 여건
- 그러나 최근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추진되고 있고, 태안 이원 ~ 서산 대산 간 교량 건설에 대한 움직임 가속으로 개발수요 발생

≫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 및 치열한 경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 고통 호소

- 2019년 자살사망자 수는 13,799명이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9명으로 하루 평균 37.8명의 자살사망자 발생
- 특히 충청남도 자살률은 2019년 35.2명으로 가장 높고, 자살 사망자 수도 743명으로 상위권 기록
- 또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울증 또는 불안감을 경험한 국민의 40.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sup>152)</sup>

151) 강제일, '양승조, 박병석 의장 예방 현안 지원요청', 중도일보, 2021.1.27.일자.

15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도자료, '국민 40.7% 코로나 19로 우울·불안 경험했다', 2020.10.14.일자.

≫ 국민들은 마음의 안식처를 찾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856만 마리를 양육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펫코노미 시대, 펫 비즈니스 급부상<sup>153)</sup>

-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91만 가구이며, 개는 495만 가구(598만 마리), 고양이는 192만 가구(258만 마리)로 파악
- 반려동물 중 관상어는 개(83.9%), 고양이(32.8%), 어류/열대어(2.2%)로 3위에 랭크
- 최근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 2조3,300억 원에 달하였고, 2027년 6조원까지 확대 전망
- 펫 비즈니스의 주요 트렌드로는 펫푸드, 펫테크, 펫금융, 펫플레이, 펫리빙 등 다양함

### 프로젝트 개요

- 사업기간 : 중기·장기 (2026~2030년)
- 사업분류 : 신규
- 사업규모 : 4식
  - 펫 해수욕장 지정, 펫 해수욕지구 운영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관상어 유통·전시관(아쿠아펫랜드) 건립, 북부권 해양레포츠 육성
- 사업지 : 고남면, 원북면(학암포·구례포), 이원면(만대항)
- 추진주체 : 태안군
- 사업비 : 670억 원
  - 마음치유 펫 해수욕지구 조성 : 450억 원
  - 북부권 해양레포츠 육성 : 220억 원

### 프로젝트 내용

≫ 펫플레이 관점에서 반려동물과 놀이가 가능한 해수욕장을 지정하고, 놀이터, 샤워장 등 부대시설 조성

- 국도 77호선 관광객 유입에 대비하여 반려동물과 해수욕을 향유할 수 있는 해수욕장을 고남면 또는 안면읍 일원에 지정
- 해수욕장 내에는 반려인 의견을 수렴하여 동물 특성에 부합하는 놀이터, 샤워장, 먹이장, 화장실 등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 설치
- 서피, 바나나보트, 카누·카약 등 반려동물과 함께 가능한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153)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전국 591만 가구에서 반려동물 856만 마리 키운다', 2020.04.29.일자.

- 단, 반려동물 유기에 대비하여 입장객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신상 기본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획득 불가피

#### >> 해수욕장 주변지역에 반려동물과 숙식이 가능한 숙박시설 등록 및 홍보, 관상어 전시관 등 설치를 다양한 편의 제공

- 반려동물 지정 해수욕장 주변의 펜션업자와 연계하여 반려동물과 숙식 가능한 숙박시설(펜션 등)을 지정·등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홍보강화
- 해수욕장 주변에 관상어 전시관을 설치하여 관상어에 대한 관광객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관상어 분양사업을 통한 주민소득 증진

#### >> 인근 마을주민 및 주변상권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 및 프로모션 추진

- 반려동물 해수욕장 지정을 위해서는 인근 마을주민들의 양해와 협조가 절실하므로 주민들에게 사업의 취지를 적극 설명하고, 이를 통한 수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 체계 구축
- 주변 상권과의 협조를 통하여 반려인들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향후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해변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를 통한 소득사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가능

#### >> 원북면 학암포·구례포 해수욕장을 스마트 해수욕장으로 개발

- 천혜의 깨끗하고 깊고 푸른 바닷물을 간직하고 있는 학암포·구례포 해수욕장을 해양레저와 첨단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해수욕장으로 개발
-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바나나보트, 윈드서핑, 수상스키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서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북부권 명소로 육성
- 학암포의 깊고 푸른 물을 배경으로 동해안의 서피비치와 같은 이국적인 느낌의 해수욕장의 이미지 발굴
- 전자결제시스템 및 웨어러블 장비 등을 통한 스마트 해수욕장 지향<sup>154)</sup>

#### >> 이원면 만대항을 공유 해양레저 모빌리티 단지로 조성

- 만대항이 2020년 어촌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소형 선박계류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해양레저 모빌리티 운영 기반 마련
- 또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sup>154)</sup>에 따라 관광객 증가에 따른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제공 필요

154) 김종화 외(2018), 서천군 해양산업 발전 기본계획, 충남연구원, 이하 동일

- 해양레저 모빌리티는 일반 관광객이 손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로서 관광객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수익창출 가능
- 해양레저 모빌리티를 개인소유가 아닌 관광객에게 일정시간 대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공유 경제 측면에서 접근하고, 향후 관련산업 발전여부에 따라 부대시설(편의, 경정비, 숙박 등) 설치여부 고려



〈그림 4-58〉 공개토 신해양관광 위치도

## 기대효과

### ≫ 국도 77호선, 38호선 확장 및 광개토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의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 보령(대천, 원산도), 서산(대산)과의 지리적 접근성 향상을 통한 새로운 관광시장을 창출하고,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이 신관광산업 육성
- 지역 내에서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 ≫ 국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태안의 이미지 강화

- 반려인구가 약 1500만 명으로 예상되는 시장을 새로운 사업아이템으로 선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특색있는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입 촉진
- 국민의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태안군의 위상을 확립하여 국민에게 쉼과 치유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해양도시의 이미지 구축

### ≫ 태안 남·북부권 신해양관광 거점을 조성하여 균형적인 발전 견인

- 원산안면대교(솔빛대교), 가로림만 해양정원, 해수욕장 개발 등을 통하여 태안 남·북부권의 새로운 해양관광 수요를 개발함으로써 태안군 관내의 균형발전 선도

## 3) 가로림만 ‘물의 도시’ 프로젝트

### 프로젝트 배경

### ≫ 가로림만은 높은 생물다양성 보전한 천혜의 灣이고, 부남호는 간척사업 일환으로 건설된 부남호 방조제에 의하여 천수만과 분리된 담수호<sup>155)</sup><sup>156)</sup>

- 가로림만은 해양생물 다양성이 높은 청정갯벌을 유지하고 있어 생태관광 최적지로 평가되며 환경을 배려하는 최신 관광트렌드 부합
- 부남호 남·북으로 기다란 형태이며 폭은 2~3km이고, 길이는 약 13km 정도이고, 면적은 1,021ha<sup>157)</sup>이고, 담수호 수질이 6등급으로 농업용수로 부적합

155) 권영주 외(2020), 천수만 부남호 하구복원 사업의 경제성 분석, 환경정책 28(1), 163-183.(이하 동일)

156) 충청남도(2017), 가로림만권역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연구. 인용하여 작성(이하 동일)

157) 원자료 : 환경부(2018), 지하수조사연보,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충청남도(2019), 천수만권역 종합발전전략 수립 연구, 충남연구원.



≫ 가로림만 해양정원, 부남호 해수유통 등 주요 해양환경사업으로 태안·서산 지역의 큰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 예상

- 가로림만 해양정원으로 2030년까지 지역 일자리 2천여개, 생산유발효과 4,588억 원, 관광객 연 413만 명 예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sup>158)</sup>
- 부남호 해수유통으로 2030년까지 일자리 15,000개 창출, 생산유발효과 16조8천억 원, 관광객 연 8백만 명 유치 가능<sup>159)</sup>
- 국가정원과 해수유통 등의 사업을 기반으로 해양환경을 테마로 하는 MICE 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 가능

≫ 가로림만 해양정원, 부남호 해수유통 등 굵직한 해양환경 정책사업 추진 중이며, 향후 경제적 파급효과 클 것으로 예상

- 가로림만 해양정원으로 2030년까지 지역 일자리 2천여개, 생산유발효과 4,588억 원, 관광객 연 413만 명 예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sup>160)</sup>
- 부남호 해수유통으로 2030년까지 일자리 15,000개 창출, 생산유발효과 16조8천억 원, 관광객 연 8백만 명 유치 가능<sup>161)</sup>
- 또한 가로림만과 천수만을 잇는 굴포운하가 개발될 경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

≫ 최근 국내·외 관광객들의 오버 투어리즘(over tourism)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관심 증가

-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이란 미래세대의 관광기회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동시에 현세대의 관광객 및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sup>162)</sup>
- 태안군이 간직한 천혜의 해양환경·생태 및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가능

## 프로젝트 개요

- 사업기간 : 단기(2021~2035년)
- 사업분류 : 계속

158) 충청남도 업무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159) 충청남도 업무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160) 충청남도 업무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161) 충청남도 업무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162) 최락인(2019),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한 관광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AJMAHS) 9(4), 2019, 349~358.



- 사 업 량 : 4식
  - 가로림만 해양정원, 부남호 해수유통, 굴포운하, 해양환경 컨벤션도시
- 사 업 지 : 태안 기업도시, 가로림만 및 천수만 일대
- 추진주체 :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태안군, 서산시, 민간
- 사 업 비 : 2,448억 원 (※ 굴포운하 조성 비용 제외)
  -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 2,448억 원
  - 부남호 해수유통 : 2,972억 원
  - 해양환경 컨벤션도시 조성 : 2,000억 원

## 프로젝트 내용

≫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새로운 유형의 글로벌 해양생태관광의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복원·보전 및 활용방안 마련

-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지는 명품 생태공간’이라는 비전 아래, 건강한 바다환경(복원), 해양생태관광거점(보존), 지역상생(활용)이라는 방향으로 추진<sup>163)</sup>

≫ 충남도와 태안군, 서산시는 부남호 해수유통을 위한 논리 및 타당성 개발<sup>164)</sup>

- 농업용수로 사용이 부적합한 부남호를 해수유통을 통하여 갯벌로 전환하여 수산업을 육성하고,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 계획
- 지역주민과 협의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논리를 개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추진계획 구상

≫ 중·장기적으로 부남호 해수유통 이후, 천수만과 가로림만을 연결하는 굴포운하 추진 가능

- 고려와 조선 시대 대표적인 토목공사로 꼽히는 굴포운하는 태안·서산 사이에 뱃길(해로)을 내는 대역사였으며, 고려 인종(1134년) 때부터 조선 현종(1669년) 때까지 530여년간 10여 차례나 시도됐지만 끝내 성공하지는 못함<sup>165)</sup>
- 향후 가로림만과 천수만을 잇는 물길, 뱃길을 통하여 우리나라 해양생태관광의 거점으로 육성이 가능하고, 해양관광 및 MICE 산업 유치를 통하여 해양친수도시로서 개발 가능

≫ 가로림만 해양정원과 부남호 해수유통 정책에 발맞춰 해양환경 컨벤션 도시 육성 필요

163) 충청남도(2019), 가로림만 해양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인용하여 작성(이하 동일)

164) 충청남도 업무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이하 동일)

165) 조성민, ‘수에즈운하보다 수백 년 앞선 굴포운하’, 연합뉴스, 2018.2.3.일자.

- 부남호 해수유통 3단계 ‘해양생태도시 조성’에 발맞춰 해양환경을 테마로 하는 해양환경 컨벤션 도시 조성 추진
- 해양환경·생태를 배려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부남호 해수유통을 통한 해양생태복원을 추진한 충청남도 및 태안군의 노력에 대한 당위성 확보

≫ 태안 기업도시 국제비즈니스단지, 상업용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컨벤션 센터를 조성하고, 호텔, 상점가 등 유치를 통한 활성화 추진

- MICE 산업의 근간이 되는 대형 컨벤션 센터를 설립하여 국제행사 유치가 가능한 규모로 추진하고, 고품격 숙박·식사와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호텔 유치하여 국제 관광인프라 구축
- 주변의 해양레저기반 (해양치유센터, 마리나항만, 해양정원,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과 연계한 해양레저·관광 프로그램 개발 가능
- 태안 및 서산 지역의 자연환경, 역사·문화 자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가능
- 서산 대산항, 해미비행장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여객선, 항공기, 크루즈 관광객에게 지역관광자원과 함께 관광서비스 제공 가능

## 기대효과

≫ 가로림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해양보호구역 등 규제구역에 대한 균형적·합리적 이용을 통한 국가 해양환경·생태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기여
- 조력발전소 건립 등으로 갈등을 겪은 가로림만 인근 주민들에게 새로운 대안적 사업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갈등 해소 기여
- 2030년까지 지역 일자리 2천여개, 생산유발효과 4,588억 원, 관광객 연 413만 명 예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sup>166)</sup>

≫ 부남호 역간척을 통한 천수만과 가로림만의 해양생태학적 이용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현재 수질 악화로 농업용수로 가치가 없는 부남호 역간척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으로 새로운 경제활력 제고
- 가로림만 해양정원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한 관광객 유입 효과 가능
- 2030년까지 일자리 15,000개 창출, 생산유발효과 16조8천억 원, 관광객 연 8백만 명 유

166) 충청남도 업무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치 가능<sup>167)</sup>

≫ 공해가 없는 고부가가치 MICE 산업으로 태안의 미래 먹거리 개발

- 공해가 없는 MICE 산업을 통한 태안의 청정이미지를 강화시키고, 가로림만 해양정원과 부남호 해수유통의 상징성을 활용한 해양환경을 테마로 하는 MICE 산업 육성 가능
- 충남 혁신도시의 배후지역으로서 컨벤션 기능을 갖추고 있어 내포신도시의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내포경제권 구축
- MICE의 전·후방산업을 육성으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그림 4-59〉 태안군 ‘물의 도시’ 구상도

167) 충청남도 업무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제5장 관리 및 투·융자 계획

제1절 신해양도시 관리계획

제2절 사업의 우선순위

제3절 투·융자 계획



## 제1절 신해양도시 관리계획

### 1. 신해양 도시브랜드 구축

#### 1) 도시브랜드 필요성

≫ 전 세계 주요 도시는 문화·예술, 관광산업 등을 육성하면서 도시브랜드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

- 뉴욕, 런던, 파리, 로마, 도쿄 등과 같은 글로벌 도시에서 시작된 도시브랜드 전략은 도시의 발전과 함께 도시공간의 가치 증대
- 해외의 선진도시들은 꿈의 도시, 카지노 도시, 예술의 도시, 역사의 도시 등 다양한 테마를 바탕으로 도시브랜드 구축
- 태안의 고유한 스토리와 슬로건을 간결하게 함축시키고, 도시의 품격과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도시브랜드 필요

#### 2) 도시브랜드 및 브랜딩

≫ 도시브랜드의 개념

- 도시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고, 타 도시와 차별화된 해당도시의 특성과 이미지를 상징하는 수단<sup>168)</sup>
- 특정도시가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역사적인 특성, 문화적인 매력, 행정서비스나 다른 도시와 확연히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시의 명칭, 상징물, 디자인 혹은 그 결합체<sup>169)</sup>

≫ 도시브랜딩

- 도시브랜드를 구축해 나가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며, 도시의 모든 유 무형의 요소들을 바탕으로 그 도시의 구성원(공공과 민간부문)들이 협력하여 도시의 이해관계자들이 선호하는 이미지, 제도, 시설 등을 개발 및 개선하고, 이를 외부에 알리고 명확히 인식시켜 도시의 전체적인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sup>170)</sup>

168) 부산광역시 홍보(도시브랜드) HP, 「<https://www.busan.go.kr/pr/ahprbrand>」

169) 부산광역시 홍보(도시브랜드) HP, 「<https://www.busan.go.kr/pr/ahprbrand>」

170) 부산광역시 홍보(도시브랜드) HP, 「<https://www.busan.go.kr/pr/ahprbrand>」

### 3) 도시브랜드 사례

#### (1) 세계 브랜드 도시 TOP 10

≫ 파리, 런던, 시드니, 뉴욕, LA 등 각 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도시 포진

- Anholt-GfK Roper City Brands Index sm (CBI sm)는 2년 주기로 26개국 3만여 명의 패널을 상대로 세계 50여개국 도시 브랜드 인지도 조사·발표<sup>171)</sup>

	2016 CBI SM 1)	2018 CBI SM 2)
1	Paris (France)	Paris (France)
2	London (UK)	London (UK)
3	New York (USA)	Sydney (Australia)
4	Sydney (Australia)	New York (USA)
5	Los Angeles (USA)	Los Angeles (USA)
6	Rome (Italy)	Rome (Italy)
7	Berlin (Germany)	Melbourne (Australia)
8	Amsterdam (Netherlands)	Amsterdam (Netherlands)
9	Melbourne (Australia)	San Francisco (USA)
10	Washington DC (USA)	Berlin (Germany)

〈그림 5-1〉 세계 브랜드 도시 TOP 10

자료 : 네이버 블로그, LOD\_Life of Desire, 「<https://m.blog.naver.com/>」

- 세계 명품도시들은 각자의 개성과 정체성을 살린 이미지를 활용하여 도시브랜드로 활용
  - 파리 브랜드 로고는 범선 심볼을 모티브로 변화해 왔으며, 현재의 프랑스 디자인 회사 Carrenoir에 의하여 더 단순하고 명확한 로고 탄생<sup>172)</sup>
  - 시드니 브랜드 정체성은 해변, 숲, 산, 도시의 불규칙한 자연환경, 인구 중 30% 외국인이라는 시드니의 특징을 10가지 색상과 방사형으로 뿜어나가는 호로 표현<sup>173)</sup>
  - 로마 브랜드 로고는 도시 내·외부를 연결하고 알리는 관계형 심볼을 5개의 원형 컬러로 표현하고 로마 인장에 함께 적용하였으며, 5개 심볼은 로마가 제공하는 모든 가능성을 탐구하는 역동성 표현<sup>174)</sup>

171) 네이버 블로그, LOD\_Life of Desire, 「<https://m.blog.naver.com/>」

172) 네이버 블로그, LOD\_Life of Desire, 「<https://m.blog.naver.com/>」

173) 네이버 블로그, LOD\_Life of Desire, 「<https://m.blog.naver.com/>」

174) 네이버 블로그, LOD\_Life of Desire, 「<https://m.blog.naver.com/>」



- 멜버른 브랜드 로고는 멜버른의 첫 글자 'M'을 모티브로 다양한 색상과 적용 가능한 다양성을 강조한 유연한 디자인 로고<sup>175)</sup>



〈그림 5-2〉 파리, 시드니, 로마의 도시브랜드

자료1 : 네이버 블로그, LOD\_Life of Desire, 「<https://m.blog.naver.com/>」

자료2 : canny(Tony Hardu), 「<https://www.canny-creative.com/city-branding-examp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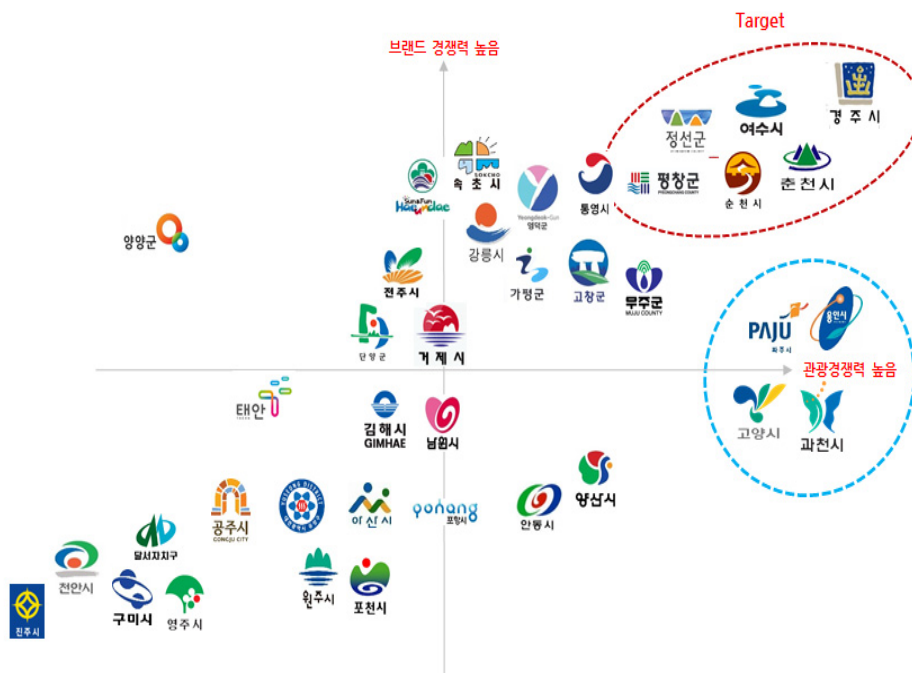
## (2) 국내 도시브랜드 경쟁력

≫ 도시브랜드 경쟁력은 경주시, 여주시, 춘천시, 정선군, 순천시, 평창군 순<sup>176)</sup>

175) canny(Tony Hardu), 「<https://www.canny-creative.com/city-branding-examples/>」

176) 태안군(2019), 태안군 브랜드 가치분석 용역 (원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서울시립대학교 공감센터 조사)

- 브랜드 경쟁력이 높은 곳이 경주시, 여주시, 정선군, 춘천시, 순천시, 평창군, 속초시, 통영시, 영덕군 등
- 관광 경쟁력이 높은 곳은 용인시, 과천시 파주시, 고양시 등
- 우리나라 동·서를 대표하고 여건이 비슷한 양양군과 태안군을 비교하면 태안이 관광 경쟁력이 높지만, 브랜드 경쟁력은 양양이 높음



〈그림 5-3〉 국내 관광도시 브랜드 및 관광 경쟁력 비교

자 료 : 태안군(2019), 태안군 브랜드 가치분석 용역

원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서울시립대학교 공감센터 조사

## 2. 주민참여 및 공감대 형성

### 1) 공감대 형성

#### >> 신해양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중요

- 신해양도시 정책추진의 원동력을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구축
- 태안군내 다양한 주체(연령, 성별, 직업 등)가 신해양도시의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때 정책의 성공가능성 제고
- 지역의 공감대는 주민들의 참여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시너지효과 창출

#### >> 신해양도시 추진을 위한 다양한 주민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 태안군이 운영하는 혁신대학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주민교육 실시
- 신해양도시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는 정책홍보 자료(정책설명자료, 팸플릿 등) 제작
- 신해양도시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소셜미디어(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대군민·대국민 홍보 강화
- 신해양도시로서 태안의 매력을 발산하여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자료 발간 및 홍보 강화

### 2) 주민 참여

#### >> 신해양도시 지구계획 수립을 통한 주민들의 정책 참여기회 제공

- 각 읍·면 주민자치회를 활용하여 신해양도시 취지에 부합하는 신해양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견 반영
- 신해양도시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상향식 해양정책 추진
- 각 읍·면별 지구계획은 주민·전문가·태안군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수립

#### >> 신해양도시 주민총회의 운영을 통한 군민의 참여 확대

- 신해양도시 조성의 주체를 태안군민으로 하기 위한 주민총회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의견 수렴 및 반영
- 民·官 협력을 통하여 태안군이 신해양도시로의 발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 >> 지역대학과 연계 및 청년층의 정착을 통한 매력적인 신해양도시 조성

- 지역대학과의 적극적인 연계·협력을 통하여 해양분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
- 신해양도시를 통하여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태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도시로서의 변화 모색

### 3. 신해양도시 조직체계

#### 1) 태안군 조직현황

≫ 태안군 조직은 2국, 2관, 18과, 2직속기관, 2사업소, 8읍·면사무소로 구성

- 국(局) : 행정안전국, 산업건설국
- 관(官) :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 과(課) :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복지증진과, 가족정책과, 재무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신속민원처리과, 주민공동체과, 농정과, 환경산림과, 경제진흥과, 수산과, 해양산업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 직속기관 :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 사업소 : 상하수도센터, 환경관리센터
- 읍면사무소 : 태안읍, 안면읍, 고남면, 남면, 근흥면,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 2) 조직체계 구성

##### (1)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태안군은 본청 기준으로 2국, 2관, 18과가 설치되어 있고, 지역의 특성상 해양수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산재

- 태안군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만큼 해양수산, 경제·산업,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음
- 태안군 조직 내에서 해양수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부서는 전략사업담당관실, 관광진흥과, 해양산업과, 수산과, 주민공동체과로 해양수산 관련 다양한 업무 수행
  - 전략사업담당관 : 해양헬스케어, 해양치유센터 건립, 해안케이블카 설치, 학암포 중심 복합관광개발사업,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조성 등
  - 해양산업과 : 해양산업, 해양항만, 해양환경, 유류피해지원 등 해양관련 전반적업무 수행

- 수산과 : 수산정책, 수산산업, 어업지도, 수산자원, 수산기술 등 수산관련 전반적 업무 수행
- 관광진흥과 : 해수욕장 운영·관리,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 영목항 해양관광거점 및 만리포관광지 조성 등
- 주민공동체과 : 어촌뉴딜 300 사업 추진 및 운영

≫ 충청남도는 미래의 먹거리를 해양에서 찾고자 2013년 해양수산물국을 신설하고 국가 프로젝트 차원의 해양정책 추진

- 충남도 및 연안시·군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부남호 해수유통, 해양치유산업, 해양바이오산업 등을 추진하여 미래 먹거리 발굴
- 충남도가 추진하는 해양관련 역점사업 중 대부분을 태안군에서 추진되면서 도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
- 충남도의 미래 먹거리가 태안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태안군이 충남경제의 핵심(core)으로 성장 가능

≫ 태안군이 환황해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충남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공간중심의 해양산업 육성 필요

- 태안은 서해안을 대표하는 해양관광의 중심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있기때문에 지역의 해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해양신산업(해양치유, 해양관광 등) 육성 필요
- 지역대학,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양경제·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

### 3) 신해양도시 조직체계

≫ 태안의 지리적 특성 및 조직체계를 감안한 비상설 신해양도시 TF팀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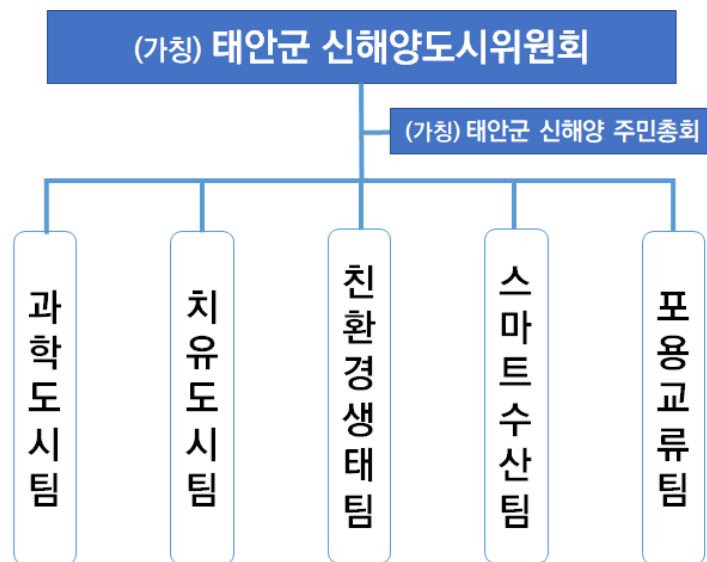
- 전문적인 지식과 행정능력이 필요한 해양수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郡내 해양 담당부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해양도시 TF팀을 신설·가동
- 해양관련 전문지식과 행정·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해양관련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공모사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전문가집단 구축
- 태안군 공무원의 전문 행정역량과 지역·해양 전문가의 지식을 바탕으로 신해양도시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실천사업 추진

≫ 태안군 신해양도시 추진을 위한 ‘신해양도시 TF팀’ 가동

- 본 연구에서 제안한 5개 도시(영역별) 신해양도시 TF팀을 운영하고, 각 TF팀별로 세부사업을 선

정하여 추진

- ‘(가칭) 태안군 신해양 주민총회’는 신해양도시위원회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제시하는 자문기구의 역할 수행
- 각 TF팀별로 관련 전문가를 섭외하여 실천적 과제를 수립하고, 매년 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 제공
- 특히, 국가(범부처)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추진 필요



〈그림 5-4〉 (가칭)태안군 신해양도시위원회 조직도

## 제2절 사업의 우선순위

### 1. 우선순위 원칙과 방법

#### 1) 우선순위 선정원칙

≫ 태안군 신해양도시 조성을 위하여 단기·중기·장기 관점에서 추진해야 되는 세부산업 분류

- 태안군이 신해양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중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을 분류함으로써 실행력 제고

≫ 태안군의 해양수산 역량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신해양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우선 선정

- 연안도시로서 태안군의 해양수산 역량을 진단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신해양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

≫ 태안군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하여 우선순위 선정

- 중요도 : 신해양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
- 시급성 : 신해양도시 조성을 위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하는 사업

#### 2) 우선순위 선정방법

≫ 해양수산관련 전문가 자문받아 중요도, 시급성을 기준으로 IPA (Important-performance analysis)를 응용하여 실시

- IP분석 중 성과(performance)를 시급성(urgency)으로 대체하여 실시

≫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핵심사업 선정을 위하여 사업의 중요도 및 시급성 설문조사 실시

- 조사대상 : 해양수산 및 지역정책 전문가, 태안군 공무원 및 주민들
- 조사기간 : 2021년 3월 9일 ~ 4월 5일(28일간)
- 조사방법
  - 전문가 및 공무원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중요도 및 시급성 평가
  - 태안군 주민들 :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중요도 평가(지역신문 홍보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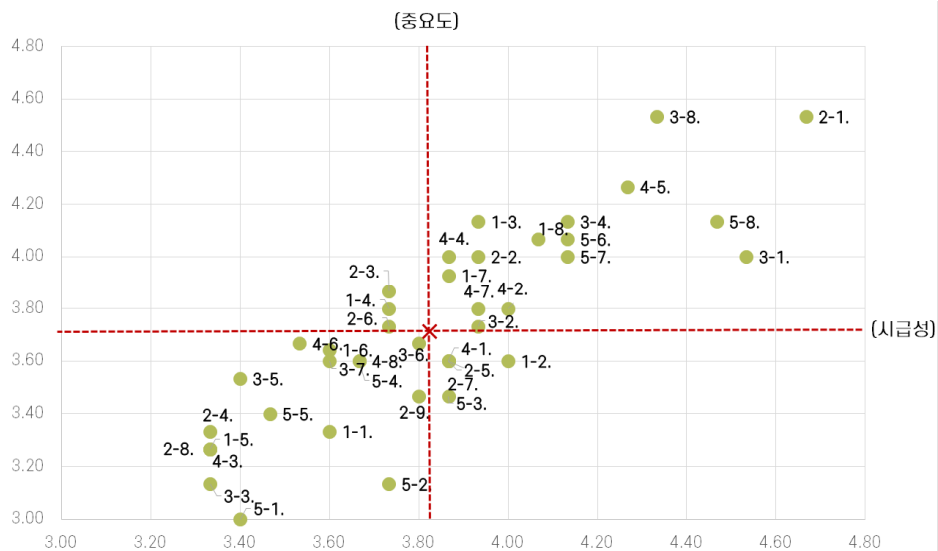
- 표본 수 : 119명
  - 전문가 : 15명 / 공무원 : 41명 / 주민 : 63명
- 조사내용
  - 전문가 및 공무원에게 신해양도시 미래비전 구상(안) 41개 세부사업에 대한 중요도 및 시급성을 조사하고 태안군민에게는 중요도만 조사

## 2. 우선순위 분석결과

### 1) 중요도 및 시급성 분석

≫ 해양수산 및 지역정책 전문가들은 태안군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 부여

-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 조성(2-1) : 중요도 4.67, 시급성 4.53
- 해양쓰레기 대응방안 구축(3-8) : 중요도 4.33, 시급성 4.53
- 해양관광형 특화거리 조성(4-5) : 중요도 4.27, 시급성 4.27
- 귀어·귀농 활성화 및 잠재적 인구 유치(5-8) : 중요도 4.47, 시급성 4.13
-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3-1) : 중요도 4.53, 시급도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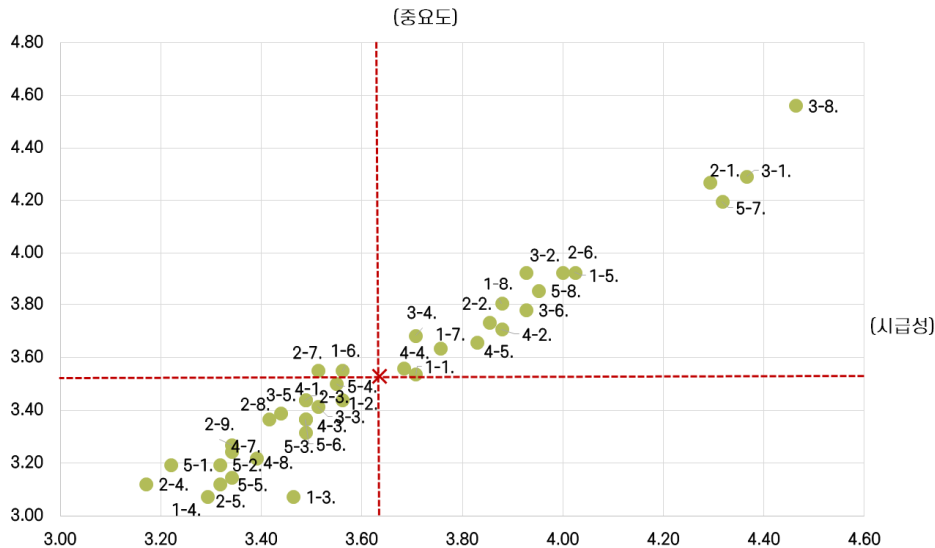


〈그림 5-5〉 해양수산 및 지역정책 전문가 중요도 및 시급성 평가

≫ 태안군 공무원들은 지역 해양 문제를 인식하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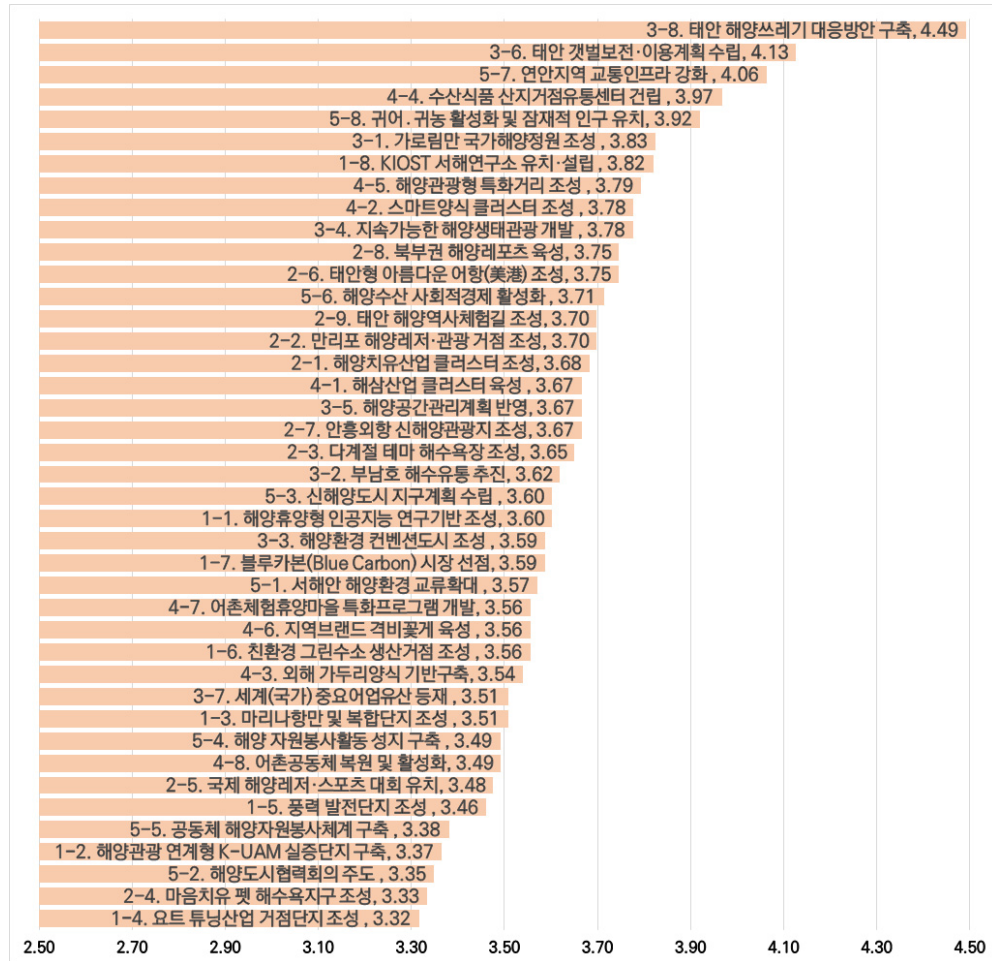
- 해양쓰레기 대응방안 구축(3-8) : 중요도 4.46, 시급성 4.56
- 가로림만 해양정원(3-1) : 중요도 4.37, 시급성 4.29
-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 조성(2-1) : 중요도 4.29, 시급성 4.27
- 연안지역 교통인프라 강화 (5-7) : 중요도 3.95, 시급성 3.85



〈그림 5-6〉 태안군 공무원 중요도 및 시급성 평가

≫ 태안군 주민들은 지역 해양 문제를 인식하면서 주민들의 삶과 관련성이 높은 분야(수산업, 교통인프라, 인구유입)에 높은 중요성 부여

- 해양쓰레기 대응방안 구축(3-8) : 중요도 4.49
- 갯벌보전·이용계획 수립(3-6) : 중요도 4.13
- 연안지역 교통인프라 강화 (5-7) : 중요도 4.06
- 수산식품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4-4) : 중요도 3.97
- 귀어·귀농 활성화 및 잠재적 인구 유치(5-8) : 중요도 3.92



〈그림 5-7〉 태안주민 중요도 평가

## 2) 각 부문별 중요도 분석

≫ 전문가들은 전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모든 설문대상자(전문가, 공무원, 주민)는 모든 산업에서 보통(3점) 이상의 중요도 평가<sup>17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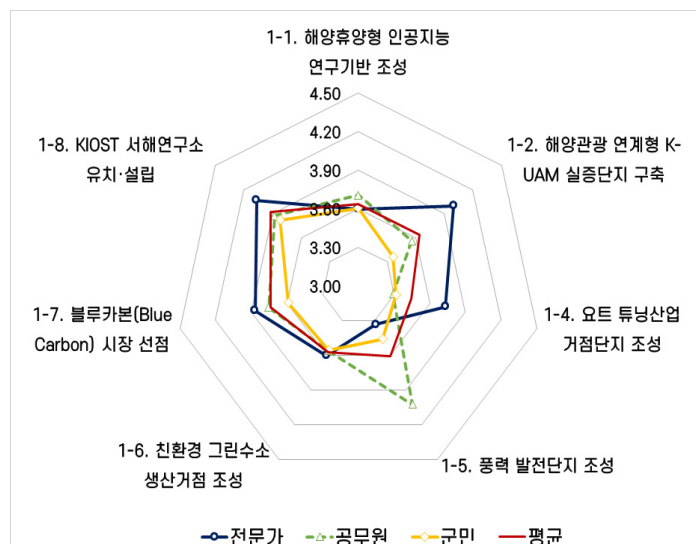
- 해양수산 및 지역정책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평균보다 높은 중요도 부여
  - 특히, 해양관광 연계 K-UAM 실증단지, 요트 튜닝산업 거점단지,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 해삼산업 클러스터,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프로그램, 해양관광형 특화거리, 귀어·귀농 활성화, 사회적경제 육성 등에서 높은 중요도 부여
- 태안군 공무원은 지역의 역점사업에 대한 높은 중요도 부여

177) 여기서 중요도 평균은 전문가, 공무원, 주민들의 각 사업별 중요도 점수(응답자로 평균)를 다시 평균(집단으로 평균)을 낸 것 [예, 각 사업별 (전문가 평균점수 + 공무원 평균점수 + 주민 평균점수) ÷ 3]

- 특히, 풍력 발전단지, 아름다운 어항, 해양쓰레기 대응, 연안 교통인프라 강화 등에 높은 중요도 부여
- 태안주민들은 소득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에 높은 중요도 부여
  - 특히, 북부권 해양레포츠, 아름다운 어항, 해양쓰레기 대응, 갯벌보전·이용계획, 수산식품 산지거점유통센터, 연안 교통인프라 강화 등에 높은 중요도 부여

» 전문가들은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였고, 공무원들은 지역 역점사업에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였으며, 주민들은 그들의 소득향상 및 삶의질 개선에 높은 중요도 부여

- 최첨단 과학도시
  - 전문가들은 풍력 발전단지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높은 중요도 부여
  - 공무원들은 풍력 발전단지에 높은 중요도를 평가하여 전문가 의견과 미스매칭 발생
  - 주민들은 대부분 사업에서 평균보다 낮은 중요도 부여



〈그림 5-8〉 최첨단 과학도시 중요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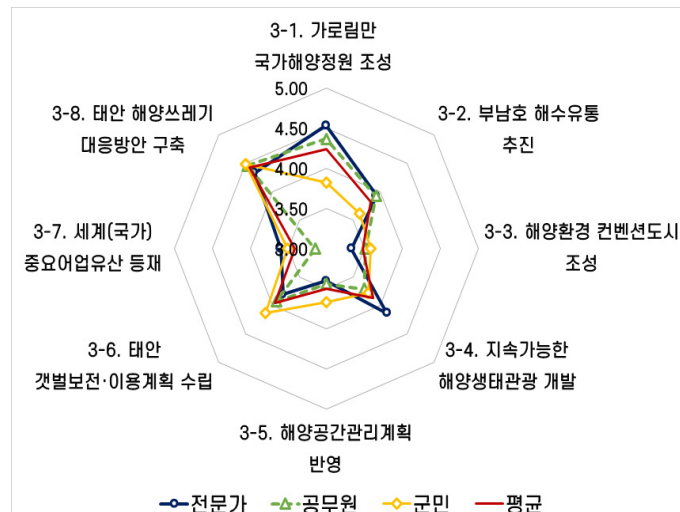
- 건강한 치유도시
  - 전문가들은 북부권 해양레포츠 육성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높은 중요도를 평가하였으며, 특히 해양치유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중요하게 평가
  - 공무원들은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 및 아름다운 어항 조성을 중요하게 평가
  - 주민들은 북부권 해양레포츠 육성을 중요하게 평가한 반면,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는 평균보다 못미쳐, 전문가 및 공무원과 미스매칭 발생



〈그림 5-9〉 건강한 치유도시 중요도 평가

• 친환경 생태도시

- 전문가들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해양생태관광, 세계(국가) 중요어업유산 등재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높은 중요도 부여
- 공무원들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부남호 해수유통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도 역점사업에 대한 높은 중요도 부여
- 주민들은 갯벌보전·이용계획, 해양쓰레기 대응 등 지역 수산업 육성 및 해양문제 해결에 높은 관심으로 중요도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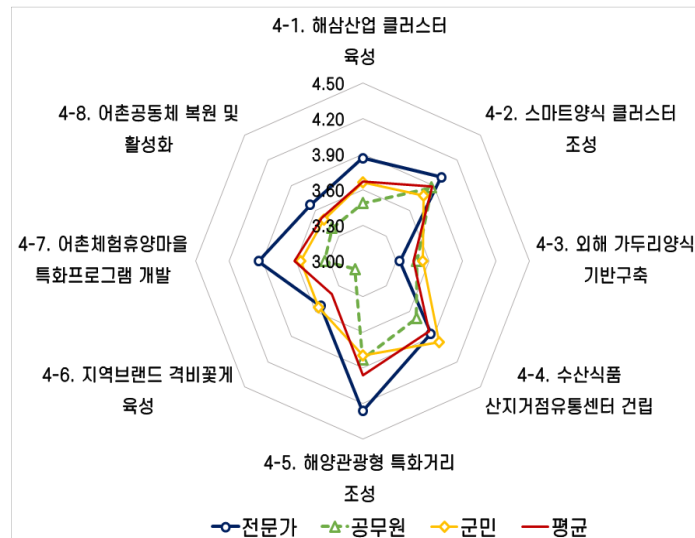


〈그림 5-10〉 친환경 생태도시 중요도 평가

• 스마트 수산도시

- 전문가들은 외해 가두리양식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면서, 특히 해양관광형 특화거리, 여촌체험휴양마을 특화프로그램에 높은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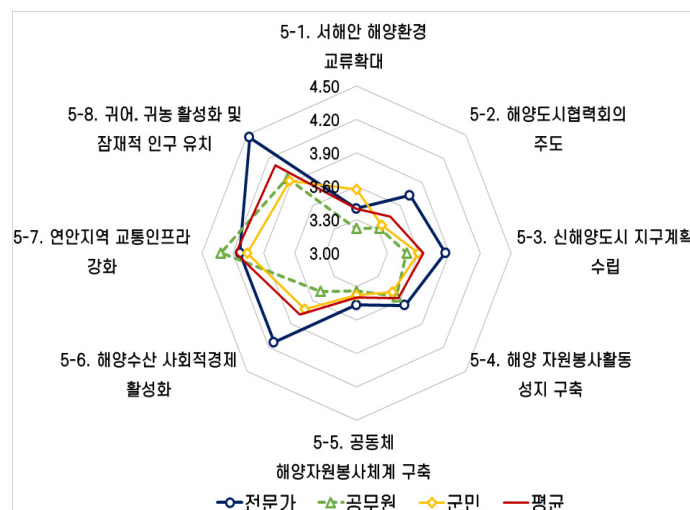
- 공무원들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부남호 해수유통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도 역점사업에 대한 높은 중요도 부여
- 주민들은 갯벌보전·이용계획, 해양쓰레기 대응 등 지역 수산업 육성 및 해양문제 해결에 높은 관심으로 중요도 부여



〈그림 5-11〉 스마트 수산도시 중요도 평가

• 포용적 교류도시

- 전문가들은 서해안 해양환경 교류확대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면서, 특히 귀어·귀농 및 인구유치, 해양수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높은 관심
- 공무원들은 연안지역 교통인프라 강화에 높은 중요도 부여
- 주민들은 대부분 평균과 비슷한 중요도를 부여하였으며, 연안지역 교통인프라 강화에 높은 관심



〈그림 5-12〉 포용적 교류도시 중요도 평가

### 3. 사업별 우선순위 평가

#### 1) 평가방법

≫ 중요도 및 시급성의 평균을 통하여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

- 평균은 전문가, 공무원, 주민들의 중요도 및 시급성 점수(응답자로 평균)를 다시 평균(집단으로 평균)을 낸 것
  - 중요도 : 각 사업별 [(전문가 평균점수 + 공무원 평균점수 + 주민 평균점수) ÷ 3]
  - 시급성 : 각 사업별 [(전문가 평균점수 + 공무원 평균점수) ÷ 2]

≫ 각 부문별 우선순위는 중요도를 기반으로 하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 최첨단 과학도시 : KIOST 서해연구소 유치·설립
  - KIOST 본원의 부산이전에 따른 서해안 연구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서해연구소를 태안에 유치하여 명실상고한 서해안 거점 해양도시로 발돋움
- 건강한 치유도시 :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 조성
  - 현재 조성 중인 해양치유시범센터를 확대·발전시켜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되고, 지역내 치유자원과 융·복합된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 조성
- 친환경 생태도시 :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태안 해양쓰레기 대응방안 구축
  -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 지역의 문제로 대두되는 해양쓰레기에 대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의 해양자원의 깨끗하고 건강하게 이용
- 스마트 수산도시 : 해양관광형 특화거리 조성
  - 국도 77호선 (안면도~원산도~대천) 연결에 따른 서해안 신해양 관광지도에 대비하여 지역의 장점을 살려 관광객 맞춤형 특화거리 조성 추진
- 포용적 교류도시 : 연안지역 교통인프라 강화, 귀어·귀농 활성화 및 잠재적 인구 유치
  - 국도 38호선(이원~대산) 연결을 통하여 북부권 생활권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질 개선
  - 귀어·귀농 정책 및 인구 유치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기반 마련 및 지속가능성 제고

〈표 5-1〉 사업별 중요도 평가

부문명	사업명	중요도	시급성
최첨단 과학도시	1-1. 해양휴양형 인공지능 연구기반 조성	3.64	3.43
	1-2. 해양관광 연계형 K-UAM 실증단지 구축	3.64	3.52
	1-3. 마리나항만 및 복합단지 조성	3.63	3.60
	1-4. 요트 튜닝산업 거점단지 조성	3.45	3.44
	1-5. 풍력 발전단지 조성	3.61	3.60
	1-6. 친환경 그린수소 생산거점 조성	3.57	3.60
	1-7. 블루카본(Blue Carbon) 시장 선점	3.74	3.78
	1-8. KIOST 서해연구소 유치·설립	3.92	3.94
건강한 치유도시	2-1.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 조성	4.21	4.40
	2-2. 만리포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3.83	3.87
	2-3. 다계절 테마 해수욕장 조성	3.62	3.65
	2-4. 마음치유 펫 해수욕지구 조성	3.28	3.23
	2-5. 국제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유치	3.55	3.36
	2-6. 태안형 아름다운 여행(美港) 조성	3.83	3.83
	2-7. 안흥외항 신해양관광지 조성	3.68	3.58
	2-8. 북부권 해양레포츠 육성	3.50	3.32
	2-9. 태안 해양역사체험길 조성	3.61	3.37
친환경 생태도시	3-1.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4.24	4.15
	3-2. 부남호 해수유통 추진	3.83	3.83
	3-3. 해양환경 컨벤션도시 조성	3.48	3.27
	3-4.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관광 개발	3.87	3.91
	3-5. 해양공간관리계획 반영	3.50	3.46
	3-6. 태안 갯벌보전·이용계획 수립	3.95	3.72
	3-7. 세계(국가) 중요어업유산 등재	3.42	3.24
	3-8. 태안 해양쓰레기 대응방안 구축	4.43	4.55
스마트 수산도시	4-1. 해삼산업 클러스터 육성	3.67	3.52
	4-2.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3.89	3.75
	4-3. 외해 가두리양식 기반구축	3.45	3.32
	4-4. 수산식품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3.84	3.78
	4-5. 해양관광형 특화거리 조성	3.96	3.96
	4-6. 지역브랜드 격비꽃게 육성	3.40	3.32
	4-7.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프로그램 개발	3.61	3.52
	4-8. 어촌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3.52	3.41
포용적 교류도시	5-1. 서해안 해양환경 교류확대	3.40	3.10
	5-2. 해양도시협력회의 주도	3.47	3.16
	5-3. 신해양 주민자치역량 강화	3.65	3.39
	5-4. 해양 자원봉사활동 성지 구축	3.57	3.55
	5-5. 공동체 해양자원봉사체계 구축	3.40	3.27
	5-6. 해양수산 사회적경제 활성화	3.78	3.72
	5-7. 연안지역 교통인프라 강화	4.17	4.10
	5-8. 귀어귀농 활성화 및 잠재적 인구 유치	4.11	3.99

## 4. 사업별 추진일정

〈표 5-2〉 사업별 추진일정(1)

부문명	사업명	단기					중기	장기
		'21	'22	'23	'24	'25	'26~'30	'31~'40
최첨단 과학도시	해양휴양형 인공지능 연구기반 조성							
	해양관광 연계형 K-UAM 실증단지 구축							
	마리나항만 및 복합단지 조성							
	요트 튜닝산업 거점단지 조성							
	풍력 발전단지 조성							
	친환경 그린수소 생산거점 조성							
	블루카본(Blue Carbon) 시장 선점							
	KIOST 서해연구소 유치·설립							
건강한 치유도시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 조성							
	만리포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다계절 테마 해수욕장 조성							
	마음치유 펫 해수욕지구 조성							
	국제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유치							
	태안형 아름다운 어항(美港) 조성							
	안흥외항 신해양관광지 조성							
	북부권 해양레포츠 육성							
	태안 해양역사체험길 조성							



〈표 5-2〉 사업별 추진일정(2)

부문명	사업명	단기					중기	장기
		'21	'22	'23	'24	'25	'26~'30	'31~'40
친환경 생태도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부남호 해수유통 추진							
	해양환경 컨벤션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관광 개발							
	해양공간관리계획 반영							
	태안 갯벌보전·이용계획 수립							
	세계(국가) 중요어업유산 등재							
	태안 해양쓰레기 대응방안 구축							
스마트 수산도시	해삼산업 클러스터 육성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외해 가두리양식 기반구축							
	수산식품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해양관광형 특화거리 조성							
	지역브랜드 격비꽃게 육성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프로그램 개발							
	어촌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포용적 교류도시	서해안 해양환경 교류확대							
	해양도시협력회의 주도							
	신해양 주민자치역량 강화							
	해양 자원봉사활동 성지 구축							
	해양 자원봉사체계 구축							
	해양수산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안지역 교통인프라 강화							
	귀어귀농 활성화 및 잠재적 인구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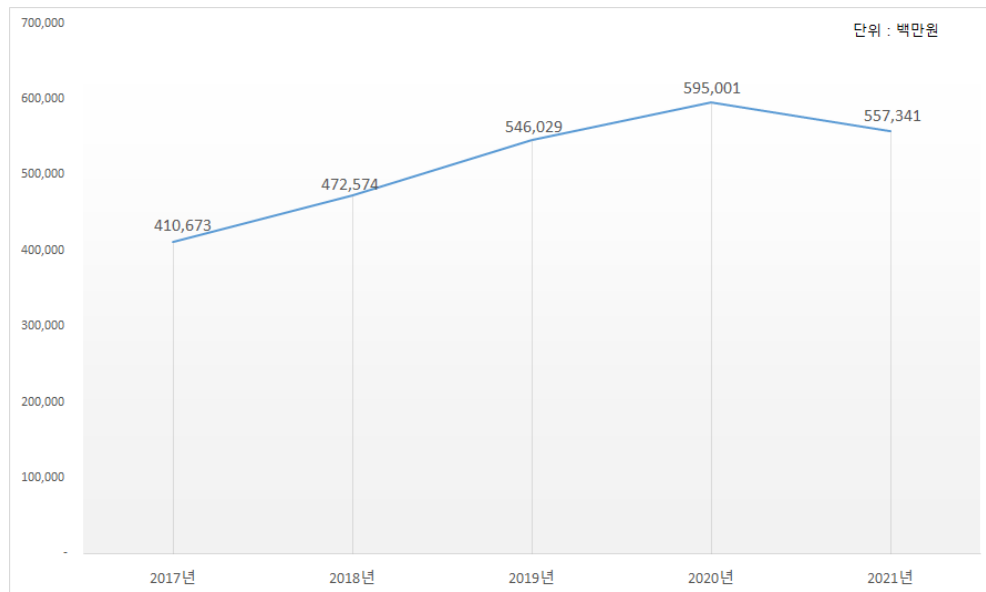
## 제3절 투·융자 계획

### 1. 해양수산 예산현황

#### 1) 태안군 예산현황

≫ 태안군 예산은 매년 증가하였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1년에 감소

- 최근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여 2021년 예산(본예산)은 557.341백만 원으로 35.7% 증가
- 태안군 예산은 2020년 595,001백만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21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
- 태안군 2021년 예산규모는 세입(본예산) 기준으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구성
  - 지방세수입: 43,684백만 원, 세외수입: 43,073백만 원, 지방교부세: 198,728백만 원, 조정교부금 등: 23,700백만원, 보조금: 204,198백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958백만 원
- 2020년 본예산과 추경을 하한 예산 규모는 671,724백만 원으로 본예산과 비교하여 76,723백만 원 증가



〈그림 5-13〉 태안군 예산규모(본예산)

## 2) 태안군 해양수산 예산

≫ 태안군 세출예산(본예산)은 조직별로 본청, 직속기관, 외청, 사업소, 읍·면으로 구분되고, 본청이 85.5%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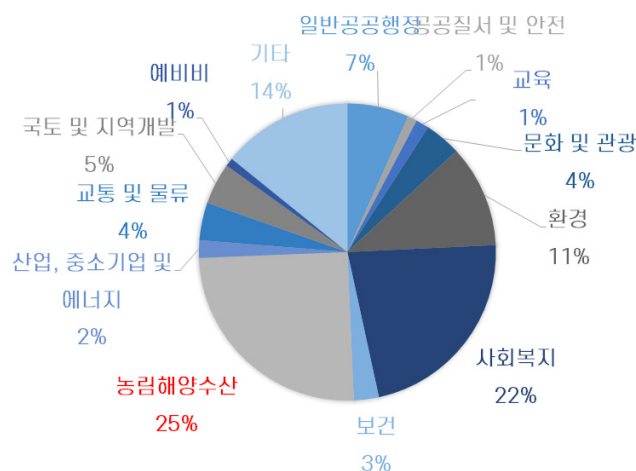
- 2021년 본청은 476,363백만 원, 직속기관 23,359백만 원, 외청 866백만 원, 사업소 48,100백만 원, 읍·면 8,652백만 원으로 구성

≫ 태안군 세출예산(본예산) 기준으로 해양수산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수산과 및 해양산업과 예산은 전체의 11.2% 수준

- 해양수산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해양산업과 예산은 37,410백만 원, 수산과 24,752백만 원 수준
- 주변이 바다인 지리적 특성 상, 해양산업과 및 수산과 외의 전략사업담당관, 관광진흥과, 주민공동체과 등에서도 해양수산관련 일부업무 수행

≫ 태안군 세출예산(본예산)은 기능별로 구분되면 해양수산·어촌은 농림해양수산에 포함

- 세출예산(본예산)은 기능별로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기타로 구성
  -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139,650백만 원이고, 이 중 해양수산·어촌은 61,592백만 원으로 44.1% 차지
  - 해양수산·어촌 예산은 2021년 기준으로 태안군 전체 예산의 11.1% 차지



〈그림 5-14〉 태안군 기능별 예산규모(본예산)

## 2. 투·융자 계획

### 1) 기본방향

≫ 태안군 신해양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투·융자 기본방향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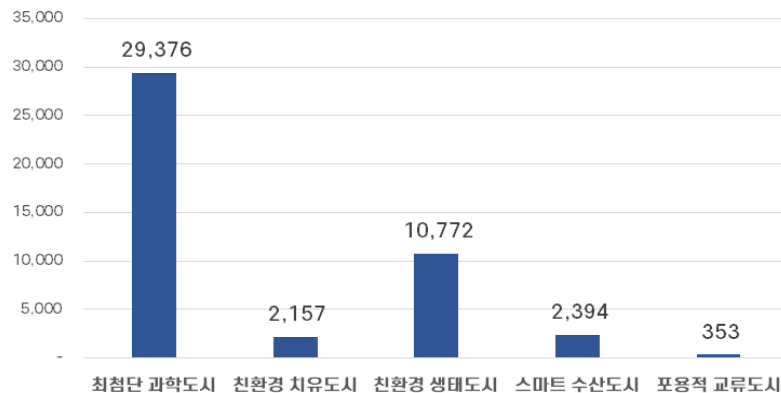
- 투자 우선순위 설정
  - 태안군 해양수산정책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방향과 개발수요를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
  - 국가 차원의 역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자체 개발된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보다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하여 효율성 제고
  - 태안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민 간 갈등소지가 있는 사업은 중·장기 과제로 전환
  - 태안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바탕으로 주민 또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 도출 유도
- 해양수산정책의 방향 및 신해양도시 취지 부합
  - 태안군 해양수산정책과 그 방향성을 일치시키면서 신해양도시 추진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신해양도시는 단기간에 조성될 수 없으므로 중·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의 법·제도적 기반 구축
- 신기술 도입과 융·복합 추진
  - 인공지능, UAM, 친환경수소 등 신기술을 접목한 해양과학기술 육성으로 신해양도시의 미래상 제시
  - 태안군내 문화, 관광, 예술, 환경, 재생 등 타 분야와 융·복합되어 공간적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郡 조직 내 협업 강화
  - 신해양도시 조성이 체계적이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를 포함한 추진조직(TF팀) 마련
- 태안군의 해양수산의 위상과 경제적 수요 고려
  - 서해안권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태안군 위상을 고려하여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 현재 태안군의 해양수산 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郡 내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 부터 우선적으로 추진
  - 태안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 해양정원, 해수유통 등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 충남도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행정력 투입
  - KIOST 서해연구소 유치 및 인공진능진흥원 설립 등을 통하여 서해안권 해양과학기술 거점으로 자리매 김할 수 있는 지역내 역량 강화
- 신해양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 신해양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관점에서 로드맵을 설정하여 단계별로 추진

- 국가단위 공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전문가를 활용한 구체화 및 실현가능성 제고
-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해양수산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창업 기회 제공
- 태안 해양수산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 이용
  - 해양개발 중심의 정책보다는 해양자원을 미래세대에 전달해주는 보전중심의 원칙으로 지속가능성 제고
  - 태안군 내 한정된 해양자원이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배분되고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 마련
  - 해양공간계획 등 해양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태안의 현실을 고려한 신해양도시 정책 수립
  - 태안군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신해양도시 조성으로 군내 주체들간의 갈등 최소화 유도

## 2) 투자계획

≫ 태안군 신해양도시 조성을 위하여 총 41개의 사업(안)이 제시되었고, 예산상으로 총 4조5,052억 원 소요 예상

- 최첨단 과학도시 8개 사업(2조9,376억 원), 건강한 치유도시 9개 사업(2,157억 원), 친환경 생태도시 8개 사업(10,772억 원), 스마트 수산도시 8개 사업(2,394억 원), 포용적 교류도시 8개 사업(353억 원)



〈표 5-15〉 부문별 소요예산(안)

≫ 본 계획의 총 예산 4조5,052억 원 중 연차별 예산은 단기가 34,113억 원으로 가장 많음

- 연차별 예산은 단기(2021~2025년) 34,113억 원(75.7%), 중기(2026~2030년) 7,318억 원(16.2%), 장기(2031~2040년) 3,620억 원(8.0%)
  - 2025년까지 전체 예산의 75.7%가 소요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91.9%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해양산업의 불확실성 상 예산 소요기간의 변동 가능
  - 본 계획에서 단기사업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가로림만 해양정원, 부남호 역간척 등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하드웨어 사업이 주로 포진

〈표 5-3〉 태안군 신해양도시 연차별 예산규모

(단위 : 억 원)

부문명	사업 수	계	단기	중기	장기
최첨단 과학도시	8	29,376	27,195.2	1,760.4	420.4
건강한 치유도시	9	2,157	1,577	380	200
친환경 생태도시	8	10,771.74	3,909.74	3,862	3,000
스마트 수산도시	8	2,394	1,169	1,225	0
포용적 교류도시	8	352.83	262.02	90.81	0
합계	41	45,051.57	34,112.96 (75.7%)	7,918.21 (16.2%)	3,620.4 (28.0%)

주 : ( )는 비율임

≫ 본 계획의 총 예산 4조5,052억 원 중 기타(민자 또는 타 지자체)가 3조4,004억 원으로 가장 많음

- 총 예산 중 국비 7,246억 원(16.1%), 도비 1,750억 원(3.9%), 군비 2,052억 원(4.6%), 기타(민자 또는 타지자체) 34,004억 원(75.5%)
  - 국비는 해양치유 시범센터, 가로림만 해양정원, 부남호 역간척, KIOST 서해연구소 설립 등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비중이 높음
  - 군비는 해양관광형 특화거리, 격비꽃계, 주민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 사업에 집중
  - 기타는 민간자본이 필요하거나 타 지자체의 예산을 사용하는 항목으로, 특히 마리나항만, 해상풍력발전 등 민간자본의 투입이 필요한 부분 포함
- 본 계획에서는 국비와 기타(민간자본)의 비중이 높으므로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郡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필요

〈표 5-4〉 태안군 신해양도시 재원별 예산규모

(단위 : 억 원)

부문명	사업 수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민자 등)
최첨단 과학도시	8	29,376	1,470	315	229	27,362
건강한 치유도시	9	2,157	720	292.5	554.5	590
친환경 생태도시	8	10,771.74	3,792.16	739.72	671.16	5,568.7
스마트 수산도시	8	2,394	1,144	371	401	478
포용적 교류도시	8	352.83	119.83	31.5	196.5	5.0
계	41	45,051.57	7,246.99	1,749.72	2,052.16	34,003.7

주 : ( )는 비율임

» 본 계획은 태안군 신해양도시 조성을 위한 미래수요를 예측한 것이므로, 예상 소요예산의 변동이 클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 관점에서 해당시점에 맞는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 2040년까지 태안군의 세입·세출 및 재정상황에 부합하는 예산편성 필요
-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 및 대내·외 경제연건, 해양산업 발전속도 및 트렌드 변화를 고려하여 적절한 투·융자 계획 변경 필요
-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침체 중이고, 기술 발달의 속도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하여 소요예산 변동가능성 충분
- 태안군의 재정자립도는 12.46%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자체적으로 신해양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郡이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재적소의 예산투입으로 효율성 증대 필요

〈표 5-5〉 태안군 신해양도시 시기별 예산계획

(단위 : 억 원)

부분명	사 업 명	계	단기	중기	장기
최첨단 과학도시	해양휴양형 인공지능 연구기반 조성	634	93.20	220.4	320.4
	해양관광 연계형 K-UAM 실증단지 구축	1,000		1,000	
	마리나항만 및 복합단지 조성	200		100	100
	요트 튜닝산업 거점단지 조성	100		100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26,562	26,562		
	친환경 그린수소 생산거점 조성	540	540		
	블루카본(Blue Carbon) 시장 선점	40		40	
	KIOST 서해연구소 유치·설립	300		300	
건강한 치유도시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 조성	910	610	100	200
	만리포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167	157	10.00	
	다계절 테마 해수욕장 조성	50	50		
	마음치유 펫 해수욕지구 조성	450	430	20	
	국제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유치	100	40	60	
	태안형 아름다운 어항(美港) 조성	130		130	
	안흥외항 신해양관광지 조성	100	50	50	
	북부권 해양레포츠 육성	220	220		
	태안 해양역사체험길 조성	30	20	10	
친환경 생태도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2,448.33	2,448.33		
	부남호 해수유통 추진	2,972	1,110	1,862	
	해양환경 컨벤션도시 조성	5,000		2,000	3,000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관광 개발	156.41	156.41		
	해양공간관리계획 반영	0			
	태안 갯벌보전·이용계획 수립	10	10		
	세계(국가) 중요어업유산 등재	5	5		
	태안 해양쓰레기 대응방안 구축	180	180		
스마트 수산도시	해삼산업 클러스터 육성	1,000	600	400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400	400		
	외해 가두리양식 기반구축	800		800	
	수산식품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60	60		
	해양관광형 특화거리 조성	60	60		
	지역브랜드 격비꽃게 육성	20	20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프로그램 개발	4	4		
	어촌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50	25	25	
포용적 교류도시	서해안 해양환경 교류확대	5	5		
	해양도시협력회의 주도	9	4	5	
	신해양 주민자치역량 강화	4	4		
	해양 자원봉사활동 성지 구축	180	180		
	해양 자원봉사공동체 구축	25	10	15	
	해양수산 사회적경제 활성화	10	10		
	연안지역 교통인프라 강화	29.83	9.02	20.81	
	귀어귀농 활성화 및 잠재적 인구 유치	90	40	50	
계		45,051.57	34,112.96	7,318.21	3,620.40

주 : 단기(2021~2025년), 중기(2026~2030년), 장기(2031~2040년)



〈표 5-6〉 태안군 신해양도시 자원별 예산계획

(단위 : 억 원)

부문명	사 업 명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최첨단 과학도시	해양휴양형 인공지능 연구기반 조성	634	300	30	44	260
	해양관광 연계형 K-UAM 실증단지 구축	1,000	500	200	100	200
	마리나항만 및 복합단지 조성	200	40	20	20	120
	요트 튜닝산업 거점단지 조성	100	20	10	10	60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26,562				26,562
	친환경 그린수소 생산거점 조성	540	290	50	50	150
	블루카본(Blue Carbon) 시장 선점	40	20	5	5	10
	KIOST 서해연구소 유치·설립	300	300			
건강한 치유도시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 조성	910	270	111	159	370
	만리포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167		78.5	88.5	
	다계절 테마 해수욕장 조성	50			50	
	마음치유 펫 해수욕지구 조성	450	120	20	110	200
	국제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유치	100	60	18	22	
	태안형 아름다운 어항(美港) 조성	130	100		30	
	안흥외항 신해양관광지 조성	100	70		30	
	북부권 해양레포츠 육성	220	100	50	50	20
	태안 해양역사체험길 조성	30		15	15	
친환경 생태도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2,448.33	1555.3	350.1	271.5	271.5
	부남호 해수유통 추진	2,972	2,080.4	297.2	297.2	297.2
	해양환경 컨벤션도시 조성	5,000				5,000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관광 개발	156.41	81.5	17.5	57.5	
	해양공간관리계획 반영	0				
	태안 갯벌보전·이용계획 수립	10			10	
	세계(국가) 중요어업유산 등재	5			5	
	태안 해양쓰레기 대응방안 구축	180	75	75	30	
스마트 수산도시	해삼산업 클러스터 육성	1,000	500	190	110	200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400	220	40	60	80
	외해 가두리양식 기반구축	800	400	120	120	160
	수산식품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60	24	9	9	18
	해양관광형 특화거리 조성	60			40	20
	지역브랜드 격비꽃게 육성	20		12	8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프로그램 개발	4			4	
	어촌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50			50	
포용적 교류도시	서해안 해양환경 교류확대	5		1.5	3.5	
	해양도시협력회의 주도	9			4	5
	신해양 주민자치역량 강화	4			4	
	해양 자원봉사활동 성지 구축	180	90	30	60	
	해양 자원봉사공동체 구축	25			25	
	해양수산 사회적경제 활성화	10			10	
	연안지역 교통인프라 강화	29.83	29.8			
	귀어귀농 활성화 및 잠재적 인구 유치	90			90.0	
계		45,051.57	7,245.99	1,749.72	2,082.16	34,003.7

주 : 기타(민간자본, 타 지자체 부담금)



## 참고문헌

### [학술자료]

- 권영주 외(2020), 천수만 부남호 하구복원 사업의 경제성 분석, 환경정책 28(1), 163-183
- 김경태 외(2016), 충남 해수욕장 실태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전략연구, 충남연구원.
- 김수경 외(2018), 펫코노미 시대, 펫 비즈니스 트렌드, Issue Monitor 93, 삼정 KPMG 경제연구원.
- 김종화(2017), 충남 신해양도시 개념 및 육성방안, 충남연구원
- 김종화(2018), 충남 해양산업의 혁신성장 방향, 충남연구원
- 김종화(2018), 서천군 해양산업 발전 기본계획, 충남연구원
- 김충곤 외(2016), 국가지원 해양헬스케어 단지 조성사업 유치를 위한 해양헬스케어산업 육성연구, 충청남도 연구용역
- 김충환(2014), '해양레저와 MICE, 최적의 융복합산업', 요팅매거진 2월호.
- 마창모 외(2020), 2020 수산업 전망 및 정책 이슈(2020 해양수산 전망대회).
- 박상우 외(2020), 어촌사회 동향과 전망 (2020 해양수산 전망대회)
- 서경석(2018), 해양수산 R&D 동향 및 대응과제 (2018 해양수산 전망대회).
- 선우윤정(2018), 중국·일본의 세계중요농업유산 현황과 시사점,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손영준(2020), '신재생에너지의 현재와 미래', 기계저널, 60(2), pp53-56.
- 신동호(2015), 충남 해삼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안, 충남연구원.
- 심우배(2012),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도시재생 사업', 지역과 발전 Vol. 8, 지역발전위원회
- 윤성순(2020), 2020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해양정책(2020 해양수산전망대회)
- 윤정미 외(2021), 태안 안흥외항 경관개선 및 활성화 계획, 태안군 시군협력과제, 충남연구원
- 이상규&탁승문(2005), 수소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POSRI CEO REPORT, 2005-6, 포스코경영연구소
- 이정삼 외(2020), 연근해어업 동향과 전망
- 임두빈&엄이슬(2020), '하늘 위에 펼쳐지는 모빌리티 혁명,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삼정KPMG 경제연구원, Vol 70.
- 장세길(2013), '농업유산, 유산관광 그리고 에코뮤지엄 : 농어업유산의 지역 활성화 연계를 위한 에코뮤지엄 적용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20(4), 한국농촌지도학회, 989-1021.
- 장정인 외(2019), 해양수산업 총산출액, 전 산업 9위, KMI 동향분석 13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전형모 외(2020), '2020 해양수산 과학기술 동향과 전망 (2020 해양수산 전망대회 종합정책)'
- 정기대(2019), '수소경제의 경제적·기술적 이슈: Value Chain 5단계 중심', 포스코경영연구원.
- 조영재·윤정미(201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유지관리 및 유희시설 활용도 제고방안 모색 기초연구, 현안과제 연구, 충남연구원.
- 최락인(2019),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한 관광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AJMAHS) 9(4), 2019, 349-358.
- 최상미 외(2017), 서울시 자원봉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 최병춘(2010), 'MICE 산업 동향 연구', 한국콘텐츠학회지 8(4), 46-53.
- 최지연(2020), '2020 해양수산 지역혁신성장 동향과 전망 (2020 해양수산 전망대회 종합정책)'

최희정(2020), 해양공간 이슈와 전망 (2020 해양수산전망대회)

홍장원(2019), '2019년 해양관광 및 문화 정책방향(2019 해양수산전망대회)

#### [보고자료]

관계부처 합동(2019), 수산혁신 2030 계획.

관계부처 합동·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위원회(2020),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국토교통부(2020),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경기관광공사(2017), 경기 MICE 중장기 육성방안 (2017~2021)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생활체육조사.

서천군(2018), 서천군 한계마을 실태분석 및 유형별 정책 대응방안

충청남도(2015), 서해안비전 추진계획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업발전계획

충청남도(2016), 충청남도 어업·어촌 중장기 발전전략

충청남도(201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유치 타당성 개발 및 설립방안

충청남도(2017), 가로림만권역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연구

충청남도(2018), 충청남도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충청남도(2019), 천수만권역 종합발전전략 수립 연구

충청남도(2019), 천수만 하구환경 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부남호 하구(갯벌)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충청남도(2019), 가로림만 해양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충청남도(2020), 제2차 도종합계획 연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2020), 충남 해양문화 원형 및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

태안군(2014),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

태안군(2019), 태안군 브랜드 가치분석 용역

태안군(2020), 2035년 태안군 기본계획

태안군(2020), 신해양 공개토사업 (2020~2022).

태안군(2021),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한국관광 회고와 향후 전망」, 2020,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위한 문화관광콘텐츠분야 회고와 전망

해양수산부(2014),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해양수산부(2016),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해양수산부(2018),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안)

해양수산부(2020),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해양수산부(2020),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

KMI(2020), 2020 해양수산전망대회

## **[통계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충청남도(2019), 제59회 통계연보.

충청남도(2018), 2017 제57회 통계연보.

태안군(2019), 30회 통계연보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9), 2019 수산해양환경통계

태안군 홈페이지 「<https://www.taeon.go.kr>」

한국마리나협회 마리나포털, 「<http://www.marinaportal.kr/rb/?c=1/6>」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

OECD(2016), 'The Ocean Economy in 2030'

싱가포르 관광 HP, 「<http://www.visitsingapore.com>」

EDUNET T-CLEAR, 「<http://www.edunet.net>」



## 연구진 및 자문위원

연구기관 충남연구원 (www.cni.re.kr)

연구책임 이민정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종화 강원대학교 교수

연구진 신동호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정미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영재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승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김경태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김양중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김형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윤종주 충남연구원 전임연구위원  
이 샘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민준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전지훈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강수현 충남연구원 연구원  
송민정 충남연구원 연구원  
송영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연구자문 김철웅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박창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  
서문성 금강대학교 교수  
이승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  
최지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 태안군 신해양도시 미래비전 연구

최종보고서

2021. 04.

---